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정책·사업 실태연구

강소랑 정혜윤 송창용 최일선 유선치 임승연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정책·사업 실태연구

강소랑 정혜윤 송창용 최일선 유선치 임승연

책임연구원 _____ **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정혜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공동연구원 _____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일선.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촉연구원 _____ **유선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임승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요약

□ 연구개요

○ 연구목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50+정책·사업, 기업 및 민간단체의 50+지원 사업, 해외 50+정책 및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 50+정책 및 사업 기획, 발전 방향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연구방법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및 추이분석: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시 추계인구, 사회조사 등을 활용한 2차 통계분석
- 50+정책에 대한 주요 문헌 연구: 중앙정부의 중장년 대상 정책 기본계획, 장년고용종합대책 등 50+관련 시책 검토, 지자체의 50+지원 조례와 50+지원정책 및 사업 고찰, 기업 및 민간단체의 50+지원 프로그램 고찰 등
- 국외 50+정책·사업 사례분석: 미국, 독일, 일본 등 사례분석을 위해 2차자료 및 주요기관, OECD, 해외유수 연구기관 자료의 활용, 『서울50+해외통신원』 이 조사한 해외사례 활용

□ 주요 연구결과

○ 국내 50+정책·사업

- 2010년 이후 베이비붐세대 대량 퇴직의 사회적 현상이 부각되면서 베이비붐세대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한 범 정부차원의 정책 대응이 본격화되기 시작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1차 계획에서 지연되었던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과제가 추진되었고, 고용노동부의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12~2016), 장년고용종합대책(2014) 등에서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취업지원, 장년친화적 일터환경 조성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
- 서울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2013년)하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년 4월)하였으며, 지원대상 연령층을 50세 이상 65세 미만 즉, 50+세대(50~64세)로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을 추진
- 2016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생이모작지원사업을 도입·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정부의 신중년재충전센터설치 발표(2017.6.) 및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 발표(2017.8.) 등으로 50+정책사업의 추진은 더욱 가속화
- 최근 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에 선정(2017.9.28.)된 서울시 50+정책의 성공요인은 50+당사자주도형 사업, 50+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제공, 50+당면과제 상담(50+세대인 50+컨설팅 상담)→교육(차별화된 교육, 맞춤 지원)→일·활동·여가로 연결되는 체계적 지원시스템 등으로 볼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50+정책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50+유관기관들 간의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을 위한 관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중앙정부	공통 사항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 지원 정책 확대(2010년 이후) 일자리 정책 방향 –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 확대 중장년 직접일자리사업 예산 비중 낮음 (6.0%) 풀리텍 대학을 중심으로 중장년 특화과정 확대 예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 중장년상담창구 입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설계 지원 확대(40세 이상) 워크넷 –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완료 예정(2020년) 노후준비자지원 기본계획 : 40세 이상(전직), 50세 이상(사회공헌), 60세 이상(문화여가)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 일자리창출 가점 평가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발표 	<p>장년층 연령 표현 혼재</p> <p>정책(복지) 서비스 범위 확대</p> <p>원스톱 서비스화</p> <p>새정부, 신중년/지방분권 발표</p> <p>지역맞춤형 정책 추진</p> <p>국내 50+ 정책 및 사업 주요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전국 50+정책 및 지원사업 선도 각 지자체 인생이모작 조례 제정 및 센터 설립 추세 (조례-서울, 대전, 충남, 부산, 경기, 전북, 광주, 제주 등) 센터-서울, 대전, 부천, 충남, 부산, 대구수성구, 광주광산구) 전국적으로 유사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수행 대다수 지자체 - 50+세대 지원 사업 전담 부서 부재 50+세대의 정신건강 및 고독사 예방 관심 확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 은퇴 장년층 고용 활성화 여가/교육 관련 평생교육기관 전국 4,153개 각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여가/교육 지원(전국 3,503개)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등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온라인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설계 및 전직지원프로그램 – 일부 대기업 운영 ⇒ 전체 대기업 의무화, 중소기업 찾아가는 서비스(‘18년) 금융기관 은퇴설계프로그램 활성화 - 재무 + 비재무 (하나, 국민, 신한, 기업, 우리은행, 농협, 삼성증권 등) 전직지원서비스 전문기업 – 민간/공공 부문 대행 대기업 업종 특성 반영 창업 지원 - 45세 이상 (SK텔레콤-ICT창업지원, CJ푸드빌-의식창업지원, 유한킴벌리-시니어 제품/서비스 소기업 창업지원 등) 조기 퇴직 현상 반영 - 40대 이상 지원 프로그램 다수 민간단체 시니어 지원 사업 – 2012년 전후 활성화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사회공헌/교육/여가/커뮤니티 지원 등) 	<p>전 연령 대상 유사사업 수행 기관(센터) 다수 (일자리/여가 등)</p> <p>50+전담 지원기관 소수</p> <p>일자리창출 어려움</p> <p>사회적경제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년층 전담 지원 기관 소수 (서울시50+재단/캠퍼스/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전국 32개, 만 40세 이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중장년센터 입점) : 전국 75개 고령자(장년)인재은행 : 전국 46개, 만 50세 이상 시니어클럽 : 전국 138개, 60세 이상 시니어기술창업센터 : 전국 23개, 만 40세 이상 등 전 연령 대상 유사사업 수행 공공센터 다수 분포(전국적) 취업지원센터 전국 762개/서울 106개 창업지원센터 전국 143개/서울 26개 노후준비지원센터 전국 217개/서울 28개 여가·교육·사회공헌 지원센터 전국 1503개/서울 272개
기업 및 민간단체	공통 사항	50+유관기관

국내 50+ 정책·사업 종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및 민간의 생애설계서비스 확대 ⇒ 인생설계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 방안 마련 (1회성 교육이 아닌 실제 생애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연계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정책(복지) 서비스 범위 확대 ⇒ 50+세대(50~64세) 중점 지원, 세대통합 및 40대, 65세 이상 연계 지원 방안 모색 일자리창출 어려움, 새정부 일자리 로드맵에 일자리 창출시 가점평가 확대 ⇒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추진 필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교육 및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검토, 민간협력 추진 및 타 창업지원 기관과 연계방안 마련 새 정부, 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 및 지방분권화(지방정부) 추진 예정 ⇒ 지방정부 50+지원 정책 선도기관으로서 역할 정립 필요 * 민관학연(정부, 타지자체, 기업 및 민간단체,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의 연계 체계 구축 및 50+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여가/문화/교육 지원기관 전국 수천여개, 취업 및 창업 지원기관(센터) 전국 전여개, 신중년재충전센터 전국 200여개 설치예정 ⇒ 50+유관기관의 연계방안 마련,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강화 50+전담 종합지원기관은 50+캠퍼스/센터가 유일 (복합문화공간 및 커뮤니티 제공, 50+세대 당사자 주도) 50+지원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50+당사자 주도 사업 확대

○ 국외 50+정책사업

(1) 미국: Workforce Investment Program (고용촉진 프로그램)

- o 수요자 중심과 지역 중심 원칙
- o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지원, 즉 교육 및 훈련기회 소개, 커리어 상담, 일자리 검색 등을 제공
 - 고용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강조
 - 전반적인 고용촉진에 중점을 둠
 -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에 대한 고려를 강조
 - 지역의 필요성 충족을 위하여 통합된 시스템 및 원스톱 서비스 개발

(2) 독일: Perspective 50+

- o 독일의 중장년 인력에 대한 고용촉진방안
 - 연방고용청(BundesArbeitsagentur für Arbeit)은 실업 방지를 위해 노조와 기업체의 협조를 통한 기업체 내의 고용알선 추진체를 구성하고, 근로 상담 지도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전직·해고 대상자가 구직이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에서 운영되는 고용업체들이 고용알선활동을 통해 기업체들의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고용희망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
 - 구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과 기업체 내의 견습훈련 강화로 장기적인 노동 시장 적응력과 생산성을 높임
- o Perspective 50+는 독일 연방노동사회부가 2005년부터 시작한 정부주도의 고용 촉진프로그램
 - 산학연 3자 협력
 - 지역의 50세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방노동사회부와 연방차원의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문회사가 공동으로 참가해 전문적 상담을 실시하는 등 연령대에 맞는 개별화된 컨설팅을 제공

(3) 영국: Age Positive

- o 2001년 시작된 장년층 고용의 이점을 홍보하는 정부주도 캠페인
 - 기업이 앞장서서 장년층 고용에 관한 문화적 변화를 주도한다는 취지
 - 고령 노동자의 채용과 근로에 대한 고용주와 직원들 모두의 인식과 실천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의 시행지침에 부합하는 사례들(Age Positive Champion)로 개인과 기업, 학술기관, 그리고 다양한 사회단체 등을 선정.
 - 정부운영 기업정보 제공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자문을 제공. 자문내용은 정년 폐지 상황에서 고용관리, 교육, 훈련, 근로조건, 안전과 건강 등

(4) 일본: 도쿄 일자리재단

- o 공익재단법인 도쿄일자리재단(公益財団法人東京しごと財団)은 도쿄 도민의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기위해 설립됨
 - 1981년부터 도쿄 내 시정촌(지역행정 기초단위)의 실버인재센터의 업무뿐만 아니라, 도쿄 고령자취업상담소와 고령자취업센터를 관리·운영해 오다가 2004년부터 재단법인 도쿄도 심신장애인직능개발센터와 통합
 - 장애인, 여성, 청소년 층 등 다양한 구직자 층의 취업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 o 도쿄일자리재단의 사업
 - 고령자를 위한 실버인재센터의 사업
 - 장애인의 취업지원
 - 여성, 고령자, 청년층 등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능력개발의 세미나 등을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2016년부터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재확보 및 육성과 고용환경정비의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
- o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도쿄 내 실버인재센터의 사업과 도쿄일자리센터를 통한 고용지원 서비스

- 도쿄일자리재단은 ‘도쿄실버인재센터연합’의 지정을 받아 도쿄 내 58개소 실버 인재센터의 운영을 지원
- 실버인재센터 사업과 관련한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회원의 정보를 집약하여 ‘인재정보뱅크’ 시스템을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복지·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의 확충, 실버인재센터의 회원을 위한 강습 및 임직원을 위한 연수 등을 실시
- 도쿄일자리센터는 도쿄도민의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구직자와 기업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
- 도쿄일자리센터는 ‘청년(34세 이하)’, ‘미들(30~54세)’, ‘시니어(55세 이상)’로 세대를 분류하여 고용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고용·취업지원 사업으로 공공직업안정소에 시니어 코너를 병설하여 고령자 취업상담 및 재취업지원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음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무했던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중소기업 서포트 인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1. 연구 내용의 구성	7
	2. 연구 방법	11
제2장	인구구조·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및 추이 분석	13
	제1절 인구구조 변화	15
	1. 인구추이	15
	2. 인구이동	18
	제2절 경제적 환경변화	19
	1. 전체 노동시장 구조변화	19
	2. 부문별 노동시장 지표	22
	제3절 사회문화의 변화 및 기술 변화	27
	1. 사회문화의 변화	27
	2. 기술변화	38
	제4절 종합	41
제3장	국내 50+정책 및 사업	43
	제1절 중앙정부	45
	1. 일자리 정책 및 사업 방향	48
	2. 장년층 고용 및 창업 지원	62
	3. 노후준비·여가·교육·사회활동 지원	77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업 추진체계	94

제2절	지방자치단체	96
1.	전국 지자체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제정 현황	98
2.	서울특별시의 50+지원 정책 및 사업	104
3.	부산광역시의 50+지원 정책 및 사업	121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50+지원 정책 및 사업	127
5.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135
6.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여가·교육 지원 사업	138
제3절	기업 및 민간단체	142
1.	기업의 50+지원 프로그램	144
2.	민간단체의 50+지원 프로그램	154
제4절	50+세대 지원 유관기관	159
1.	일자리(취업·창업) 지원 기관	162
2.	노후준비·여가·교육 지원 기관	180
제5절	종합	194

제4장	선진 주요 국가의 50+정책 및 사업	199
제1절	각국 정부의 50+지원 정책 및 사업	201
1.	일자리 정책 및 프로그램	201
2.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212
제2절	각국 민간기업 및 단체의 50+지원 사업 및 활동	218
1.	일자리 프로그램	218
2.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229
제3절	영국의 50+관련 기관	235
1.	영국의 50+정책 및 사업 개관	235
2.	전통적인 일자리 지원기관 사례: TEAN	238
3.	일자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사례: NESTA	241
4.	노인교육기관: U3A	246
제4절	일본의 50+관련 기관	251
1.	일본의 50+정책 및 사업 개관	251
2.	전통적인 일자리 지원기관 사례: 도쿄일자리재단과 실버인재센터	254
3.	일자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사례: 고령자협동조합	259
4.	노인교육기관: 고령자대학과 오사카고령자대학	264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270

표 목 차

[표 1-1]	50+세대(50~64세)의 인구비중(2017년 8월말 기준)	3
[표 1-2]	연구의 범위	8
[표 1-3]	50+정책 및 사업 국내 현황 기술 항목	10
[표 2-1]	인구규모와 인구성장	16
[표 2-2]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0)	17
[표 2-3]	서울시 순이동자수	18
[표 2-4]	취업자와 고용률(2016년)	23
[표 2-5]	산업별 취업자 비율(2016년)	24
[표 2-6]	직업별 취업자 비율(2016년)	25
[표 2-7]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2016년)	26
[표 2-8]	서울 시민 근로시간(일주)	26
[표 2-9]	서울시민의 직업선택 요인(1순위)	27
[표 2-10]	서울시 혼인·이혼 건수 및 연령	28
[표 2-11]	서울시 가구주 점유형태	29
[표 2-12]	서울시 가구주의 거처 종류	30
[표 2-13]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	30
[표 2-14]	서울시 연평균 가구 소득	31
[표 2-15]	서울시 가구 소득(유형별)	31
[표 2-16]	서울시 가구 월평균 생활비 지출	32
[표 2-17]	서울시 가구 상위 지출항목 및 비율	32
[표 2-18]	서울시 가구 보유자산 및 자산 구성	32
[표 2-19]	서울시 가구 부채	33
[표 2-20]	서울시민의 문화 및 예술 관람 여부	33
[표 2-21]	서울시민의 문화 및 예술 관람 경험(복수응답)	34
[표 2-22]	서울시민의 문화 및 예술 관람 연평균 횟수(복수응답)	34
[표 2-23]	서울시민의 레저시설 이용 여부	34

【표 2-24】 서울시민의 레저시설 이용 경험(복수응답)	35
【표 2-25】 서울시민의 레저시설 연평균 이용 횟수(복수응답)	35
【표 2-26】 서울시민의 주말, 휴일의 여가 활용(1순위)	35
【표 2-27】 서울시민의 주말, 휴일의 여가 활용(1순위)	36
【표 2-28】 서울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36
【표 2-29】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노후 생활	37
【표 2-30】 서울시민의 노후 준비 여부	37
【표 2-31】 서울시민의 노후 준비 방법	38
【표 3-1】 분야별 일자리 예산 현황 및 중점투자 방향	48
【표 3-2】 2017년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49
【표 3-3】 2017년 중장년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50
【표 3-4】 2017년 노인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51
【표 3-5】 50세 이상 연령대별 재직자 훈련 및 실업자 훈련 참여현황(2015년)	52
【표 3-6】 50세 이상 연령대별 (검정형)자격취득 현황	53
【표 3-7】 고용노동부 장년대상 고용장려금	56
【표 3-8】 연령대별 신설법인 현황	57
【표 3-9】 1인 창조기업 업종별 대표자 평균 연령(2015년)	58
【표 3-10】 정부 및 지자체의 중장년 창업지원 사업	58
【표 3-1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성장지원센터(2017.3.29. 개소) - 창업지원	59
【표 3-12】 40~50대 실업급여 수급인정자	60
【표 3-13】 새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2017.8.8.발표)	61
【표 3-14】 정부부처 합동, '장년고용종합대책'추진 과제(2014)	63
【표 3-15】 정부부처 합동, '장년고용종합대책'추진 성과(2017)	64
【표 3-16】 생애경력설계서비스(고용노동부 장년나침반 프로그램)	65
【표 3-17】 장년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지원사업	67
【표 3-18】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방안'추진 일정(2017.8.8 발표)	69
【표 3-19】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10대 과제(2017.8.9.발표)	70
【표 3-20】 국가일자리포털(워크넷) 개편 방향(2017년)	72
【표 3-21】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0대 중점과제(2017.10.18.발표)	73
【표 3-22】 고용노동부의 장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74
【표 3-23】 제1차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기본계획(2017~2019)	75
【표 3-24】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계획	76
【표 3-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78
【표 3-26】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80
【표 3-27】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 계획(2016~2020)	81
【표 3-28】 중·고령층 대상 일자리 지원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정부부처 합동)	84
【표 3-29】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85
【표 3-30】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86

【표 3-31】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 사업	88
【표 3-32】 무료 온라인 공개 강좌 사이트	91
【표 3-33】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92
【표 3-34】 행정안전부 '2017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93
【표 3-35】 지역별 고령화 속도 추이(2010~2040)	96
【표 3-36】 '인생이모작(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지자체	98
【표 3-37】 전국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현황	100
【표 3-38】 각 지자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업 예시	101
【표 3-39】 전국 지자체 장년층(50+세대) 지원 사업 담당 부서(2017년 7월 현재)	102
【표 3-40】 서울시 50+ 관련 정책 주요 내용	107
【표 3-41】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50+지원 정책 및 사업'	109
【표 3-42】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의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예시	110
【표 3-43】 서울시 자치구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담당 부서(2017년 7월 현재)	112
【표 3-4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112
【표 3-45】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114
【표 3-46】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2017년도)	115
【표 3-47】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 추이	116
【표 3-48】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내용(서울시)	116
【표 3-49】 서울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 및 신직업 창출 프로그램	118
【표 3-50】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현황(2016년)	120
【표 3-51】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생애재설계 지원 종합계획'(2016년)	122
【표 3-52】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2017년)	123
【표 3-53】 부산광역시 장년일자리지원센터	124
【표 3-54】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센터 지원 프로그램	125
【표 3-55】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등록현황(2017년)	126
【표 3-56】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2017년)	127
【표 3-57】 대전광역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128
【표 3-58】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계획	129
【표 3-59】 울산광역시 '내일설계지원센터' 사업 안내	130
【표 3-60】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131
【표 3-6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생이모작지원사업	132
【표 3-62】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생이모작지원사업	133
【표 3-6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인생이모작지원사업	134
【표 3-64】 고용노동부-지자체 지역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우수사례(장년 유관사업)	135
【표 3-65】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2017년도)	137
【표 3-66】 평생교육기관 설치 현황(2016.12.31.기준)	138
【표 3-67】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6.12.31.기준)	140
【표 3-68】 지방자치단체의 50+여가 및 교육 지원사업(2017년도) 예	141

【표 3-69】 기업 및 민간단체의 50+지원 프로그램	143
【표 3-70】 삼성전자의 전직지원 및 생애설계 프로그램	145
【표 3-71】 포스코의 전직지원 프로그램	147
【표 3-72】 KT의 생애설계 프로그램	148
【표 3-73】 국내 주요 금융기관 은퇴설계 프로그램	148
【표 3-74】 전직지원서비스 기업의 프로그램	150
【표 3-75】 SK텔레콤의 'BRAVO! Restart' 지원 프로그램	151
【표 3-76】 유한킴벌리의 창업지원 및 시니어케어 매니저 사업	152
【표 3-77】 CJ푸드빌의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	152
【표 3-78】 유통업체의 제대군인 편의점 창업지원 프로그램 <자료출처>	153
【표 3-79】 상상우리의 종장년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153
【표 3-80】 희망제작소의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	154
【표 3-81】 신나는조합의 시니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55
【표 3-82】 아름다운서당의 교육 프로그램	156
【표 3-83】 함께일하는재단의 시니어지원 프로그램	157
【표 3-84】 사회연대은행 'KDB시니어브리지센터'의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	158
【표 3-85】 50+지원 유관 기관(2017년 8월 기준)	160
【표 3-86】 연구·복지 유관 기관	161
【표 3-87】 고용노동부 지정 종장년일자리희망센터(서울지역)	164
【표 3-88】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고용센터 현황(서울지역)	168
【표 3-89】 한국폴리텍대학 50+세대 훈련 교육과정	186
【표 4-1】 각국의 정년 연장 추세	202
【표 4-2】 WIP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현황	204
【표 4-3】 American Job Center 운영방식 및 세부 프로그램	205
【표 4-4】 Perspective 50+ 운영현황	206
【표 4-5】 New Deal 50+ 참여자 혜택 및 서비스 전달체계	208
【표 4-6】 Age Positive의 내용	209
【표 4-7】 실버인재센터의 주요 사업	211
【표 4-8】 도쿄일자리재단의 사업 및 대상	212
【표 4-9】 SCSEP(시니어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 운영현황	214
【표 4-10】 뮌헨 시민대학 운영 현황	215
【표 4-11】 Ageing Well 프로그램 지원분야	216
【표 4-12】 시니어클럽 운영	217
【표 4-13】 AARP의 주요 프로그램 및 서비스	220
【표 4-14】 Encore.org 연혁 및 주요사업 내용	221
【표 4-15】 SCORE 운영 및 조직현황	223
【표 4-16】 Gründer 50+ 운영현황	225
【표 4-17】 Eastside Primetimers 지원 서비스 현황	226

[표 4-18] REACH 의 2016 사업현황과 대표 서비스	227
[표 4-19] NPO 법인 심포니 운영현황 및 주요사업	229
[표 4-20] Encore U 참여대학	230
[표 4-21] 이니셔티브 50+ 연맹 비전 및 연합회	232
[표 4-22] Age UK 운영 및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	233
[표 4-23] 릴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과정	234
[표 4-24] 고령구직자를 위한 안내서 항목	239
[표 4-25] 인생2막 기금 지원 사례	244
[표 4-26] South Manchester U3A 운영사례	250
[표 4-27] 실버인재센터에서 수행하는 일의 종류	257
[표 4-28] 실버인재센터에서 수행하는 일의 가격표 일부분	258
[표 4-29] 오사카 고령자대학교 프로그램	269

그 림 목 차

【그림 1-1】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인프라 현황	6
【그림 2-1】 인구 피라미드	17
【그림 2-2】 서울시 순이동자수	19
【그림 2-3】 50세 이상 고용률 국제비교(%)	20
【그림 2-4】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20
【그림 2-5】 우리나라 실질은퇴연령 변화	21
【그림 2-6】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변화	21
【그림 2-7】 계속 일하기 원하는 비율	22
【그림 2-8】 일하는 주된 이유	22
【그림 2-9】 서울시 1인 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수 추이	28
【그림 2-10】 요양시설 내 고령자들과 운동중인 서비스 로봇	40
【그림 3-1】 중앙정부부처 중장년 지원 정책의 흐름	46
【그림 3-2】 정부부처 일자리 관련 중장년 지원사업(2017년 상반기 기준)	47
【그림 3-3】 정부부처 합동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방안'(2017.8.8.발표)	68
【그림 3-4】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인프라 현황(2017년도 온·오프라인)	69
【그림 3-5】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기관)와 노후준비서비스 관련기관 연계 체계	82
【그림 3-6】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83
【그림 3-7】 정부 및 지자체 공동 지원사업 추진체계(일반)	94
【그림 3-8】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체계	95
【그림 3-9】 고용노동부의 50+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체계	95
【그림 3-10】 서울시 50+세대 유관 정책	104
【그림 3-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서비스	163
【그림 3-12】 2017년도 고용노동부 지정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수 (전국)	164
【그림 3-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연계체계 및 지원서비스	166
【그림 3-14】 2017년도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수(전국)	167
【그림 3-15】 2017년도 고용노동부 지정 '고령자인재은행' 수(전국)	169

【그림 3-16】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속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서비스	170
【그림 3-17】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속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전국)	170
【그림 3-18】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서비스	171
【그림 3-19】 2017년도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여성인력개발센터' 수(전국)	172
【그림 3-20】 2017년도 '시니어클럽' 수(전국)	173
【그림 3-21】 지역자활센터 지원 서비스	175
【그림 3-22】 2016년도 '지역자활센터' 수(전국)	175
【그림 3-23】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단계별 지원서비스	176
【그림 3-24】 2016년도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수(전국)	176
【그림 3-25】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신청 절차	177
【그림 3-26】 2017년도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수(전국)	178
【그림 3-27】 2017년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전국)	179
【그림 3-28】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원 서비스	181
【그림 3-29】 2017년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수(전국)	181
【그림 3-30】 노후행복설계센터 지원 서비스	182
【그림 3-31】 2017년도 금융위원회 주관 '노후행복설계센터' 수(전국)	183
【그림 3-32】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원 서비스	184
【그림 3-33】 귀어귀촌종합센터 지원 서비스	185
【그림 3-34】 2017년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폴리텍대학' 수(전국)	187
【그림 3-35】 서울시50+캠퍼스·센터 지원 서비스	188
【그림 3-36】 2017년도 '서울시 50+재단·캠퍼스·센터' 수(서울 지역)	188
【그림 3-37】 2017년도 '자원봉사센터' 수(전국)	191
【그림 3-38】 201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수(전국)	192
【그림 3-39】 2017년도 '노인복지관' 수(전국)	194
【그림 3-40】 국내 50+정책·사업 종합	198
【그림 4-1】 오사카 고령자생협 조합원의 연령 구성	263
【그림 4-2】 오사카 고령자생협 조합원의 남녀 비율	263
【그림 4-3】 오사카 고령자생협 조합원의 종별 구성	264
【그림 4-4】 수강생 수, 과목 수 변화 추이(모집요강)	270

1

서 론

-
- 00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00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고령사회 조기 진입 및 50+세대 비중 증가

우리나라는 인구통계추계에 의해 2018년도에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었으나 그보다 조금 더 이른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 진입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2017년 8월30일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는 약 7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에 이르며, 50+세대(50~64세) 인구는 1,1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6%에 이르고 있다.

[표 1-1] 50+세대(50~64세)의 인구 비중(2017년 8월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수	40~49세		50+세대(50~64세)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전국	51,753,820	8,715,262	16.8	11,701,418	22.6	7,257,288	14.0
서울시	9,902,072	1,656,835	16.7	2,197,667	22.2	1,343,787	13.6
경기도	12,810,014	2,306,168	18.0	2,757,503	21.5	1,441,230	11.3
부산시	3,484,183	548,542	15.7	872,223	25.0	556,837	16.0
경남	3,374,467	567,153	16.8	785,228	23.3	496,723	14.7
인천시	2,948,014	507,447	17.2	679,405	23.0	339,710	11.5

구분	전체 인구수	40~49세		50+세대(50~64세)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경북	2,690,671	415,244	15.4	656,176	24.4	506,924	18.8
대구시	2,479,887	423,472	17.1	584,511	23.6	342,250	13.8
충남	2,111,419	335,979	15.9	458,790	21.7	359,837	17.0
전남	1,895,974	282,774	14.9	440,129	23.2	405,886	21.4
전북	1,855,985	291,792	15.7	421,785	22.7	348,419	18.8
강원도	1,547,455	256,101	16.1	384,847	24.9	276,969	17.9
충북	1,593,022	242,751	15.7	372,032	23.4	249,771	15.7
대전시	1,507,116	260,237	17.3	327,615	21.7	178,223	11.8
광주시	1,466,642	254,359	17.3	301,766	20.6	178,529	12.2
울산시	1,165,909	202,574	17.4	276,578	23.7	114,278	9.8
제주도	651,888	114,079	17.5	140,859	21.6	91,856	14.1
세종시	269,102	49,755	18.5	44,304	16.5	26,059	9.7

주: 50+세대(50~64세) 인구수 기준으로 정렬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www.mois.go.kr/>), 2017년8월30일 기준 통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0+세대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인구 분포가 높은 서울시나 경기도의 50+세대 인구수는 타 지방자치단체 전체 인구수를 훨씬 뛰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2. 50+세대 지원사업의 체계화 필요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2010~2015년 약 53만 여명 은퇴, 2016~2020년 약 98만 여명 은퇴 예상)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50+세대 이슈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제정(1981.6.5.) 이후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지원되어 왔으며, 사회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50+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및 사업 추진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정(1991.12.31.) 이후 1차, 2차에 걸쳐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추진 하였으나 이는 장년층의 고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일 뿐 50+세대(50~64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되어 온 장년 고용지원 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취약성이 존재하며, 장년 고용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편견도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장년 고용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일자리와 자원봉사 형태가 혼재되어 정책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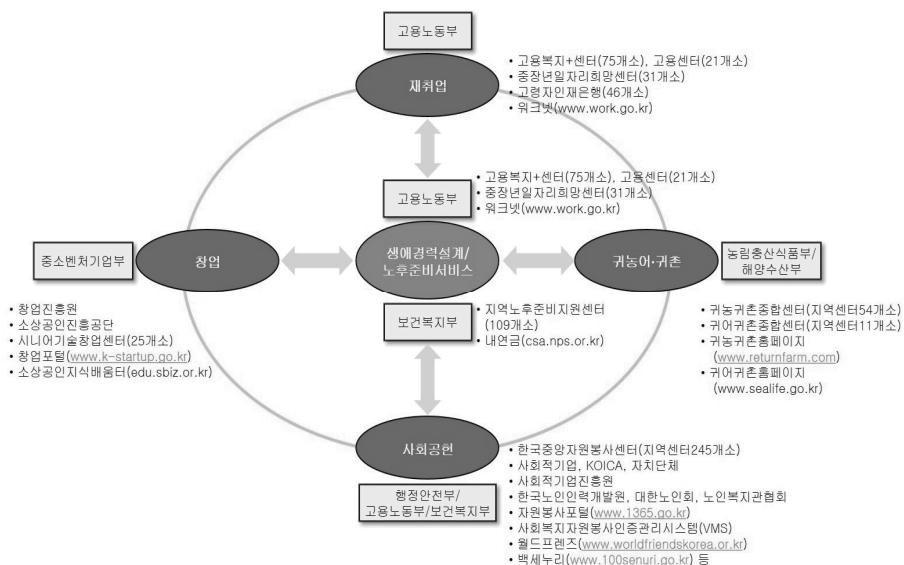
50+세대(50~64세)의 다양한 욕구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및 사업은 2012년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가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50+세대의 교육,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문화여가 지원 등)이 시작된 2013년 전후로 기업 및 민간단체의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도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조기 퇴직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민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40대 이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기업은 취업 및 창업 지원, 민간단체는 대기업과 연계·협력한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 및 사회공헌 지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인식되면서 2016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 50+재단 및 캠퍼스·센터 사례를 모델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속속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신중년 재충전센터 설치’ 및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방안’을 발표(2017.8.8.)하고 추진 중이다.

4. 새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방안 발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방안’은 5060세대(50~69세)를 신중년으로 칭하고, 인생3모작(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사회공헌 일자리)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각 정부부처 협동으로 신중년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서비스를 확충하고, 생애경로설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서울시의 50+ 지원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림 1-1]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인프라 현황



또한 새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2017.10.26.)에 따라 2018년도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칭하고, 4대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헌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50+지원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기업 및 민간단체의 50+지원 제도·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더불어 선진 주요 국가(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50+정책 및 사업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50+지원체계 구축을 위

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의 구성

1) 연구 내용의 범위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년층 지원 관련 법령(또는 조례)을 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칭함)이다. 서울시는 201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동 조례에서 장년층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① 교육 지원사업, ②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③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④ 건강증진 지원사업, ⑤ 문화여가 지원사업, ⑥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 국내 50+정책 및 사업을 구분할 때 위에 열거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5가지를 크게 일자리(고용 및 창업)지원, 노후준비·여가·교육 지원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단, 지원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거나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정책 및 사업 흐름을 살펴보면 2017년 새 정부의 신중년(50~69세)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50+세대(50~64세)만을 별도로 명시하여 지원하는 정책은 없으며, 개별 사업에서 세부 지원 대상 연령(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등)을 구분지어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책을 50+세대 지원정책으로 규정하기 모호하므로 ‘50~64세 연령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중 50+세대 지원과 유관한 부분만 발췌해서 기술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지원사업 역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50+세대 이후 바로 이어지는 65세

이상 연령층 대상의 지원정책 및 사업 중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과 유관한 분야에 한해 일부 기술하였다.

[표 1-2] 연구의 범위(국내 50+정책 및 사업)

구분	범위 적용
50+세대 연령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2015.10.8.제정)’에 명시된 장년층의 연령을 50+세대의 연령 기준으로 함 * 제2조(정의) ‘장년층(長年層)’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이상의 연령층(50~64세)을 지원하는 정책 및 사업을 기술함
50+정책 및 사업 구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2015.4.2.제정)’에 명시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50+정책 및 사업의 구분 기준으로 함 * 제4조(지원사업) ① 교육 지원사업 ②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③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④ 건강증진 지원사업 ⑤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 이상의 사업을 ① 일자리(고용 및 창업)지원, ② 노후준비·여가교육 지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기술함
자료 조사 기준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2017년 8월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을 조사(정책의 흐름상 2016년 이전 정책 및 사업도 일부 포함함) - 민간: 2017년 8월 현재, 기업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조사(외부 공개가 늦어지는 기업 내부의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자료에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므로 2016년 이전 자료로 기술함) *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7년 8월을 조사 기준 시점으로 정함

해외의 경우 주요 선진 국가로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50+정책 및 사업을 살펴본다. 미국 등 4개국을 사례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 국가가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한국보다 먼저 경험한 국가이며 50+ 세대를 지원하는 정책의 사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보고되었고 그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50+ 정책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보다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되어 있는데 비해, 독일과 일본은 정부와 지자체를 통한 공적인 정책 및 사업의 전통이 강하다는 점에서 대비되는 특징도 보이고 있어, 50+정책과 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추가 조사를 하였다. 영국은 민간의 참여에 의한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일본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인 지원의 전통이 강하지만 최근에 NPO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 참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제도와 문화 등 정책의 배경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 연구 내용의 구성

2장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환경 및 추이분석을 통해 대내외 환경을 예측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 중앙정부의 일자리분야(직접일자리사업,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별 예산에서 중장년 일자리 부분의 사업을 살펴보고, 각 정부부처의 50+관련 정책 및 사업을 고용 및 창업 지원과 노후준비·여가·교육 지원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및 일자리와 여가분야의 지원 사업을 서울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기술하였다. 또한, 기업의 전직지원 및 생애설계 프로그램과 금융기관의 은퇴설계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일반 50+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업 및 민간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주요 선진 국가의 50+지원 정책 및 사업을 상담 및 교육, 일자리 정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영국과 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기관 사례를 들어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에는 각 지원사업의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50+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만 다루기로 한다.

[표 1-3] 50+정책 및 사업 국내 현황 기술 항목

구분	구성항목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 및 사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일자리 예산 - 직접일자리사업,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장년층 고용 및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고용종합대책, 장년고용서비스 강화방안,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방안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중장년 기술 창업 활성화 계획
	노후준비·여가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계획 - 4050뉴스타트 통합지원사업, 고령사회 문화 노후준비 기반마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전국 지자체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제정 및 센터 설치 현황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50+ 지원 정책 및 사업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창업 지원사업, 평생교육기관 현황
	부산시 50+지원 정책 및 사업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 현황, 고독사예방종합대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50+지원 정책 및 사업	대전시, 충청남도, 경기도 부천시, 대구시 수성구, 광주시 광산구
기업 및 민간단체	대기업의 전직지원 및 생애설계 프로그램	삼성그룹, 포스코, KT
	금융기관의 은퇴설계 프로그램	하나은행, 국민은행, 삼성증권,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기업의 50+창업지원 프로그램	SK텔레콤, 유한킴벌리, CJ푸드빌, 유통업체, 상상우리
	민간단체의 50+지원 프로그램	희망제작소, 신나는조합, 아름다운서당, 지혜로운학교,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연대은행
50+유관기관	일자리(취업·창업) 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지역자활센터, 시니어기술창업센터,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노후준비·여가교육 지원	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행복설계센터, 귀농귀촌종합센터, 귀어귀촌종합센터, 한국폴리텍대학, 50+재단·캠퍼스센터, 도서관평생학습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 연구 방법

2장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경제활동 인구조사, 사회조사, 서울시의 복지 실태조사 등 2차 데이터를 활용한 원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분석을 수행하였고, 3장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중장년 대상 정책 기본계획, 장년고용종합대책,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등 50+관련 시책을 검토하였다. 4장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을 위해 2차 자료 및 주요 기관, 해외유수 연구기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해외 거주 중인 『서울50+해외통신원』을 통해 수집된 해외사례들도 활용하였다.

2

인구구조·사회 경제적 환경변화 및 추이 분석

-
- 015 제1절 인구구조 변화
 - 019 제2절 경제적 환경변화
 - 027 제3절 사회문화의 변화 및 기술 변화
 - 041 제4절 종합
-

제2장

인구구조·사회 경제적 환경변화 및 추이 분석

제1절 인구구조 변화

1. 인구추이

우리나라 2017년 현재 총 인구는 5,145만 명이며, 2031년 총 인구는 5,29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차츰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중위연령은 42세로 이미 40세를 넘어섰으며, 2033년에는 50세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현재 총 인구는 978만 명으로 전체 총 인구의 19.0%에 달하며, 향후 인구 및 총인구 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5년에는 881만 명으로 전체 총 인구의 17.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는 저출산과 인구 이동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인구규모와 인구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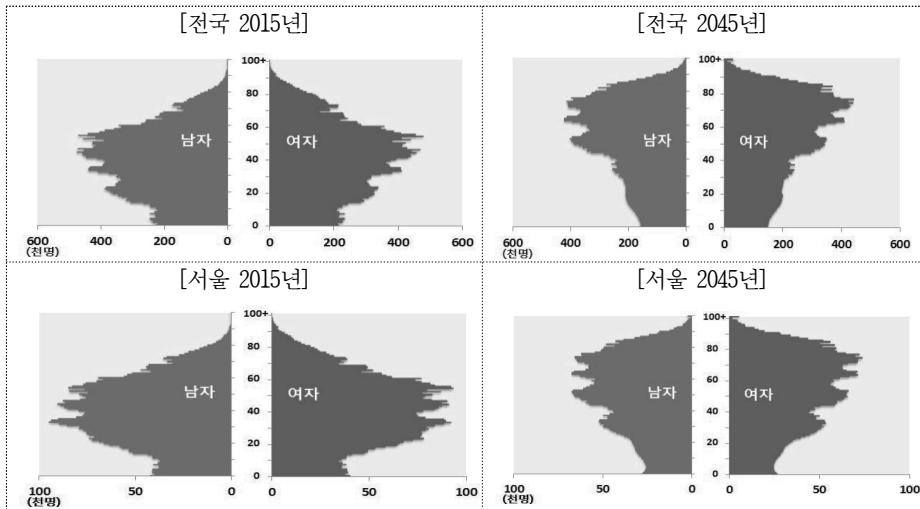
(단위: 천명, %, 세, 해당인구 100명당 명)

지역	연도	총인구	인구 성장률	중위연령	인구 구성비			
					0~14 세	15~64 세	50~64 세	65세 이상
전국	2000	47,008	0.84	31.8	21.1	71.7	13.2	7.2
	2005	48,185	0.21	34.8	19.1	71.9	14.7	9.0
	2010	49,554	0.50	37.9	16.1	73.1	18.1	10.8
	2015	51,015	0.53	40.9	13.8	73.4	21.4	12.8
	2017	51,446	0.39	42.0	13.1	73.1	22.5	13.8
	2020	51,974	0.31	43.6	12.6	71.7	23.9	15.6
	2030	52,941	0.07	48.8	11.5	64.0	23.6	24.5
	2040	52,198	-0.32	53.0	10.8	56.4	21.0	32.8
	2045	51,051	-0.52	54.6	10.1	54.3	21.1	35.6
서울	2000	10,078	0.42	31.3	18.6	76.1	13.8	5.3
	2005	10,029	-0.23	34.1	16.6	76.4	15.8	7.0
	2010	10,089	-0.50	37.4	13.9	76.9	19.2	9.2
	2015	9,941	-0.34	40.5	12.0	75.9	21.8	12.2
	2017	9,776	-0.77	41.5	11.3	75.4	22.4	13.3
	2020	9,635	-0.42	42.8	10.9	73.8	23.2	15.4
	2030	9,429	-0.30	47.4	10.3	66.3	22.6	23.5
	2040	9,063	-0.48	51.0	9.8	59.4	20.6	30.8
	2045	8,813	-0.61	52.8	9.2	57.7	21.0	33.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출생아수는 계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가 현재 30~50대가 가장 넓은 형상에서 2045년에는 점차 윗부분이 가장 넓은 형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을 살펴보면 2000년 합계출산율 1.467명에서 2016년 1.172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향후에도 크게 회복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6년 0.94명으로 전체 출산율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인구 피라미드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표 2-2]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0)

(단위: 명)

연도	2000	2010	2016	2020
전국	1,467	1,226	1,172	1,240
서울	1,262	1,015	0,940	1,02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 – 2065」.

연령계층별로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현재 유소년 인구(0~14세) 비율은 13.1%이며, 2030년에는 11.5%, 2045년에는 10.1%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율은 2017년 현재 73.1%이며, 2030년에는 64.0%, 2045년에는 54.3%로 유소년 인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7년 현재 13.8%이며, 2030년 23.5%, 2045년 3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50~64세 인구는 1,1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5년에는 1,077만 명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할 것으로

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현재 50~64세 인구는 서울시 인구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5년에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2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인구이동

서울시의 인구의 이동을 살펴보면 2016년 순이동자수는 14만 명으로 10년 전 순이동자수 대비 약 4배 정도 유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64 세 순이동자수는 4만 명 수준이며, 경기도로의 인구 순유출이 71.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5.7%), 충청남도(4.4%), 강원도(4.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50~64세 인구는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유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서울시 순이동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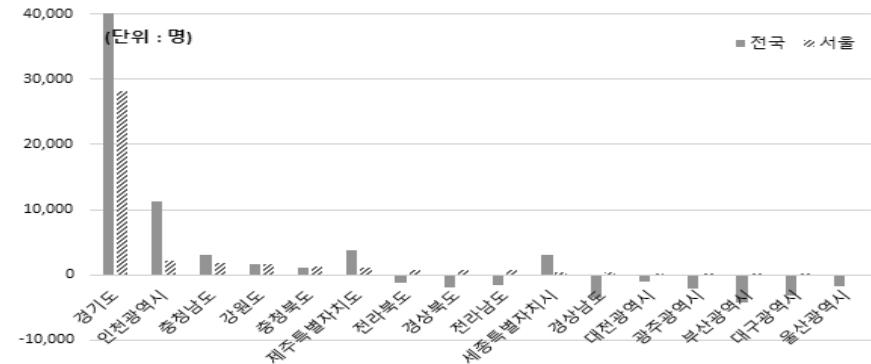
(단위: 명, %)

전출지 (서울시)	전입지									
	계	경기	인천	충남	강원	충북	제주	전북	경북	
전체	2006년	36,551	91,814	5,133	-1,228	-3,819	-1,295	-873	-7,518	-6,828
	2016년	140,257	136,403	11,259	3,015	1,713	1,055	3,831	-1,158	-1,851
	증감(%)	103,706 (73.9)	44,589 (32.7)	6,126 (54.4)	4,243 (140.7)	5,532 (322.9)	2,350 (222.7)	4,704 (122.8)	6,360 (-549)	4,977 (-269)
50+	2006년	15,506	14,773	925	988	540	459	60	-272	-145
	2016년	39,606	28,231	2,270	1,739	1,675	1,313	1,028	830	751
	증감(%)	24,100 (60.8)	13,458 (47.7)	1,345 (59.3)	751 (43.2)	1,135 (67.8)	854 (65.0)	968 (94.2)	1,102 (132.8)	896 (119.3)

전출지 (서울시)	전입지									
	계	전남	세종	경남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전체	2006년	36,551	-7,205	-	-5,927	-2,941	-4,834	-9,752	-6,110	-2,066
	2016년	140,257	-1,503	3,131	-3,452	-1,107	-2,078	-4,174	-3,179	-1,648
	증감(%)	103,706 (73.9)	5,702 (-379)	3,131 (100.0)	2,475 (-71.7)	1,834 (-166)	2,756 (-133)	5,578 (-134)	2,931 (-92.2)	418 (-25.4)
50+	2006년	15,506	-229	-	-145	-79	-285	-639	-337	-108
	2016년	39,606	734	361	342	183	122	89	29	-91
	증감(%)	24,100 (60.8)	963 (131.2)	3,131 (867.3)	487 (142.4)	262 (143.2)	407 (333.6)	728 (818.0)	366 (1262)	17 (-18.7)

자료: 통계청, 국내이동통계(각연도)

[그림 2-2] 서울시 순이동자수



자료: 통계청, 국내이동통계(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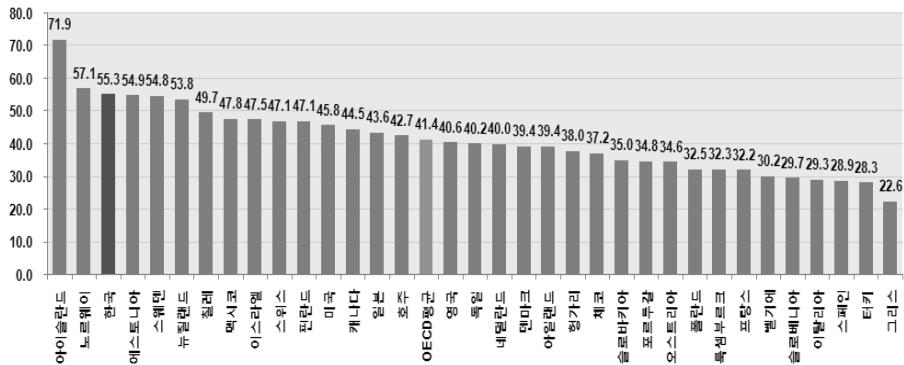
제2절 경제적 환경변화

다음은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체 노동시장 구조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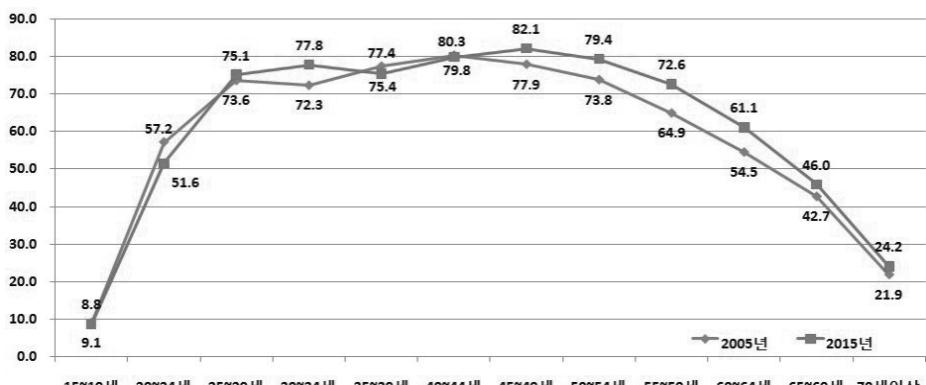
장년층의 인구증가, 기대수명 증가, 노후준비 미흡 등으로 최근 10년 간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장년층 인구와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미 수년간 노동시장 고용 증가는 장년층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청년 및 중년층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데 반해, 장년층의 고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50세 이상 고용률 국제비교(%)



자료: OECD

[그림 2-4]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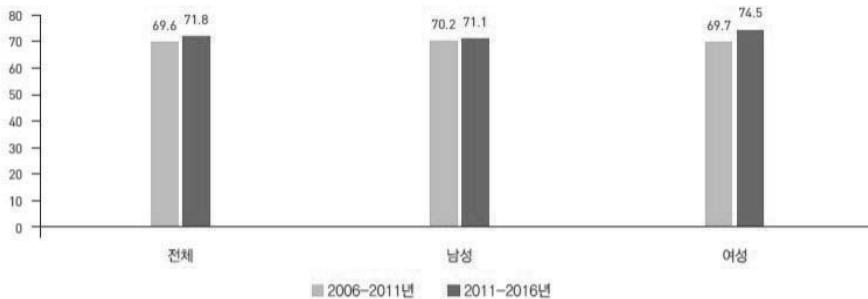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우리나라 장년층 인력은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아 실제 노동시장 은퇴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은 2016년 기준으로 남성 51.6세, 여성 47.0세로 나타난 반면, 실질 은퇴 연령은 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우리나라 실질은퇴연령 변화

(단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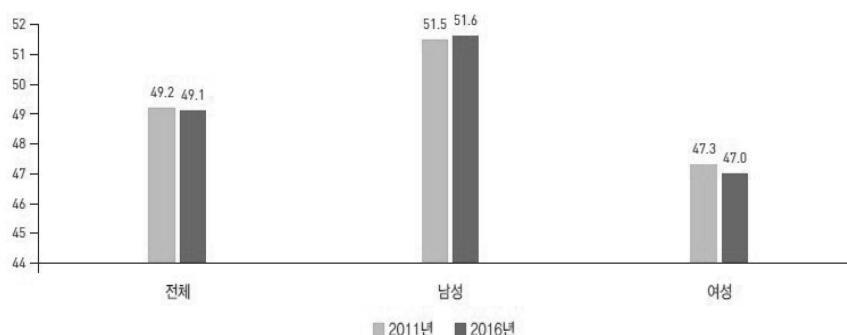
주: 실질은퇴연령은 5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2006~2011년과 2011~2016년 수치를 비교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우리나라 장년층의 실질 퇴직연령(2017)

[그림 2-6]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변화

(단위:세)



주: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은 55~64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 항목 중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를 퇴직한 연령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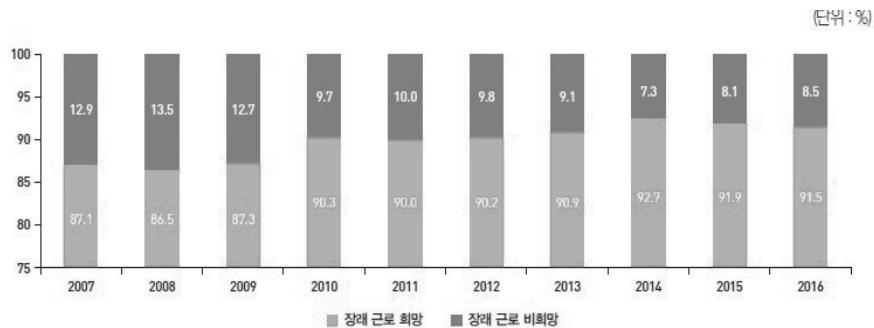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우리나라 장년층의 실질 퇴직연령(2017)

이렇게 장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는 주 이유는 노후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55~79세의 경우 10명 중 9명은 장래에도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갖기 원하고 있으며, 현재 취업자이면서 장래에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갖기 원하는 장년층(55~79세)의 일자리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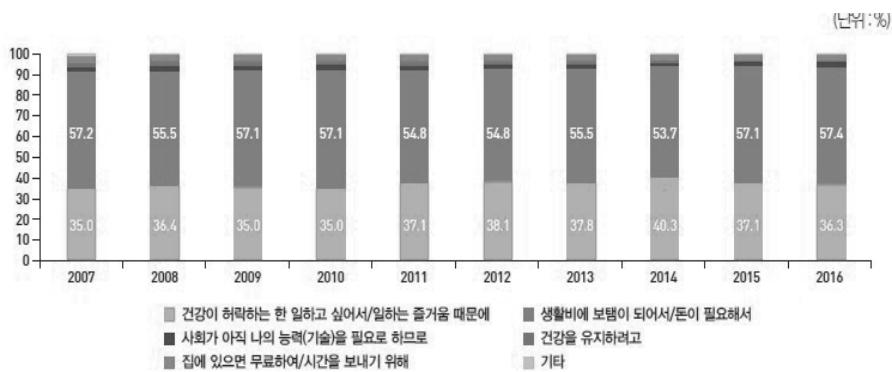
망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라는 이유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계속 일하기 원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그림 2-8] 일하는 주된 이유



주: 현재 취업자이면서 계속 수입이 있는 일을 희망하는 55~79세 장년층만 분석 대상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 부분별 노동시장 지표

다음은 통계청의 2016년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50플러스 세대의 고용률, 산업 및 직업별 취업 분포, 종사상 지위 등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1) 취업자 및 고용률

먼저, 취업자를 살펴보면 2016년 하반기 기준 50~64세 취업자는 8,038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26,577천 명의 3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체는 61.1%, 15~64세는 66.5%, 50~64세는 71.4%로 50~64세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6년도 하반기 기준 50~64세 취업자는 1,481천 명으로 서울 전체 취업자 5,156천 명의 2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50~64세 취업자 비율인 30.2%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률 또한 전국 50~64세 고용률 71.4%에 비해 서울시 50~64세 고용률은 69.3%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2-4] 취업자와 고용률(2016년)

(단위: 천명, %)

구분	전국		서울	
	전체	50~64세	전체	50~64세
취업자수	26,577	8,038	5,156	1,481
고용률	61.1	71.7	60.6	69.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6, 하반기) 원자료 분석

2) 산업별 취업자 분포

각 산업별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2016년 하반기 기준 전국 산업별 취업자 비율은 제조업 16.7%, 서울은 도매 및 소매업이 1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64세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제조업이 15.4%, 서울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1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 내에서 50~64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으로 전국 62.7%,

서울 48.2%로 나타났다.

[표 2-5] 산업별 취업자 비율(2016년)

(단위: %)

산업대분류	전국			서울		
	전체	50~64세		전체	50~64세	
		연령내	산업내		연령내	산업내
전체	100.0	100.0	30.2	100.0	100.0	28.7
A. 농업, 임업 및 어업	5.4	6.6	36.7	0.1	0.2	38.3
B.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1	0.1	58.4	0.0	0.0	-
C. 제조업	16.7	15.4	27.9	9.0	10.6	33.9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3	0.3	27.4	0.2	0.2	33.9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4	0.5	40.1	0.2	0.3	41.6
F. 건설업	7.1	9.9	42.4	7.0	11.2	46.3
G. 도매 및 소매업	14.0	12.7	27.3	17.1	15.3	25.7
H. 운수업	5.3	7.7	44.0	4.9	7.7	45.4
I. 숙박 및 음식점업	8.7	10.3	35.8	9.1	10.1	31.8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	1.1	11.6	5.9	2.1	10.3
K. 금융 및 보험업	3.0	2.5	25.1	4.3	3.4	22.4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	2.9	39.3	2.9	4.0	39.6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	2.1	15.5	7.9	3.5	12.7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	6.3	38.3	6.1	7.3	34.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8	3.4	26.9	3.0	2.7	25.6
P. 교육 서비스업	7.0	4.9	21.2	8.0	5.8	20.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2	5.5	23.3	6.6	5.9	25.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6	1.2	22.9	2.0	1.4	20.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	6.0	37.6	5.4	7.9	41.7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2	0.5	62.7	0.1	0.2	48.2
U.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46.8	0.1	0.1	51.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6, 하반기) 원자료 분석

3) 직업별 취업자 분포

각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전국 20.3%, 서울 26.6%로 나

타났다. 50~64세 취업자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58.6%, 서울 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직업 내에서 50~64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관리자’로 전국 58.6%, 서울 52.5%로 관리자의 경우 50~64세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직업별 취업자 비율(2016년)

(단위: %)

직업대분류	전국		서울			
	전체	50~64세		전체	50~64세	
		연령내	직종내		연령내	직종내
전체	100.0	100.0	30.2	100.0	100.0	28.7
1. 관리자	1.2	2.3	58.6	1.5	2.8	52.5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3	11.5	17.1	26.6	14.9	16.1
3. 사무 종사자	17.1	10.2	18.1	20.1	11.2	16.0
4. 서비스 종사자	10.8	13.1	36.6	10.3	11.4	31.9
5. 판매 종사자	11.6	11.7	30.6	13.7	14.4	30.3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0	6.1	36.7	0.1	0.2	46.3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9	11.7	39.7	8.8	13.7	44.8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9	15.1	38.5	6.3	11.0	50.0
9. 단순노무 종사자	13.2	18.3	41.9	12.6	20.3	46.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6, 하반기) 원자료 분석

4) 종사상 지위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상용직 49.1%, 임시·일용직 24.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상용직 50.4%, 임시·일용직 28.3%로 서울시의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비율이 전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50~64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상용직 37.6%, 임시·일용직 26.1%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상용직 35.0%, 임시·일용직 32.0%로 장

년층의 상용직 비율은 전국에 비해 낮고 임시·일용직 비율은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2016년)

(단위: %)

직업대분류	전국			서울		
	전체	50~64세		전체	50~64세	
		연령내	종사상 지위내		연령내	종사상 지위내
전체	100.0	100.0	30.2	100.0	100.0	28.7
상용직	49.1	37.6	23.1	50.4	35.0	20.0
임시·일용직	24.9	26.1	31.7	28.3	32.0	32.5
비임금근로자	25.9	36.3	42.3	21.3	32.9	44.4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6, 하반기) 원자료 분석

5) 근로시간

서울특별시 복지실태조사(2015)를 이용하여 서울시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50~64세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전일제 89.5%, 시간제 10.5%이며, 주당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율이 22.8%로 서울시 전체 14.9%보다 7.9%p 높게 나타났다.

[표 2-8] 서울 시민 근로시간(일주)

(단위: %)

연도	근로형태		20시간 미만	20~40시 간미만	40~60시 간미만	60~80시 간미만	80시간이 상
	전일제	시간제					
전체	91.9	8.1	2.8	6.4	75.9	14.5	0.4
50~60대	89.5	10.5	3.2	4.2	69.7	22.2	0.6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실태조사(2015년)

6) 직업선택요인

서울시민의 직업선택 요인 1순위를 통계청 사회조사(2015)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연령에서는 수입 37.1%, 안정성 26.7%, 적성·흥미 18.0%가 주된 선택 요인이며, 50~64세의 경우에도 수입 41.8%, 안정성 29.1%, 적성·흥미 10.9%가 주된 선택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서울시민의 직업선택 요인(1순위)

(단위: %)

연도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 성취	발전성 장래성	기타	잘 모르 겠음
전체 ¹⁾	2.8	26.7	37.1	18.0	6.0	6.2	0.0	3.2
남성	3.2	26.6	37.3	17.4	6.2	7.2	0.1	2.1
여성	2.5	26.9	36.8	18.6	5.8	5.2	0.0	4.3
50~64세	2.6	29.1	41.8	10.9	5.8	6.0	0.0	3.8
남성	2.8	29.6	40.4	11.5	6.2	7.2	0.0	2.4
여성	2.5	28.6	43.0	10.4	5.5	5.0	0.0	5.0

주 1)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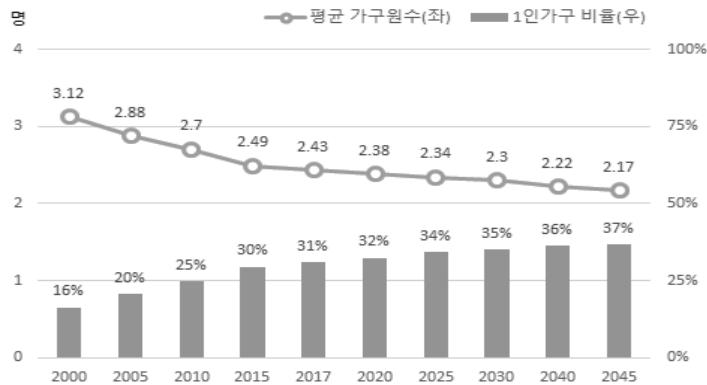
제3절 사회문화의 변화 및 기술 변화

1. 사회문화의 변화

1) 가구와 주거

서울시의 사회문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2명에서 2017년 2.4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45년에는 2.17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6%에서 2017년 31%, 2045년 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9] 서울시 1인 가구 비율과 평균 가구원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구총조사, 장래가구추계

서울시의 혼인 건수는 2000년 78,745건에서 2016년 57,643건으로 26.8% 감소, 이혼 건수는 2000년 25,477건에서 2016년 17,777건으로 30.2% 감소했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2000년 남자 29.7세, 여자 27.3세에서 2016년 남자 33.2세, 여자 31.0세로 여자의 초혼 연령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혼 연령은 2000년 남자 40.8세, 여자 37.4세에서 2016년 남자 48.6세, 여자 45.7세로 남녀 모두 약 8세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서울시 혼인·이혼 건수 및 연령

(단위: 건, 세)

연도	혼인건수	평균 초혼 연령		이혼건수	평균 이혼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0	78,745	29.7	27.3	25,477	40.8	37.4
2005	71,286	31.2	28.6	25,300	42.9	39.7
2010	70,466	32.2	29.8	21,768	46.1	42.8
2015	64,193	33.0	30.8	18,176	48.2	45.2
2016	57,643	33.2	31.0	17,777	48.6	45.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각 연도)

서울시 50~64세 가구주의 자가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60.8%에서 2015년 51.6%로 9.2%p 감소한 반면, 월세 비율은 2000년 11.3%에서 2015년 23.3%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서울시 가구주 점유형태

(단위: %)

구분	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2000	계	100.0	40.9	41.2	14.4	1.2	0.7	1.6
	50-64세	100.0	60.8	26.2	10.5	0.8	0.6	1.0
2005	계	100.0	44.6	33.2	18.5	1.5	0.5	1.6
	50-64세	100.0	62.2	22.2	13.1	1.0	0.5	1.0
2010	계	100.0	41.1	32.9	22.3	1.7	0.5	1.4
	50-64세	100.0	55.1	25.4	16.7	1.2	0.6	1.0
2015	계	100.0	42.1	26.2	25.1	3.0	0.4	3.2
	50-64세	100.0	51.6	22.0	20.8	2.5	0.4	2.7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이들의 거처 종류를 살펴보면 2000년대 단독주택 48.0%에서 2015년 29.7%로 18.3%p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30.7%에서 46.6%로 15.9%p, 다세대주택은 6.4%에서 15.5%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서울시 가구주의 거처 종류

(단위: %)

구분	계	주택					주택이외 거처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00	계	100.0	50.3	31.7	7.5	5.8	4.0	0.7
	50-64세	100.0	48.0	30.7	9.6	6.4	4.7	0.5
2005	계	100.0	42.4	36.8	4.4	12.5	1.7	2.2
	50-64세	100.0	39.1	40.1	5.5	12.7	1.8	0.8
2010	계	100.0	37.2	41.1	4.0	12.6	1.4	3.7
	50-64세	100.0	33.6	46.5	4.9	12.4	1.3	1.3
2015	계	100.0	31.4	41.9	2.9	16.4	2.3	5.1
	50-64세	100.0	29.7	46.6	3.5	15.5	1.8	2.9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서울시 거주민 중 50~60대가 선호하는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부부(개인) 독립적으로 생활 31.8%,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생활 29.9%, 실버타운 입주 2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가까이 13.8%, 자녀와 동거 2.6%로 노년기에 자녀와 가까이 혹은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

(단위: %)

연도	계	부부(개인)독립 적으로 생활	자녀와 가까이	자녀와 동거	마음맞는 사람끼리 함께 생활	실버타운 입주	기타 및 무응답
전체	100.0	32.7	14.6	2.5	30.1	19.8	0.2
50~60대	100.0	31.8	13.1	2.6	29.9	22.2	0.4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실태조사(2015년)

서울시민들의 거주 형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번에는 이들의 소득과 소비생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소득과 소비생활

서울시 연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4,538만원, 50대 5,390만원, 60대 3,96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유형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7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서울시 연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 원)

연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전체	4,538.16	4,628.33	4,000.00
50대	5,390.35	4,490.18	4,800.00
60대	3,969.95	6,243.02	5,000.00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실태조사(2015년)

[표 2-15] 서울시 가구 소득(유형별)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소득	사적이 전소득	공적이 전소득	기타
평균액	4,538	3,602	582	61	195	52	47	33
구성비	100.0	79.4	12.8	1.3	4.3	1.1	1.0	0.7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실태조사(2015년)

이들의 소비 형태를 살펴보면 서울시 가구 월평균 생활비 지출은 평균 227만 원이며, 이 중 식료품비가 4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서울시 가구 월평균 생활비 지출

(단위: %, 만 원)

구분	100만 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 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중위값
가구 전체	11.1	33.3	25.8	17.4	12.0	0.5	227.0	200.0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실태조사(2015년)

[표 2-17] 서울시 가구 상위 지출항목 및 비율

(단위: %)

구분	식료품 비	사교육 비	주거비	광열 수도비	공교육 비	세금 공과금	외식비	부채 상환
가구 전체	40.1	13.9	12.7	6.4	5.3	5.1	3.7	3.4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실태조사(2015년)

이번에는 서울시 가구의 보유 자산과 부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가구 보유자산 유형별 비율은 부동산 85.1%, 금융 9.6%, 기타 5.0%로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 총액은 평균 29,96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비율은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부채에 대한 규모별 비율을 살펴보면 부채 없음이 63.6%, 5천만 원 미만 17.8%, 5천만 원~1억 원 미만 10.1%로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대부분이 1억 원 미만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 금액은 5,871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2-18] 서울시 가구 보유자산 및 자산 구성

(단위: %, 만 원)

연도	자산유형별 비율			자산 총액	
	부동산	금융	기타	평균값	중위값
전체 가구	85.1	9.6	5.0	29,960	20,900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실태조사(2015년)

[표 2-19] 서울시 가구 부채

(단위: %, 만 원)

연도	자산유형별 비율						부채	
	부채 없음	5천만 원미만	5천만 원~1 억원	1억원~ 1.5억 원	1.5억 원이상	모름	전체 평균	부채 가구 평균
전체 가구	63.6	17.8	10.1	4.9	2.8	0.8	2,107	5,871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실태조사(2015년)

3) 문화생활

통계청의 2015년도 사회조사를 활용해 이들의 문화생활을 살펴보면 전체 서울 시민의 72.6%, 50~64세 62.5%가 문화 및 예술 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4세의 문화 및 예술 관람 종류를 살펴보면 영화가 8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음악연주회 26.7%, 박물관 23.8%, 연극·뮤지컬 2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 및 예술 관람 활동의 연평균 횟수를 살펴보면 1년에 총 7회 정도 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영화가 4.6회로 영화 관람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무용 3.9회, 스포츠 3.8회 등으로 나타났다.

[표 2-20] 서울시민의 문화 및 예술 관람 여부

(단위: %)

연도	계	관람한다	관람하지 않는다
전체 ¹⁾	100.0	72.6	27.4
50~64세	100.0	62.5	37.5

주1)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표 2-21] 서울시민의 문화 및 예술 관람 경험(복수응답)

(단위: %)

연도	계	음악 연주회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전체 ¹⁾	100.0	24.8	29.6	2.0	90.4	26.9	24.2	18.7
50~64세	100.0	26.7	22.6	2.4	89.3	23.8	19.4	15.6

주1)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표 2-22] 서울시민의 문화 및 예술 관람 연평균 횟수(복수응답)

(단위: 회, 연)

연도	계	음악 연주회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전체 ¹⁾	9.0	2.5	2.5	3.1	6.1	2.7	2.5	4.1
50~64세	7.0	2.6	2.0	3.9	4.6	2.5	2.3	3.8

주1)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서울시민의 레저시설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서울시 50~64세의 69.3%가 레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77.3%가 관광명소(유적지, 국립공원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이용 횟수는 7회로 나타났으며 골프장의 경우 9회로 가장 높은 이용 횟수를 보였다.

[표 2-23] 서울시민의 레저시설 이용 여부

(단위: %)

연도	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전체 ¹⁾	100.0	74.5	25.5
50~64세	100.0	69.3	30.7

주1)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표 2-24] 서울시민의 레저시설 이용 경험(복수응답)

(단위: %)

연도	계	관광명소	온천장 및 스파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삼림욕장	놀이공원	수영장	기타
전체 ¹⁾	100.0	71.5	29.7	7.6	13.1	29.5	27.8	34.4	26.6	0.1
50~64세	100.0	77.3	31.5	12.4	3.2	17.2	34.2	12.6	8.3	0.2

주1)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관광명소: 유적지, 국립공원 등 / 삼림욕장: 휴양림 / 수영장: 워터파크 포함

[표 2-25] 서울시민의 레저시설 연평균 이용 횟수(복수응답)

(단위: 회/연)

연도	계	관광명소	온천장 및 스파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삼림욕장	놀이공원	수영장	기타
전체 ¹⁾	6.7	3.2	2.4	8.1	2.1	1.8	2.4	2.2	3.0	3.3
50~64세	7.0	3.6	2.6	9.0	1.7	1.7	3.0	2.2	7.8	2.0

주1)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관광명소: 유적지, 국립공원 등 / 삼림욕장: 휴양림 / 수영장: 워터파크 포함

서울시민의 주말 및 휴일 여가시간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50~64세의 경우 47.8%가 TV시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39.0%가 관광활동을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서울시민의 주말, 휴일의 여가 활용(1순위)

(단위: %)

연도	계	TV시청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관람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 등	취미·자기개발활동	휴식활동	사회및기타활동	기타
전체 ¹⁾	100.0	42.5	5.3	0.8	0.8	8.2	3.9	6.9	7.5	16.0	7.8	0.4
50~64세	100.0	47.8	2.5	0.8	0.7	10.6	3.1	1.6	5.6	15.7	11.6	0.1

주1)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표 2-27] 서울시민의 주말, 휴일의 여가 활용(1순위)

(단위: %)

연도	계	TV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 · 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전체 ¹⁾	100.0	6.8	12.8	3.3	2.8	13.2	37.4	1.8	11.2	5.1	5.5	0.0
50~64세	100.0	8.5	9.9	3.5	2.7	12.5	39.0	0.3	9.4	5.7	8.5	0.0

주1)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서울시민의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50~64세의 13.5%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그 횟수는 연 평균 8.7회, 시간은 연 평균 35.3시간으로 전체 서울시민의 봉사활동 참여 비율(17.9%)은 낮지만, 연간 참여 횟수(7.5회) 및 시간(29.0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 이내에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6.6%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서울시민의 참여 의향 비율(39.4%)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8] 서울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단위: %, 회, 시간)

연도	계	참여 경험 있음	참여 경험 없음	연간 참여 횟수 및 시간		향후 1년 이내 참여 의향	
				평균 횟수	평균 시간	있음	없음
전체 ¹⁾	100.0	17.9	82.1	7.5	29.0	39.4	60.6
50~64세	100.0	13.5	86.5	8.7	35.3	36.6	63.4

주1)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50~64세 서울시민의 노후 준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시 50~64세 시민들이 선호하는 노후 생활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53%가 취미생활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8.6%가 소득창출 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노후 생활

(단위: %)

연도	계	취미 활동	학습 및 자아 개발 활동	자원봉사 활동	종교 활동	소득 창출 활동	기타
전체 ¹⁾	100.0	54.0	12.2	8.2	7.9	17.1	0.5
50~64세	100.0	53.0	7.9	8.7	11.1	18.6	0.7

주1) 19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 원자료분석

4) 노후준비

노후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76.0%가 준비되어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비 방법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9.9%가 국민연금이라고 응답했으며, 21.1%는 예(적)금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0] 서울시민의 노후 준비 여부

(단위: %)

연도	계	준비되어있다	준비되어있지 않다
전체 ¹⁾	100.0	68.4	31.6
50~64세	100.0	76.0	24.0

주 1) 19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원자료분석

[표 2-31] 서울시민의 노후 준비 방법

(단위: %)

연도	계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¹⁾	사적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 ²⁾
전체 ³⁾	100.0	53.2	7.4	9.3	3.1	20.7	5.6	0.5
50~64세	100.0	49.9	9.5	9.2	3.9	21.1	6.0	0.5

주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2) '주식, 채권' 등 포함

3) 19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원자료분석

2. 기술변화

최근 기술발달로 인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강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과거의 기술진보와 두 가지 점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발전의 속도가 이전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 둘째, 기술진보에 따른 영향력의 범위가 전 산업과 경제·생활·문화에 걸쳐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 진보와 확산 과정에서의 차이는 일자리 변환과 소득 양극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기술진보의 사회적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융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및 유통 비용을 낮춰 우리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불평등, 빈부격차 뿐만 아니라 기계가 전문기술을 포함한 저급 기술 일자리까지의 사람을 대체하면서 노동시장 붕괴의 가능성마저 제시되고 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은 자율주행, 이미지 인식, 콘텐츠

생성, 미래 예측 등의 많은 일들을 저비용으로 인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고령화와 관련해서도 건강 보건 기록 분석을 통해 건강과 질병을 예측하는 등 우리 실생활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¹⁾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가장 일차적인 변화는 많은 종류의 노동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것이다(Schwab, 2016). 특히, 외부환경 인식, 상황 판단 등을 통해 스스로 행동하는 서비스 지능형 로봇의 등장은 인구의 고령화 및 출산율 감소 등의 사회 경제에 관련한 문제에 하나의 해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2014년 ‘로봇 신(新) 전략’을 통한 로봇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로봇분야 기술력과 로봇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의 수요를 연결시켜 새로운 산업혁명의 방식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을 주목표로 삼고 있다.²⁾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POSRI 이슈리포트(2017.5.11.)자료에 의하면 서비스 분야에 다양하게 서비스로봇이 활용됨을 확인되며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비스 인력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업 분야의 활용이다. 현재 일본 호텔 업계는 심각한 인력 부족과 해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업계의 호황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서비스 업종에서 소수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호텔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IT 기술 및 서비스 로봇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호텔에서는 프론트 업무나 호텔 공용 공간 청소 등에 이미 서비스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고령자의 관리 및 간호를 하는 요양업계에서도 서비스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생겼다. 특히, 소프트뱅크 사가 제작한 커뮤니케이션 로봇 ‘Pepper’(전 세계 최초로 인간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로봇)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 강좌인 라디오 체조나 헬리콥터에 이션의 진행 역할을 주로 담당해 기타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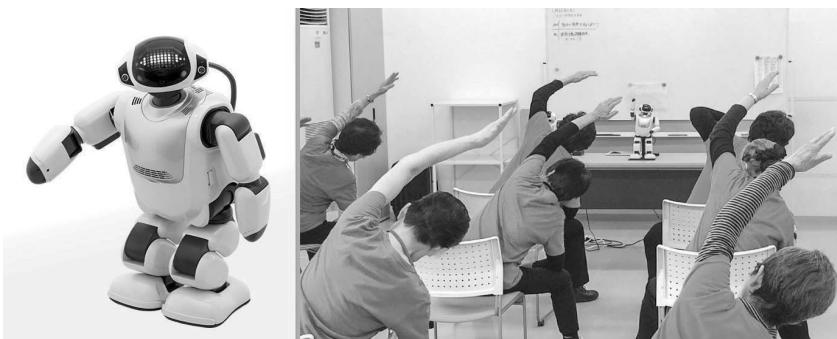
1) 임지훈(2017), 일본의 서비스 로봇 시장 육성 전략 및 산업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포스코 경영연구원, 지능형 로봇활용, 어디까지 왔나?, POSRI 이슈리포트(2017.5.11.)

시설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에 위치한 특별요양시설 '니이쓰루홈'에서도 돌봄 지원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도요타에서 제작한 'HSR'의 실증실험이 진행 중인데, 해당 로봇은 특히 인력이 부족한 야간에 시설 내 안전순회 역할을 위해 사용돼 인간의 직원이 중환자를 돌볼 시간을 마련해주는 등,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방법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간호가 필요한 노인의 자립 촉진과 요양 직원의 업무 부담에 경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동지원, 치매 환자 돌보기, 목욕 지원 등 5가지 분야의 실용화가 지정돼 있다고 한다(포스코 경영연구원, 2017). 이러한 서비스 로봇산업은 장기화되는 인력부족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심리상담사, 베이비시터, 배우 등과 같이 업무상 감정 교류 및 표현이 필수적인 직업 등에 그 필요성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0] 요양시설 내 고령자들과 운동중인 서비스 로봇



출처: 포스코 경영연구원, 지능형 로봇활용, 어디까지 왔나?, POSRI 이슈리포트(2017.5.11.)

기술진보로 인한 미래사회의 변화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직업세계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의 증감만이 아니라 고용형태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훈련과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며, 건강과 사회보장연금 등 전통적으로 보장되던 사회적 안전망의 범위와 내용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정책적인 초점이

맞춰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4절 종합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1년 5,145만 명으로 정점 도달 후 차츰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며, 서울시 인구는 2017년 현재 978만 명으로 총인구의 19.0%에 달하며, 향후 인구 및 총인구 대비 비율이 지속 감소하여 2045년에는 881만 명, 총 인구의 17.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 인구는 저출산 및 인구 이동에 의해 200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서울의 출산율은 2016년 현재 0.94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기, 인천 등 타 지역으로 순인구이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타시도보다 보다 적극적인 인구유입과 출산율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가구구성을 보더라도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2명에서 2017년 2.4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6%에서 2017년 31%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50+ 가구주의 자가 비율이 2000년 60.8%에서 2015년 51.6%로 9.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 세대의 독립과 독립으로 인한 거주지 마련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60대가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자녀와 같이 주거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이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의 주거를 선호하고 있어 주거와 문화를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문화 공동체의 구축정책이 더욱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장년층의 인구증가와 기대수명 증가 그리고 노후준비 미흡 등으로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50세+ 세대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9.7%, 서울 전체 취업자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69.3%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수준 50+ 고용률 71.7%에 2.4%p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큰 문제는 취업의 질이 전국적인 수준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50세+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26.1%,

서울 32.0%로 전국보다 6%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 50~60대 근로자의 주당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율이 22.8%로 서울시 전체 14.9% 보다 7.9%p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50+ 세대의 취업형태가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아 취업이 불안정하며 다른 연령대보다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연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4,538만원, 50대 5,390만원, 60대 3,96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50+의 76%가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49.9%, 예(적)금 21.1%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50+ 세대의 80%가 가구소득 유형을 근로소득으로 답하고 있어 50+ 세대의 일자리가 생계유지에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50+는 과거세대보다 고학력, 고숙련이며, 노동시장 참여에 적극 적이므로 재취업 시에도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더라도 유연하고 안정된 근무여건을 선호하는 50세+의 일자리 니즈에 부합하는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진보는 속도와 영향력의 범위 면에서 기존과는 판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이러한 급격한 기술진보는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에 있어 다른 어느 국가보다 기술진보의 사회적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진보로 인한 미래사회의 변화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직업세계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의 증감만이 아니라 고용형태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훈련과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며, 건강과 사회보장연금 등 전통적으로 보장되던 사회적 안전망의 범위와 내용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정책적인 초점이 맞춰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총인구 20%에 달하는 50+ 세대의 일자리와 노후 문제 등이 이러한 기술진보의 시기와 맞물리면서 기존의 50+ 정책과는 다른 정책적 내용과 리더십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이다.

3

국내 50+정책 및 사업

-
- 045 제1절 중앙정부
 - 096 제2절 지방자치단체
 - 141 제3절 기업 및 민간단체
 - 158 제4절 50+세대 지원 유관기관
 - 193 제5절 종합
-

제3장

국내 50+정책 및 사업

제1절 중앙정부

2010년 이전까지 정부는 노인복지 중심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왔다. 노인복지법 제정(1981.6.5.)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1.12.31.)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및 고령자(55세 이상)를 대상으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계획을 추진하였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세대(1955년생~1963년생)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등에서 이들의 고용 및 노후 불안에 대응할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2013년 교육부의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사업’, 2014년 고용노동부의 ‘장년고용 종합대책’ 등의 사업에서 ‘장년층’ 이란 용어와 함께 이를 위한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 6월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에서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노후준비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2016년 고용노동부의 ‘장년 고용서

비스 강화방안’에서는 생애경력설계 확충으로 지원 대상을 만 50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017년 8월 새정부(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을 발표하고 신중년(50~69세)을 대상으로 한 인생3모작(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노후준비지원센터) 기반의 ’신중년 재충전센터 ‘를 전국 229곳 까지 설치·확대할 계획이다.

이상 중앙정부의 정책 및 사업 흐름(그림2-10 참조)을 살펴보면 2017년 새정부의 신중년(50~69세) 정책을 제외하고, 50+세대(50~64세)만을 별도로 명시하여 지원하는 정책은 없으며, 개별 사업에서 세부 지원 대상 연령(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등)을 구분지어 지원하고 있다.

[그림 3-1] 중앙정부부처 중장년 지원 정책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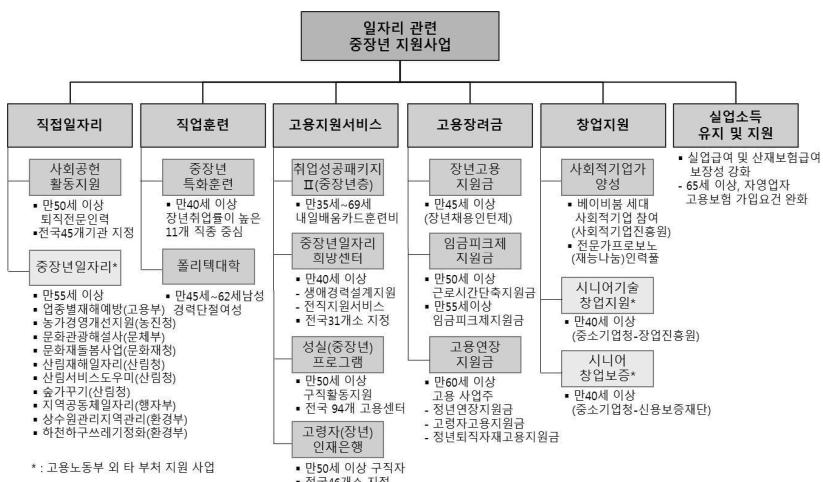
구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타 부처
2010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정(1981.6.5.) - 만 65세 이상 노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5.18.)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1.12.31)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08.3.21) ▪ 준고령자(50세 이상~55세 미만) ▪ 고령자(5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
2011년 ~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다중적 노후수도 보장체계 확립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설계 강화 ▪ 노후준비지원법 제정(2015.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 세대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강화 -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지원 확대 - 퇴직준비·능력개발 지원 강화 - 조직 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사회기여 및 재능나눔 지원 활성화 - 고령사회 대비 세도·언프라 정비 ▪ 장년고용증대정책(2014년)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도입 - 퇴직예정자 이모작 지원제도 - 평생 직업능력 향상 - 재직·재취업·은퇴 3단계 지원 - 인프라 : 장년친화적 일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 4050뉴스타트통합지원사업(2013년) - 인생재설계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 중장년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 ▪ 중소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2013~2017) ▪ 행정자치부 : 제2차 자원봉사진흥 국가계획(2013~2017) - 퇴직 공무원 재능나눔 사업지원 등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2017) - 베이비부머 봉사단 운영 등
2016년 ~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중·고령자 근로기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노후준비 지원 확대 ▪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기본계획(2016~2020) ▪ 새정부·신중년재충전센터설치 발표(2017.6.) 국민연금공단(지역노후준비센터) 기반 2020년까지 229곳 설치 50,60대의 인생3모작 체계적 지원 - 생애경력설계 교육과 상담, 일자리 연계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4대 영역 지원 - '신중년'들이 교류하는 '사회참여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방안(2016년) - 생애경력설계 확충(만40세 이상) - 직업훈련 기회 확대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장년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 새정부·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 발표(2017.8.) - 주요 10대 과제(정부부처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②전직자일서비스 의무화(대기업) ③신중년 특화훈련 확대(플리텍 대학) ④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지급 ⑤신중년 인프라 통합·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2017년 업무계획 - 고령사회대비 문화노후준비기반 마련 (60세 이상 ⇒ 50세 이상 참여대상 확대) ▪ 중소기업체 :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계획(2017) 소상공인지원 3개년 기본계획(2017~2019) ▪ 종교부 : 종교인 노후준비 지원사업(2017~2019) ▪ 세관 : 국내외 노후준비 상황 분석 및 대응(2017~2019) ▪ 행정안전부 : ①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 ②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 노령층 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③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④제2차 노후준비 지원 확대 ⑤국제화·국제화 지원 - 행정안전부 : ⑥자원봉사 지원 확대

최근 정부의 50+세대(50~64세) 및 노인(65세 이상) 대상 정책지원은 일자리(고용), 교육(훈련), 복지(노후설계) 등을 한 곳에서 통합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기존 중복·유사 사업은 통폐합 하고, 기관간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처별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면 그동안 50대 이상 연령층 대상 지원 정책은 주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관점에서의 고령자 지원정책, 보건복지부는 복지 관점에서의 노인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부처의 경우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정책의 일부 사업 중 50+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2017년 상반기 기준)을 살펴보면 <그림2-11>와 같다. 여기에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신중년 특화훈련 확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확대 등 새부의 신중년 지원사업이 추가될 계획이다.

[그림 3-2] 정부부처 일자리 관련 중장년 지원사업(2017년 상반기 기준)



1. 일자리 정책 및 사업 방향

1) 분야별 일자리 예산³⁾

정부의 일자리 예산 지원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고용성과가 높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며, 단기 지원인 직접일자리 규모는 축소 또는 전년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최근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 일자리 예산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17조 5,229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에서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68.5%), 중소기업청(14.3%), 복지부(10.4%) 등 3개 부처가 전체일자리 예산의 대부분(93.2%)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1.9%, 여가부 1.1%, 기타 20개 부처는 모두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 분야별 일자리 예산 현황 및 중점투자 방향

(단위: 조원)

구분	2016년 (본예산)	2017년 (억)	증감 (%)	중점투자 방향	주 지원 기관
직접 일자리	2.6조 (16.5%)	2.6조 (14.9%)	-0.1	문화, 예술 등 청년선호 분야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업훈련	2.1조 (13.3%)	2.4조 (13.7%)	12.3	재학단계 일경험, 사회수요맞춤형 훈련, 일학습병행제 확대	고용부
고용 서비스	0.7조 (4.4%)	0.8조 (4.6%)	21.5	고용복지+센터 확충 및 일자리포털 구축	고용부
고용 장려금	2.8조 (17.7%)	3.2조 (18.3%)	14.5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등 구직자 지원 강화	고용부
창업지원	1.9조 (12.0%)	2.2조 (12.6%)	16.8	창업 전(全)단계를 원스톱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신설	중소기업청, 교육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5.7조 (36.1%)	6.3조 (36.0%)	10.0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부
총 계	15.8조원	17.5조원	10.7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7 일자리사업 개편 주요내용’, 2016.8.31.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이며, 정부 추경예산 반영 전 수치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2)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일자리 투자는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축소할 방침이지만 경기상황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2017년도 중장년일자리사업 예산은 1,634억원으로 전체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의 6.0%에 불과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4,897억원으로 전체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의 18.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 2017년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지원 대상	예산(억원)		계획인원 (명)	소관부처
		금액	비율		
청년 일자리	만 34세 이하	3,479	12.9	53,274	고용부, 교육부, 국토부, 농진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부, 산림청, 외교부, 행자부 등 9개 부처
중장년 일자리	만 50세 이상	1,634	6.0	31,679	고용부, 농진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산림청, 행자부, 환경부 등 7개 부처
노인 일자리	만 65세 이상	4,897	18.1	445,534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등 3개 부처
장애인 일자리	미취업 장애인	824	3.0	16,404	복지부 1개 부처
일반 일자리	취업취약 계층 등	16,241	60.0	217,320	고용부, 농림부, 복지부, 여가부, 환경부, 보훈처, 행자부 등 7개 부처
총 계		27,069	100.0	764,176	총 15개 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2017 직접일자리사업 통합 공고', 2016.12.30.

(1) 중장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장년 직접일자리사업의 유형은 주로 사회봉사복지형, 공공업무지원형, 경기대응형 등이며,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산림청의 산림재해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숲가꾸기사업, 문화재청의 문화재돌봄사업, 행자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장년 직접 일자리사업은 중앙부처 직접수행, 중앙-자치단체 매칭사업, 자치단체 고유사업 등으로 수행된다.

[표 3-3] 2017년 중장년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명, 억원)

사업명	지원요건	예산 (억원)	계획 인원 (명)	소관부처수행방식 수행기관	유형
사회공헌 활동지원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자(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	60	4,500	고용부지자체보조 전국36개기관 위탁 운영	사회봉사· 복지형
업종별재해예방 (안전보건지킴이)	만 55세 이상 중 건설업, 산업안전 실무 1년 이상 경력자	39	160	고용부출연·위탁·산 업안전보건공단	공공업무 지원형
농가경영개선지원 (민간전문가육성)	체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실무경력자	29	80	농촌진흥청·직접수 행·농촌진흥청	공공업무 지원형
문화관광 해설사육성	외국어 구사, 관광서비스 마인드 등을 갖춘 자	51	2,700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보조·자치단체	사회봉사· 복지형
문화재 돌봄사업	만 18~70세 이하 문화재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 등	125	839	문화재청·지자체보 조·자치단체	경기대응형
산림재해 일자리	만 55세 이상 산림분야 자격증 우대	689	12,163	산림청·지자체보조 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공공업무 지원형
산림서비스 도우미	만 55세 이상 우대	106	1,015	산림청·지자체보조 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공공업무 지원형
숲가꾸기(공공산 림가꾸기)	만 55세 이상 우대 단, 작업도구 사용에 제한이 있는자 및 재학생 참여 불가	152	1,494	산림청·지자체보조 자치단체 및 국유림관리소	경기대응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가구소득이 기준소득 6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279	8,000	행자부지자체보조 자치단체	경기대응형
상수원관리지역관 리(하천변쓰레기 수거)	해당 지자체 거주자, 만 55세 이상 우대	14	331	환경부지자체보조 자치단체	경기대응형
하천하구쓰레기정 화사업	만 55세, 취업취약계층 우대	90	397	환경부지자체보조 자치단체	경기대응형
총계		1,634	31,679		

자료: 고용노동부, '2017 직접일자리사업 통합 공고', 2016.12.30.

(2) 노인 직접일자리사업

노인 직접일자리사업 유형은 주로 사회봉사복지형이며, 보건복지부 주관의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재능활동형 외)이 4,293억원의 예산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사업은 만 56세 이상 장년 여성도 참여 가능하다.

[표 3-4] 2017년 노인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명, 억원)

사업명	지원요건	예산 (억원)	계획 인원 (명)	소관부처수행 방식수행기관	유형
아동안전지킴이	재향경우회 회원,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등	241	5,934	경찰청·민간보조 경찰청	사회봉사 복지형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이야기할머니)	만 56세~70세 이하 여성 무직자	78	2,700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한국국 학진흥원	사회봉사 복지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	만 65세 이상	284	44,900	복지부지자체보 조노인일자리수 행기관	사회봉사 복지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 외)	만 65세 이상	4,293	392,000	복지부지자체보 조노인일자리수 행기관	사회봉사 복지형
총계		4,897	445,534		

자료: 고용노동부, ‘2017 직접일자리사업 통합 공고’, 2016.12.30.

3) 직업훈련

직업훈련 분야는 기존 7개 구직자 훈련과 8개 재직자 훈련으로 운영하던 것을 구직자는 ‘실업자계좌제’, 재직자는 ‘사업주 훈련지원’으로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운영상 통일성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HRD-net을 통해 훈련

기관·과정·성과정보(2년간 직종별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자 임금수준 및 사업장 규모 등)를 공개하고, 수요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 연령별 재직자 훈련 및 실업자 훈련 참여현황

2015년도 재직자 훈련 참가자 중에서 재직 중(고용보험 피보험자)인 50+세대(50~64세)의 참여율은 1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 훈련 역시 기존 훈련기관의 50+세대 모집 유인 부족, 50+세대의 참여가 적은 취업성공패키지 중심의 훈련 운영 등으로 50세 이상의 훈련 참여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50세 이상 연령대별 재직자 훈련 및 실업자 훈련 참여현황(2015년)

(단위: 명, %)

연령	재직자 훈련		실업자 훈련(국기훈련)		실업자 훈련(계좌제)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50세 미만 계	1,992,000	85.9	58,800	90.9	125,900	84.6
50~54세	160,000	6.9	1,900	3.0	9,900	6.6
55~59세	97,000	4.2	2,000	3.1	8,000	5.4
60~64세	44,000	1.9	1,400	2.2	4,400	3.0
50세~64세 계	301,000	13.0	5,300	8.3	22,300	15.0
65세 이상 계	26,000	5.3	500	0.8	600	0.4
전체	2,319,000	100.0	64,600	100.0	148,800	100.0

자료: 관계부처합동, ‘장년고용서비스강화방안’, 2016.10.19.

반면, 50+세대의 자격증 취득은 2011년 28,837명(4.6%)에서 2015년 43,930명(6.8%)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는 과정평가형자격⁴⁾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취득하는 자격증이 증가할 예정이다.

4) 과정평가형자격: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내부외부평가를 통해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

[표 3-6] 50세 이상 연령대별 (검정형)자격취득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0세 미만 계	604,358	499,626	554,909	549,894	602,672
50~54세	17,630	17,548	22,544	20,919	23,004
55~59세	8,677	9,660	13,379	13,145	15,256
60~64세	2,530	2,771	4,036	4,319	5,670
50세~64세 계 (전체 대비 비율)	28,837 (4.6%)	29,979 (5.7%)	39,959 (6.7%)	38,383 (6.5%)	43,930 (6.8%)
65세 이상 계	571	595	858	894	1,017
전체	633,766	530,200	595,726	589,171	647,619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2) 중장년특화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중 장년취업률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장년특화과정’을 운영한다. 건축시공, 염색가공, 건축설비설계, 가스설비시공, 열냉동설비, 생태복원·관리, 공조냉동기계,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시스템제어, 패션디자인, 내선공사 등 11개 직종이다.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좋은 과정에 대해서는 개인 자부담을 축소하고,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50세 이상 수강생 취업률 평가 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장년 훈련생 모집을 촉진한다.

4) 고용지원서비스

행정자치부는 생애주기별로 국민생활 밀접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부처 간 협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다.

(1) 고용센터 - 취업지원 기능 강화

실업급여 지급 등의 행정업무 중심으로 운영하여 취업활성화 기능이 약화된

고용센터를 ‘취업지원 종합기관’으로 강화시킬 계획이다. 2017년도에 센터 내 실업인정 창구를 취업상담 창구로 일원화하고, 일자리발굴전담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기관에 취업지원 기능을 인소싱(시범 실시 후 확대 예정)하여 민간과 공공부문간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2017년 8월 현재 전국에 96개의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포함)가 분포하고 있다.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성실(중장년층)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며,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Ⅱ)도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또한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한 곳에서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2017년 8월 현재 전국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7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강서, 인천, 서의정부, 춘천, 청주, 대구, 광주광산, 군산, 전주 등 9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중장년 상담창구(노사발전재단 운영)가 있다.

(3)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전직지원, 생애설계 서비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32개소를 지정하고 있다.

(4) 고령자인재은행(장년인재은행) - 장년 취업 알선

장년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장년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만 50세 이상의 장년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8월 현재 전국

4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여성발전센터 등 총 9개소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워크넷 - 부처별 고용·훈련정보시스템 통합(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www.work.go.kr)을 대한민국 일자리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부처별 고용·훈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인, 구직 등 일자리 채용정보, 직업훈련, 고용보험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워크넷은 청년, 여성, 장년 등 이용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0+세대는 워크넷을 통해 장년 우대 채용정보, 성실프로그램, 준고령자 직업 선호도검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장년고용뉴스, 전직지원서비스,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장년인턴제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5) 고용장려금

정부의 장년층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으로는 장년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고용연장지원금 등이 있다.

(1) 장년고용지원금(장년취업인턴제)

만 45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년인턴 채용기업에게 최대 3개월 월 60만원을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경제단체, 공공기관 등을 장년고용지원금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현재 전국 78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다.

(2) 임금피크제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지원사업으로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지원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있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한다.

(3) 고용연장지원금

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정년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이 있으며,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17년까지 한시 지원)이 있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센터에서 요건 심사후 지급한다.

[표 3-7] 고용노동부 장년대상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목적	종류	지원대상	비고
장년고용지원금 (장년취업인턴제)	만 45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기능성을 높임	장년고용지원금	만 45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채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포함)	전국 78개 기관 위탁 운영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임금피크제지원금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고용센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연장지원금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정년연장지원금	정년연장을 60세 이상으로 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센터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 퇴직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 하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go.kr/>), 워크넷(www.work.go.kr), 2017.5.10.

6) 창업 지원

창업지원 사업은 보통 청년 대상 지원사업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창업성공 패키지는 청년대상 창업지원 사업인데, 앞으로 창업과 성장단계별 ‘교육 → 사업화 → 자금지원 → 보육 → 후속지원’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최근 연령대별 신설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30대의 창업률은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창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12년 이후 50대의 창업률이 30대의 창업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8] 연령대별 신설법인 현황

(단위: 명, %)

창업자 연령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0세 미만	2,823 4.3%	3,510 4.7%	3,644 4.8%	3,885 4.6%	4,986 5.3%	6,062 6.3%
30세~39세	15,842 24.3%	17,538 23.6%	17,667 23.4%	18,921 22.3%	20,418 21.8%	20,883 21.7%
40세~49세	26,116 40.1%	29,347 39.6%	29,534 39.1%	33,100 39.1%	35,699 38.1%	35,425 36.8%
50세~59세	15,687 24.1%	18,410 24.8%	18,908 25.0%	21,898 25.9%	24,469 26.1%	25,070 26.1%
60세 이상	4,583 7.0%	5,277 7.1%	5,726 7.6%	6,808 8.0%	8,108 8.6%	8,569 8.9%
기타	59 0.1%	80 0.1%	95 0.1%	85 0.1%	88 0.1%	146 0.2%
전체	65,110	74,162	75,574	84,697	93,768	96,155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통계-신설법인 동향(<http://www.smba.go.kr>), 2017.6.7.

1인 창조기업 역시 대표자의 연령은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51세, 서울은 50세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정보서비스, 창작·예술·여가서비스 등은 40대 초반, 전문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등은 40대 후반, 농림어업, 제조업, 기타금융서비스, 수리업 등은 대표자 평균연령이 50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1인 창조기업 업종별 대표자 평균 연령(2015년)

(단위: 개, %, 세)

구분	사업체수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대표자 평균연령
전자상거래업	2,980	46.5	31.2	11.6	6.4	4.3	42세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7,339	37.8	43.5	15.3	2.3	1.1	43세
창작, 예술, 여가 관련서비스업	2,864	44.7	29.3	21.0	4.0	1.0	43세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18,959	26.4	39.1	20.2	9.4	4.9	47세
교육서비스업	65,834	17.1	46.7	19.6	12.5	4.1	48세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서비스업	10,376	21.7	33.1	22.1	18.6	4.4	49세
농림어업	89	11.7	28.4	32.7	25.6	1.7	52세
제조업	82,473	12.5	23.3	36.1	22.3	5.8	53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	727	4.1	41.5	17.7	24.1	12.6	55세
수리업	58,133	4.0	21.3	34.9	32.1	7.7	57세
전체	249,774	14.7	31.4	28.5	19.9	5.5	51세
서울	55,975	19.6	31.1	29.0	16.1	4.2	50세

자료: 창업진흥원, '201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016.4.

(1) 정부의 중장년 대상 창업지원 사업

정부의 장년대상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시니어기술창업지원사업, 시니어창업보증 등이 있으며,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중장년층이 많이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등이 있다.

[표 3-10] 정부 및 지자체의 중장년 창업지원 사업

주관	사업명	지원 내용	대상	신청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 창업과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사업	기술창업분야의 창업이론실습 중심의 실전창업교육으로 교육과정 중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선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창업 공간 및 자문, 경영 지원, 예비퇴직자 맞춤 교육 등도 지원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창업진흥 원 (창업넷 www.k-st artup.go.k r)
	1인	사무공간 제공 및 법률세무마케팅	(예비)1인	

주관	사업명	지원 내용	대상	신청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에 관한 자문, 창업 교육 등 경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지원	창조기업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시니어 창업보증	중장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자금 공급 지원	만 40세 이상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16개 지역신용 보증재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과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팀)를 선별하여 사회적 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창업 공간, 창업비용, 멘토링 및 교육, 사후 지원 등	(예비)사회적기 업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한국사회 적기업진 흥원 창업지원 팀

자료: 중소기업청, ‘2017년도 창업지원사업’ , 2017.2.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창업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창업활동지원 사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제품개발, 포장디자인, 판로개척, 기술이전, 전문가 멘토링, 특성화 교육 등 시장진출 및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성장지원센터를 2017년 3월 개소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 시장형사업단(설립을 준비하는 기업·기관 포함)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한다.

[표 3-1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성장지원센터(2017.3.29. 개소) - 창업지원

구분	지원 내용
기술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디자인개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신규제품·서비스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 기술인증지원: HACCP, ISO 등 인증·산업규격 취득지원 및 기술에로사항 해결지원 - 판로개척수출: 판매처 개발(바이어 미팅주선 등) 및 수출지원, 계약절차 지원 등
경영관리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관리 및 회계·재무, 법률·특허 등의 실무적 경영자문을 통해 경영효율화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시장형사업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
공간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교육장 대여(이용료 무상) - 창업공간 지원(서비스 준비중, ’17. 7월 예정)
교육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예비창업교육 및 집중 멘토링서비스

구분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연계 전문교육 지원 (CJ대한통운-택배사업,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 등)
멘토링(프로젝트 팀·일대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 전문가 및 창업경험자, 전문직 퇴직자로 구성된 자문단이 시장조사, 수익모델 개선·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1:1 멘토링 제공 - 전문 컨설팅 팀 및 청년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수익모델 개선, 홍보·마케팅 지원 등 기업 및 사업단의 애로사항 해결
지식공유(사업운영 노하우, 물품 판매임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창업활동 운영 노하우와 기업 및 사업단 간 자원, 물품,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공간

자료: 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성장지원센터(<http://kordi.go.kr/growup/main.do#>), 2017.5.22.

7)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정부는 앞으로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할 방향이다.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40,50대 실업급여 수급인정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서울시 기준 2015년 40대 실업급여 수급인정자는 3만9천명으로 2008년 대비 7천명(22.8%) 증가하였으며, 50대 실업급여 수급인정자는 4만 2천명으로 2008년 대비 1만 2천명(39.3%) 증가하였다.

[표 3-12] 40~50대 실업급여 수급인정자

(단위: 천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¹⁾
40대	수도권	95	127	110	105	106	108	116	111
	서울시	32	44	40	38	38	39	42	39
50대	수도권	72	98	101	99	101	105	115	113
	서울시	30	41	43	42	41	42	44	4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 . 1) 2008년 대비 2015년 증감률

8) 새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등 6개 분야)은 중앙부처 185개(2017년), 지자체 4,186개(2016년) 등 사업수가 너무 많고,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부처별·지역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2017.8.8. 발표)’에 의하면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정부부처·지자체별로 따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들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고용효과·사업성과(취업률 등)의 예산반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집행현장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표 3-13] 새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2017.8.8. 발표)

구분	추진 내용
유사증복사업 통폐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위 일자리 전담부서를 통해 지자체간 유사증복 사업을 점검하여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부처 사업을 조정 운영하는 등 자체 총괄 기능 강화
사업 운영 방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일자리 50개 사업(’17년)은 워크넷을 통해 통합 공고하고 참여 신청을 받아 접근성을 높임 - 직접일자리 참여자들이 민간일자리로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품질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고용서비스품질센터’를 신설하여 표준서비스 인증기준 제정 - 법부처 훈련사업 논의 위한 ‘(가칭)국가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부처 직업훈련 성과관리 체계 구축
일자리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 성과평가 강화	<p>일자리사업평가팀(한국고용정보원)의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집행과정의 애로사항 및 예산낭비 요인 파악 → 소관부처에 전달·해소</p> <p>개별 일자리사업에 대해 고용효과(10억원당 고용창출)와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부여 → 예산편성에 반영</p>

자료: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molab_suda/221069639161), 2017.8.8.

2. 장년층 고용 및 창업 지원

정부의 장년층 지원 정책(고용 부문)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장년고용 대책(2014년) ⇒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2016년) ⇒ 인생3모작 지원(2017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14년 9월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 발표)으로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평생현역준비, 재직, 재취업, 은퇴, 인프라 강화 부문의 과제를 추진 하였으며,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생애경력설계 기회 확충, 직업훈련 기회 확대,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장년 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등 4개 부분의 강화방안을 추진하였다.

2017년 5월 새정부(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 및 중장년 정책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동년 7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지역노후준비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신중년 재충전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신중년 재충전센터는 생애경력설계 및 교육·상담, 일자리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신중년 커뮤니티 플랫폼 등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2017년 8월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 발표)으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로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신중년 인프라 통합·연계 등 신중년의 인생3모작(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사회공헌 일자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 관계부처 합동 - 장년고용 종합대책

정부는 2014년 9월 24일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장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 당시 장년층(50~64세)은 기업의 조기 퇴직 관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된 일

자리에서 퇴직하고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서 재취업하더라도 임시·일용직(45.6%), 생계형 자영업(26.7%) 등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년층의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걱정이라는 3가지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평생현역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도입, 재직-재취업-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퇴직연금제도 개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과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다.

[표 3-14] 정부부처 합동, ‘장년고용종합대책’ 추진 과제(2014)

유형	고용 실태	추진 과제
평생 현역 준비	경력진단·생애설계 기회 부족 퇴직시 전직지원서비스 부재 직업능력 향상훈련 등 참여 미흡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도입 퇴직예정자 이모작 지원제도 신설 평생 직업능력 향상
재직	50대 초반 조기 퇴직 주된 일자리 고용불안	장년 연장 및 임금인사제도 개편 근무형태 다양화로 고용안정성 제고
재취업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기회 부족 경험·기술 살린 일자리 부족 생계형 자영업 창업 증가	빈일자리 지원 및 인턴제 등 확충 전문인력 지원사업 확충 임금근로자 전환 및 사회경제적 창업 지원
은퇴	은퇴기 사회활동 기회 부족 저소득 장년층 생계 불안 노후소득 보장 미흡	사회공헌활동 기회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 확충 및 효율화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제도 개선
인프라 강화	높은 산재율, 건강관리 소홀 전담기관 등 부족한 인프라 장년고용에 대한 인식 부족	장년 친화적 안전·건강일터 조성 장년 취업지원기관 확충 장년고용 인식개선 추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 ‘장년고용 종합대책’ 발표, 2014.9.24.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확대, 고용센터와 협의체 구축,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장년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등 전달체계 강화 계획도 포함되었다.

장년고용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지정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자수는 25,445명(2015년) → 33,075명(2016년), 생애 설계프로그램 참여자수는 9,736명(2015년) → 12,576명(2016년), 전직지원서비스 참여자수는 2,450명(2015년) → 4,512명(2016년)으로 증가하였다. 장년친화

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년연장 연계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12.1%(2015년) → 18.6%(2016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년(50~64세)고용률은 65.9%(2015년) → 66.1%(2016년), 장년고용지원금 정규직 전환율은 68.1%(2015년) → 69.6%(2016년)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표 3-15] 정부부처 합동, ‘장년고용종합대책’ 추진 성과(2017)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생애설계프로그램 참여자수(명)	신규	9,736	12,576	20,000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016년 12개소 ↓ 2017년 31개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자수(명)	-	25,445	33,075	-	
전직지원서비스 참여자수(명)	-	2,450	4,512	-	
임금피크제 도입률(%)	9.9	12.1	18.6	21.9	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
장년(50~64세) 고용률(%)	65.6	65.9	66.1	66.2	경제활동인구조사
장년고용지원금 정규직전환률(%)	69.3	68.1	69.6	70.0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고용노동부, ‘2017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7.3.

2) 고용노동부 -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방안

고용노동부는 2016년 10월, 고령화 시대 및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생애경력설계 기회 확충, (2)장년직업훈련 기회 확대, (3)장년취업지원서비스 강화, (4)장년 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등으로 ‘장년 고용 종합대책(2014년)과 관련하여 더 강화된 방안이다.

(1) 생애경력설계 기회 확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에 지난 경력을 돌아보고, 직장내에서의 능력 개발과 퇴직 이후의 경력 설계 등을 점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장년나침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만 4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40대, 50대, 퇴직 전후 각 1회) 경력 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기초과정(생애조망, 직업역량 도출), 심화과정(경력대안 개발, 평생경력계획 수립), 선택과정(재무, 건강, 여가, 관계)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전국 32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진행한다.

[표 3-16] 생애경력설계서비스(고용노동부 장년나침반 프로그램)

구분	운영 과정	주요 내용	비고
기초 (6H)	(동)나의 생애조망하기	중장년기의 특성 이해하기 내 삶의 가치 탐색하기	
	(서)직업역량 도출하기	직업세계변화 따라잡기 직업역량 검사 및 해석 강점역량 공유 및 약점역량 보완하기	롤플레잉, 팀빌딩, 진단, 교육, 게임 등을 활용한 학습방법 · 무료, 식사제공 ·
심화 (6H)	(남)경력대안 개발하기	경력설계의 4가지 방법 대안개발 사례연구 경력설계를 위한 네트워킹	만 40세 이상, 재직자, 구직자 ·
	(북)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경력계획 사례연구 나의 저력 찾기 경력계획 수립	중장년일자리희 망센터 교육장에서 진행 ·
선택	재무	자산관리	
	건강	노화예방, 건강유지	
	여가	여가정보 제공	
	관계	소통과 갈등 극복	
연령별 주요 설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대: 생애후반기 중점 투자 영역 점검(일, 재정,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직업역량 진단 및 경력자산 발견 지원 - 50대: 중장년기 특성 및 외부 환경변화 이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력 모색 (창업, 귀농, 사회공헌 등) - 퇴직 전후: 자신감 고취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기초역량 유지·개발 및 재취업 전략 모색 등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2017.5.10.
관계부처합동, ‘장년고용서비스강화방안’, 2016.10.19.

(2) 직업훈련 기회 확대

재직 초기부터 장년기까지 단계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업의 연령대별 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산업·기술 변화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6년까지 만 45세 이상 중장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경력 재설계, 기업맞춤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였던 ‘중장년취업 아카데미’는 2017년부터 실업자훈련과 통합되었으며,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이 근로자수강지원제도⁵⁾를 이용할 경우 수강료 환급대상이 된다.

(3)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퇴직(예정)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로 원활한 노동 이동을 지원하고, 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활성화 및 장년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년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고,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① 전직지원 서비스

전직을 원하는 만 40세 이상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1:1 재취업·전직 컨설팅, 구인구직 알선서비스, 구직지원 서비스, 전직지원교육 프로그램(재취업 역량 강화 특강, 재도약프로그램, 취업동아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운영한다.

② 성실(중장년층) 프로그램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직 자신감 고취, 일자리 정보 탐색,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남, 선택, 배움, 궁정, 다짐의 마당으로 구성된 소그룹 교육이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5)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100%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③ 중장년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I),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II)를 대상으로 최장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성공패키지 II 중장년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1단계) 진단, 의욕 제고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2단계) 직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 (3단계)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및 취업성공으로 이어지며,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4) 장년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고령자고용법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⁶⁾고 규정함으로써 장년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법률로 의무화 하고 있으며,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대비한 일터혁신 교육 및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앞서 기술한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55세 이상 임금피크제지원금도 장년친화적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7] 장년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지원사업

구분	대상	비고
일터혁신 컨설팅- 장년고용 안정체계 구축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관리제도,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제안 - 장년친화 인사제도 정비(승진, 직무, 직무체계 등) - 장년 적합 직무 발굴 - 숙련 전수시스템(멘토제, 역멘토제 등), 임금피크제 * 장년고용안정지원금(임금피크제지원금 등 6종)과 연계	중고령자 비중이 높은(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0% 이상) 기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교육	기업 CEO 및 노조간부, 인사노무담당자 및 일반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일터혁신교육(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과정 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관련 교육 포함	노사발전재단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6.7.28.] 제19조 제1항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 16.1.1.부터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17.1.1.부터

구분	대상	비고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선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그 외 사업주는 우선적 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우선고용직종 - 공공부문 47개, 민간부문 83개 지정	고령자고용 촉진법

자료: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https://www.nosa.or.kr/>) 2017.5.10.
고용노동부, '장년 적합직무 운영 안내서', 2015.1.

3) 새 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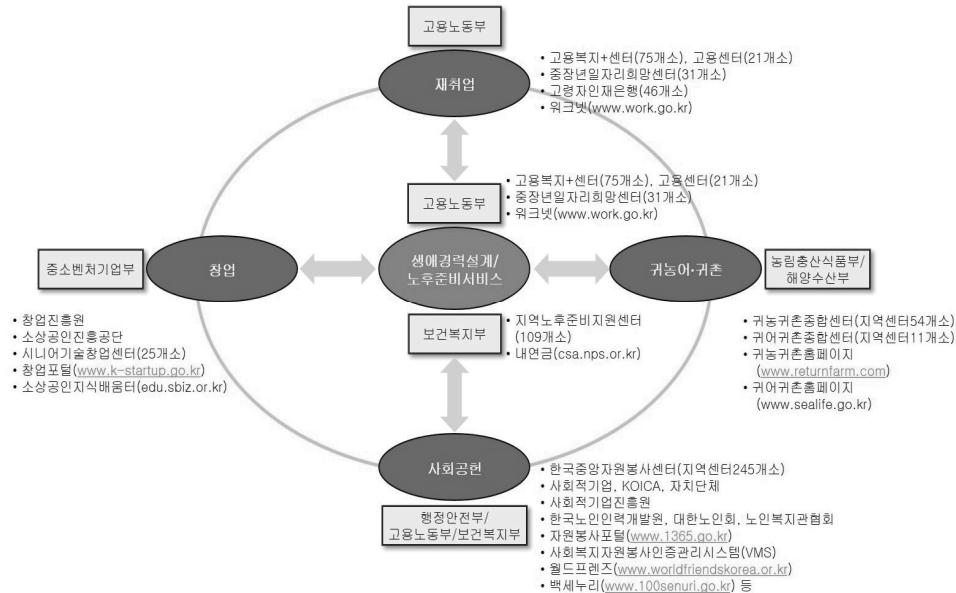
2017년 8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방안’을 발표(고용노동부 발표)했다. 신중년은 5060세대를 의미하며, 인생3모작이란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사회공헌 일자리’를 의미한다. 신중년 육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서비스를 확충하고, 생애경로를 미리 설계·준비하도록 지원하여 인생3모작 성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그림 3-3] 정부부처 합동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방안’ (2017.8.8.발표)

새 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방안 발표

비전	인생3모작으로 활력있는 신중년(Active Aging)			
목표	고용가능성 확충	창업의 질 향상	정착성공률 제고	사회공헌활동 저변 확대
추진 방향 및 과제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신중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 ▪ 신중년 고용환경 개선 	비생계형·기술 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밀업종 진입억제 및 틈새시장 개발 ▪ 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 ▪ 기술창업 교육의 내실화 및 재도전환경 조성 	귀농·귀어·귀촌 지원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어·귀촌 실현 ▪ 정착 및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 활성화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저변 확대 ▪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충
체계적 경로설계 및 서비스 연계 강화				

[그림 3-4]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인프라 현황(2017년도 온·오프라인)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 비생계형·기술창업 활성화, 귀농·귀어·귀촌 지원 내실화,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 체계적 경로설계 및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의 추진 방향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표 3-18]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방안’ 추진 일정(2017.8.8.발표)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과제	일정	주무 부처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2018년1월~	고용 노동부
	실업급여 단계적 적용 확대 및 보장성 강화	2018년1월~	
	직업능력 진단 프로그램 개발·제도화	2018년12월~	
	◎ 대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2018년3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도입 추진	2018년12월~	
	◎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지정	2017년9월~	
	지자체 협업형 신중년 훈련과정 신설	2018년1월~	
비생계	유급휴가훈련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수준 상향	2018년1월~	중소
	◎ 신중년 적합직무 개발·확산	2017년8월~	
	신중년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계속	
비생계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과밀지역·업종 전입 억제	2018년1월~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과제	일정	주무 부처
형·기술 창업 활성화	◎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 지원	2017년8월~	벤처 기업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지원 강화	2017년6월~	
	◎ 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	2017년7월~	
	소상공인의 기술교육 접근성 제고	2018년12월~	
	노란우산공제 가입확대 및 수급권 보호	2017년7월~	기재부
	영세 재기사업자의 소액체납액 면제	2017년8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2017년12월~	
귀농·귀어·귀촌 지원 내실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	2017년9월~	고용 노동부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2017년12월~	농림 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 체류형 농어업 창업 지원	2017년12월~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귀농·귀어·귀촌 지원 강화	2017년12월~	
	현장실습형 기술교육 확대	2017년12월~	
	정착 초기 부담 완화	2017년12월~	
	◎ 지역주민과의 융화 지원	2017년12월~	
사회 공헌 일자리 확충	지역 일자리 연계 활성화	2017년12월~	행정안전부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17년12월~	
	◎ 신중년 자원봉사 저변 확대	2017년12월~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확대	2018년1월~	
체계적 경로설계 및 서비스	공익형 노인일자리 확대	2017년8월~	복지부
	사회적 경제영역 참여 확대	2018년1월~	고용부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2017년9월~	고용 노동부
연계 강화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2019년12월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19년12월	
	신중년 지원기관 공간적 통합 추진	2018년1월~	보건 복지부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관계부처 협동 홍보 및 교육	2017년9월~	부처 협동

자료: 관계부처 협동,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2017.8.8.

주요 10대 과제의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9]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10대 과제(2017.8.9.발표)

10대 과제	추진 내용	부처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 취업성공패키지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100% 초과 신중년에게 ‘생애설계-훈련-취창업’ 을 one-stop으로 제공(만 50세~69세까지 중장년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내일배움 카드를 통해 최대 월 11만 6천원 지원)	고용노동부

10대 과제	추진 내용	부처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대기업),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중소기업, 산업단지 등) - 심리상담, 생애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비자발적 퇴직자의 원활한 직장 이동 지원 	고용 노동부
신중년 특화 훈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하여 신중년 친화특화 과정을 개설(' 17년 중 4개 캠퍼스 7개 학과 선정 계획) - 직업능력진단프로그램 개발·제도화(' 18년), 벡데이터 기반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 구축(' 19년) 	고용 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월 60만원 수준, 1년 지원) 	고용 노동부
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밀·생계형 창업은 지양하도록 정보제공 기능 강화,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제조업 기반 기술 및 경험과 청년의 ICT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을 확대할 계획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내실화하여 창업 성공기능성 제고 - 세대융합센터(6개소)를 통해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인프라부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120팀)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개소)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하여 기술 퇴직자와 청년 창업가 매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중소 벤처 기업부
재창업 패키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밀지역·업종 진입 억제,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 연계 제공 (재창업패키지 확대: ' 17년 2,500명→' 18년 3,500명) 	중소 벤처 기업부
체류형 귀농·귀어·귀촌 지원 확대	가족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 17년까지 8개소), 체류형귀어학교(' 18년까지 3개소) 확충 * ' 16년 귀농·귀어·귀촌인구의 30%가 신중년	농림 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귀농귀어귀촌인과 지역주민 상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을 매칭하여 농어업기술 전수 지원 -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漁을림마을(20개소) 조성 -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LH, 6개 시·군) 추진 	농림 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자원봉사 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사회문제 10대 어젠다 분야별 활동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굴로 여러 신중년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법 개정 - 신중년층의 관심분야, 경력, 지역 등에 맞는 사회공헌 일감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 구축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소액의 활동 수당을 받는 사회공헌 	행정 안전부 고용 노동부 보건 복지부

10대 과제	추진 내용	부처
	<p>형 일자리,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할 계획</p> <p>* 사회문제 10대 어젠다: ①교육역량 혁신, ②사회안전 및 범죄예방, ③빈곤예방 및 해결, ④여가문화, ⑤환경, ⑥마을공동체 강화, ⑦고령화 사회 극복, ⑧인권·다문화·생명존중, ⑨평화통일, ⑩기타</p>	
신중년 인프라 통합·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여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준비 4대 분야(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대한 교육상담 서비스 등을 활성화 - 국가일자리포털: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19년 말) - 고용복지+센터: 신중년 전문 서비스 창구 개설 <p>* 향후 고용복지+센터와 국가일자리포털('19년 말 완료예정)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연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p>	고용 노동부 보건 복지부

자료: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molab_suda/221069639161), 2017.8.8.

향후 고용복지+센터와 국가일자리포털(워크넷)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연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표 3-20] 국가일자리포털(워크넷) 개편 방향(2017년)

구분	기준	개편 방향
일자리 정보망	고용노동부 정보망(일모아, HRD-net, 월드잡플러스 등)과 타부처(나라일터, 알리오, e-새일시스템, 병역일터 등) 일자리 관련 정보 분산	워크넷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일자리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하여 원스톱 취업정보 제공 (1단계) 훈련, 직업일자리,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부 전산망 연계, 일모아시스템 활성화 → (2단계) 기타부처 정부지원일자리(나라일터, 알리오, e 새일시스템, 병역일터 등) 정보 연계 ('17년말)
검색/ 신청	구인, 구직 등 일자리 채용정보, 직업훈련 정보 검색 가능	구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고용디딤돌, 청년인턴, 채용의 날 등)을 워크넷에서 바로 검색·신청 가능('16년말)
맞춤형지원	일자리 참여자 및 참여기업 정보 통합적 관리지원 기능 미흡	워크넷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맞춤형 취업정보, 직업훈련정보, 정부사업 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17년), 자동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19년 말) 개인 생애주기, 사용자 특성, 서비스 이용패턴, 교육훈련·구직이력 등 통합 분석 후 적합한 정보 제공 및 추천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7 일자리사업 개편 주요내용', 2016.8.31.

4)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년 10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자리 로드맵의 기본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으로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3-21]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0대 중점과제(2017.10.18.발표)

분야	10대 중점과제		세부 추진 100대 과제 중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과제
일자리 인프라 구축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 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근로자 장기근속 및 전직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③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④ 혁신형 창업 촉진 ⑤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서비스 육성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⑦ 지역일자리 창출	공공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근로자 신규일자리 확대(고용 노동부): 신중년 고용 우선직종 개편, 적합업무 신중년 고용창출 장려금 시 범지원(2018년 2,000명) -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고용노동부):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단계적 확대 (2022년까지 5만명)
일자리 질 개선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⑨ 근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 창업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재창업패키지 사업 확대(2018년 3,500명)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⑩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지원(농림수산식품부): 신 중년 귀농 창업교육 확대,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자금지원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10.19.

5) 관계부처 합동 :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 계획,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2017년 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741개, 서울지역에는 299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 발표)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2013~2017)’에 의하면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를 위해 장년 및 청년 연계 프로그램 운영, 베이비붐 세대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사회적기업가 펠로사업 검토, 사회적기업 전문 컨설팅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실천과제로 기업, 대학, 연구소, 퇴직자 등을 전문직으로 구성한 전문가 프로보노(재

능나눔) 인력풀을 확대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며, 여기서 취약계층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⁷⁾도 포함된다.

2017년 10월, 새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신중년 지원 과제에 퇴직전문인력과 NGO·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2022년까지 5만명)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동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되었다. 향후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제정 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계획이다.

[표 3-22] 고용노동부의 장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추진과제	실천 과제	내용
사회적 기업가 양성 확대	장년 및 청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장년의 재능과 경험을 청년 사회적기업가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창업취업, 프로보노 등 다양한 역할(role) 모델 제시 및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베이비붐세대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베이비붐세대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프로보노·창업취업)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에 참여기회 확대 * 은퇴자 수: '11 ~ '15년 53만명, '16 ~ '20년 98만명 예상('11. KDI)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	전문가 프로보노 인력풀 확대	전문가 프로보노(재능나눔) 인력풀을 확대 구축하고, 사회적 기업 연계 활성화 * 인력풀: 기업, 대학, 연구소, 퇴직자 등 전문직으로 구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2013~2017)’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 2017.1.1.] 제2조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6) 관계부처 합동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비중은 전체기업 대비 86.4%로 주요 선진국(미국 47.8%, 일본 62.7%, 영국 95.5%)에 비해 높은 편이다. 폐업률도 21.2%(연간 약 65만개)⁸⁾로 높은 편이어서 소상공인의 과도한 폐업은 개인 뿐만아니라 국가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정부부처 합동 ‘제1차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기본계획(2017~2019)’을 발표(2016.11.3.)했으며,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하여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 3-23] 제1차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기본계획(2017~2019)

대책	주요 내용
창업단계- 과당경쟁 억제 및 신산업 진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전환기(퇴직, 폐업 등) 고령자 대상 파견업무 확대 등 장년층 고용안정을 통한 소상공인 진입 억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허용: (현행) 컴퓨터 전문가, 자동차 운전사 등 32개 업무로 제한 → (개정) 5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 및 파견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 과밀지역·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대한 패널티 부과로 창업 억제 -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예: 특정사업 2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 경영노하우 전수 - ‘백년가게’ 추진)
성장단계-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및 우대 지원, 영세 온라인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확대,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정을 통한 골목슈퍼 육성 등
퇴로단계-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리턴 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등 퇴로 지원,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 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을 확충
특정대상 과제 - 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 신설 등 소공인 지원 강화 -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및 관광객 유입을 촉진
정책인프라-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의 주체가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전통시장 및 임차상인 권리 보호 등 추진 - 소상공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지원인프라 추진

자료: 정부부처 합동, ‘제1차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기본계획(2017~2019)’, 2016.11.3.

8) 정부부처 합동, ‘제1차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기본계획(2017~2019)’, 2016.11.3. p2

7) 중소기업청9) -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 계획

중소기업청은 경력과 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창업교육 실시 및 창업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2017년 현재 서울 3개, 전국 2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원 사업 결과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창업자수는 총 1,282명, 고용인원 476명, 매출액 약 710억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2017년도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계획’에 의하면 스쿨과 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연계 지원 강화, 퇴직(예정)자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기관과 협력 강화, 매니저의 창업지원 역량 강화 및 지원기능 고도화, 센터 간 네트워크 확대와 중장년 창업자 커뮤니티 강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 3-24]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계획

추진전략	실천 과제
기술창업지원 기능 강화	<p>창업지원 단계별 체계 구축: 발굴→교육→창업→보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쿨·센터 기능 통합, 종합 지원: 교육, 상담, 사업화 지원, 보육 -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실전 창업교육 개편 - 구조조정 퇴직자를 위한 특화센터 확대: ’17년 5개소 <p>* (서울지역)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성북구청(한성대 산학협력단), 노원구청 (서울테크노파크), 마포구청(서강대 산학협력단) · 시니어기술창업스쿨: 서강대 산학협력단, 한성대 산학협력단, 호서대 산학협력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모바 기업진흥협회</p>
창업자 성장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업을 통해 역량 있는 퇴직인력 수요 발굴 - 창업자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체계 구축 -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창업지원 정책 연계, 국내외 판로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 네트워크 확대 및 창업자간 커뮤니티 강화: 거점별 협의회 구축 및 운영, 시니어 커뮤니티 구축, 퇴직인력 DB관리
지원시스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니저 보육 역량 강화 - 성과중심의 경쟁체제 개편: 미흡센터 퇴출 강화
기술창업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 창업 분위기 조성: 시니어청년 매칭데이 개최, 창업기업 역량 강화 캠프 및 경진대회 -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사업 홍보 확대

자료: 중소기업청, ‘2017년도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계획’, 2017.2. ‘창업지원사업 계획’

9) 2017년 7월 26일, 새 정부(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새 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방안’(2017.8.9. 발표) 중 ‘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3. 노후준비·여가·교육·사회활동 지원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연령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의 노후 소득과 건강, 여가, 문화, 주거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020년까지 3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1차 목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2차 목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의 성공적 대응이다.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은 ‘새로마지플랜2010’이라고도 하며,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장년층 지원정책 기반 마련을 고민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제1차 계획은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 과제에 장년층 고용지원 관련 계획을 담고 있으며, 중년 이후의 인생설계 및 적응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기회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노후 생활설계 기반마련을 위해 ‘제3기 인생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계획으로 세우고 있다. 제1차 계획의 주요 성과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웠다는 점이지만 실질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지연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은 ‘새로마지플랜2015’이라고도 하며, 2011년 10월 발표되었던 ‘장년세대(베이비붐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 방안’이 반영되었으며, 정책의 주요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에서 50세 이상 베이비붐세대로 확대되었다. 1차 계획에서 지연되었던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과제가 전면에 나오며,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비한 사전적 대응,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은 ‘브릿지플랜2020’이라 고도 하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3차 계획에서 장년층 지원 정책 방향은 중·고령자 근로기반 강화, 60세 정년 안착 등 동일직장 계속 고용 활성화, 정년 후에도 은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모작 고용체계 확립 등이다.

[표 3-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구분	추진 내용	주요부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 임금피크제 지원등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 노후준비와 사회참여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 한계: 장년층 지원정책의 기반 마련이 지연됨 	고용 노동부 보건 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 연장(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 창업지원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등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등 -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고용 노동부 중소 기업청· 기획 재정부 보건 복지부

구분	추진 내용	주요부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 브릿지플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형 컨텐츠 개발 -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정력단절여성·베이비부머 등을 대상 지자체·대학의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확충으로 인생이모작 지원 등 ▶ 노후준비 지원 확대 ▶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정년의무화 정착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확산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교육훈련, 이모작 준비 및 건강관리 등) -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이모작 지원제도의 연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장년 취업인턴제 확대 등을 통해 취업지원체계 강화 -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시니어 기술창업스쿨·기술창업센터 설치·운영 확대 사회적 기업 창업 전문과정 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 추진 	<p>고용 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 교육부 문화체육관 광부 보건 복지부</p>

자료: 보건복지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 .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 .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

2)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

2013년 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을 수립·발표하였다.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를 비전으로, 정책목표는 ① 생애주기(영유아, 아동·청소년, 어르신, 저소득, 장애인)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② 일을 통한 자립지원(청년, 여성, 중장년, 근로빈곤층), ③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이다. 50+세대 관련 계획으로는 '중장년층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으로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신

청제도 도입, 퇴직전문인력 일자리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26]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정책 목표	정책 과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인인구의 70%가지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씩 확충, 다충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가칭)노후설계지원법 제정, 전국단위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 구축,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자원봉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기업규모별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임금직무체계 개편, - 퇴직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신청제도 도입, - 취업아카데미,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한 재취업 지원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자료: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2014.7.

3)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 계획

보건복지부는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 계획(2016~2020)'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노후준비 기반 마련을 준비 중에 있다. 공공·민간 및 각 지방자치 단체의 다각적 연계를 통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활성화 하고, 중·고령자 일자리 지원 확대, 다충 노후소득보장 체계 정착, 거주 지역 중심의 건강생활지원 체계, 여가활동 및 사회공헌 활성화, 취약노인 보호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3-27]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 계획(2016~2020)

정책방향	정책 과제
노후준비 서비스 활성화	<p>▶ 4대분야 종합적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분야: 단순상담에서 심층진단·상담·사후관리 서비스로 전환 - 건강·여가·대인관계분야: 정보제공에서 연계서비스 제공까지 확대 <p>▶ 믿을 수 있는 맞춤형 제공 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성 높은 개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콘텐츠 개발·확산 - 개인 이력 관리가 가능한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p>▶ 내적·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상담·지원 가능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 질 관리 강화 - 촘촘한 노후준비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지원인프라 지속 확대 <p>▶ 홍보 활성화 및 경험공유 장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주요 전환기별 노후준비 인식전환 교육 및 홍보 강화 - 개인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노후준비 인식·경험 공유기반 구축·확산
노후준비 정책기반 강화	<p>▶ 중고령자 일자리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자 전직지원, 중고령자 취업지원 등 이모작 고용체계 확립 - 공공·민간의 노인일자리 기회 확대 <p>▶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1인 1국민연금 시대 구현 - 주택공지연금, 개인퇴직연금 대폭 확산→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착 <p>▶ 거주지역 중심 건강생활지원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 장기요양, 치매 등 지역사회기반 의료돌봄서비스 제공활성화 -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내실화로 서비스 접근성 및 질 제고 <p>▶ 여가활동 활성화, 취약노인보호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층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료: 정부부처 합동,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 계획(2016~2020)'

(1)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제공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를 중심으로 재무·일자리,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관련기관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4개 분야 관련기관 인프라는 2016년 기준 총 10,014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① 재무·일자리분야 915개소

- 고용복지+센터 88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52개소, 자활센터 283개소,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소, 노인일자리 지원기

관 30개소, 대한노인회 8개소, 노후행복설계센터 44개소, 한국주택금융공사 20개소, 한국농어촌공사 113개소, 50+센터 등

② 건강분야 3,789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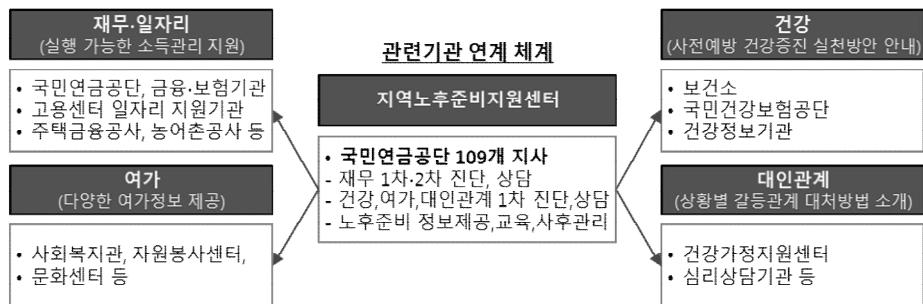
- 보건소 3,191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개소, 치매센터 70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2개소 등

③ 여가분야 5,113개소

- 노인복지관 526개소, 시니어클럽 134개소, 주민자치센터 3,563개소, 사회복지관 252개소, 자원봉사센터 248개소, 지방문화원 244개소, 평생교육원 33개소 등

④ 대인관계분야 197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61개소, 심리상담기관 등

[그림 3-5]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기관)와 노후준비서비스 관련기관 연계 체계



(2)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까지 노후준비 관련 관계부처 및 기관의 사업과 서비스 내용이 탑재되고, 개인이력 관리가 가능한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3-6]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3) 중·고령층 일자리 및 여가활동 지원

정부부처 합동으로 40세 이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취업형, 공익활동, 재능나눔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만 50세 이상 퇴직자가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활성화하고,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활동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표 3-28] 중·고령층 대상 일자리 지원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정부부처 합동)

분야	과제	주요 내용
일자리 지원	중장년 전직 및 취업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세 이상 퇴직(예정)자 대상,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1:1 맞춤 재취업 컨설팅, 구인구직 알선서비스, 재취업창업 교육 등 활성화 - 생애설계(제2인생설계 등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확대 운영(‘16년 12개→’ 17년 31개)
	고령자 취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인재은행’ 16년 49개소,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80개 과정의 취약계층(저학력, 저숙련 고령자)의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노인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취업형, 공익활동, 재능나눔 일자리 사업 활성화(‘16년 38.7만개→’ 20년 58.7만개)
	노인일자리 통합 DB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DB(공익활동 DB, 재능나눔 DB, 시장형사업단 DB, 고령자친화 기업 DB, 민간일자리 DB 등) 구축 - 노인이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행복e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중 1곳만 방문하면 지역 내 노인일자리 정보 일괄 제공
여가활동	중·고령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대상, 전국 문화시설-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문화활동가, 문화나눔봉사단, 문화동아리, 문화일자리, 문화콘텐츠 등 300~350개 운영 -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대상, 연극·무용·음악·미술·사진 등 5개 분야 전문예술강사 및 교육프로그램(300~400개) 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과 노인복지관협회가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
	어르신 체육활동 및 관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대상, 어르신 생활체육종목 보급(17개 종목, 615개소 교실강습, 13개 종목 대회 지원) 및 어르신 야외체력교실 운영(120개소) - 시니어(53~61세) 대상, 시니어 유형별 맞춤 여행 프로그램 제안, 관광정보 제공, 관광 리플렛 배포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 활동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0세 이상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자격증 소지) 퇴직자가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사회공헌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 활성화 지자체와 사회공헌활동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참여자 모집 및 사회공헌활동기관 연계 추진
	중·고령층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발굴 - 1365자원봉사포털 중심으로 타 자원봉사관련단체 및 시스템과 연계 자원봉사 실적관리 운영의 편의 제고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4)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예산을 배분하며, 각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운영한다. 2017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공익·재능나눔활동 1,204개 기관, 취업활동(시니어인턴십) 1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는 220개 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등)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표 3-29]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구분	유형	주요 내용	대상
노인 사회 활동 (봉사)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활동) - 수행기관은 시·군·구를 통해 모집·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활동교육 실시, 활동관리 및 활동비 지급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재능나눔 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활동(노인학대예방, 안전예방, 상담 등)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유도 - 참여자 활동비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근로)	시장형 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 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이 있음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인력 파견형 사업단	수요처의 요구로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 관리사무, 공공·전문직, 서비스, 판매, 농립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등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 - 기업 및 참여자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만 60세 이상 교육이수자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최소 30명 이상)하는 기업을 설립 지원(사업비 일부 지원)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모기업연계형, 시니어직능형	만 60세 이상
기업 연계형 사업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만 60세 이상 근로희망자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https://kordi.go.kr>)

또한, 노인공익활동 및 재능나눔활동과 중복되지 않은 방향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자원봉사를립(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등을 통해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표 3-30]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구분	유형	주요 내용	대상
노인 여가 활동 (여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노인 치매예방 활동, 노인 건강증진 활동, 마을가꾸기 활동, 노인 우울·자살예방 활동 등 -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자원봉사를립(봉사단) 운영 지원 -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만 65세 이상
	경로당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노후생활교육, 레크리에이션활동, 건강운동 활성화,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 대한노인회중앙회(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만 65세 이상
	노인복지관 운영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생활, 노인상담,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사회참여지원, 노인주거 개선, 고용 및 소득지원(일자리), 가족기능지원 및 통합 지원사업,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노인들의 다양한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	만 60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https://kordi.go.kr>)

4) 문화체육관광부 - 고령사회 문화노후 준비 기반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가 누리는 문화’ 추진 세부과제 중 하나인 ‘고령사회 대비 문화노후 준비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2017년부터 어르신 프로그램 사업에 기존 60세 이상에서 중년(50~64세)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1)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문화노후 준비 기반마련

2016년도에 60대 이상만 참여 가능했던 어르신 사업에 2017년도부터는 50세 이상으로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문화기획단체를 통한 어르신 프로

그램 신규기획(20개)으로 세대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도 어르신 문화예술교육(115개)→문화 봉사단·동아리(135개)→문화공동체(30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노인선호 종목(게이트볼 등) 강습 추진 및 지역별 고령인구를 고려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 ('16년 1,200명→' 17년 2,000명)하여 노인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기회 확대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깊은 성찰을 위한 심화강좌 개발보급, 고전인문학당 확대, 인문독서아카데미 등 인문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길 위의 인문학, 인문 360도, 이야기할머니(순수자원봉사 확대), 인생나눔교실 등 인문 브랜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취약계층 아동 및 어르신을 위한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활동을 추진하고, (어르신)할머니가 들려주는 근대역사 관광지 등 세대 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 및 상품을 발굴하여 국민관광 향유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5) 교육부 -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 사업

교육부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고령사회 대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 사업(2012년 5월)'을 발표하고,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을 완료(2012년 8월)하였다. 동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등 3개 세부사업으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표 3-31]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 사업

추진 사업	세부 내용	비고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2017년 7월 현재, 전국 17개 운영) - 지역 수요 기반 시.도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개발·운영 -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능동적 사회 참여 유도를 위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영역 일자리: 특산품공예예술사, 이·미용전문가, 제빵사 - 공공영역 일자리: 녹색생태환경해설사, 가로수조경사, 지역문화·역사해설사 등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평생학습공동체 구축 - 읍·면·동 행복학습지원센터(기존 유·휴시설 기능 전환 또는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지정) 시범 운영 - 평생학습도시: 2017년 7월 현재, 전국 153개(서울 15개 자치구) 지정 - 지역 특성화 사업(취·창업 교육형, 학습형 일자리 창출형, 지역사회 삶의 질 개선형)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과 일자리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동과 소소한 소득 창출로 연계되는 교육사업(예: 지역문화환경해설사, 주민강사, 방과후학교 교사, 학교보안관 등) - 교육결과를 활용하여 과전,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환원 일자리 활동과 연계되는 교육사업(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결성과 활동을 목표로 하는 교육 사업)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 - 평생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원스톱 제공 -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 2030세대: 재직자 등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 - 4050세대: 조기퇴직 및 창업·전직 지원 프로그램과 자발적 학습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 6070세대: 취미·여가생활, 건강·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변화 적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평생학습포털길(gil.gg.go.kr/) - 부산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ble.or.kr) - 충남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damoa.chungnam.net) - 제주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damoa.jeju.kr) - 대전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daejeon.damoa.dile.or.kr) - 울산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www.uill.or.kr)

자료: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 사업' 발표, 2012.5.14.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 계획', 2013.5.

(1)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 읍·면·동 ‘행복학습지원센터’ 등으로 촘촘한 평생교육 사업 연계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으로 100세 시대 대비 지역 평생교육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등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장년 세대의 평생교육·직업 수요를 분석하여 지역발전과 일자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능동적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또한 인생 재도약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학령기 중심의 대학 학사시스템을 평생학습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하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4,153개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시설)¹⁰⁾에서 50+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도 1,010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원격형태에 속하는 방송대 프라임칼리지는 제2인생설계과정으로 창직과정, 노후자산관리, 생애주기 및 생애학습의 이해, 제2인생기의 이해 및 설계, 4050세대 재취업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부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장수사회선도최고전략과정과 인생대학과정 운영, 고려대 평생교육원은 행복한인생2막 액티브시니어 과정, 건양대는 베이비부머 대상 농촌교육농장지도사 과정(현장직무연수 포함) 운영,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은 퇴직자 대상으로 시니어플래너지도사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10) 평생교육법상 기관: 원격형태, 지식인력개발형태, 언론기관부설, 시민단체부설, 대학부설, 사업장부설,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외 기관: 동자치회관, 복지관, 도서관, 여성관련시설, 직업훈련시설, 미술관, 박물관, 문화원 등

(2)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도시 조성’ 항목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습형 일자리, 고용복지연계,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학습상담, 사후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등 중장년 및 노년층 대상 사업 우선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 7월 현재 전국 153개, 서울지역은 15개 자치구(관악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강남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송파구, 용산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3) 온라인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교육부는 평생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평생학습포털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에는 전국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 강좌가 등록되고 있다.

세계적인 온라인 교육환경이 e-러닝에서 MOOK(온라인 공개 수업, 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국가평생교육원 주관으로 대학의 우수강좌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서비스하고 있다. 2017년 5월 현재 약 270여개 강좌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2,000개 이상으로 강좌 수를 확대해서 열린 고등 교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50~60대 중 5.3%, 70대 이상 중 44.7%가 비문해자에 해당¹¹⁾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저학력·비문해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http://le.or.kr/main.do>)도 운영 지원하고 있다.

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성인문해능력조사’, 2014.

[표 3-32] 무료 온라인 공개 강좌 사이트

온라인 강좌 사이트	중장년 대상 강좌목록		비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업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내 재직자 훈련에 활용 최신 지식정보 트렌드 학습 직업 업무 능력 개발 	2015년 10월 시작
	퇴직자 평생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정보 활용 개인 취미 활동 등 자기개발 지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카테고리: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시민참여 교육 분야) 4050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50 행복리더십 4050 재테크·여행·문화예술 4050 재취업역량강화 4050 여성커리어디자인 노후생애설계이해 등 	2017년 5000건 동영상 강좌 등록

자료: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http://www.kmooc.kr>), 2017.5.18. 현재. 272강좌 등록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6)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귀농 창업 및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그러나 동 계획은 주로 청년층의 귀농 창업 지원 성격이 강해서 장년층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접근은 부족한 편이며, 40세 미만 청년층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보다 높지만 40세 이상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해 낮은 점도 장년층 이상의 귀농귀촌 선택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귀농·귀어·귀촌인구의 약 30%가 신중년(5060세대)¹²⁾이고,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증가 등 농업 분야 인력수요 확산 추세 등에 따라 새정부에서는 신중년의 귀농·귀어·귀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2)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2016.11.22. p7. ’ 15년 기준. 귀농 가구주 50대(40.3%), 60대(24.4%), 40대(20.0%), 40대 미만(9.0%) 순

[표 3-33]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추진전략	추진 과제	세부 내용
청년층의 농업창업 중점 지원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 6차 산업 창업 지원	청년층 대상 인큐베이팅 교육시스템 도입, 6차산업 지원센터 등
교육체계개편 및 내실화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관심 계층별 타겟팅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확대	청년층, 중장년층(퇴직 예정 군인경찰, 대기업 퇴직자 과정 등) 계층별 타겟팅 교육, 사후관리
일자리, 주거 등 정착지원 강화	지역일자리 연계 지원 귀촌인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귀농초기 현장실습 확대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 소규모 저비용 임대주택 조성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	* 일자리 연계 서비스 제공 모델: 귀농귀촌인 재능 DB ⇌ 일자리 연계 플랫폼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지역일자리 DB(지역고용복지+센터, 교육부 방과후교사, 지자체 생활체육지도사 등)
귀농귀촌 저변 확대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귀농귀촌박람회 운영 개선 대학생-농촌마을 교류 확대	인공지능형 귀농귀촌 상담 시스템 도입-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상담 및 컨설팅 기능 강화 등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지역주민과 융화지원 강화 귀농·귀촌 협의회 구성 운영 지자체 현장 중간 지원조직 육성	농촌 생활문화 교육 강화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 지역민과 공동 구상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2017~2021). 2016.11.22.

7) 행정안전부13) -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자원봉사 정책·사업 관련 기관(10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제2차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2013~2017년)’과 연계한 ‘2017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의 기본 방향은 민관협력(정부-기업-시민사회 파트너십)에 기반한 진흥시책 추진, 분야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활동 확산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50+ 세대 관련 추진 내용으로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전문직의 지식과 경험을 활

13) 2017년 7월 26일, 새 정부(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로 변경

용한 ‘베이비부머 봉사단 운영’ 등이 있으며, 소규모 자원봉사 조직과 프로보노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표 3-34] 행정안전부 ‘2017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구분	정책 영역 및 과제	추진 내용 및 관계 부처
자원봉사진흥 제2차 국가기본계획 (2013~2017)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참여확대- 은퇴자 및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사업 지원(행정안전부) - 세대별 문화재지킴이 육성 지원(문화재청) -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교육부)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보건복지부)
2017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연령별·세대별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20개 과제 86.48억,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 개선 및 센터 지원 강화 - 노인자원봉사 확산 및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 강화 (4개 과제 56.15억, 보건복지부) 노인자원봉사클럽 확대('16년 누계 3,164개소) - 관광문화생활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9개 과제 63.35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16년 말 2,914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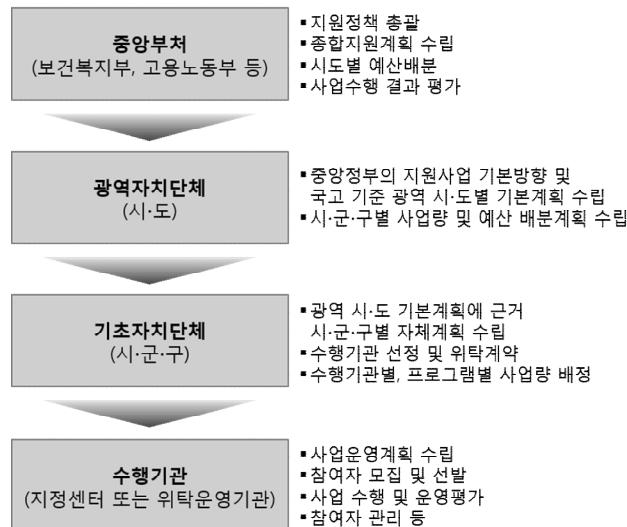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정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

행정자치부, ‘2017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2017.4.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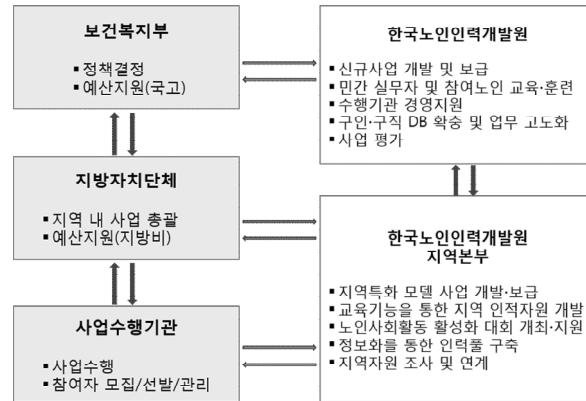
범국가적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상위 기본계획 및 예산에 근거한 사업량 배정과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림 3-7] 정부 및 지자체 공동 지원사업 추진체계(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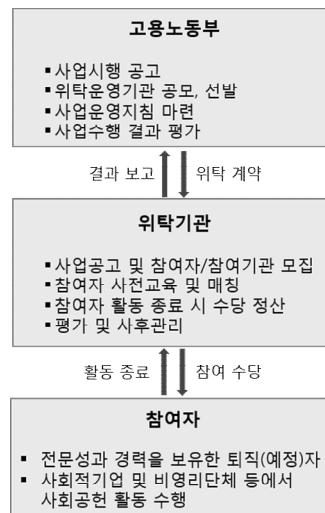
* 사업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을 중앙부처에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정부의 국고 지원과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총괄 및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간 연계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3-8]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체계¹⁴⁾

고용노동부의 50+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위탁운영기관을 공모·선정하며,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은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교육 및 매칭, 사업수행, 평가 및 관리 등을 수행한다.

[그림 3-9] 고용노동부의 50+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체계



1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사회 정책 및 전달체계의 글로벌 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도출연구' , 2015.9.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뿐만 아니라 50+세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¹⁵⁾를 보면 울산, 인천, 경기, 대전, 서울 등이 고령인구 증가율 200~311%인 초고위 고령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 대부분이 50+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7월 현재, 초고위·고위·중위 고령화 지역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부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이 50+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또는 유사한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표 3-35] 지역별 고령화 속도 추이(2010~2040)

(단위: %)

구분	초고위 고령화 지역	고위 고령화 지역	중위 고령화 지역
고령인구 증가율 범위	200~311	180~199	105~179
해당 지역	울산, 인천, 경기, 대전, 서울	광주, 충북, 대구, 제주, 경남	충남, 부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자료: 통계청(KOSIS), 인구추계 통계.

허문구 외, 산업연구원, ‘지역의 인구경쟁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4.4.

2015년에 최초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4.2.)에 이어 대전광역시(2015.4.17.), 충청남도(2015.10.30.), 부산광역시 (2016.7.9.), 경기도(2016.12.16.), 전라북도(2017.4.14.), 광주광역시(2017.7.1.), 제주도(2017.8.9.)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7년 8월 현재 1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장년층 지원 정책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부서(인생이모작지원

15) 허문구 외, 산업연구원, ‘지역의 인구경쟁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4.4.

과) 신설 및 시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년층(50~64세)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지원 사업은 예산 및 경험 부족 등의 사유로 추진 초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사회적 이슈와 맞물린 중장년 일자리(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와 연계 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발굴·시행되고 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자치단체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추진 사업으로 서울시의 경우 50+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으로 ‘서울시 보람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사회서비스, 세대통합, 당사자지원 등 3개 분야 19개 직종의 일자리를 발굴·운영하고 있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타 지자체의 경우 만 40세 이상으로 지원 폭을 넓혀서 대구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전북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전북 ‘4050행복창업프로젝트’, 충남 ‘중장년 재도약 창업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어주기 식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역시 50+세대가 접근하기 적합한 사업으로 중장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시설)에서 50+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여가교육·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주민자치센터 역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50+세대만으로 대상으로 여가교육·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기관(시설)과 차별화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접근성이 좋은 시설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1. 전국 지자체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제정 현황

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각 지자체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교육 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서 ‘인생이모작’ 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인생이모작 대상층은 중·장년층, 장년층, 예비노년층, 예비노년 세대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는 보통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말하며, 일부 지자체는 40세 또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의한 지역도 있다.

[표 3-36] ‘인생이모작(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자체

구분	인생이모작 관련 조례 · 담당과	연령 기준
광 역 자 치 단 체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4.2.] · 이모작지원과	‘장년층(長年層)’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016.7.9.] · 노인복지과	‘장년층(長年層)’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4.17.] · 노인보육과	‘예비노년층’ 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017.7.1.] · 청년정책과	‘장년층(長年層)’ 이란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6.] · 경기도	‘중장년’ 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시행 2015.10.30.] · 충청남도	‘예비노년 세대’ 라 함은 50세 이상 65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전라	‘장년층(長年層)’ 이란 50세

구분	인생이모작 관련 조례 · 담당과	연령 기준
기초자치단체	북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017.4.14.] · 전라북도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제정 시행 2017.8.9.]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년층’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2.] 일자리경제담당관	‘중·장년층’ 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017.3.9.] 어르신복지과	‘장년층’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017.3.16.]어르신복지과	‘장년층(長年層)’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017.6.1.] 어르신복지과	‘중·장년층’ 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017.9.27.] 일자리경제과	‘장년층’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행 2015.1.12.] 노인장애인과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대상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016.12.30.] 사회복지과	‘중·장년층’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016.10.12.] 일자리정책과	‘중·장년층’ 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017.7.14.] 경제협력과	‘중·장년층’ 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충남 아산시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6.9.19.] 경로장애인과	‘예비노년 세대’ 라 함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7.8.10.

2)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현황

2013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설립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그동안 정책지원 사각지대였던 기업 평균 퇴사 연령인 약 49세¹⁶⁾부터 노인복지 수혜영역(65세 이상)에 포함되기 전까지인 50+세대(50~6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50+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인생이모작센터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37] 전국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현황

지역	설치,지원/운영기관	주요 사업	설립연도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50+캠퍼스(권역별), 50+센터(자치구별)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전후 노인복지 수혜영역에 포함되기 전까지의 세대인 5060 장년층 대상 인생설계 상담 및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및 커뮤니티활성화 지원	2013년(2016년 50+센터로 명칭 변경)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예비노년층(50~64세)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교육, 취업창업, 사회공헌활동으로 연계. 연간2회 생애설계아카데미, 시니어이모작아카데미(50+기자단·건강코디네이터·원예치료) 수료후 재능봉사 활동	2015년10월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제2인생 설계 교육 프로그램, 사회공헌·재능나눔 프로그램, 공공영역 취업예정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여건 조성, 공공·민간 분야의 일자리 정보 제공	2016년 1월
충청 남도	충청남도·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생설계 아카데미, 카운슬러 양성 과정, 이모작 열린학교 등 ‘제2인생 설계 교육 프로그램’과 구인구직자 개발 및 알선 등 일자리 창출, 각종 동아리 활동 구성 및 활동비 지원 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2016년 1월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 지원센터	기존 부산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와 노인취업교육센터 통합하고, 맞춤형 교육, 여가, 취업, 창업활동 지원으로 50+세대의 새로운 인생설계 지원	2016년10월

1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http://kosis.kr>), 2017.7.11.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 및 평균이직연령 – 2016년 5월 기준, 49세(남자 52세, 여자 47세).

지역	설치, 지원/ 운영기관	주요 사업	설립연도
대구 광역시 수성구	대구 수성구 범물고산 노인복지관	범물노인복지관: 50+상담센터, 50+행복노후설계, 50+행복사회공헌, 50+행복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고산노인복지관: 인생이모작 상담센터 및 아카 데미 운영, 취창업훈련프로그램 운영	2017년
광주 광역시 광산구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일자리, 배움, 복지, 소통 부문으로 나누어 은퇴 이후 노후준비진단서비스, 인생설계프로 그램 운영, 재취업, 사회공헌 및 재능 나눔 프로 그램 개발 등	2017년10월 준공예정
울산 광역시	울산광역시 내일설계지원 센터·한국폴리텍 대학 울산캠퍼스	기존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중 장년층 은퇴이후 삶의 변화 인식 및 성공적인 사 회참여를 위한 인생이모작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사회공헌활동, 재취업 지원사업을 진행	2016년 3월

자료: 각 지자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외, 2017.6.13

인생이모작 관련 조례에 명시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지원 사업 역시 연
구·조사, 교육, 상담,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 지원 등으로 지자체 간 대동
소이하다.

[표 3-38] 각 지자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업 예시

구분	충청남도	부천시	대전시
근거 조례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5.10.30.]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행 2015.1.12.]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4.17.] [개정 시행 2017.4.28.]
인생 이모작 지원 센터 사업	1. 교육 및 상담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 알선 3. 사회공헌활동 지원 4. 건강증진 5. 문화·여가 활동 6. 성별·연령별·계층별 예 비노년세대에 대한 연 구·조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 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1. 인생 재설계 지원에 관 한 사항 2. 취·창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컨설팅 등 3. 여가 및 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1. 취업·창업, 고용, 직업 등 일자리를 원하는 예 비노년층 수요조사 2. 실무중심의 맞춤형 직 업능력개발교육 3. 취업설계부터 사후관리 까지 취업지원 4. 일자리 발굴, 직업상담 및 고용정보 제공 5. 예비노년층 적합한 일 자리 알선 6. 직업능력개발교육 이수 자들의 모임 구성 및 지원

구분	충청남도	부천시	대전시
			7.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 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인생이모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7.6.10.

3) 전국 지자체 장년층(50+세대) 지원 사업 담당 부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과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장년층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2015년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외에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장년지원팀(부산시 노인복지과 장노년 지원팀, 대구시 고용노동과 중장년일자리팀 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자체 일자리정책과 등에서 장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 시책인 직접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지원,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도 각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 3-39] 전국 지자체 장년층(50+세대) 지원 사업 담당 부서(2017년 7월 현재)

지역	담당 부서	장년층(50+세대) 지원 업무
서울 특별시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 정책팀·사업팀·시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지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및 운영 - 50+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 - 50+캠퍼스 운영 지원 - 50+센터 운영 및 지원 - 50+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지원 - 50+정보화 사업 및 콘텐츠 개발 등
부산 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장노년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 노후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베이비부머 부산복지모형 세부 추진과제 조정·관리 -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운영 - 장노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 50+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	담당 부서	장년층(50+세대) 지원 업무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창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생애재설계 대학 운영 - 장년 일자리지원 센터 운영 -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 장년층 지원법인에 관한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년 맞춤 훈련사업 등
대구 광역시	창조경제본부> 고용노동과> 중장년일자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중장년 전문직퇴직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인천 광역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규추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등
경기도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경제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0 재취업 지원 - 5060 퇴직자 취업지원사업 - 시군 채용박람회, 소기업 맞춤형 채용지원 - 고용유지 증대를 위한 취업근로자 지원 사업 등
강원도	경제진흥국> 일자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고령자 취업지원 - 취업박람회 운영지원 등
충청 남도	경제통상실> 일자리노동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모아시스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관리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 중장년 재도약 창업사업 운영 등
전라 북도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프로그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 중장년 재취업 교육지원 사업 - 중장년 취업박람회 개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 및 운영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 그 밖의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시책 발굴·지원
경상 북도	일자리민생본부> 일자리경제교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장년) 창업 지원 사업 - 한국폴리텍대 영천캠퍼스 설립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박람회 등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노년층 일자리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및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자료: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2017.7.18.

2. 서울특별시의 50+지원 정책 및 사업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50+지원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및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서 50+세대에 관한 지원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인생이모작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 서울시 50+ 지원 유관 계획

2010년 이전 서울시 정책이 만 65세 이상 노인복지 중심이었다면 2010년 이후에는 50+세대(베이비부머, 중장년, 신노년)에 관한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2009년 ‘9988 어르신프로젝트’는 모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치매 걱정 없는 서울, 일하는 노후, 노인 건강지원, 신바람 노인 문화, 세대통합 지원, 친노인 생활환경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2010년에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의 비전과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2010.7.)을 수립하고, 2013년 6월 25일 WHO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AFC)’에 가입하였다.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2010.7.)에서는 기존 노인 정책 영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세대인 ‘신노년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후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림 3-10] 서울시 50+세대 유관 정책



‘제1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2013~2015)’은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이라고도 하며, 제2인생 설계 지원,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살기 편한 환경,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 등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2인생 설계 지원’ 영역에 서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베이비부머 엑스포 개최,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등 본격적인 50+세대 대상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제2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안(2016~2020)’은 고용, 여가, 건강, 존중, 환경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영역 실행과제 세부 내용에 50+센터 및 캠퍼스 설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 영역에 전문직은퇴자인재은행, 여가 영역에 50+세대 평생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진 방향은 50+세대를 포괄하는 정책이며, 주요 목표로 제2인생 설계 지원을 통한 50+세대 인적자원 활용 활성화로 자생적 문화를 조성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14.12.)은 ‘2030서울플랜’이라고도 하며, 초고령화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하위 추진 과제에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기회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하는 전문봉사활동 발굴·연계서비스 강화, 고령자의 제2인생 설계, 노년기의 경제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 사회활동과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인생이모작센터 확대·공급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2.9.)은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살이 함께 하기, 새로운 민관협력(거버넌스) 만들기를 전략방향으로 2017년까지 975개의 마을, 마을활동가 3,180명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활동가는 주로 청년, 여성, 은퇴시니어 등을 양성하며, 은퇴시니어는 관련정책(예: 서울형 일자리 사업지원, 어르신 활동 지원센터 연계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마을활동가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마을공동체기업 700개소 지원,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위해 북카페 100개 조성, 마을 예술 창작소 233개 설치·운영, 休 카페 61개 설치, 녹지 공간, 작은 도서관 150개 지원, 공공시설 유휴 공간 718개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2014.4.)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 공간·기회 확대, 일자리 확충,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건강·여가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 50+세대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할 5개 분야의 세부 계획이 담겨져 있다.

‘2030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2015.12.)의 세부정책 일자리 영역 ‘고령자 수의 창출 공공일자리 확대’ , ‘고령자(50+) 탄력 근무제 확대’ ,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일자리 동반 성장관리’ , ‘고령자(50+) 우수역량기반 일자리 개발’ 등이 선정되어 있다.

‘민선6기(2014~2018)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의 시정목표는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 쉬는 도시 등이다. 이 중 따뜻한 도시는 복지, 건강, 여성·가족, 교육, 주택·건축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 분야에 ‘50+인생이 모작 지원 기반마련’ , ‘50대 이상 자녀 결혼비용 지원’ , 건강 분야에 ‘50대 건강 지원’ 이 포함되어 있다.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의 핵심과제는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 서울형 복지시스템 강화, 복지인프라 확대,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여성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등이다. 서울형 복지시스템 강화의 세부사업으로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지원 (50+재단 설립, 50+인프라 구축),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의 세부사업으로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40] 서울시 50+ 관련 정책 주요 내용

정책 및 과제	세부 내용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계획 (‘13~’15) =서울어르신 종합계획	<p>▶ 제2인생설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 신노년층 대상 평생교육 강화 - 베이비부머 익스포 개최 -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 신노년단체 육성 및 사업지원 - 신노년 정책자문단 구성 <p>▶ 맞춤형 일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공공 일자리 확충 - 어르신적합일자리발굴기능강화 - 온라인 일자리 전담창구 운영 - 시니어클럽, 사회적기업 확대 - 도농 일자리 교류사업 지원 - 어르신 이색일자리 발굴 <p>▶ 건강한 노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원 연계돌봄 수혜자 확대 - 독거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 독거어르신 기능평가, 운동처방 - 비수급 어르신 장기요양 등 지원 - 재가어르신 지원서비스 강화 - 노인자살 예방대책 강화 <p>▶ 살기편한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개편 - 유니버설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 어르신 50+센터 지속 확충 -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독거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p>▶ 활기찬 여가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지원 - 신 노년문화 프로그램 확대 실시 - 종묘•탑골공원 문화 업그레이드 - 경로당 활성화 지역 협의체 구성 - 경로당 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p>▶ 존중과 세대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 어르신단체 발굴, 시상 - 지역사회내 어르신 역할 강화 - 대중매체 고령친화방송 가이드라인 개발 -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 - 독거어르신 세대간 주거공유 지원 - 세대융합 문화예술 활동 지원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	<p>▶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고용기회 위해 노인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 고령자기업 및 노인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육성 - 은퇴 후 대비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p>▶ 최저소득보장 사각지대 노인가구의 지속적 발굴·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노인가구를 위한 지원시스템 지속 구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한 빈곤노인 지원 확대 - 근로가능 저소득 노인에게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p>▶ 돌봄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부가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과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가사지원, 돌봄서비스 등 제공 -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및 확대 <p>▶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공급 - 자기개발, 사회공헌 등 생산적이고 주체적인 여가프로그램 중심 지원 <p>▶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기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륜 활용 전문봉사활동 발굴·연계서비스 강화 - 고령자의 제2인생설계, 노년기 경제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 사회활동 연계기능을 담당할 ‘인생이모작센터’ 확대 공급 <p>▶ 세대간 통합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확대</p>

정책 및 과제	세부 내용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1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연령계층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 확대, 복지시설을 복합 커뮤니티화하여 세대통합형, 지역사회개방형 주민복지시설로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 세대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발굴·육성 지원 (노인시설과 아동청소년시설의 교류 프로그램 확대, 노년단체와 청소년단체의 상호 교류·협력프로그램 지원, 노인·청소년 학동 자원봉사활동 발굴, 세대융합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p>▶ 서울형 복지시스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50+재단 설립: 50+정책 및 비전 제시, 50+ 연구조사·정책 제언, 국내외 네트워크 허브, 50+ 문화홍보 활성화 ② 50+인프라 구축: 일자리, 사회공헌, 교육 이외 문화·여가체육, 커뮤니티 등이 포함된 종합 캠퍼스 운영·교육, 사회공헌 등 기본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자치구 단위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추진 * 성과지표 ① 50+재단 설립 및 50+캠퍼스 운영(3개), ② 50+캠퍼스(5개소)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20개소) 설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구립시설로 순차적·단계적 확충) <p>▶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이모작센터 주도로 50대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베이비부머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로 제공 (경로당코디네이터, 사례관리사, 시니어기자단, 마을컨설턴트 등) * 2018년까지 5,000명 지원 목표

자료: 서울특별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2014.12. p40~42.

서울특별시, ‘제3기 서울시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2014.12. p94~97, 151.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계획 평가’, 2014.12.31. p24.

* 각 계획에서 50+ 유관 부분만 발췌함

2)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1)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 및 사업

서울시는 앞서 설명한 상위 실행계획에 의거 2013년 2월 국내 최초로 은평구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관하였으며, 201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추진 부서도 2014년 어르신복지과 내 베이비부부정책팀에서 담당했던 사업을 2015년 인생이모작지원과로 분과 후 3개 팀(인생이모작 정책팀·사업팀·시설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연도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인생이모작 관련 추진 과제는 ‘베이비부부 인생이모작 본격 지원(2015년)’ ⇒ ‘50+세대의 인생 재도약을 위한 체계적 지원(2016년)’ ⇒ ‘50+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2017년)’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17년 7월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서부, 중부50+캠퍼스), 서울50플러스센터(도심권, 동작, 노원, 영등포 50+센터) 등이 50+관련 정책 및 사업(인생이모작 포함)을 운영하고 있다.

[표 3-41]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50+지원 정책 및 사업’

구분	지원 내용
〈2015년도〉 베이비부부 인생이모작 본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캠퍼스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 이모작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캠퍼스로 전환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대 추진: 노원, 영등포, 동작 ▶ 베이비부부 세대 일자리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일자리 확대, 50+일자리 엑스포 개최 ▶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5.4.2.) - 2014년 어르신복지과 내 베이비부부정책팀 ⇒ 2015년 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정책팀, 인생이모작사업팀, 인생이모작시설팀)로 변경
〈2016년도〉 50+세대의 인생재도약을 위한 체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재단 출범 및 정착으로 사업 추진체계 조기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정책을 견인하는 싱크탱크: 연구조사, 콘텐츠 개발·보급 등 - 50+신문화 확산의 네트워크 허브: 커뮤니티 지원, 공익 캠페인,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

구분	지원 내용
지원	<p>▶ 다양한 중장년층 수요 반영 서울형 50+사업 모델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원스톱 종합상담 구축운영: 개별 욕구진단, 연계, 사후관리 -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제2인생설계, 경력개발, 자기계발 등 - 새로운 일자리모델 확립: 협동조합 설립, 창업지원 등 <p>▶ 50+사업 실행기반인 중장년층 지원시설(캠퍼스 및 센터) 확충</p>
〈2017년도〉 50+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	<p>▶ 50+세대의 성공적 인생2막을 위한 교육·일자리 인프라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공헌 일자리에 적합한 태도와 능력 함양 - 50+캠퍼스 및 50+센터 확충: 서부캠퍼스(은평), 중부캠퍼스(마포), 남부캠퍼스(구로), 도심권센터, 동작센터, 영등포센터, 노원센터 <p>▶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50+일자리로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난 복지시설과 50+일자리 연계: 2,000개 - 사회서비스와 어르신 일자리 연계·지원: 56,000개 <p>▶ 세대통합형 여가 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500개소)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 노인대학을 '어르신 종합대학'으로 기능 전환, 평생학습 공간 구축

자료: 서울특별시, '2015 주요 업무계획' · '2016 주요 업무계획' · '2017 주요 업무계획'.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는 인생전환을 준비하는 50+세대(50~64세)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번째 배움 학교를 모토로 '인생재설계학부-커리어모색학부-일상기술학부'로 나누어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생재설계 학부는 50+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3040직장인 대상 과정, 동년배 컨설턴트와 함께 생애설계하는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커리어모색학부는 50+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창업·창직, 시니어 비즈니스, 사회공헌 활동 등과 연계 할 수 있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일상생활을 즐겁고 풍요롭게 하는 생활기술과 문화예술을 배우는 일상기술학부도 운영하고 있다.

[표 3-42]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의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예시

구분	운영 프로그램
인생 재설계 학부	<p>▶ 삶과 나이듦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필수: 50+캠퍼스 입문과정으로 전반적인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전환 - 50+개론: 인생후반전을 준비하면서 탐구할 주제(중년학, 관계, 영화, 고전)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단과 과정 - Pre50: 3040 직장인들이 미리 50+의 삶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인생재설계 과정 - 생애설계: 전문기관 및 동년배 컨설턴트와 함께 생애설계 7대 영역(일, 재무, 사회공헌, 관계, 가족, 여가, 건강)을 설계하는 과정

구분	운영 프로그램
커리어 모색 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사회공헌의 의미를 정립하고 새로운 커리어 경로를 모색하는 학부 - 공통필수: 인생후반기 ‘앙코르커리어’ 개념 및 사례, 50+정책 소개 - IT: ICT 활용 및 업무스킬 향상을 위한 기본 IT 과정 - 미디어: 글, 말, 사진, 영상을 활용하여 50+의 이해와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고 공유하는 미디어 과정 - 창업창직: 50+친화적인 사회적 창업, 창업 기초, 1인 창직, 1인 지식콘텐츠 창업 과정 - 귀산귀촌: 귀산귀촌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정책 지원에 대한 안내, 귀산귀촌 준비 및 체험 과정 - 도시농업: 자연친화적 환경(마을, 이웃, 가정) 가꾸기 지원 도시농업 과정 - 시니어비즈니스: 글로벌 고령화사회에 점점 늘어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및 비즈니스 트렌드, 사례 및 시사점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 - 사회서비스: 시민후견인, 돌봄 등 공공정책과 연계된 사회서비스 커리어 탐색 과정
일상 기술 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을 즐겁고 풍요롭게 하는 생활기술과 문화예술을 배우는 학부 - 문화예술: 전문기관과 함께 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적인 50+문화감수성 함양 - 건강여행: 건강관리와 여행을 통한 일상 영위 - 생활기술: 의식주 관련 필수 생활 기술 지원

자료: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2017년 2학기 교육과정 안내 프로그램 북’, 2017.8.

(2) 서울시 자치구별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담당 부서

서울시 각 자치구는 아직까지 노인복지과(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존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7월 현재, 성북구(50+정책팀)와 영등포구(인생이모작지원팀)에 50+관련 지원팀이 개설되어 있으며, 타 자치구는 기존 노인복지사업 담당자가 50+관련 사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 3-43] 서울시 자치구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담당 부서(2017년 7월 현재)

구분	50+관련 사업 담당 부서	50+관련 사업 담당 업무
강서구	생활복지국>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행정팀	인생이모작지원사업
동작구	복지환경국>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일자리팀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관리
마포구	복지교육국>어르신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팀	베이비부머 및 고령자 고용 지원사업, 베이비부머 지원 신규사업 추진
서대문구	경제재정국>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5060마에스트로 추진(2017년 5개 사업) - 서대문 캉거루스쿨 돌봄활동가, 동료 돌봄 이 서비스 서대문 시니어 기자단, 명예기판 장, 금융복지상담사)
성동구	주민생활국>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팀	인생이모작 지원
성북구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50+정책팀	50+센터건립, 교육프로그램지원 등
송파구	복지교육국>노인복지과> 노인사회참여팀	인생이모작 지원 종합계획 추진
영등포구	복지국>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팀	인생이모작 운영 및 지원, 영등포50+센터 및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운영 지원 관리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어르신행정팀	인생이모작 운영 및 센터 건립

자료: 각 자치구청 사이트 내 ‘조직도 및 담당업무’, 2017.7.10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2016년 4월 26일 개소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퇴직 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및 학교교육 활동지원,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4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구분	지원 내용		2016년 성과
퇴직 교직원 전문성 활용	평생교육 활동지원	재능기부 및 봉사 활동 활성화지원 평생교육활동 분야 개발	- 1,000여명 회원(퇴직교직 원)의 인력풀 구축 - 700여명이 지속적으로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학교교육	-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구분	지원 내용	2016년 성과
활동지원	-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여 회의 연수행사와 간담회 개최 - 8개의 기관과 업무 협약
마을교육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 교육 혁신 지구 등 교육협력 사업 지원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http://newstart.sen.go.kr>), 2017.7.17.

3) 서울시 50+세대 일자리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각 사회서비스 기관은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기관의 운영 형태, 대상층, 재정기반, 조직문화 등에 따라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다양하다.

(1)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구인업체 및 구직자를 위해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사와 1:1 맞춤형 심층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연령대별(장년 만55세 이상, 중년 만36세~54세, 청년 만35세 이하)로 매월 취업준비교육(1회 30명 정도 모집, 중소기업 직업정보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서울일자리포털 job.seoul.go.kr)의 일자리 정보는 각 자치구청 및 서울50+포털 등에 연계 제공하고 있다.

(2) 서울시 어르신취업훈련센터(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위탁운영)는 보건복지부 주관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50세 이상 구직알선 및 훈련활동을 지원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인 내일행복학교는 취업설계, 전문기술교육, 사회환원일자리 교육, 신규직종 교육, 창업 교육 과정 등으로 운영된다.

[표 3-45]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구분	지원	내용	대상
취업 알선팀	구직지원	구인처 개발 및 관리, 구직자 관리 - 구직상담 → 구직알선 → 훈련연계 → 취업자 사후관리	만 50세이상
	시니어인턴십	보건복지부 주관 시니어인턴십 (인턴형, 연수형)	만 60세 이상
취업 훈련팀	내일행복학교	- 취업설계·창의직업·사회공헌·직업전문·창업 아카데미 - 고령 구직자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신규 직종 교육 실시 - 기타 커뮤니티	만 50세 이상
	시니어직업능력학 교	취업준비교육, 직종교육,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맞춤형교육 등	-

자료: 서울시어르신훈련센터(<http://www.goldenjob.or.kr/>). 2017.5.19.

(3) 구청 및 주민센터의 고용서비스¹⁷⁾

구청의 고용서비스는 구청 내에 기간제 직업상담사 인력을 두고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방문하는 취업상담자의 연령층은 50~60대가 가장 많고, 주 구인처는 단순 경비나 청소업 위주이다. 주민센터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및 선정하여 지역 내 환경미화 업무 등을 행하고 있다. 고용서비스를 위해 활용하는 전산망은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와 워크넷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서울시 보람일자리 지원사업

서울시50+재단 등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람일자리 지원사업은 50+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으로 2017년 현재 사회서비스, 세대통합, 당사자 지원 등 3개 분야 19개 직종(모집정원 1,020명)의 일자리가 운영되고 있다.

17) 한국노동연구원, '한국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2014.7. p39~42 내용 재정리

[표 3-46]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2017년도)

분야	직종	비고
사회서비스	쪽방상담소지원단, 장애인직업재활단, 우리동네맥 가이버, IT서포터즈 등	- 만 50~67세 서울시거주자 대상
세대통합	한지봉세대공감코디네이터, 50+취업지원관, 학교 안전관리서포터,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청소년시설 50+서포터즈 등	- 운영기관: 서울시50+재단, 한국노인개발원 등
당사자지원	50+컨설턴트, 50+보더레이터, 50+기자단, 50+NPO 펠로우 등	

자료: 서울시50+포털(<http://50plus.seoul.go.kr>) 일자리 정보, 2017.7.30.

4) 서울시 창업 지원 사업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기존 일자리 창출의 한계, 50+세대의 역량과 부합하지 않는 일자리, 임시·일용직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 지원 등에 따라 50+세대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표2-14)와 같이 50대 이상 창업률은 해마다 증가해서 2016년 전체 신설법인 창업자의 35%가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2015년)에 의하면 서울시민 전체의 직업선택 요인은 안정성 37.1%, 명예 26.7%, 수입 18% 순이며, 50+세대의 직업선택 요인은 안정성 41.8%, 명예 29.1%, 수입 10.9% 순으로 안정성과 명예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만들어주기 식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¹⁸⁾을 비전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 및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추진

사회적경제 특구: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요나 추진역량이 우수한 기초 지자체를 우선투자지구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확산 가능한 사회적경제 성공사례를 만들.

(1)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의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2011년 이후 서울시의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폭발적 증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

[표 3-47]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 추이

(단위: 개)

사회적경제기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475	532	433	374	433
협동조합	-	16	1,007	1,772	2,267
마을기업	67	76	108	139	119
자활기업	149	167	188	194	201
소비생협	27	28	30	32	34
전체 기업수	718	819	1,766	2,497	3,054

자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1~2015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5년 성과 및 향후 과제’, 2016.10.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시장조성 지원, 협동화 촉진 등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표 3-48]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내용(서울시)

구분	정의 또는 설립요건	지원 내용	비고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	서울 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단체)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단체	-사업개발비 지원 -성장단계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인건비 지원) -혁신형 사회적기업 지원: 1년간 1억 원 내외 사업비 지원, 맞춤형 컨설팅, 자금융자지원, 홍보 등의 기회 제공	서울시사 회적경제 포털(sehub .net)

구분	정의 또는 설립요건	지원 내용	비고
		* 서울시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지정 기업 또는 단체에 지원	
협동 조합	5명만 모이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자료열람, 설립상담 등 - 전략분야 성공모델 벤처 지원 - 협동조합 생태계 지원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1544507.net)
마을 기업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70% 이상 고용, 5인 이상 지역주민 출자,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마을 단위의 기업	선정된 기업에 컨설팅, 전문교육, 사업비 및 공간임대 보증금 등을 지원 - 사업비 지원: 최대 1년간 5천만원 한도로 지원(2차년도는 재심사를 거쳐 최대 3천만원 지원 가능)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자활 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자활기업 창업지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자체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기초생활수급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gbjahwal.or.kr)

자료: 서울사회적경제포털(sehub.net), 2017.6.1.

(2) 서울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 및 신직업 창출 프로그램

서울시의 창업카페, 디지털대장간은 청·장년을 포함한 창업희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산업진흥원(SBA)은 기업체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특강, 스타트업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직업창출 교육을 통해 시니어 대상 헬스케어전문가(장애공감도예코치, 힐링 큐레이터 등), 문화예술스토리텔러(아트커뮤니케이터, K-컬쳐 체험여행가이드 등), 문화생활 컨설턴트(전문업사이클러, 아트&가드닝 전문 지도사) 등 신직업을 발굴·양성하고 있다.

서울시 40대 이상 장년창업가들의 성공창업을 지원하던 장년창업센터는 2017년 6월까지 운영하였으며, 마포구에 서울창업허브 개관(2017년 7월) 이후 연령 상관없이 창업희망 서울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3-49] 서울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 및 신직업 창출 프로그램

구분	사업명	특성	지원내용	지원절차	대상
창업지원	장년 창업 센터 지원 프로그램 ('17년6 월까지 운영)	서울창업허브로 이관되어 (창업상담센터 운영) 청장년초기 기업 컨설팅 지원	지식창업, 기술창업, 일반창업 - 사무공간 제공 - 소그룹 코칭 및 현장 실습 - 1:1컨설팅 - 졸업기업 현장컨설팅 - 홍보, 마케팅 등	청장년 초기기업 컨설팅 예·사업공고→ 접수→업체선정→사업수행	4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창업 희망자
역량강화교육	희망설계아카데미	전문분야 퇴직자로 컨설팅 또는 재능기부 희망자 대상 노하우 활용 일거리 제공	멘토링 활동 실무와 연계를 위한 컨설팅·창업 관련 교육의 단계별 구성(마인드 형성, 멘토링 지식습득, 창업멘토 역량강화 등)으로 비즈니스자문 전문인력 양성	컨소시엄 (대학+협회+기업)선정→ 컨소시엄별 사업 진행	4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전문 분야 퇴직자
창업교육	스타트업특강	성공 스타트업 스토리 특강 시행을 통한 스타트업 취·창업에 대한 성공모델 소개	성공 스타트업 스토리 특강 - 성공 CEO 초청 특강, 청중 참여형 강의 등을 통한 성공창업 모델 교육	1. 참여자모집 → 2. 교육 프로그램 진행	기업체 퇴직 (예정) 자 등 예비 취창업자
	SBA스타트업스쿨	기본 역량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실전 교육-밀착 멘토링-네트워킹'을 통해 단기간 내 창업지원	- 사례 중심의 실전 교육(30시간 내외) - 스타트업 전문 플레이어들의 밀착 멘토링 (스타트업 전문멘토, 벤처캐피탈리스트, 액셀러레이터, 분야별 전문가 등) - 실전 네트워킹: 투자정책·보육 네트워크 연계(스타트업 투자기관, 정책사업 운영기관, 보육인프라 운영기관 등)	1. 홈페이지 사업신청 → 2. 심사 및 선정 → 3. 교육 운영 → 4. 창업	재직자 · 퇴직예정자 중심의 예비 창업자
신직업창출	신직업 교육과정	미래산업-경제-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혁신협의체 등을 통한 신직업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 스타트업 등 수요기관과 혁신 인재 연계, 창업, 수료생간의 협동조합 등을 추진 - 헬스케어전문가(장애인공감도예 코치, 힐링 큐레이터 등)·문화예술스토리텔러(아트커뮤니케이터, K-컬쳐 체험여행	1. 참여자모집 → 2. 교육 수행 → 3. 수요기관 연계	일반, 시니어

구분	사업명	특성	지원내용	지원절차	대상
			가이드 등) · 문화생활컨설팅 트(전문업사이트, 아트&가 드닝 전문 지도사 등) 양성		
신직업 연구소	스스로 만드는 신직업을 모토 로 새로운 직업 을 탐색하고 실 험할 수 있는 플 랫폼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직업 현장연구 플랫폼을 바 탕으로 신직업 관련 프로그램 교육, 특화역량을 갖춘 신직업 군 구축 - 신직업 포럼·세미나 등 신직업 을 탐색하는 열린 공간 운영 - 정기적인 신직업 교육관련 모임 운영 	<p>1. 참여자모집 → 2. 행사 참 여 일반 시민</p>	신직업 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자료: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seoul.kr/kr/sbst00h2>) 2017.8.4.

5)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현황 - 교육, 여가

서울시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은 총 2,906개(2016년도)로 전년 2,818개 대비 3.1% 증가했다. 이 중 평생교육법상 기관은 1,565개, 평생교육법외 기관은 1,341개이다. 평생교육법상 기관은 원격형태가 가장 많고, 평생교육법외 기관은 동자치회관이 가장 많다.

각 자치구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동자치회관(주민자치센터)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에 42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8,640개(문화여가 4,773개, 시민교육 1,782개, 지역복지 578개, 주민편의 460개, 주민자치 411개, 기타 63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¹⁹⁾.

2016년 서울시 관내에서 개설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체 107,667개 중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78,877개(73.3%)이며,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4,643개(4.3%)이다. 평생교육법상 기관은 성인대상 프로그램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평생교육법외 기관은 상대적으로 노인·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주제별로 보면 직업능력향상 43,847개(40.1%), 문화예술 29,333개(26.8%), 학

19)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2017년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2016.12.31. 기준).

력보완 14,654개(13.4%), 인문교양 20,318개(18.6%), 기초문해 768개(0.7%), 시민참여 471개(0.4%)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²⁰⁾. 평생교육법상 기관은 직업능력향상, 학력보완, 인문교양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법외 기관은 문화예술,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

[표 3-50]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현황(2016년)

평생교육법상 기관(2016)			평생교육법외 기관(2015)		
유형	기관수	프로그램수	유형	기관수(개)	프로그램수
원격형태	649개 (41.5%)	51,549개 (62.9%)	동 자치회관	415개 (32.9%)	5,771개 (24.5%)
지식인력개발 형태	310개 (19.8%)	5,485개 (6.7%)	복지관	254개 (20.1%)	5,611개 (23.8%)
언론기관부설	258개 (16.5%)	1,215개 (1.5%)	도서관	169개 (13.4%)	3,505개 (14.9%)
시민사회단체 부설	126개 (8.1%)	1,006개 (1.2%)	여성관련시설	36개 (2.9%)	1,413개 (6.0%)
대학(원)부설	80개 (5.1%)	11,659개 (14.2%)	직업훈련시설	24개 (1.9%)	502개 (2.1%)
사업장 부설	72개 (4.6%)	6,538개 (8.0%)	미술관·박물관	66개 (4.0%)	369개 (1.6%)
평생 학습관	66개 (4.2%)	4,512개 (5.5%)	문화원	23개 (1.8%)	1,129개 (4.8%)
기타	4개 (0.3%)	55개 (0.1%)	기타	290개 (23.0%)	5,250개 (22.3%)
전체	1,565개	82,019개	전체	1,277개	2,550개

자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http://smile.seoul.kr/서울-평생교육-통계-2016>), 2017.8.8.

* 평생교육법상 기관은 2016년 기준, 평생교육법외 기관은 2015년 기준임

6) 서울시 자치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등이 문제시됨에 따라 서울시 각 자치구는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2016년 2월 동작구를 시작으로 2017년 8월 현재 강동구, 광진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20)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http://smile.seoul.kr/서울-평생교육-통계-2016>), 2017.8.8. 게시 기준
원자료 상 수치(프로그램 수)의 오차가 다소 존재함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서울시 9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0대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부산광역시의 50+지원 정책 및 사업

부산시의 50+세대(50~64세) 인구는 2017년 8월말 기준 약 87만 2천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약 25.0%(전국 1위)에 이른다. 부산의 50+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노후 복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2015년 11월)하였다.

동 대책 내의 ‘베이비부머 부산복지전략’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접근, 대상특성별 맞춤형 전략수립, 부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전략 도출, 종합적 대책 수립, 사전 예방적 대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자본 중심적 대응,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은퇴준비기) 노후대비 지원체계 확충 → (은퇴직후)생애 전환기 대응체계 운영 → (노년기) 종합복지체계 활성화 등의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핵심정책영역은 일자리, 교육, 건강, 여가문화, 사회참여, 인프라이다.

이에 따라 2016년 부산시는 노인복지과 내에 ‘장노년지원팀’을 신설(2016년 1월)하고, ‘베이비부머 생애재설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2016년 5월)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제정(2016년 6월 8일)하고, 본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51]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생애재설계 지원 종합계획’ (2016년)

4대 분야	16개 과제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좋은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 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 50+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 50+ 일자리 액스포 개최 ▶ 50+ 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 ▶ 50+ 인턴취업 지원 사업 ▶ 중앙부처 공모 50+ 일자리 사업 ▶ 베이비부머(BB) 택배단 사업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 ▶ 50+ 직능클럽 설립 지원 ▶ 베이비부머 자원봉사 참여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카멜리아 50+봉사단 구성·운영, 자원봉사 캠프지기 활동 유도
교육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생애재설계 대학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학 운영 중인 4개 대학교에 생애재설계 대학 개설(시범 후 확대) ▶ 50+ 맞춤형 인력양성 ▶ 50+ 부산포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생활정보, 커뮤니티 등(민간 홈페이지 연계)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 제정 ▶ 50+ 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위탁, 운영인력은 베이비부머 고용 - 베이비붐 세대의 플랫폼 역할 -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거점기관

자료: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생애재설계 지원 종합계획’, 2016.5.26.

‘베이비부머 생애재설계 지원 종합계획’은 50+세대, 신(新) 행복문화 창출을 위해 4개 분야(일자리, 사회참여, 교육문화, 기반구축), 16개 과제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1) 부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부산시는 장년층의 일자리, 건강, 재무, 여가 등 노후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17년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일자리사업은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해서 2,470개의 장년층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이며, 부산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37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3-52]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2017년)

추진 방향	세부 사업
장년층 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참여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장노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상담 2,000명, 일자리 개발·연계 1,000명, 취·창업교육 1,200명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교육 10,000명, - 장노년 생애설계 교육 연 12회 500명, 50+포털 운영 등 ▶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일자리 개발단, 민간일자리 조사분석 등 ▶ 베이비부머 일자리창출: 37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사업, 시장형사업, 장년인턴십 등 ▶ 50+일자리박람회 개최: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박람회, 생애재설계콘서트, 고령자 고용캠페인 등
50+ 맞춤형 인력양성교육 및 정보접근성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맞춤형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창업교육, 노인사회활동지원 위탁교육 등 ▶ 제3센터 창업지원 교육컨설팅 ▶ 50+부산포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생활정보, 커뮤니티 등 정보 제공 ▶ 50+동아리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구성: 교육생 모임, 직능단체, 사회공헌단체, 봉사단체 등
생애재설계 교육을 통한 노후준비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생애재설계 대학 운영(2개소): 연 200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4년제 대학교 2개교 위탁운영(동부산권·서부산권) - 재무설계, 일자리, 건강·여가, 인문학, 자치활동 등 ▶ 장노년 생애재설계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노사발전재단 등 전문교육 운영기관과 업무협약 ▶ 50+생애재설계 상담 및 콜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재설계 전문가 단체 1개소 선정(상담실 및 콜센터) 운영 ▶ 생애재설계 콘서트 개최: 연 2회

자료: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2017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 , 2017.2.16.

2) 부산시의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부산 연제구)는 기존 부산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와 노인취업교육센터를 통합하고, 맞춤형 교육, 여가, 취업, 창업활동 등 50+세대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설립했다. 기존 고령인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므로 장년(만 50세~64세)뿐만 아니라 노년(만 65세 이상)을 모두 아우르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3-53]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주요사업 및 운영조직	지원 내용	비고
인력양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교육사업: 취업준비교육, 직종교육, 컴퓨터 활용교육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 - 대관사업: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유무료 교육장 대관 - 장노년 일자리 저널사업: 장노년층이 함께 만드는 신문, 정보지 제공 	-
일자리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인력파견사업(만 60세 이상 민간 분야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사랑잇기사업(만 65세 이상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등) - 시니어인턴십 사업: 정부지원 시니어인턴십 제도, 만 60세 이상 인턴지원금 지급 	정부 지원.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노년일자리지원사업: 만 50세 이상 민간분야 일자리개발 및 취업지원 - 장노년일자리종합안내 콜센터운영 	50세 이상
장년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인생설계사업 - 제3섹터 창업지원: 부산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컨설팅 및 지원 - 사회공헌 활동 - 평생교육: 인문학 강좌, 재테크 교실 	-

자료: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r1960.com/>), 2017.6.1.

3) 부산시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또한 장년층의 경력과 연계한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하는 교육과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 부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등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표 3-54]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센터 지원 프로그램

세부 사업	지원 내용
네트워크 허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컨설팅 - 사회적경제 정책 홍보(세미나 등 각종 행사) - 공간 지원(네트워크 및 행사 등) - 일자리 공유마당(사회적경제 기업의 일자리 정보 공유) - 프로보노 매칭(전문가 연계 서비스) - 행복책방 운영(사회적경제 관련 자료 및 인문, 사회도서 등 구비)
교육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설명회(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선정 및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실무교육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실
판로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자료물 전시 홍보 - 박람회 및 행사 운영을 통한 홍보 및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기업 홍보 및 판로연계

자료: 부산사회적경제 홈페이지(<http://www.bse.or.kr/main/main.php>), 2017.6.1.

4) 부산시 평생교육기관 현황 - 교육, 여가

부산시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시설)은 총 1,631개(2017년도)로 이 중 평생 교육법상 기관은 747개, 평생교육법외 기관은 884개이다. 평생교육기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27,854개의 프로그램 중 인문교양교육(33.1%)과 문화예술 교육(28.5%)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각 자치구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동자치회관(주민자치센터)은 2016년12월31 일 기준 부산시에 20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3,502개(문화여가 1,636개, 시 민교육 690개, 지역복지 446개, 주민편의 174개, 주민자치 247개, 기타 309개) 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²¹⁾.

21)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2017년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2016.12.31.기준).

[표 3-55]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등록현황(2017년)

평생교육시설 유형	설치수 (개)	운영프로그램 수 (개, %)	
국가 및 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정보센터)	53	기초 문해 교육	2,996 (10.8%)
학교, 학교 부설, 학교 형태, 사내대학, 원격대학	506		
문화센터 (사업장 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67	학력 보완 교육	871 (3.1%)
시민사회단체(NGO, NPO)	64		
교육산업 관련 시설	33	직업 능력 교육	2,701 (9.7%)
사이버학습 관련 시설	24		
도서관	72	문화 예술 교육	7,930 (28.5%)
박물관 미술관	10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시설 (전수회관, 문화원 및 문화의 집, 국악원 등)	44	인문 교양 교육	9,228 (33.1%)
복지관(노인복지관, 노인정,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 등)	314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단체 등)	39	시민 참여 교육	4,128 (14.8%)
직업훈련관련 기관 및 시설(직업직업훈련기관, 평생직업교육학원, 산업교육기관)	63		
여성관련 기관 및 시설(여성인력개발센터 등)	21	계	27,854
주민자치센터	209		
다문화 관련 기관 및 시설	11		
시민사회단체(NGO, NPO)	1		
기타(공무원연수기관,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등)	100		
계	1,631		

자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보-기관통계(www.ble.or.kr), 2017.10.10.개시기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747개)+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관련 시설(884개)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기관통계자료집(전국 공통)'에 기재된 기관수 기준과 다름

5) 부산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이혼·실직·질병 등으로 사회관계망이 단절된 중장년(40~64세) 남성 1인 가구의 고독사 발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고독사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중년지원팀’을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기획과에 신설하고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56]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2017년)

추진방향	추진 과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 : 고독사예방위원회 운영, 중년지원팀(고독사예방 등) 신설 등 - 생애 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지원 강화: 청년, 중장년, 노인 안전망 마련 등 -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위험군 발굴 체계 강화: 1인 가구 실태조사 의무 시행, 스마트 다복동 사업 추진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 -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 민·관 협력위기기구 발굴단 운영, 다복동플러스센터 확대 설치('20년까지 16개) 등 -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공공과 민간 복지기관 간 역할 분담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관심제고 및 인식개선을 통한 고독사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연계 1:1 고독사 예방활동 전개: 자원봉사자 활동 참여 - 지역주민 복지역량 강화: 지역주민 준사례관리사 양성(500명) - 고독사 예방시책 시민참여 강화: 고독사 예방시책 제안 공모 시행

자료: 부산광역시 다복동추진단,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 설명자료’, 2017.9.12.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50+지원 정책 및 사업

각 지방자치단체는 50+지원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50+세대를 대상(일부 지역은 40세 이상)으로 일자리, 교육, 커뮤니티, 사회공헌 등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서울시와 부산시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외에도 2017년 7월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대구시 수성구, 광주시 광산구, 제주도 등의 지자체가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 준비 중인 지자체도 다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의 예비노년층 인구는 2017년 8월말 기준 약 32만 7천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보건복지여성국

노인보육과)는 예비노년층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일자리창출과 보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2015.4.17.)하고,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2015년6월) 및 위탁운영(2015년10월,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있다.

[표 3-57] 대전광역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 설치 및 지원 ·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개소: 2015년 10월 - 사업 기간: 2014년 10월(계획 수립)~2018년 	위탁 운영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과 함께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 및 사후관리까지 One-stop으로 지원 	사회참여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연계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 지원 ▶ 인생이모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재설계, 일감뱅크, 상담 등 일자리 발굴 지원 	기업 연계
2016년도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야 8개 교육과정 상·하반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교육 · 생애재설계 · 사회공헌 분야 - 소상공인 비즈니스마스터, 에코-그린 프로, 치매전문사 등 - 수강인원 329명, 수료인원 306명, 취업인원 35명 ▶ 일감뱅크 구축 186개 기업·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협력망회의 개최: 년2회 - 홈페이지 구축운영(2016년 2월) - 포럼, 특강 통한 일자리 연계 지원: 10회 	일감뱅크 구축

자료: 대전광역시,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역서, 2017.7.3.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aejeonseNIor.or.kr>), 2017.7.10.

또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분야는 미취업 청년대상(2030세대) 취·창업 및 직업교양프로그램, 중장년(4050세대) 퇴직에 대비한 재취업프로그램, 노인(65세 이상) 사회적응형 프로그램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중·장년 대상 사업은 이직·전직 프로그램, 새로운 경력창출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고 있다.

2) 충청남도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충청남도 50~64세 인구는 2017년 8월말 기준 약 45만 8천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21.7%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발굴·알선,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2015.10.30.)하고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도와 시·군의 권역별, 기능별 역할 분담을 고려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청운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2016년1월)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군 단위)를 대상으로 ‘2017년 찾아가는 인생이모작 아카데미’를 개설해 각 군청에서 만40세 이상 해당 군민 대상으로 제2인생 설계에 필요한 강의(재무설계, 노후준비 등)를 진행하고 있다.

[표 3-58]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계획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설치·지원 · 청운대 산학협력단 위탁 운영 ▶ 도와 시·군의 권역별, 기능별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프로그램 구성과 시·군 지원에 중점 - 시·군: 해당 지역 베이비부부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행 	위탁운영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발굴·알선, 사회공헌형 자원봉사, 인생전환교육 중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전 교육을 통한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 설계 (찾아가는 인생이모작 아카데미 운영 등) - 기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 및 참여 지원 -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생 설계 	인생전환교육
일자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및 고용지원센터 등 유사기관과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감뱅크: 단순 소개 및 알선은 지양. 자리 발굴과 직종개발 및 주간보호 등 맞춤형 교육과 알선 - 도농일자리 교류: 농촌 일자리 참여 희망 베이비부부에 대한 DB 구축으로 필요한 시기에 일손부족 농가에 알선 - 창업지원: 베이비부부에 대한 창업교육 및 컨설팅 	중장년 일자리 센터연계
사회공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활동 지원: 퇴직교사모임(삼락희), 퇴직공무원협동조합, 행정동 우회 등 전문직 은퇴자 참여 유도. 학생지도사업 등 시행 - 복지 서포터, 경로당 코디네이터 운영 - 청년창업 멘토단 운영: 청년 창업시 베이비부부의 컨설팅 지원 	전문직 은퇴자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정책연 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노년층(50-65세)에 대한 통계 및 맞춤형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노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 준비 없는 은퇴 등 불안, 변화에 대한 생애전환 교육 - 은퇴 대비 직장 교육은 중장년일자리센터,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 	맞춤형 정책

자료: 충청남도,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2017.7.31.

3) 울산광역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울산광역시 50~64세 인구는 2017년 8월말 기준 약 27만 6천명으로 울산 전체 인구의 23.7%에 이르고 있다. 울산시는 '내일설계지원센터'를 개소(2016년 3월)하고 기존 노인일자리지원센터(65세 이상)의 기능에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 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발전재단,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협약을 맺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3-59] 울산광역시 '내일설계지원센터' 사업 안내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설치·지원 ·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위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기능 확대,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 통합 운영 	위탁운영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업 훈련사업과 통합 운영 단계별 운영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센터홍보 및 운영체계의 활성화를 통해 센터 역할 강화 - 2단계: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과 통합 운영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핵심역할 수행 	훈련사업 통합
노후 설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붐 및 노인세대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지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붐 및 노인세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 내일준비교육, 내일설계교육, 내일실천교육 - 베이비붐 및 노인세대를 위한 평생학습지원교육: 내일인문학산책, 내일사회나눔 	내일 교육
일자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Myjob & Tomorrow)개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일자리사업 관계기관 네트워크, 일자리 협력망 구축 - 기업 네트워크, 민간기업 채용설명회, 채용박람회 운영 - 구인처 개발 및 구직자 취업 연계 -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 찾아가는 노후설계교육 	내일개발
사회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활동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콜센터 활동) - 내일 사회활동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내일사회 활동

자료: 울산광역시 내일설계지원센터(<http://www.usnoinjob.org/main.html>), 2017.11.1.

4) 경기도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부천시의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인구는 2014년 기준 약 13만5천명으로 부천시 전체 인구의 15.7%에 이르며, 65세 이상 인구는 약 7만8천명으로 9.2%에 이른다²²⁾. 이에 따라 부천시(복지국 노인복지과)는 베이비부머 및 50~60대 직장은퇴자 및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15.1.12.), 2016년 1월에 구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였던 복사콜문화센터 3층에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부천시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향하고, 저 인력 및 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타 기관과 연계 및 업무 협조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표 3-60]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직영으로 운영되며 직능별 업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모작지원센터: 센터 운영, 교육프로그램 및 구인구직 일자리 등 - 시니어클럽: 취업준비 교육, 일자리 등. 65세 이상은 클럽과 연계 - 평생학습센터: 인생설계 등 교육프로그램 선정 및 강사 지원 	부천시 직영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인력, 저 예산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인생이모작 센터 운영 ▶ 민간기업, 유관기관 연계 일감 발굴로 사회참여 영역 지속 확대 ▶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 고소득, 전문직(신 노년층): 창업컨설팅 지원, 전문 자원봉사 등 - 중산층, 일반직(55세 이상): 공원관리, 도시녹화, 조경관리 등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생계형 일자리 발굴 지원 - 저소득, 취약층(65세 이상):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한 공공분야 어르신 일자리 지원 	계층별· 연령별 맞춤 지원
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이모작 설계 동기 부여를 위한 교육 - 인생설계: 행복한 나이 들을 위한 건강, 재무, 관계, 여가 등 교육 및 미래 설계 - 사회공헌: 전문직 시니어들의 사회공헌 활동 안내 및 활동가 양성 	재능기 부 사회공 헌

22) 부천시 노인장애인과,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 2015.5.20.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재취업: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잡매칭(구인구직 DB화) ▶ 시니어 사회참여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감뱅크 운영: 일감 및 일자리 발굴·소개, 상담 및 구인정보 제공 - 시니어자원봉사단: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 활성화 기여 - 커뮤니티: 기수별 동문회, 동아리 및 시니어 사업단 등 지원·육성 - 이모작 상담·지원: 활용 가능한 일자리 물색, 구직희망자 지원 	취업지원기관연계
기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on-off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 문화공간: 문화강좌, 공연, 전시회 개최 등 복합문화공간 - 정보제공: 5060 신 노년층 관련 기사, 정보, 자료 등 보관 및 제공 - 인재은행 구축: 전문직 은퇴자 인력풀 구축 - 미디어 룸: 시니어 전문기자단 운영 등 	타기관 공동 사용

자료: 부천시 노인장애인과,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 2015.5.20.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http://twohappylife.bucheon.go.kr>), 2017.7.10.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50~64세 인구는 2016년 말 기준 약 9만9천명으로 수성구 전체 인구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5만6천명으로 12.5%에 이른다²³⁾. 대구시 수성구의 인생이모작지원사업은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및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노인복지관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수성구는 예산 절감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도에 노인복지관 2개소를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도 평일 야간 및 주말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다.

[표 3-6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생이모작지원사업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과 지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으로 사업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위탁 운영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2개 기관(범물노인복지관, 고산노인복지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절감을 위해 시설은 노인복지관 활용(야간 및 주말 운영) - 기관 별 50+행복설계와 인생이모작설계로 나누어 운영 	야간, 주말 운영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사업 운영 계획’, 2017.4.5.

구분	지원 내용	비고
법률노 인복지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여자 필요시 커뮤니티 활동 지원 ▶ 50+행복노후설계아카데미 및 50+상담센터 운영 - 기초상담 및 심층상담: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상담 - 초기 인생설계 및 재구성에 대한 교육: 국민연금공단과 연계 ▶ 50+행복사회공헌아카데미 및 50+행복취창업아카데미 운영 - 행복나눔 인형극단(색동화 대구지회와 업무 협약) - 치매특화요양보호사 취·창업(수성구 통합정신치매센터와 연계) 	국민연 금공단 연계
고산노 인복지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이모작 상담센터 및 인생이모작아카데미 운영 - 기초 및 심화상담(한국생애설계전문가협회 및 국민연금공단) - 은퇴 이후 인생설계 및 건강, 재무, 신용관리, 관계 등 교육 ▶ 취·창업훈련프로그램 운영 - 인생설계프로그램 수료자 중 희망자 대상 훈련교육 진행 - 취·창업 기관 알선 및 연계: 미래일자리센터, 수성구 일자리센터 - 평생교육과와 연계: 운영 프로그램 컨설팅, 강사 섭외, 대관 등 	유관기 관 연계

자료: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사업 운영 계획’, 2017.4.5.

6)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50세 이상 인구는 2016년 12월말 기준 약 6만 명으로 광산구 전체 인구의 약 16%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만 명(7.7%)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 광산구(복지시설지원단)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신설(2017.10. 준공 예정)하고, 은퇴(예정) 중장년 세대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배움, 복지, 소통으로 구성된 ‘어게인 청춘’ 사업을 추진한다. 운영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17년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생생지락, Again 청춘’으로 선정되었다.

[표 3-62]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생이모작지원사업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지원단 공동체복지팀 · 더불어락노인복지관 민간위탁 - 광산구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함께 어게인 청춘 사업 추진 	위탁 운영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17년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 ‘생생지락(生生之樂), Again 청춘’으로 3년간 5억2천 만원 운영비 확보(2016.10), 2017년 10월 준공 예정 - 은퇴 이후 노후준비진단서비스, 인생설계프로그램 운영, 재취업, 	Again 청춘 사업 추진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사업 내용	<p>사회공헌 및 재능 나눔 프로그램 개발 등</p> <p>▶ 일자리, 배움, 복지, 소통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금융·교육 등 전문분야 은퇴자 인력풀 구축, 직업 교육, 기술 분야 시니어 마이스터 빌굴, 창원지원 및 인큐베이팅 추진, 사회공헌 일자리 발굴 등 - 배움: 노후설계 상담 인력과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마을로의 귀환' 프로젝트 - 삶의 지혜와 경륜을 지역공동체와 공유 - 복지: 세대간 이해와 통합, 중장년 세대의 노하우와 경륜을 전수하는 청년 멘토링, 조손가정 돌봄 멘토링,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재능기부 체계 구축, 자원봉사 활성화 등 - 소통: 중장년 세대의 참여와 공간 거점, 더불어락노인복지관 4층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신설 	4개 분야

자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지시설지원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신설', 2017.1.

7)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제정 및 센터 설치를 준비하는 곳이 있으며, 예산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시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기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 인생이모작 아카데미 등을 자치 시·군 별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운영하거나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등에서 인생이모작학교, 인생이모작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

[표 3-6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인생이모작지원사업

구분	지원 내용	담당부서
경기도 포천시 '인생이모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40~60대 장년층(은퇴준비자 및 은퇴자, 주부) - 장소: 포천시립 중앙도서관(2016년도) - 사업비: 19,000천원(시비 1,8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교육: 시니어플래너, 시니어SNS플래너, 여성강사 과정 - 운영: 중장년 교육과정 전문기업 위탁 	총무국> 평생학습센터
인천 남구 '인생 2088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 - 장소: 남구 평생학습관(2017년도) - 교육: 중장년 인생설계 중요성, 직업시장의 변화, 중장년 평생직업 탐색, 인생 되돌아보기, 인생 2막 사례, 재무 점 	사회경제복지국> 일자리 정책과

구분	지원 내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 자격증 활용 취업 및 창업, 평생경력계획 수립 등 - 협조: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울산 북구 '퇴직자 인생이모작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퇴직자(울산 북구는 베이비부머 퇴직자 많음) - 장소: 인생이모작 이음센터 - 교육: 인생이모작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사회공헌 활동,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복지 경제국> 창조 경제과
제주도 '탐나는 5060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베이비붐(5060) 세대 - 장소: 제주도평생교육진흥원(시범사업 추진) - 내용: 일자리(제주적합형 일자리 모델 개발), 사회공헌활동, 교육문화, 기반구축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담은 3개년 기본계획(2017-2019) 추진 	제주특별자치 도> 지원조례 준비중

자료: 경기도 포천시 총무국, '포천시 인생 이모작 학교 운영 계획(안)', 2016.7.29.

인천 남구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tong_namgu/220996958220), 2017.5.2.

제주도(<https://www.jeju.go.kr/news/jeunews/card/card.htm?act=view&seq=1037737>), 2017.8.8.

5.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시키고 차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발굴 및 제안을 하는 고용포럼(지역고용전략개발 포럼)을 운영한다. 고용포럼의 주제는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되, 고용률 70% 달성을 기여할 수 있는 핵심과제(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방안, 청년 취업·창업·창직 지원, 고부가가치 서비스 인력 양성, 은퇴 장년층의 고용 활성화 방안 등)를 중점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우수사례는 발굴하여 포상과 함께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시 우대하여 지원한다.

[표 3-64] 고용노동부-지자체 지역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우수사례(장년 유관사업)

지자체	내용	비고
경북 칠곡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장년 창업·창직 지원(시니어 창업·창직·재취업 지원사업,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 등) - 사회적·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 원스톱 시스템 구축 	종합 대상

지자체	내용	비고
경기도	- 고용복지 종합센터 시범운영,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	광역 대상
충남 아산시	- 기업체 인사관리자 등 전문직 은퇴자 → 직업상담 등 관련 교육 이수 →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 센터 소속 직원으로 배치(5060 프로시니어 사업) - 취업지원기관 합동근무 협약을 통한 구인·구직서비스 향상	기초 대상
인천 광역시	- 고용복지통합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일자리지원본부설립: 고용 센터, 자활센터, 노인인력센터 등이 입주하여 취업과 복지 통합 센터 링크 구축	광역 1위
충청 남도	- 창업경진대회, 창업지원, 1인창조비즈니스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사업을 연계하여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단계별 지원 추진	광역 최우수
경기도 성남시	‘성남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기업(NHN) 협력을 통한 시니어 일 자리창출	기초 최우수
부산 해운대구	- 해운대구 일자리종합 지원센터-중소기업청 공모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선정 - 경력단절 주부(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 인개척단 운영	기초구 1위
대구 수성구	- 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 특화된 노인일자리창출 - 중장년 희망 취업박람회 - 시니어문화센터 ‘아리랑’ 신설·운영하여 어르신 일자리와 여가를 한 곳에서 지원 - ‘사회적경제밸굴지원 아이디어 공모’ 사업화 모델지원	기초구 최우수
인천 남동구	- 중소기업 고령자·정년 도래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정년 퇴직자 재고용 및 고용연장 시 일정기간 임금지원	기초구 최우수

자료: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2017.6.30.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2014년) 우수사례 중 장년 유관 서비스 부문만 추출함.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장년층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은 주로 4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일부 강원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장년 창업지원을 위한 푸드트럭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도 경기도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하여 취업한 여성 중 중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2017년도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높여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중장년층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에게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중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4050행복창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중장년이 갖고 있는 경력과 기술을 사업화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40대 조기 퇴직자 및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중장년 재도약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3-65]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2017년도)

구분	지원 내용	추진(운영)
강원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등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499명) (근거: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 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장년(만 55세 이상 64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지급	강원도
	청장년 창업지원 푸드트럭 지원(구입 3대, 개조 3대) (만 54세 이하 청장년 중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	
경기도 '중장년 여성취업 지원사업'	대상: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여성 (생계형 취약계층은 연령을 제한하지 않음) 기관: 경기도 여성인력개발기관 16개 - 내용: 실질적 정보 제공 및 경력진단 → 상담 및 단기특강 → 신속한 취업일선 연계까지 ‘생계형 고용복지 맞춤형 시스템’ 제공	경기도 내 여성인력개발 기관(여성인력 개발센터, 새일센터) 16개
대구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상: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참여기업: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5인~500인) 내용: 취업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취업장려금	대구경영자 총협회, 대구 상공회의소 등
전라북도 '4050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대상: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 미취업자 내용: 취업 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구직자 모집 안내, 참여 기업과 중장년 취업 신청자와의 만남의 날 행사 운영, 채용일선 등	전북일자리종합 센터(전북경제 통상진흥원)
전라북도 '4050행복창 업프로젝트'	대상: 만 40세 이상 전라북도 내 거주자 내용: 창업교육 및 창업실행 지원, 현장실습, 맞춤형코칭, 사후 컨설팅, 수료 후 창업시 특례보증금 지원 등	전북경제통상 진흥원

구분	지원 내용	추진(운영)
충청남도 '중장년 재도약 창업 프로그램'	대상: 만 40세~60세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 사업등록 1년 미만의 만 40세~50세 이상 초기 사업자 내용: 창업공간 및 장비 지원, 사업화지원비,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충청남도선정 주관기관

자료: 경기도, '2017년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계획, 2016.12.26.

대구시, '2017년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계획' 2017.2.

전라북도, '2017년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2017.1.1.시행

중소기업청, '2017년도 창업지원사업', 2017.2. 등

주) 행정자치부,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함

6.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여가·교육 지원 사업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유형의 평생 교육기관(시설)²⁴⁾이 분포되어 있어서 50+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여가교육·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퇴직한 50+세대들이 독서 및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도 전국에 1,010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설립주체의 75%(758개)²⁵⁾가 지자체이다.

[표 3-66] 평생교육기관 설치 현황(2016.12.31.기준)

(단위: 개)

시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외	
	계	원격 형태	지식 인력 개발형태	언론 기관 부설	시민 단체 부설	대학 (원) 부설	사업장 부설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서울	1565	649	310	258	126	80	72	66	147	424
부산	233	36	18	55	48	23	30	23	40	205
대구	153	27	20	39	19	15	19	14	35	139
인천	160	17	22	38	21	12	26	24	47	150
광주	149	17	26	36	21	17	13	19	22	95
대전	110	12	5	29	20	16	16	12	24	79
울산	58	2	1	19	7	4	21	4	17	56
세종	8	0	0	1	0	3	3	1	5	14
경기	785	100	121	162	129	74	110	89	244	561

24) 평생교육법상 기관: 원격형태, 지식인력개발형태, 언론기관부설, 시민단체부설, 대학부설, 사업장부설,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외 기관: 동자치회관, 복지관, 도서관, 여성관련시설, 직업훈련시설, 미술관, 박물관, 문화원 등

25) 2016년 기준, 공공도서관 설립주체(지자체 758개)(75%), 교육청 231개(22.9%), 사립 21개(2.1%).

시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외	
	계	원격 형태	자식 인력 개발형태	연론 기관 부설	시민 단체 부설	대학 (원) 부설	사업장 부설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강원	122	9	11	10	33	20	12	27	54	193
충북	96	9	9	16	16	15	9	22	44	153
충남	126	11	14	22	15	24	16	24	59	207
전북	132	18	14	26	16	20	13	24	58	241
전남	109	5	5	20	15	21	15	28	64	297
경북	152	7	12	20	24	37	21	30	64	332
경남	163	7	14	36	29	21	27	29	65	314
제주	32	1	6	5	5	4	3	8	21	43
계	4153	927	608	792	544	406	426	444	1010	3503

자료: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http://kess.kedi.re.kr/>), 2016.12.31.기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 공공도서관 현황, 2016.12.31.기준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 2016.12.31.기준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주민자치센터 역시 50+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다.

[표 3-67]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6.12.31.기준)

(단위: 개)

시도	자치 센터수	프로그램 수							
		계	주민 자치	문화 여가	지역 복지	주민 편의	시민 교육	지역 진흥	기타
서울	424	8,640	411	4,773	578	460	1,782	530	106
부산	205	3,502	247	1,636	446	174	690	279	30
대구	139	939	1	690	51	58	137	2	0
인천	150	2,551	92	1,716	172	27	484	50	10
광주	95	494	11	454	6	1	18	4	0
대전	79	898	29	657	62	34	96	20	0
울산	56	969	25	661	72	12	109	87	3
세종	14	386	3	351	5	0	22	5	0
경기	561	11,812	315	7,665	764	177	2,488	367	36
강원	193	1,058	46	848	55	25	65	13	6
충북	153	1,070	99	833	48	14	73	3	0
충남	207	1,520	59	1,250	73	11	117	9	1
전북	241	1,208	57	940	50	45	94	20	2
전남	297	820	29	622	48	20	82	15	4
경북	332	550	7	452	17	5	69	0	0
경남	314	1,984	56	1,476	146	32	194	63	17
제주	43	1,240	258	299	287	84	115	192	5
계	3,503	39,641	1,745	25,323	2,880	1,179	6,635	1,659	220

자료: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2016.12.31.기준).

* 서울지역은 자치센터(10%)보다 자치회관(89%)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함

교육부 구축 사업인 각 지역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에는 평생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4050세대에게는 조기퇴직 및 창업·전직 지원 프로그램과 자발적 학습을 위한 취업기회 확대, 6070세대에게는 취미·여가 생활, 건강·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변화 적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68] 지방자치단체의 50+여가 및 교육 지원사업(2017년도) 예

구분	오프라인	온라인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협력망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60세 이상) : 13세대 공감 프로그램 '꼬물꼬물 한지공예' (강동노인 종합복지관) · 어르신리더양성교육 프로젝트 '제3의 인생-날개를 펴다' (동촌종합사회복지관) · 세대가 함께하는 어울림 프로젝트 '수상한 음악실' (동대문청소년수련관) · 이야기로 떠나는 역사문화탐방(동작종합사회복지관) 등 	서울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창업의 울바른 방향, 중장년기 행복한 생활 설계를 위한 법률여행, 노령화와 생애리모델링, 노후생애설계이해, 국제적관점에서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행복한 노후 가꾸기 등(온라인) 	경기평생학습포털 길 (gil.gg.go.kr)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을 위한 심리학 교실(송촌평생학습도서관) - 50+기자단 과정(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대전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daejeon.damoae.dile.or.kr)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인턴쉽(구청) 	부산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ble.or.kr)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주민자치센터) - 시니어포럼 예술단-풀물, 합창, 난타 등(울산시니어포럼) 	울산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uill.or.kr)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더레이터 양성과정(군청) - 브라보 시니어 라이프-인문학적 인생설계(아산시공동체 지원센터) 	충남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damoa.chungnam.net)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지원: 노인평생교육지원활동가 양성과정 운영(제주도평생교육 진흥원) 	제주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damoa.jeju.kr)

자료: 각 지역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2017.7.28.

제3절 기업 및 민간단체

민간기업에서 지원하는 전직지원 및 생애설계 프로그램은 퇴직예정자의 불안감소, 취업, 창업, 은퇴준비, 경력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에서만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전직지원서비스 전문기업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상담 및 위탁 교육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이마저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구축 방안’ (2017.8.8.발표)에 의하면 고령자 고용법²⁶⁾ 개정안(국회계류 중)에 근거한 ‘대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가 2018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심리상담, 생애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비자발적 퇴직자의 원활한 직장 이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대기업은 의무화 되며, 중소기업에는 찾아가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은퇴설계프로그램 역시 고령사회를 맞아 점점 진화하여 재무설계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분야 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이 아니어도 상담 가능하며, 법인 및 단체에는 노후설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주는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업종 특성을 살려 50+세대 대상으로 전문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정부기관과 협력 및 MOU 등을 통해 중장년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민간단체의 경우 50+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여가,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고 50+ 세대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사회참여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2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약칭

[표 3-69] 기업 및 민간단체의 50+지원 프로그램

기업 및 단체 50+프로그램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시작연 도
	생애 설계	창업	취업	사회 공헌	문화 여가	재무 관리	건강 관계		
대기업 전직지원 및 생애설계 프로그램 (공통)	◎	◎	◎	○	○	○	△	자사 임직원	2001 시작
금융기관 은퇴설계 프로그램(공통)	○	△	△	△	△	◎	△	고객	2011이 후급증
전직지원 전문업체 프로그램(공통)	◎	○	○	○	○	△	△	고객사 직원	2000 년대 초반
SK텔레콤 '브라보 리스타트'		◎						45세 이상	2013
유한킴벌리 '시니어케어매니저'			◎	△				55세 이상	2016
유한킴벌리 '시니어용품전문 소기업 육성'		◎						-	2012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		◎						45세 이상	2013
상상우리 '중장년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						45세 이상	2013
희망제작소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				◎			△	40세 이상	2013
희망제작소 '은퇴설계학교 4050드림스쿨'	◎	○	○	◎	△	△	△	40세 이상	2013
신나는조합 '시니어사회적경제취· 창업지원'		○	◎	○			△	45세 이상	2014
신나는조합 'SK 프로보노 매칭업무'			○	◎			△	-	2014
함께일하는재단 '기업연계 일자리증진사업'			◎	◎			△	-	2016
사회연대은행 'KDB시니어브리지 사회공헌아카데미'	○	○	○	◎			△	45세 이상	2013

* 주) ◎: 주 업무 · ○: 부 업무 · △: 기타 지원

1. 기업의 50+지원 프로그램

민간기업의 50+ 대상 지원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은퇴설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그 외 전직지원 및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2000년대 이후 일부 대기업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사 퇴직자 및 일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규모(30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대기업에서만 자체 전직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상담 및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다.

1) 대기업의 전직지원 및 생애설계 프로그램

현재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은 퇴직(예정)자에게 전직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시간관리, 재정관리, 심리 상태 등 인생의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는 생애설계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경력재설계 성격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 삼성그룹의 전직지원 및 생애설계 프로그램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계열 경력컨설팅센터(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SDI, SDS), 서비스계열 경력컨설팅센터(삼성물산, 에스원, 웰스토리,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 금융경력컨설팅센터 등 계열사별로 경력컨설팅센터가 개설되어 구직정보를 공유하고 퇴직 임직원 대상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의 모든 신입사원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생애설계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소비통제, 소액투자, 개인연금의 필요성 등 재무설계 관련 교육을 받고, 40대부터 60대 이상은 재무 설계는 물론 가족, 건강, 사회활동, 취미, 여가 등 비재무적인 설계를 함께 교육 받는다. 전직지원 및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경력컨설팅센터에는 교육장 및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구축되어 있으며, 근무 중인 컨설턴트가 개별 컨설팅 및 헤드헌터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2001년부터 전직지원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지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는 재직 중인 임직원 대상으로 평생 경력개발차원의 맞춤형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3-70] 삼성전자의 전직지원 및 생애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세스	비고
생애설계 프로그램 (재직자 대상)	<p>내부에서 경쟁력 및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계.</p> <p>성찰단계(인생에서 45세의 의미, 현재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 인식단계(외부의 사회환경과 조직내부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인식, 본인의 경력을 위한 미래 준비 수준 점검) → 설계단계(일과 가정 전 생애 차원에서 잘 사는 삶을 살기위한 인생후반기의 생애설계서 작성)</p> <p>시간, 돈, 건강 차원에서 60세 이후 삶까지 준비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경력과 생애설계.</p> <p>문제발견(일과 삶에서의 과거 조망을 통해 환경적응에 필요한 요소 발견) → 분석(부족한 부분 인식, 고민, 대안 모색) → 대안 마련(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 준비사항 모색) → 가치더하기(대안 실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직업능력 개발) → 실행하기(전직을 위한 준비와 제2의 인생을 위한 진행 중심 계획 수립)</p>	45세 임직원 대상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지원 프로그램	<p>구인기업 빨굴, 잡매칭 상담, 관련 정보 제공 등.</p> <p>초기상담 → 취(창)업 상담교육 → 취업지원 → 창업지원프로그램</p>	경력컨설팅 센터 운영
퇴직임원 대상 전직지원 프로그램 (Executive)	<p>직무 역량 향상, 중소기업에서의 새출발, 일과 삶의 조화 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p> <p>교육(주 2일씩, 총 8일 35시간 교육): 취업·창업 준비, 중소기업의 이해 · 네트워킹, 이미지 메이킹 · 인생설계·재무·세무·법률 · 건강·여가·가족 등</p>	취(창)업 관련 정보와 잡매칭 기회 지속적 제공, 히든기업 및

프로그램	프로세스	비고
Program)	1:1컨설팅(1인당 2회 총2시간씩): 개별적인 경력목표 설정 → 인생 2막 설계 경로 지원 → 인생 3막에서의 성공 재정의	히든잡 매칭 작업도 진행

자료: HR Insight, 2015년 7월. 제722호. 외

- ②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삼성 금융경력컨설팅센터를 통해 업의 특성에 맞는 퇴직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퇴직 신청자와 전문직 전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창업지원이나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2012년부터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생 후반기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Beautiful Aging’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③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퇴직자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삼성전기는 전직관리시스템(CMS)을 통해 퇴직(예정)자 대상 경력 진단과 진로 상담, 창업 및 재취업, 자격증 취득에 관한 종합적인 전직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 포스코 전직지원프로그램

포스코의 전직지원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주임급 대상으로 Green Life ‘Service’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전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원 맞춤별로 분류해서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꾀했다. 2009년부터 Green Life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생애목표설정, 실행력강화, 부부동반 워크샵) 기간은 축소하고, e-러닝, 컨설팅, 정보지원 등으로 구성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3-71] 포스코의 전직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필수과정(e-러닝 등)	컨설팅
생애설계	성공적 삶을 위한 계획, 퇴직 전후 시간관리, 휴먼 네트워킹	DISC진단과 노후준비도 결과에 따라 ⇒ 니즈분석(성격유형검사, 과거 경력 및 핵심역량 진단 등), 경력개발계획, 퇴직자 관련정보, 생애목표 및 활동계획, 시간관리, 스트레스관리, 커뮤니케이션 스킬, 인맥관리, 리스크 관리 등
재취업	목표기업 선정 및 구직 루트 발굴, 50대에 다시 쓰는 이력서, 면접 성공 전략, 자격증 제도	직업 적성과 가치관 진단을 통해 ⇒ 재취업 동향, 구직루트 발굴 전략, 유망 교육 및 자격증 안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스킬, 연봉·채용·협상, 취업제의 분석, 새 직장 적응하기, 실업급여 및 정부지원제도 등
창업	창업가 정신 및 창업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적성 결과를 바탕으로 ⇒ 실전 사업계획서작성을 위한 창업아이템 선정, 입지선정, 마케팅 전략 및 재무계획, 성공적 사업실행을 위한 경영전략 지원
재테크	경제, 부동산 등	생애 재무 진단을 통해 ⇒ 재무와 부동산 관련 투자 및 운용 전략 지원

자료: HR Insight, 2015년 7월. 제722호. 외

(3) KT의 생애설계 프로그램

KT는 2005년부터 40세 이상 재직자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생애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KT 라이프플랜(Lifeplan)이라는 경력관리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DC(Career Design Center) 상담 신청을 통해 만 45세 이상 재직자 대상으로 재무컨설팅, 개인성향 진단, 커리어 코칭 등의 생애설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주로 15년 이상의 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및 개발, 진로상담, 재취업, 창업, 자격취득에 이르는 생애설계 및 전직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3-72] KT의 생애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비고
온라인 강좌	- 부자학, 부동산, 절세, 금융, 증권, 창업, 건강, 배우자 및 자녀의 이해, 여가 및 취미 등	KT Lifeplan 홈페이지
만 45세 이상 재직자 대상 생애설계 프로그램	- 재무컨설팅: 재테크 마인드 형성 및 변화 적응 설계. 재테크전략, 퇴직금 관리방법, 소요자금 분석(개인별운용 계획 수립) 등 현장 상담(전화 및 온라인상담도 가능) - 성격 및 직무 분야별 적합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성향진단과 경력 설계를 위해 커리어 코칭 진행	컨설턴트가 직접상담
15년 이상 부장급 대상 생애설계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 재취업 전문교육: 자신의 경력분석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스킬 등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창업 전문교육: 창업에 대한 기본이해, 창업 후 정착 단계까지 단계별 전문지식 전달 - 생애설계 워크샵: 퇴직 후 재무설계(제2인생 소요자금분석, 퇴직 후 4대보험 처리, 퇴직금 관리방법 등), 환경변화에 대한 변화관리(인생후반전 행복설계), 생활고충상담 등	커리어디자인 센터. 현장교육, 워크샵 프로그램

자료: Money Week, 2010년 2월. 제115호. 외

2) 금융기관의 은퇴설계 프로그램

금융권은 2011년 이후 은퇴설계 브랜드를 속속 출시하여 재무설계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분야 서비스까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이 아니어도 상담 가능하며, 법인 및 단체에는 노후설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주는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표 3-73] 국내 주요 금융기관 은퇴설계 프로그램

은퇴설계 브랜드	특성	서비스 내용	개시
하나은행 하나행복디자인	은퇴연령을 기준으로 은퇴 준비자와 은퇴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대 수명 전 자산이 모두 소진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은퇴생활제안(부족자금해결방안)'을 제공. 취미·여가활동, 건강관리, 은퇴자 재능기부 등 비재무적 프로그램 도 지원	2011년

은퇴설계 브랜드	특성	서비스 내용	개시
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0세부터 100세까지 생애주 기별 맞춤형 노후준비진단 서비스 제공. 전국 850여개 영업점 VIP라운지 은퇴·노후설계특화상담창구 상담	자체 노후설계시스템을 활용해 연령, 준비자산, 은퇴 후 희망 생활비 등을 분석, 노후생활을 위한 재무상황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상품 추천, 재무·비재무적 분야관리	2012년
삼성증권 은퇴설계시스템	은퇴설계 리더 120명 양성, 전국 지점에 배치. '간편모델' 은퇴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략적인 자산관리 계획 → 세부설계는 PB와 상담을 통한 '표준모델' 전문가시스템으로 은퇴설계	고객의 가족정보, 자산정보, 은퇴자금 목표 등을 반영해 은퇴준비 자금 설계, 부족자금 분석, 은퇴상황 조정, 은퇴 후 재무목표 조정, 자산 리밸런싱 등에 맞춰 다양한 은퇴설계 제시	2012년
신한은행 신한미래설계	은퇴영업을 전담할 지역거점 70개 미래설계센터에서 전용통장 및 추천상품 판매 등 종합 은퇴솔루션 제공. 모바일 'S-미래설계'에서 미리 자가진단 가능	별도 차문 서비스인 '미래설계 브리프'를 통해 고객의 은퇴준비 현황과 은퇴자산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 가능. 은퇴전문상담 + 상속증여 등 심층상담도 연계. 부부은퇴교실, 미래설계캠프	2014년
IBK기업은행 IBK평생설계	은퇴설계전문가 '평생설계플래너' 220명이 전국 영업점에 배치돼 전용 금융상품 판매, 생애 전반 컨설팅 제공	20대부터 은퇴이후까지 다양한 생애주기에 맞춰 해외투어, 노래교실, 상조장례, 건강검진, 재취업·창업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	2014년
농협은행 NH All 100플랜	전국 101개 영업점 ALL100플랜 라운지 방문상담	3단계(기본, 일반, 특화) 우대서비스, ALL100플랜전용패키지상품(예금, 적금, 연금, 대출, 중장년 고객을 위한 신용카드로 구성)도 제공	2015년
우리은행 웰리치 100	전국 600여곳의 은퇴 설계 특화 영업점, 웰리치 100라운지에서 상담	은퇴준비 자산 분석과 생활 패턴을 기반으로 한 부족자금설계 등 은퇴설계에 관한 전문적상담. 은퇴전(자산증식형)과 은퇴후(현금창출형)로 나눠 각 시기에 적절한 상품 제안	2015년

자료: Economic Review, 2014년 8월. 제725호. 외

3) 전직지원서비스 전문기업의 프로그램

2000년대 초반부터 전직지원서비스 전문기업이 등장하였으며, 민간·공공 부문의 생애설계교육 및 전직지원 등을 대행한다.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전담 컨설턴트의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다.

[표 3-74] 전직지원서비스 기업의 프로그램

구분	전직지원 프로그램 내용	비고
A서비스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지원: 심리안정, 자기진단, 경력목표설정, 대안탐색, 취업창업지원 - 생애설계: 직업, 인간관계, 가정, 건강관리, 재정관리, 여가 관리(은퇴후 대안탐색,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 봉사활동, 여가활동 탐색, 자금 관리와 재테크 전략 수립 등) 	민간 및 공공부문 전직지원 컨설팅, 생애설계 교육 등 대행
B서비스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지원: 퇴직(예정)자 전직 지원, 재직 근로자 대상 기업 교육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서비스 대행 - 채용지원서비스 등 	전문 직업상담사의 1:1 맞춤식 취업지원
C서비스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지원 절차: 종합지원설명회→이용신청→전문적성진단 →평생직업 찾기 교육→진로결정→진로결정 후 분야별 진행(전직, 창업·독립·공동창업, 독립전문직, 자격증, 재테크)→분야별 정착 지원(정착지원 컨설팅, 능력개발교육 등) 	경력전환지원 센터, 개별전담 컨설턴트 운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직지원협회: 전직지원전문가, 노후설계전문가, 진로 직업지도사 등 교육과정 운영 - 한국평생설계지원협회: 근로자의 생애설계, 퇴직 및 전직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 운영 	민간협회

자료: 제이엠커리어(<http://jmcareer.co.kr>), 인지어스(<http://www.ingeus.kr>), 2017.7.20.
리서치앤드컨설팅(<http://www.krnc.co.kr>), 한국평생설계지원협회(life-design.or.kr) 등

4) 기업의 50+창업지원 프로그램

일부 대기업은 업종 특성을 살려 50+세대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정부기관과 협력 및 MOU 등을 통해 중장년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SK텔레콤의 ‘브라보 리스트트’ 지원 프로그램

SK텔레콤은 ICT 창업지원 사이트인 ‘행복창업지원센터(SK서울캠퍼스)’를 통해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브라보! 리스트트(BRAVO! Re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기 10팀을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해서 2017년 5월 현재 총 4기 45개 팀이 ICT 창업기업으로 발굴 육성되었다.

[표 3-75] SK텔레콤의 ‘BRAVO! Restart’ 지원 프로그램

구분	내용
BRAVO! Restart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월 간의 초기 창업지원(교육, 멘토링, 창업지원금 2천만원) - 10개월간의 무상 사무공간 및 관련 인프라제공(SK서울캠퍼스: 중구) - SK텔레콤과 사업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마케팅·사업화 지원 -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팀당 최대 1억원, 출업 후 5년간 매출의 1.5%씩 지원금의 150% 수익배분 방식) - SK KNET 창업 펀드 등 외부 투자 유치 지원 - 국내외 전시 참여 및 PR 지원, SK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지원
지원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분야 예비 창업가(팀)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가(팀)를 대상 (만 45세 이상 인력 포함) 공모 - 서류심사면접심사 ⇒ 최종PT심사 ⇒ 창업자금 지원 및 인큐베이팅 - 서류 평가기준: 아이디어 참신성, 사업계획 적정성, 기술력 개발능력, 성장성 - 최종 심사기준: 기업가 정신, 시장 경쟁력, 사업화 가능성 - 심사위원회 구성: 전문 컨설턴트, 벤처 캐피탈 심사역, 성공한 벤처 창업자, ICT 전문가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텔레콤 창업 포럼: 창업 성공을 위한 정보 제공 교류 네트워킹 - 창업팀의 Biz Model 구체화 등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1:1 멘토링

자료: SK 서울캠퍼스(<http://sktincubator.com/center/bravorestart/>), 2017.5.29.

(2) 유한킴벌리의 창업지원 및 시니어 케어 매니저 사업

유한킴벌리는 2012년부터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시니어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해 오고 있으며, 시니어 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는 55세 이상 전문직 은퇴자 또는 경력단절 시니어들의 전문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모델 ‘시니어케어 매니저’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표 3-76] 유한킴벌리의 창업지원 및 시니어케어 매니저 사업

구분	지원 내용
시니어용품 전문 소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일하는 재단과 함께 시니어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 소기업 육성을 통한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시니어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총 26개 소기업 발굴 육성, 211명 시니어 일자리 창출(누적) · 16년 총 30개 소기업 발굴 육성, 300명 시니어 일자리 창출(누적)
시니어 허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일을 돋는 공익 유통기업 시니어허브도 운영(유한킴벌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단법인 50 플러스코리안이 함께 운영) - 제품 개발뿐 아니라 시니어 건강 상담, 동행 서비스 등 종합생활서비스도 지원
시니어케어 매니저 양성	55세 이상 은퇴자 출신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 테이케어센터 등에 시간과 요일별로 선택해 파견. 시니어의 건강 상담 및 정서안정 지원

자료: 유한킴벌리(www.yuhan-kimberly.co.kr/Society/Senior), 2017.5.29.

(3) CJ푸드빌의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

2013년 11월 설립되어 2016년 17기까지 배출 운영된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는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만 45세 이상) 은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외식창업 전문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3-77] CJ푸드빌의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

구분	지원 내용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페I, 카페II, 베이커리, 파스타(브런치) 전문점 4개 창업과정을 운영 - 각 과정별로 12명씩 선발(만 45세 이상, 초기는 만 50세 이상 선발) - 총 7주(35일/210시간) 과정: 이론 및 실습 교육, 경력 진단 및 생애 재설계 멘토링(6일/30시간), 창업기본 역량교육(8일/48시간), 매장 환경 시뮬레이션과 실습교육(22일/132시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와 협력 - 교육 참가비용과 중식대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운영(2016년 말까지 운영)

자료: CJ 푸드빌(www.cjfoodville.co.kr), 2017.5.29.

(4) 유통업체의 제대군인 편의점 창업지원

GS리테일은 2012년 5월, 육군 인사사령부와 전역군인 창업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편의점 창업희망 전역군인의 창업을 지원하였다. 코리아세븐은 2014년 5월, 국가보훈처와 ‘제대군인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편의점 창업희망 제대군인의 창업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했다.

[표 3-78] 유통업체의 제대군인 편의점 창업지원 프로그램

구분	내용
GS25 편의점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군인 대상(2012년) - GS25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고 육군본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GS리테일은 1~2주간의 점포 체험, 맞춤식 사업설명회 등 창업 지원
코리아세븐 편의점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자본 창업 교육을 받은 제대군인 대상(2014년) -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코리아세븐은 전담 상담사를 통해 입지, 가맹 형태, 상품주문 및 정리, 매장 및 고객 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상상우리의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주)상상우리는 2013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선정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팀으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만 45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중장년 사회적기업 창업입문과정’을 운영한다.

[표 3-79] 상상우리의 중장년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분	내용
중장년 사회적기업 창업입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 45세 이상 - 교육: 사회적경제 이해 및 현장방문, 비즈니스모델 디자인 워크샵, 사업계획서 작성·발표 등(2개월 과정) - 고용노동부 주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 상상우리 운영
시니어 온라이브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장년 창업 및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 - 시니어 신직업 공유, 중장년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의 토크콘서트 - 서울시 주최 · 상상우리 주관
상상 캔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 비즈니스 공간: 행사, 교육, 강연, 코워킹 제공 - 사회적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 - (예비)퇴직자 대상 재취업, 창업, 경력관리 등의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제공

자료: 상상우리(<http://www.sangsangwoori.com/>), 2017.7.31.

2. 민간단체의 50+지원 프로그램

50+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여가,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다수의 민간단체는 50+ 세대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사회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2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희망제작소의 세대공감프로젝트

지역과 중앙의 균등 발전, 퇴직자들의 공공분야 능력 발휘,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원, 현장 기반 혁신적인 공공리더 등을 희망으로 설립된 희망제작소는 2014년까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프로그램인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2017년 현재 평생학습동향리포트 온라인 발간, 세대공감 프로젝트 시니어드림페스티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3-80] 희망제작소의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세대공감프로젝트 시니어드림 페스티벌	40대 이상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시니어와 2,30대 청년들이 함께 10주간 실행하는 프로젝트, 결선에서 사회공헌활동 과정 공유. -아이디어 심사 기준: 공익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행복설계아카데미	40~60대 기업, 관공서, 전문직종 퇴직(예정)자 대상. 퇴직 후에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 19기 배출
은퇴설계학교4050 드림스쿨	지역관 행복설계아카데미. 은퇴후의 삶, 평생학습, 사회공헌활동, 재무, 인생설계 등 교육
평생학습동향 리포트 '와'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 및 시니어 관련 정보 소개

자료: 희망제작소(<http://www.makehope.org/>), 2017.6.8.

2) 신나는 조합의 시니어 사회적경제 지원

2000년 설립된 사회적경제 NGO인 신나는조합은 2012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 선정, 2013년 서울시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협동조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등을 시작하면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니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사업,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 시니어 올 라이브 포럼, SK프로보노 매칭업무(2017년) 등을 운영 중이다.

[표 3-81] 신나는조합의 시니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시니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지원사업	대상: 만 45세 이상의 시니어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취업 희망자’ 시니어 사회적경제기업전문가 양성(아카데미: 전문교육 및 컨설팅) 시니어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연계인턴십, 사후관리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	대상: 만 45세 이상의 시니어 예비창업자 및 기 창업자 시니어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우수 사업모델과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양성하여 시니어 창업의 분위기 제고 인생 2막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안정적 소득확보, 활동적·생산적 사회구성원 역할수행을 지원하여 우리사회 활력제고
시니어 올 라이브 포럼	시니어의 사회참여, 평생교육, 일자리, 활동, 창직 등에 관심 있는 중장년 대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맞춤형 정보제공, 교육, 사회참여 활동기회, 만남과 교류의 장 마련
SK 프로보노 활동	2009년 9월 대기업 최초로 ‘SK프로보노 봉사단’을 발족 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경영지원·전략 수립·마케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침. 2017년부터 신나는조합이 SK프로보노 매칭업무 담당

자료: 신나는조합(<http://joyfulunion.or.kr/>), 2017.5.29.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 아름다운서당의 세대통합 교육과정

2005년 설립한 아름다운서당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니어 교수진이 미래형 청년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 대상으로 인문학, 경영학 및 특별 과정을 개설하고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3C(성 품, 업무능력, 사명감)를 갖춘 인재로 육성하고 있다. 2007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서울, 광주, 제주 등에서 약 600여명의 학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80% 이상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82] 아름다운서당의 교육 프로그램

구분	교육 커리큘럼
공공선에 기여하는 미래형 청년 리더 육성	교육 대상: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 교수진(멘토): 언론사, 대기업, 금융기관의 전현직 간부, 대학 교수 등 교육 특성: 주도적 학습(문제해결능력, 협동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 갈등조정능력, 사명감, 성품까지 갖춘 인재로 육성 인문학과정: 철학, 종교, 문화, 예술, 역사, 정치, 경제, 과학 경영학과정: 케이스스터디, 한국경제사, 경영서 리뷰
기타	특별강좌: 스피치, 시간클리닉, 에세이, 영어, 한문, 명사특강 특별활동: 봉사활동, 겨울캠프, 현장실습 지역: 서울, 수원, 경기, 전남, 제주 등

자료: 아름다운서당(<http://www.beautifulseodang.org/>), 2017.5.29.

4) 지혜로운학교의 평생학습 및 온라인 커뮤니티

지혜로운학교는 2011년도에 영국 U3A(University of the Third Age)를 모태로 행복설계아카데미 학습을 함께 한 동기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만든 학습공동체이다. 서울시 평생학습부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연회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회비를 납부하면 지혜로운학교 내의 모든 과목 수강이 가능하다. 강사는 재능나눔으로 활동하며, 사회 각 분야의 전현직 전문가 및 은퇴한 시니어들이 자발적으로 강사와 학생의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지혜로운학교 카페를 개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은퇴한 50+ 세대들이 강사와 학생의 위치에서 상호 재능 나눔을 하고 있다.

5) 함께일하는재단의 시니어지원 프로그램

청년, 여성, 조기은퇴 중장년, 노년층,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설립한 함께일하는재단은 1999년 실업자종합지

원 센터를 개소하면서 일자리증진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7년 현재 유한킴벌리 시니어비즈니스사업, 포스코 무료간병사업,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3-83] 함께일하는재단의 시니어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 내용	협력기관
시니어 비즈니스사업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의 사회적기업 및 소기업 지원. 시니어 상품서비스 및 시니어 적합 일자리 개발. 2016년 시니어케어매니저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추진	유한킴벌리
어르신돌봄 서비스사업	2017년 HF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한국 주택공사
포스코 무료 간병사업	노인들의 노후질환에 대한 무료간병 제공.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여성을 간병도우미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포스코 청암재단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국내 최초의 기업 연계형 사회적기업 모델로 출발. 중장년 여성 가장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부족한 간병 서비스 제공	교보생명
어르신 전통문화 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1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한 국시니어클럽협회가 함께한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5 년간 총 725명의 전통문화지도사를 양성하고 약 49만 명의 아동들에게 전통문화교육 제공	삼성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자료: 함께일하는재단(<http://hamkke.org/job>), 2017.6.8.

6) 사회연대은행 'KDB시니어브리지센터'

사회연대은행은 정부, 기업, 민간 협력으로 마이크로크레딧(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기관이다.

KDB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사회연대은행 'KDB시니어브리지센터'는 시니어 맞춤 사회공헌 활동 지원기관으로 시니어 사회공헌 아카데미, 소셜디자이너 양성, 시니어 사회공헌 커뮤니티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KDB시니어브리지 사회공헌 아카데미'는 만 45세~65세 대상으로 인생의 후반을 사회공헌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 5월 1기를 시작으로 2017년 7월 현재 18기 까지 총 53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 수료생들은 사회적기업을 위한 프로보노, 노후설계 강의 및 상담,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 3-84] 사회연대은행 ‘KDB시니어브리지센터’의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 내용	비고
KDB시니어 브리지 사회공헌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만 45세~65세 - 교육: 은퇴 후 변화인식하기, 후반생 설계하기, 사회공헌활동·사회적경제 이해하기, 지역에서 역할 찾기, 사회공헌활동 현장 탐방·현장 체험 등 	
KDB시니어 브리지 시니어 소셜디자이너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만 45세~65세 - 시니어 전문강사: 강사의 이해, 강의 콘텐츠 개발, PPT교안 작성, 강사의 품격, 강의 홍보, 강의 실습 등 - 50+디자이너: 시니어 컨설턴트 이해 및 실무 (생애 7대 영역 이해, 상담 이론 및 실습) 등 - 신용상담사: 신용상담의 이해·재무관리·법규,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대비 특강 등 	KDB 나눔재단 후원
시니어 사회공헌 커뮤니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 45세 이상,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 시니어단체 아이디어 심사 및 선정: 실현 가능성, 사회적 가치, 참신성, 차별성, 구성원의 자질, 추진역량 등 - 선정 팀: 200~500만원 차등 지원 	

자료: 사회연대은행(<http://www.bss.or.kr>), 2017.7.31.

KDB시니어브리지(<http://www.seniorbridge.or.kr>), 2017.7.31.

제4절 50+세대 지원 유관기관

50+세대의 개성이 다양화되면서 욕구도 일자리, 여가, 교육, 사회활동 등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2015.4.2.)’에 명시된 장년층(50~64세)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인 ① 교육 지원사업, ②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③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④ 건강증진 지원사업, ⑤ 문화·여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 기관을 50+유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대부분은 특정 연령층을 한정하지 않고 전연령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50+지원 유관기관(50+세대 연령층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일자리(취업·창업)지원, 노후준비·여가·교육 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2-91>과 같다.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관(50+재단·캠퍼스·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취업·창업), 여가교육·사회활동 등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50+재단·캠퍼스·센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은 특정 한 분야(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육지원, 여가지원, 사회활동지원 등)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유관 분야를 둑어서(교육지원+취업지원, 교육지원+여가지원, 여가지원+사회활동지원 등) 지원사업을 펼치는 기관도 있다.

<표2-91>에 정리한 기관(50+세대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센터수를 살펴보면 취업지원센터는 전국 762개·서울 106개, 창업지원센터 전국 143개·서울 26개, 노후준비지원센터 전국 217개·서울 28개, 여가교육·사회 공헌지원센터 전국 1503개·서울 272개 등으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많은 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85] 50+지원 유관 기관(2017년 8월 기준)

구분	기관(센터)명	지원대상	’17년 운영수	비고
일자리(취업)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전국 32개 서울 7개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만 15세 이상 전 연령층	전국 75개 서울 5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고용센터	만 15세 이상 전 연령층	전국 21개 서울 4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고령자인재은행	만 50세 이상 구직자	전국 46개 서울 9개	고용노동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희망자	전국 150개 서울 28개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인력개발센터	성인여성 (중고령여성포함)	전국 52개 서울 16개	민간단체 운영
	시니어클럽	60세 이상	전국 138개 서울 8개	보건복지부 보고
	지역자활센터	실직상태, 취약계층	전국 248개 서울 29개	보건복지부
	일자리(취업)센터 계	기관별 지원연령 다름 (50+세대 지원공통)	전국 762개 서울 106개	-
일자리(창업)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전국 23개 서울 3개	중소벤처 기업부 지정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전국 63개 서울 18개	공공 및 민간 운영
	소상공인지원센터	20세 이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전국 57개 서울 5개	중소벤처 기업부
	일자리(창업)센터 계	기관별 지원연령 다름 (50+세대 지원공통)	전국 143개 서울 26개	-
노후준비	노후준비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노후준비가 필요한 전 연령층	전국 109개 서울 13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노후행복설계센터 (금융위원회)	노후준비가 필요한 전 연령층(서민층)	전국 43개 서울 15개	금융위원회 주관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 희망인	전국 54개	농림축산 식품부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귀촌 희망인	전국 11개	해양 수산부
	노후준비지원센터 계	전 연령층 (50+세대 지원공통)	전국 217개 서울 28개	-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기술 훈련희망자 중장년(만45세~62세), 경력단절여성 포함	전국 7개 대학 서울 4개 캠퍼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서울시 50+재단·캠퍼스센터	50+세대 (50세~64세)	서울 4개 센터 2개 캠퍼스	서울시 출연기관

구분	기관(센터)명	지원대상	17년 운영수	비고
여가 교육 (사회 공헌)	평생학습관	전 국민	전국 444개 서울 66개	교육청· 각 지자체
	공공도서관	전 국민	전국 1010개 서울 147개	교육청· 각 지자체
	한국중앙 자원봉사센터	전 국민	전국 245개 서울 26개	행정안전부 위탁
	종합사회복지관	전 국민	전국 464개 서울 98개	보건복지부 지정
	노인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	60세 이상	전국 350개 서울 76개	각 지자체 위탁 운영
	여가교육·사회공헌 지원센터 계 *	기관별 지원연령 다름 (50+세대 지원공동)	전국 1503개 서울 272개	-

* 주) 여가교육·사회공헌지원센터 계에 도서관 수와 폴리텍대학(센터가 아닌 대학단위)수는 포함하지 않음

연구·복지 관련 기관의 경우 50+세대만 대상으로 특화해서 연구·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은 없다. 서울시복지재단이 고령사회도시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50+세대가 포함된 노년층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서울시여가복지재단의 경우 중장년 여성 및 노년층 여성에 대한 연구를 일부 수행하였다. 2016년 4월 설립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앞으로 50+세대에 특화한 각종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표 3-86] 연구·복지 유관 기관

기관명	주요 사업	설립연도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 - 복지정책 및 모델 연구개발, 사회복지시설 역량 강화 지원,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지원,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등	2003년 12월· 서울시 출연기관
서울시 여성가족 재단	-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통해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설립 - 정책연구 및 평가, 교육, 국내외 네트워킹 사업 추진,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살림센터,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성주류화지원센터,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등	2002년· 서울시 출연기관
한국고용 정보원	-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설립 - 고용 및 진로직업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계층별(청년, 여성, 중장년 등) 진로 및 취업 관련 콘텐츠 제공 등	2006년 3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 일자리(취업·창업)지원 기관

50+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취업·창업)지원 기관으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고용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지역자활센터, 시니어기술창업센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40세 이상, ‘고령자인재은행’은 50세 이상, ‘시니어클럽’은 60세 이상이 지원대상이며, 기타 기관은 전연령층 대상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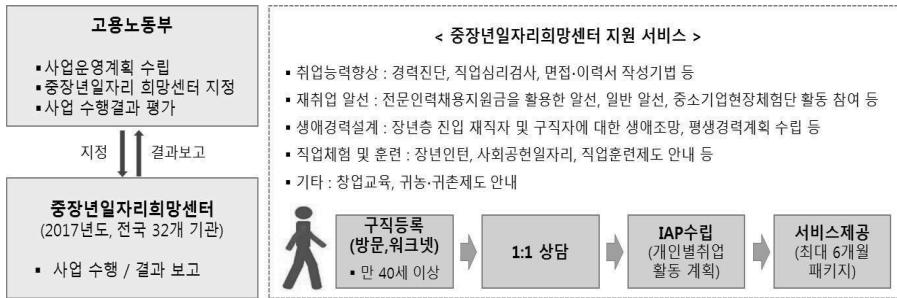
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 기능 및 역할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기존의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신규센터 등 총 25개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 서울지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노사발전재단(종합), 대한상공회의소(특화), 한국무역협회(특화), 전국경제인연합회(특화), 대한은퇴자협회(일반) 등이 지정되어 주요 경제 관련 협회 등이 특화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 ①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 중장년
- ② 지원내용: 전직지원 및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무료 제공, 취업능력 향상, 재취업알선,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직업체험 및 훈련, 기타
- ③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그림 3-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서비스



(2) 전국 지정 기관(2017년도 32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고용노동부(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지역협력과) 지정으로 전국에 종합센터(13개), 특화센터(3개), 일반센터(16개)가 운영되고 있다.

- ① 종합센터(노사발전재단 운영): 전국 광역단위 13개(금융센터 1개 포함). 생애경력설계(재직자), 전직지원서비스(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퇴직자)까지 단계별 맞춤서비스 무료 제공
- ② 특화센터(경제단체 운영): 서울지역 3개(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지정. 각 경제단체에 설정에 맞게 특화된 다양한 재취업 서비스 무료 제공
- ③ 일반 센터: 대한은퇴자협회,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 경영자총협회 등 총 16 개 기관 지정. 중장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서비스 무료 제공

[그림 3-12] 2017년도 고용노동부 지정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수(전국)



(3) 서울지역 지정 기관(2017년도 7개)

서울에는 노사발전재단 금융센터·서울센터·서울서부센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은퇴자협회 등 총 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 지원서비스는 동일하나 각 기관별로 일부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87] 고용노동부 지정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서울지역)

구분	특성	주요 사업 내용	위치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서부 센터, 금융센터 (종합센터)	금융특화, 조선통화 전직지원서 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전직지원서비스(일반 전직지원서비스, 조선통화 전직지원서비스, * 금융특화 전직 지원센터) - 재도약 프로그램 - 장년고용지원금 등 	(https://www.nosa.or.kr/portal/nosa/majorBiz/senJob), 마포구, 구로구
대한상공회의 소 (특화센터)	산업현장 및 대기업·중소 기업 매칭 취업 지원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무료 1:1매칭 지원 - 전직지원 컨설팅 및 취업교육 제공 - 대기업 퇴직인력 DB구축 -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조사→구인처 빌굴 - 장년취업인턴제(http://i502.korcharhrd.net) 	(https://4060.jobtogether.net), 중구 상공회의소 회관
한국 무역협회 (특화센터)	무역수출입 분야 중장년 전문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7만3천여 회원사 구인구직알선 - 해외전문인력 취업지원 - 취업역량교육(퇴직자) - 생애경력설계(퇴직·재직자) 	(http://www.jobtogether.net), 강남구 무역협회

구분	특성	주요 사업 내용	위치
	취업 지원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취업특강 -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전국 경제인 연합회 (특화센터)	CEO, 임원 등 전문경영진 채용 대행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정보 및 인재정보 제공 : 50대 그룹 전문 인재정보 등록 서비스 - 취업지원 서비스(전문컨설턴트 상담) - 전문경영닥터 서비스(전경련 중소기업 협력센터와유엔파트너즈 공동, 중소·중견기업에 임원급 이상 전문인력 추천) 	(http://www.fki-rejob.or.kr/html/main/index.aspx), 여의도
대한 은퇴자 협회 (일반센터)	영세 비영리법인, 기타 단체 등에 전직 지원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취업지원 - 전직지원(심리상담, 제2인생설계, 건강·여가관리, 교육·훈련 등) - 자체 전직지원 서비스가 어려운 기업에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http://www.karp.kr.org/), 송파구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자료: 각 기관 사이트. 2017.5.19. /

워크넷 중장년(<http://www.work.go.kr/senior/chgjbSptSvc/totGenCtrList.do>), 2017.8.7.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

(1) 기능 및 역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고용서비스 기능에 복지서비스 기능을 더한 기관이다. 이용자가 한번 방문으로 한 곳에서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협업모델로 참여기관 간 연계를 통한 복합애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이 정부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기로 협의하면서 추진되었으며,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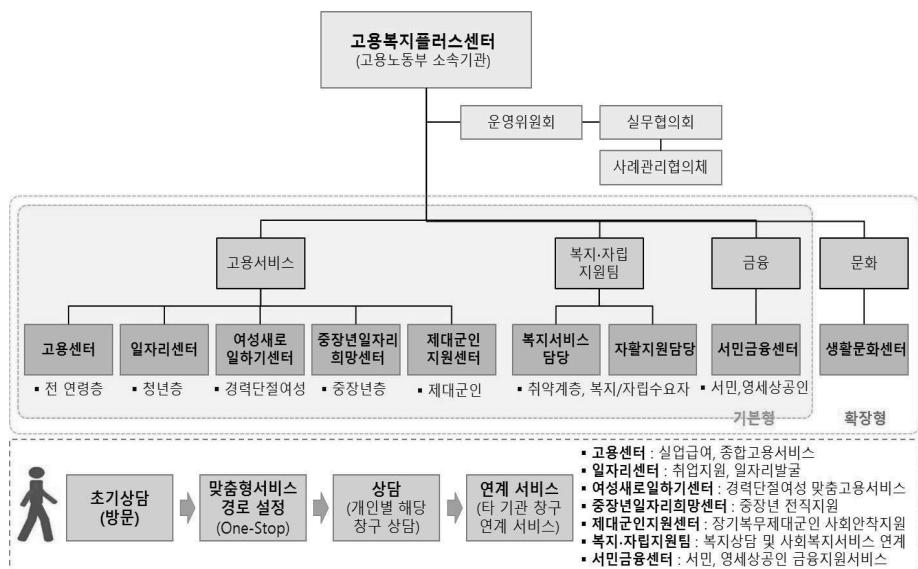
- ①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전 연령층
- ② 지원내용: 초기상담창구 → 서비스경로 설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참여기관 창구 간 연계 서비스 제공(One-Stop) 및 합동 사례관리
 - 고용센터: 실업급여, 취업지원, 고용보험관리, 고용안정사업, 집단직업상담, 직업

능력개발, 외국인채용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 일자리센터(주로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면접기술 코칭, 동행면접),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연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중장년):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기회제공 등 종합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제대군인지원센터(제대군인): 중·장기복무(5년 이상) 제대(예정)군인진로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안착 지원
- 복지·자립지원팀(취약계층, 복지·자립 수요자):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공공·민간 복지지원 연계, 전 연령층 개인별 맞춤 복지혜택 등 상담
- 서민금융센터(서민, 영세상공인): 서민, 영세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제공

③ 추진주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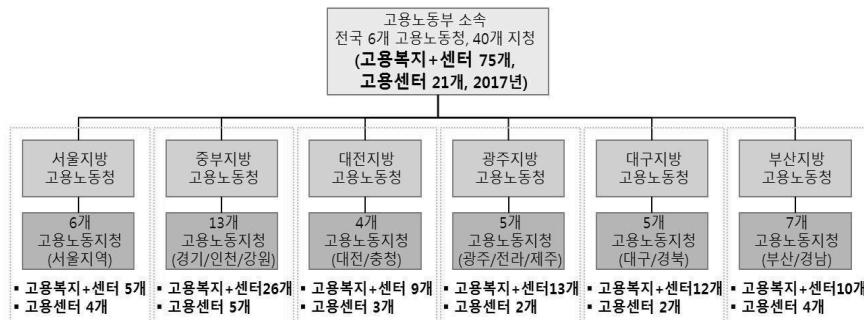
[그림 3-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연계체계 및 지원서비스



(2) 전국 운영 기관(2017년도 75개)

‘고용복지+센터’ 와 ‘고용센터’ 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2017년 8월 현재, 전국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금융서비스) 7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만 지원하는 고용센터는 전국에 21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3-14] 2017년도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수(전국)



(3) 서울지역 운영 기관(2017년도 5개)

서울에는 5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4개의 고용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고용복지+센터는 초기 상담 후 해당기관 창구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고용센터는 고용서비스(취업지원, 고용보험관리, 실업급여 등)를 제공한다.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내에는 ‘서울강서 중장년상담 창구 (노사발전재단 운영)’ 가 운영되고 있다.

[표 3-88]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고용센터 현황(서울지역)

센터명	관할지역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강서구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강남구
서울고용복지+센터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서울서초고용센터	서초구
서울서부고용센터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서울북부고용센터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서울남부고용센터	양천구, 영등포구

자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plus.go.kr/>), 2017.5.22.

3) 고령자(장년)인재은행

(1) 기능 및 역할

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고령자인재은행은 구직을 원하는 만 50세 이상의 구직등록자에게 직업지도, 취업알선, 재취업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한다.

- ①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② 지원내용: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무교육을 포함하여 50시간 내외)
 - 장년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등
- ③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고령자인재은행

(2) 전국 지정 기관(2017년도 46개)

‘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정으로 전국에 46개가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발전센터, YWCA 등이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림 3-15] 2017년도 고용노동부 지정 ‘고령자인재은행’ 수(전국)



(3) 서울지역 지정 기관(2017년도 9개)

서울에는 강동·북부·중계·동작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중부·서부·북부·남부 여성 발전센터,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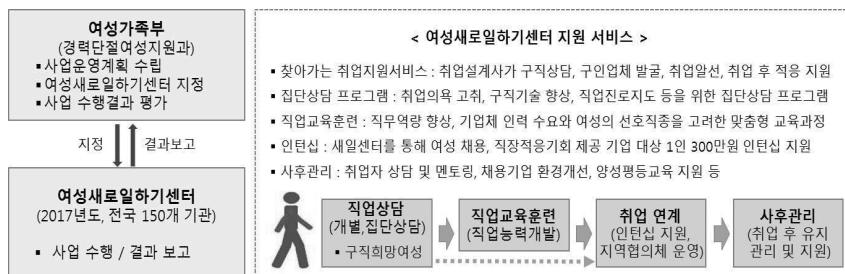
(1) 기능 및 역할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에서 지정·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및 40대 이상 중장년 여성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양성평등교육, 환경개선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2008.12.6.)되면서 기존의 여성 관련 시설 등을 새일센터로 지정

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 ①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 및 40대 이상 중장년 여성 중 취업희망자
- ② 지원내용: 직업상담(구직역량진단-취업가능성진단, 직업선후도검사, 직업역량진단, 창업적성검사, 창업역량진단),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지원
- ③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정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그림 3-16]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속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서비스



(2) 전국 지정 기관(' 17년도 15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지정으로 전국에 150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력개발형(과학기술, MICE, IT, ICT융합 등)새일센터, 농어촌형새일센터, 산단형새일센터 등 특화형도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3-17]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속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전국)



(3) 서울지역 지정 기관(2017년도 28개)

서울에는 경력개발형 2개(서울과학기술새일센터, 간호새일센터)와 일반새일센터 26개 등 총 28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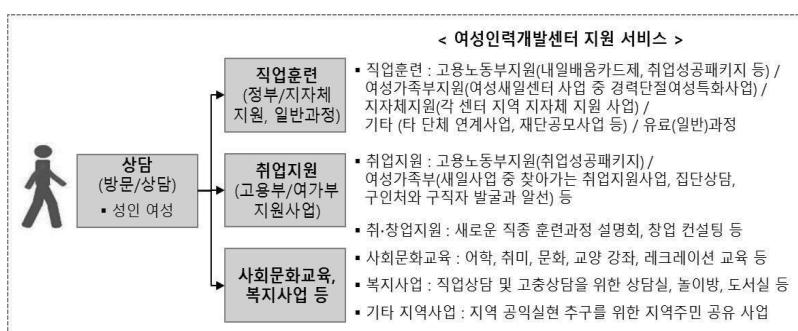
5) 여성인력개발센터

(1) 기능 및 역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성인여성의 경제활동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초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심화된 일반전문직업훈련으로 가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며, 구인구직 알선 및 인턴 지원사업 등 취업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1977년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서울YMCA 근로여성회관 개관 이후 전국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집이 개관되었으며, 2000년 이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개관되기 시작했다.

- ① 지원대상: 성인여성(전업주부, 중·고령층여성, 여성가장, 차상위계층 등)
- ② 지원내용: 직업훈련(직업능력개발, 직무능력향상), 직업상담, 취업알선, 취·창업지원, 사회문화교육, 복지사업, 지역주민 공유사업 등
- ③ 추진주체: 민간단체(21개 사업운영주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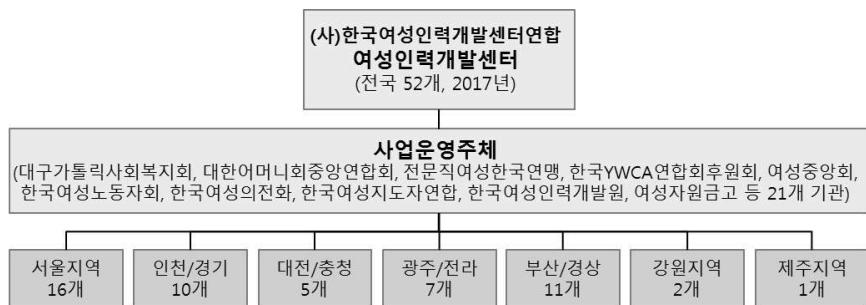
[그림 3-18]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서비스



(2) 전국 운영 기관(2017년도 52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간 운영법인(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여성중앙회, 여성노동자협의회 등 21개 기관)이 전국 52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그림 3-19] 2017년도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여성인력개발센터’ 수(전국)



(3) 서울지역 운영 기관(2017년도 16개)

서울에는 강북, 강서, 관악,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서대문, 송파, 용산, 은평, 영등포, 종로, 중랑, 서초, 성동 등 16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6) 시니어클럽

(1) 기능 및 역할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에 근거한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시니어클럽은 60세 이상 시니어 대상으로 사회적·정서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취업활동,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경력유지 활동 등에 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2003년 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

클럽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며 시작되었다.

고령사회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및 활성화와 각 회원기관 권익보호 및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상호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교육 및 훈련·정책개발·조사연구사업 등의 제반사업을 함으로써 일하는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 ① 지원대상: 60세 이상
- ② 지원내용: 지역노인일자리 사업(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행 등),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지원,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 공익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 ③ 추진주체: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국 15개 지회(138개 시니어클럽)

(2) 전국 운영 기관(2017년도 138개)

시·군·구 및 시·도로부터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보건복지부 노인 지원과에 보고)받은 ‘시니어클럽’은 전국에 138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3-20] 2017년도 ‘시니어클럽’ 수(전국)



(3) 서울지역 운영 기관(2017년도 8개)

서울에는 강남, 관악, 도봉, 송파, 은평, 종로, 마포, 강동 등 8개의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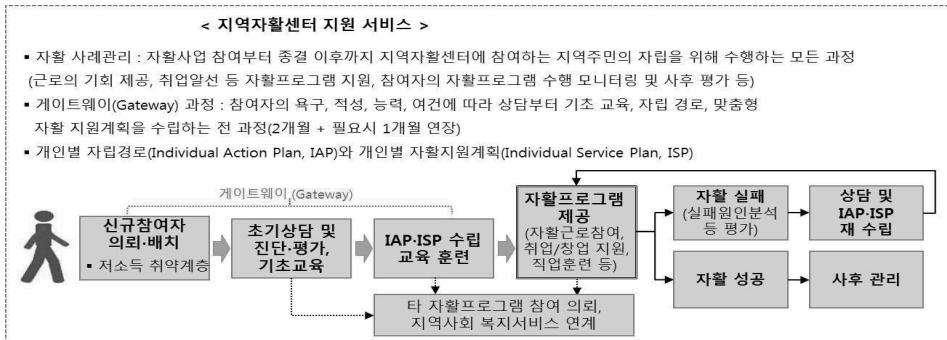
7) 지역자활센터

(1) 기능 및 역할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자활과 자립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궁극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지역·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 등에 목적이 있다. 1996년 자활지원센터 시범 5개소 실시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 ① 지원대상: 실직 상태 또는 극히 불안정한 생계 수단을 가진 취약계층
- ② 지원내용: 자활 근로사업, 자활기업 지원, 자활 촉진, 자활 사례관리
 - 자활 근로사업: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 최대 36개월(다른 사업유형 전환시 최대 60개월)
 -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창업·운영
 - 자활촉진(자산형성):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 ③ 추진주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 16개 지부(248개 지역자활센터)

[그림 3-21] 지역자활센터 지원 서비스



(2) 전국 운영 기관(2016년도 248개)

2016년 8월 기준, 전국에 248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3-22] 2016년도 ‘지역자활센터’ 수(전국)



8)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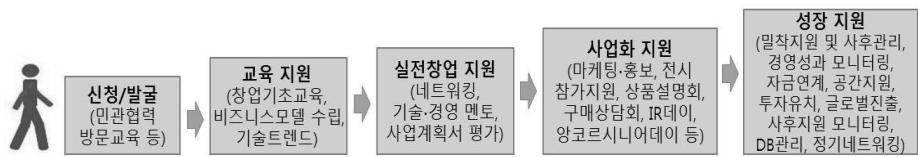
(1) 기능 및 역할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과 창업진흥원은 중·장년(만 40세 이상)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1년 시니어 창업스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창업스쿨을 수료하거나 시니어비즈플라자를 통해 창업한 시니어의 체계적 지원

을 위해 2012년 ‘시니어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 ①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② 지원내용: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창업준비 공간, 경영지원
 - 창업교육: 제조업·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의 실전창업 교육
 - 창업지원: 창업준비 공간, 경영지원(상담 자문, 교육), 마케팅 지원
 - 예비퇴직자 맞춤교육: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창업 교육 및 멘토 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
- ③ 추진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창업진흥원

[그림 3-23]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단계별 지원서비스



(2) 전국 운영 기관(2016년도 23개)

2016년 12월 기준, 전국에 23개의 시니어기술창업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주관기관은 다수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참여기관은 산학협력단 및 테크노파크가 다수 참여하고 있다. 시니어 기술창업스쿨은 2016년 전국에 총 15개가 운영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센터와 스쿨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그림 3-24] 2016년도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수(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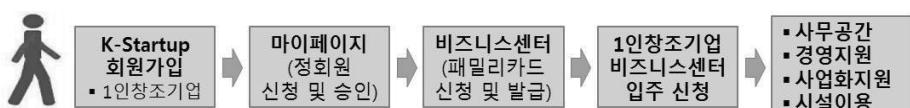
9)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센터

(1) 기능 및 역할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법률·세무·마케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1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11.10.5.)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공간을 퇴직전문인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니어비즈니스플라자’로 활용하는 센터도 운영했다.

- ①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 ② 지원내용: 사무공간, 경영지원, 사업화지원, 시설이용
 - 사무공간: 입주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관련 전문 상담 및 교육 지원
 - 사업화지원: 1인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 ③ 추진주체: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그림 3-2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신청 절차



(2) 전국 운영 기관(2017년도 63개)

전국에 63개의 공공 및 민간이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 지역은 입주 공간 및 경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민간센터가 다수이며, 기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공공센터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그림 3-26] 2017년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수(전국)



10) 소상공인지원센터

(1) 기능 및 역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교육,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컨설팅, 마케팅지원, 소상공인자금, 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두고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①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20세 이상)
 - ② 지원내용: 교육, 불공정거래피해상담,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협동조합 활성화, 마케팅지원, 소상공인자금, 정보, 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소공인 지원, 특성화시장육성, 전통시장 안전관리, 온누리 상품권 등

- 교육: 신사업 사업화 교육,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창살이창업교육, 상인·점포대학, 맞춤형교육 등

③ 추진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사업 안내, 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에서 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edu.sbiz.or.kr)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2) 전국 운영 기관(2017년도 57개)

전국 6개 지역 본부(서울강원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광주호남지역본부, 경기인천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본부) 아래 57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3-27] 2017년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전국)



2. 노후준비·여가·교육 지원 기관

50+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노후준비·여가·교육 지원기관으로 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노후행복설계센터(금융위원회), 귀농귀촌종합센터, 귀어귀촌종합센터, 50플러스캠퍼스·센터, 한국폴리텍대학, 도서관·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60세 이상) 등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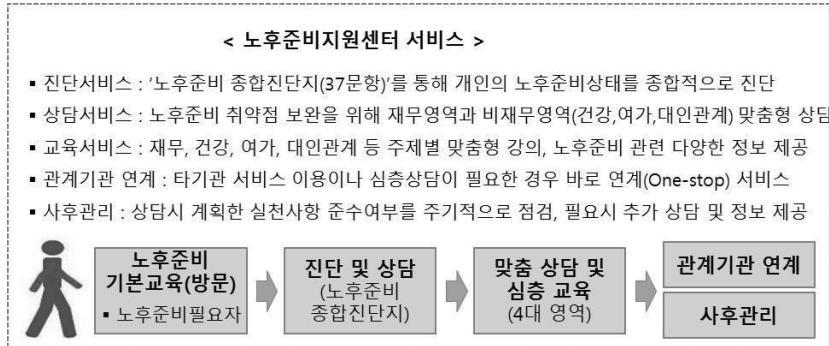
1) 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1) 기능 및 역할

‘노후준비지원법(2015.12.23.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지사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4대 영역(재무·일자리,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① 지원대상: 노후준비가 필요한 전 연령층
- ② 지원내용: 온라인자가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 온라인 자가진단: 노후설계 사이트 ‘내연금(csa.nps.or.kr)’
 - 방문상담: 전국 109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재무설계: 내연금알아보기, 종합재무설계, 노후준비자금설계 등
 - 노후준비 정보제공: 재무, 건강, 일, 주거, 대인관계, 여가 등
- ③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노후준비지원센터)

[그림 3-28]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원 서비스



(2) 전국 운영 기관(2017년도 109개)

국민연금공단이 지사에 설치한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전국에 10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당 전문 상담인력 1~2인 정도가 상주하고 있으며, 지역본부에는 심층상담을 위한 재무 설계 전문 컨설턴트가 있다.

[그림 3-29] 2017년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수(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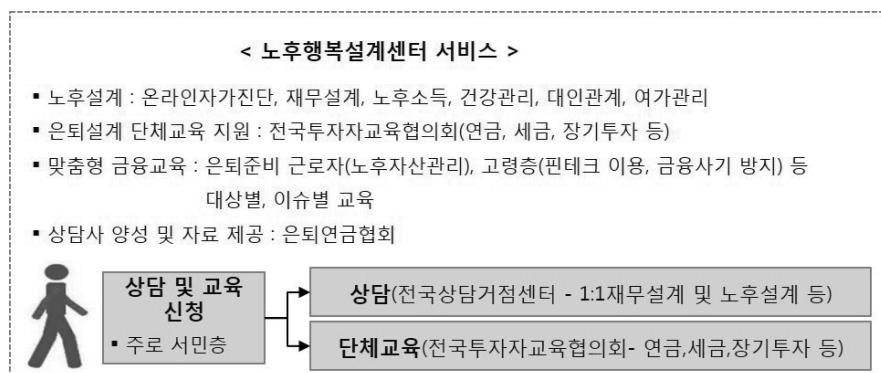
2) 노후행복설계센터(금융위원회)

(1) 기능 및 역할

‘노후행복설계센터’는 2015년 10월 국민의 체계적인 재무관리 등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²⁷⁾ 주관, 관계기관 협동으로 설립되었다. 주로 금융권의 PB서비스와 금융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취약계층, 서민층(중소기업 근로자, 시장 상인회, 기타 단체회원 등)에 대한 1:1 재무설계 상담 및 미래설계 교육 등을 제공한다.

- ① 지원대상: 노후준비가 필요한 전 연령층(주로 서민층), 단체교육은 중소기업, 민간협회·단체, 소상공인모임(시장조합 등) 30인 이상
- ② 지원내용: 온라인자가진단,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 온라인자가진단: 노후행복설계센터 사이트(www.100-plan.or.kr)
- ③ 추진주체: 금융위원회 주관, 참여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 미래에셋생명,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은퇴연금협회)

[그림 3-30] 노후행복설계센터 지원 서비스



27) 금융위원회는 고령자의 건강 및 생활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선을 추진하고,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16년4월)를 통해 고령층 노후소득 증진 및 주거안정, 가계부채 감축 등의 효과를 보기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전국 운영 기관(2017년도 약 50개)

‘노후행복설계센터’의 지역 상담센터는 전국에 약 5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방문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관(예: 아파트 노후 상품 활용 → 주택금융공사 · 부채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방문해서 상담하면 효과적이다.

[그림 3-31] 2017년도 금융위원회 주관 ‘노후행복설계센터’ 수(전국)



- 금융감독원 본사,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요센터, 주택금융공사 일부 지사, KEB하나은행 희망금융플라자 지점, 미래에셋생명 지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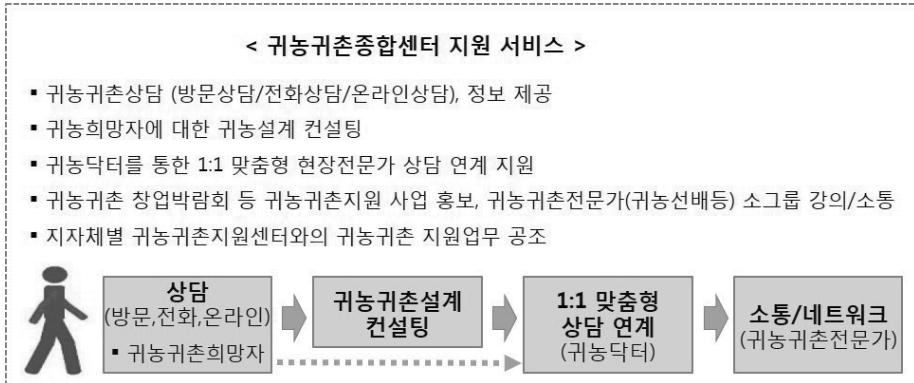
3) 귀농귀촌종합센터

(1) 기능 및 역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① 지원대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 ② 지원내용: 귀농귀촌 정보 제공, 종합상담(방문·전화·온라인), 귀농설계, 컨설팅, 1:1 맞춤형 귀농닥터 연계, 현장사례중심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그림 3-32]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원 서비스



(2) 전국 운영 기관(2017년도 54개)

서울 서초구 aT 센터 4층에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통해서 각 지자체 귀농귀촌홍보관을 살펴볼 수 있다. 전국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는 54개소로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귀농귀촌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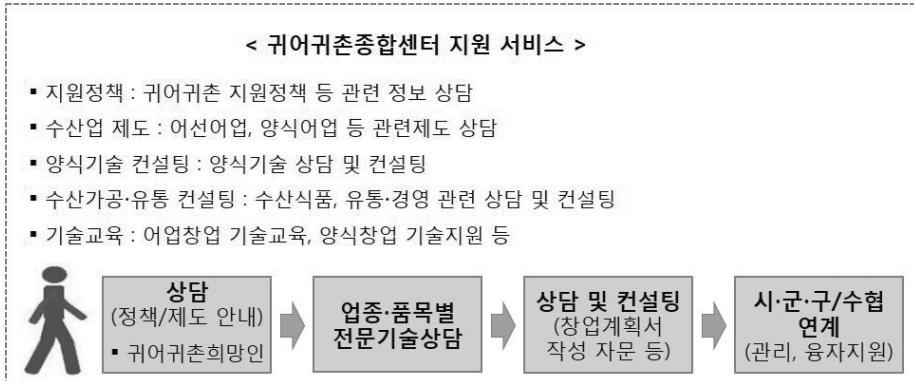
4) 귀어귀촌종합센터

(1) 기능 및 역할

해양수산부는 2014년 10월 국립수산과학원에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귀어귀촌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지원하고 있다.

- ① 지원대상: 귀어귀촌 희망인
- ② 지원내용: 상담(지원정책, 수산업제도 등), 교육, 컨설팅, 어업창업 기술교육, 양식창업 기술지원, 사업 및 금융상담

[그림 3-33] 귀어귀촌종합센터 지원 서비스



(2) 전국 운영 기관(2017년도 11개)

서울 금천구에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www.sealife.go.kr)를 통해서 ‘귀어준비 자가진단’ 및 귀어귀촌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전국 지역 귀어귀촌지원센터는 11개소로 지역 수산관련 기관 등에서 귀어귀촌지원 사업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5) 한국폴리텍대학 희망플러스센터

(1) 기능 및 역할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2006년 4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생애 전주기 평생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지역특화 캠퍼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위과정, 비학위직업훈련과정, 실업자과정, 재직자과정, 경력단절여성 및 베이비부머 과정 등을 운영한다.

- ① 지원대상: 취업희망 중장년(만 45세~62세) 남성, 경력단절여성 포함 직업 기술·기능 훈련 희망자

- ② 지원내용: 생애 전주기 직업능력개발, 신중년 맞춤형 훈련 실시
- 경력단절여성 및 베이비부머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베이비부머(2015년 1,868명), 경력단절여성(2015년 1,339명) 기술교육
- ③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폴리텍대학(부서: 희망플러스센터)

[표 3-89] 한국폴리텍대학 50+세대 훈련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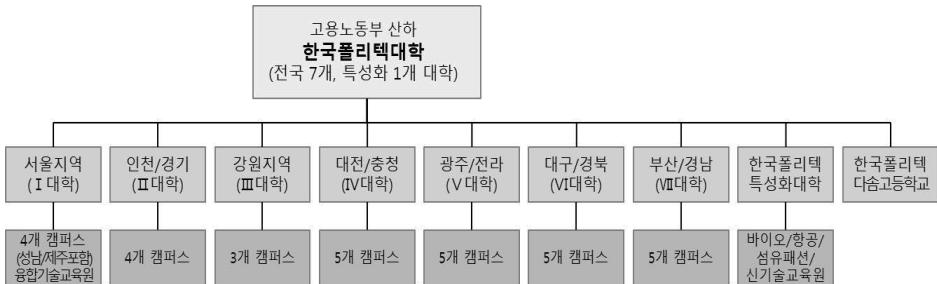
구분	교육 과정	주요 교육 내용	비고
취업 애로 계층 훈련	베이비부머 남성 (만45세~62세) 대상 2~4개월 훈련 (240~48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비운전, 지게차운전 및 정비 - 공동주택설비, 공동주택전기 및 통신설무, 전기설비시공관리, 보일러설비시공관리, 전기설비설무 - 특수용접, 고밀도 티타늄 용접 - 건축인테리어시공, 조경시공 - 맞춤형의류설계(의류제작), 의류제품생산 실무, CNC선반, 전기시스템제어, 항공기 기체 제작 및 부품가공과정, 드론조종자 	월 최대 25만원 훈련수당 지급·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신 중년 과정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등 신중년 친화특화 과정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및 학과 선정 ('18년 4개 캠퍼스, 7개학과 시범운영 후 매년 학과 및 훈련인원 확대 추진 예정) - 지자체 협업형 신중년 훈련과정 신설 예정 ('18년 폴리텍-지자체 공동 신중년 인력 수요조사 및 컨소시엄형 훈련 실시) - 창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2017.8.21)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협업 (한국폴리텍대학-전국 각지 인프라 및 4차산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 창업진흥원-온오프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POOL 제공) 	준비중

자료: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경력단절여성 및 베이비부머과정 입학 안내 사이트 (<http://www.kopo.ac.kr/content.do?menu=8420>), 2017.10.10.

(2) 전국 운영 기관(2017년도 7개 대학, 1개 특성화대학, 34개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7개 대학, 1개 특성화대학, 34개 캠퍼스와 취업 센터, 남원연수원(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융합기술교육원 등 부속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34] 2017년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폴리텍대학’ 수(전국)



6) 서울시 50+재단·캠퍼스·센터

(1) 기능 및 역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2015.4.2.)’ 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10.8.)’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는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다. 서울시50+재단·캠퍼스·센터는 장년층(50+세대)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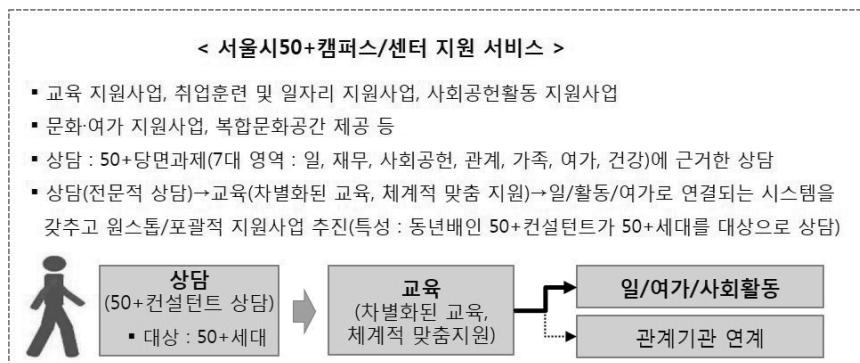
- ① 지원대상: 50+세대(만 50세~64세)
- ② 지원내용: 장년층(50+세대) 대상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 서울시50+재단: 50+캠퍼스 운영,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발굴, 연계 등
 - 50+캠퍼스: 상담(50+세대인 50+컨설턴트가 상담 진행), 일자리, 생애설계교

육(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사회공헌, 문화여가체육, 커뮤니티 등 포함된 종합캠퍼스(복합문화공간) 운영, 권역별 지역 특화 프로그램 추진(2020년까지 6개소 설치 예정)

- 50+센터: 각 자치구별 위치, 일선 대면상담 및 정보 제공, 교육 등

③ 추진주체: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그림 3-35] 서울시50+캠퍼스·센터 지원 서비스



(2) 서울지역 운영 기관(2017년도 50+캠퍼스 3개, 50+센터 4개)

‘서울시 50+재단·캠퍼스·센터’는 2017년 현재 3개의 50+캠퍼스와 4개의 50+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6개의 50+캠퍼스와 19개의 50+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50+캠퍼스는 서울시50+재단이 운영하며, 50+센터는 각 자치구별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36] 2017년도 ‘서울시 50+재단·캠퍼스·센터’ 수(서울 지역)



7) 서울시 도서관·평생학습관

(1) 기능 및 역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은 독서문화 활성화와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평생학습관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제21조²⁸⁾에 근거하여 설립, 도서관 인정)과 시립도서관(도서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 평생학습관 지정)은 설립 근거법이 다르지만 도서관서비스 제공,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① 지원대상: 전 국민
- ② 지원내용: 도서관서비스 제공,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 도서관 서비스: 자료대출, 열람, 상호대차, 참고봉사, 전자정보서비스
 - 독서문화 프로그램: 고전·인문 아카데미, 독서토론·독서치료 프로그램
 -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및 소외계층 프로그램, 평생학습동아리 등
 -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평생학습 기반 조성(21개 네트워크 형성, 종합사회복지관, 구민회관, 문화원, 스포츠센터 등 310여개 협력기관과 업무협약)
 - 지정평생학습관 운영: 지역 특색에 맞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등(공공도서관 17개, 평생학습관 4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자체운영 외부기관 26개 - 총 47개 운영)

28) 평생교육법 제21조 1항: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운영 기관(2017년도 21개)

서울시 자치구별로 4개의 평생학습관(마포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과 17개의 도서관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http://everlearning.sen.go.kr>)에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등 학교 교육 이후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8)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 기능 및 역할

전국 지역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전국 자원봉사 활동의 허브역할을 하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센터 중앙회)는 행정자치부 위탁으로 2010년 6월 출범하였다. 자원봉사 정책개발 및 연구, 중앙단위 자원봉사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협력, 지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교육훈련, 지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 아카이브 운영, 자원봉사 국제교류 및 협력, 1365 자원봉사포털(1365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지원대상: 전 국민
- ② 지원내용: ; ‘1365 자원봉사’ 포털 내 신중년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 도입 예정(2019년 하반기)
 - 베이비부머 드림봉사단 운영(’ 13년 3월, 4개 분야 총 80명 활동)
 - 지역특성별 맞춤형 재능 나눔 자원봉사 운영(2013~2015)
 - 베이비부머 안심봉사단 운영(’ 14년, 3개 분야, 10개 센터 총 250명)
 - 베이비부머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V매니저’ 위촉운영(2015년 424명)
 - 베이비부머 ‘자원봉사축제한마당’ 공통협력 프로그램(2015년)

- ③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위탁 운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추진 중

(2) 전국 운영 기관(' 17년도 245개)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245개(' 17년 직영 132개(53.9%), 위탁운영 50개(20.4%), 법인 63개(25.7%))가 운영되고 있으며, ‘1365 자원봉사’ 포털 (www.1365.go.kr)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1,024,321명이다.

[그림 3-37] 2017년도 ‘자원봉사센터’ 수(전국)²⁹



9) 종합사회복지관

(1) 기능 및 역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① 지원대상: 전 국민
- ② 지원내용: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 가족기능강화: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치료

29) 자원봉사센터 지역별 수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수(245개)와 3개의 오차가 있음

- 지역사회보호: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정서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 생활지원,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등
- 교육문화: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성인 기능교육, 노인 여가문화 사업, 문화 복지 사업 등
- 자활지원: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구성 예: 프로그램실(배움터, 지혜터), 악기교실(소리터), 사랑방(어르신식당), 복지팀 사무실, 조리실, 이미용실(자원봉사자실), 놀이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③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2) 전국 운영 기관(2017년도 464개)

1989년 전국 39개소로 시작되어 2017년 현재 전국에 46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규모별로는 가형(건평 2,000㎡이상) 210개, 나형(건평 1,000~2,000㎡미만) 212개, 다형(건평 1,000㎡미만) 42개로 중대형 규모의 복지관이 대다수이다. 법인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이 338개, 재단법인 54개, 지방자치단체 직영 27개, 학교법인 25개, 사단법인 15개, 시설관리공단 4개, 의료법인 1개 등이다.

[그림 3-38] 201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수(전국)³⁰⁾



3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현황(<http://kaswc.or.kr/centerlist>), 2017.8.23.

10)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

(1) 기능 및 역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별로 지역 설정에 따라 최소 1개소 이상의 설치하며, 여가·건강·일자리·자원봉사·사회참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① 지원대상: 60세 이상 (노인복지법 36조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60세 이상 (배우자는 60세 미만도 이용 가능, 경로당-65세 이상))
- ② 지원내용: 평생교육 지원사업, 취미여가 지원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노인상담사업,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노인주거 개선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가족기능 지원사업,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 평생교육 지원사업: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 교육, 인문학 교육, 예비노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등
 - 기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자원연계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 수행
- ③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 설치 후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 체결(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1조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 가능

(2) 전국 운영 기관(2017년도 350개)

2017년 현재 전국에 350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00㎡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며,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은 1실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림 3-39] 2017년도 ‘노인복지관’ 수(전국)³¹⁾



제5절 종합

2010년 이후 베이비붐세대 대량 퇴직의 사회적 현상이 부각되면서 베이비붐 세대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한 범 정부차원의 정책 대응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1차 계획에서 지연되었던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과제가 추진되었고, 고용노동부의 제2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12~2016), 장년고용종합대책(2014) 등에서 생애 경력설계, 전직 및 취업지원, 장년친화적 일터환경 조성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4050뉴스타트통합지원사업(2013)을 통해 인생재설계 평생 학습 중심대학 지원과 중장년 학습형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청은 사회적 기업육성기본계획(2013~2017)에서 베이비붐세대 사회적기업 참여 지원, 행정자치부는 제2차 자원봉사진흥국가계획(2013~2017)에서 베이비부머 재능나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대 전반기에는 장년층 일자리 관련 지원 정책 및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여가 및 건강, 다양한 사회 활동 부분의 지원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시기에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50+세대를 ‘장년층’이라는 하나의 정책 대상 연령층(청년층, 노년층처럼)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기 시작했다는데 의의

31) 보건복지부, ‘2017 노인복지시설 현황’, 2017.6.22.(2016년12월31일 보건복지부 총괄표 기준)

가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명칭이 고령자, 장년, 시니어, 베이비부머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됨에 따라 정책대상자 본인이 지원 대상 연령층에 포함되는지 혼동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2013년)하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년 4월)하였으며, 지원대상 연령층을 50세 이상 65세 미만 즉, 50+세대(50~64세)로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교육 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으로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이후는 50+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제1차 노후준비지원기본계획(2016~2020), 장년고용서비스강화방안(2016), 중장년기술창업활성화계획(2017) 등이 정부부처 합동으로 각 소관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50+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진흥시행계획(2017), 소상공인지원기본계획(2017~2019),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등 50+세대의 주요 이슈인 일자리(취업 및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여가교육·사회공헌활동 부문의 지원사업도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6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생이모작지원사업을 도입·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정부의 신중년재충전센터설치 발표(2017.6.) 및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 발표(2017.8.) 등으로 50+정책·사업의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50+정책·사업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각 지자체의 인생이모작지원사업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50+정책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0+정책·사업 추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서울시50+재단·캠퍼스·센터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각 지자체, 민간 기업 및 단체, 50+지원 유관기관 등이 서로 연계·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해야 유사·중복사업을

걸려냄과 동시에 상호 교류를 통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50+세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50+지원 사업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 사업을 받고자 할 때 여기저기를 전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정책대상자들이 여러 기관에 문의 또는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합화 및 한 곳에 방문하여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일자리(고용), 교육(훈련), 복지(노후설계) 등을 한 곳에서 통합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전국 100개까지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109개)도 초기 상담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고령친화도시 가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50+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서울시고령친화도시1기실행계획(2013~2015),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14),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2014), 2030서울시고령사회마스터플랜(2015), 제3기 서울시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등 중장기 계획에 50+ 세대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2016년 50플러스센터로 명칭 변경)는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50+당사자 주도형 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50+정책·사업 추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 서울시50+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권역별 50플러스캠퍼스 및 자치구별 50플러스센터를 확대·설치해 나가고 있다.

50+재단·캠퍼스·센터의 주요사업은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상담서비스 등

50+세대의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복합 지원 사업 등이다. 복합문화공간(커뮤니티 플랫폼)을 제공하여 50+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제 2, 제 3의 활동으로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50+세대 네트워크 확대 및 새로운 문화 창조와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에 선정(2017.9.28.)된 서울시 50+정책의 성공 요인은 50+당사자주도형 사업, 50+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제공, 50+당면과제 상담(50+세대인 50+컨설턴트 상담)→교육(차별화된 교육, 맞춤 지원)→일·활동·여가로 연결되는 체계적 지원시스템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울시 50+정책이 성공적으로 인식되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50+캠퍼스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추세이나 예산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도 다수 존재한다. 새정부 역시 서울시 50+캠퍼스센터를 모델로 신중년재충전센터를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50+정책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50+유관기관들 간의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을 위한 관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50+유관기관 실무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등 50+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40] 국내 50+정책·사업 종합

중앙정부	공통 사항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 지원 정책 확대(2010년 이후) 일자리 정책 방향 –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 확대 중장년 직접일자리사업 예산 비중 낮음 (6.0%) 폴리텍 대학을 중심으로 중장년 특화과정 확대 예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 중장년상담창구 입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설계 지원 확대(40세 이상) 워크넷 –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완료 예정(2020년)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 40세 이상(전직), 50세 이상(사회공헌), 60세 이상(문화여가)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 일자리창출 가점 평가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발표 	<p>장년층 연령 표현 혼재</p> <p>정책(복지)서비스 범위 확대</p> <p>원스톱 서비스화</p> <p>새정부, 신중년/지방분권 발표</p> <p>지역맞춤형 정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전국 50+정책 및 지원사업 선도 각 지자체 인생이모작 조례 제정 및 센터 설립 추세 (조례-서울, 대전, 충남, 부산, 경기, 전북, 광주, 제주 등) 센터-서울, 대전, 부천, 충남, 부산, 대구수성구, 광주광산구) 전국적으로 유사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수행 대다수 지자체 - 50+세대 지원 사업 전담 부서 부재 50+세대의 정신건강 및 고독사 예방 관심 확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 은퇴 장년층 고용 활성화 여가/교육 관련 평생교육기관 전국 4,153개 각 지자구 주민자치센터 여가/교육 지원(전국 3,503개)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등 ‘다모아평생교육정보보령’ 온라인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설계 및 전직지원프로그램 – 일부 대기업 운영 ⇒ 전체 대기업 의무화, 중소기업 찾아가는 서비스(‘18년) 금융기관 은퇴설계프로그램 활성화 - 재무 + 비재무 (하나, 국민, 신한, 기업, 우리은행, 농협, 삼성증권 등) 전직지원서비스 전문기업 – 민간/공공 부문 대행 대기업 업종 특성 반영 창업 지원 - 45세 이상 (SK텔레콤·ICT창업지원, CJ푸드빌·외식창업지원, 유한킴벌리-시니어 제품/서비스 소기업 창업지원 등) 조기 퇴직 현상 반영 - 40대 이상 지원 프로그램 다수 민간단체 시니어 지원 사업 – 2012년 전후 활성화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사회공헌/교육/여가/커뮤니티 지원 등) 	<p>전 연령 대상 유사사업 수행 기관(센터) 다수 (일자리/여가 등)</p> <p>50+전담 지원기관 소수</p> <p>일자리창출 어려움</p> <p>사회적경제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년층 전담 지원 기관 소수 (서울시50+재단/캠퍼스/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전국 32개, 만 40세 이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중장년센터 입점) : 전국 75개 고령자(장년)인재은행 : 전국 46개, 만 50세 이상 시니어클럽 : 전국 138개, 60세 이상 시니어기술창업센터 : 전국 23개, 만 40세 이상 등 전 연령 대상 유사사업 수행 공공센터 다수 분포(전국적) 취업지원센터 전국 762개/서울 106개 창업지원센터 전국 143개/서울 26개 노후준비지원센터 전국 217개/서울 28개 여가·교육·사회공헌 지원센터 전국 1503개/서울 272개
기업 및 민간단체	공통 사항	50+유관기관

국내 50+정책·사업 종합 시사점

- 정부 및 민간의 생애설계서비스 확대 ⇒ 인생설계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 방안 마련
 - (1회성 교육이 아닌 실제 생애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연계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등)
- 정책(복지) 서비스 범위 확대 ⇒ 50+세대(50~64세) 중점 지원, 세대통합 및 40대, 65세 이상 연계 지원 방안 마련
- 일자리창출 어려움, 새정부 일자리 로드맵에 일자리 창출시 가점평가 확대 ⇒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추진 필요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교육 및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검토, 민간협력 추진 및 타 창업지원 기관과 연계방안 마련
- 새 정부, 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 및 지방분권화(지방정부) 추진 예정 ⇒ 지방정부 50+지원 정책 선도기관으로서 역할 정립 필요
 - * 민관학연(정부, 타지자체, 기업 및 민간단체,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의 연계 체계 구축 및 50+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여가/문화/교육 지원기관 전국 수천여개, 취업 및 창업 지원기관(센터) 전국 천여개, 신중년재충전센터 전국 200여개 설치예정
 - ⇒ 50+유관기관의 연계방안 마련,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강화
- 50+전담 종합지원기관은 50+캠퍼스/센터가 유일 (복합문화공간 및 커뮤니티 제공, 50+세대 당사자 주도)
- ⇒ 50+지원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50+당사자 주도 사업 확대

4

선진 주요 국가의 50+정책 및 사업

- 201 제1절 각국 정부의 50+지원 정책 및 사업
 - 218 제2절 각국 민간기업 및 단체의 50+지원 사업 및 활동
 - 235 제3절 영국의 50+관련 기관 벤치마킹
 - 251 제4절 일본의 50+관련 유사기관 벤치마킹
 - 270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

제4장

선진 주요 국가의 50+정책 및 사업

제1절 각국 정부의 50+지원 정책 및 사업

1. 일자리 정책 및 프로그램

각국 정부의 50+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년을 최대한 늦추어 취업상태를 길게 유지함과 동시에 연금 지급을 늦추는 정책이고, 두 번째는 이미 실업상태인 사람들에게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세 번째는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중장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정책이다.

정년을 늦추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동시에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과 재취업을 위한 상담 및 연계와 같은 직접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고용연장 및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년폐지 또는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은 [표 4-1]과 같다.

[표 4-1] 각국의 정년 연장 추세

구 분	내 용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7년 고용차별금지법에서 65세 정년 명시 - 1978년 강제정년법에서 정년 70세로 명시 - 1986년 정년제도 폐지 - 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 at will)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정년을 2012부터 2029까지 단계적으로 67세까지 연장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부터 법정정년퇴직제도 폐지, 기본정년연령 폐지 - 법적 연금개시연령을 2018년 65세로 상향 - 연금법, 2020 66세, 2026-2028 67세로 수령 연령 늦춤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2012년) - 65세까지 안정된 고용 확보하도록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의무화(2013년) - 31명 이상 15만개 중 고령자고용확보조치 완료 기업 99.5%,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비율은 74.1%

자료: 조선주 외(2013: 114, 117)에서 재구성

50+ 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는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 즉, 은퇴한 50+ 세대가 재직했던 분야에 재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애전환과 같은 단계를 거쳐 그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재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므로 전일제 근무로 주당 40시간을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소득 수준은 높지 않다. 따라서 소득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 사회 활동을 유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가 많다.

국가에 따라 중장년과 노인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업을 구분하는 나라도 있고 고령자 대상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은 복지 분야에서 중복될 수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가능한 중장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출생자 약 7,600만명)

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은퇴 후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의 50+ 지원정책에는 장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령자 정책이 그 대상으로 장년층의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년층의 욕구까지 충족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AoA(Administration on Ageing) 중심의 복지지원, ETA(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중심의 고용 및 훈련지원 정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WIA)에 근거한 고용촉진프로그램(Workforce Investment Program: One-Stop Career Center, American Job Center)과 시니어 지역사회 고용서비스 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SCSEP)이 대표적이다. SCSEP는 상담과 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Workforce Investment Program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American Job Center를 소개한다.

(1) Workforce Investment Program (고용촉진 프로그램)

Workforce Investment Program은 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인력투자법: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장치)에 의해 실시되는 고용촉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초기에는 One-Stop Career Centers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2년 American Job Center로 이름을 바꾸었다. 수요자 중심과 지역 중심이라는 원칙이 보다 강화된 고용촉진프로그램인 One-Stop Career Center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지원, 즉 교육 및 훈련기회 소개, 커리어 상담, 일자리 검색 등을 제공하며 구직자는 거주 지역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표 4-2] WIP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 분	내 용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근로자, 사회적 소외계층 등 특정계층의 고용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염격한 기준과 자격제한을 두었던 기존의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 직업훈련 협력법)를 대체한 WIA(인력투자법)에 근거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강조 - 전반적인 고용촉진에 중점을 둠 -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에 대한 고려를 강조 - 지역의 필요성 충족을 위하여 통합된 시스템 및 원스톱 서비스 개발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 민간재단, 비영리기관 등이 위탁 운영 -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고용훈련청)이 관리

자료: 서울특별시. (2015). “새로운 인생비전을 창조합니다. – 50+국내·외 사례연구”. 52

(2) American Job Center (미국 일자리센터)

WIA(인력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One-Stop Career Center의 명칭이 지역마다 다르게 쓰이고 연방, 주, 지역사회의 고용서비스 훈련프로그램 관련정보가 다른 이름으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이들을 2012년에 American Job Center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시켰고, 노동부의 고용훈련청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에서 American Job Center Network를 설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련 기관 간의 파트너쉽을 향상시키고 단 한 번의 클릭과 한 번의 방문으로 구직자와 고용주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merican Job Center를 통하여 구직자는 구인과정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 방법에서부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고 거주 지역의 American Job Center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를 검색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구직자의 정보와 고용주의 정보가 각각 투명하게 관리되고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수급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였다. 특히, 미국 이민사회의 특성 상 히스패닉 계통의 주민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모든 정보는 스페인어로도 제공되고 있다.

[표 4-3] American Job Center 운영방식 및 세부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예산지원	<p>연방정부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실직자, 전과자, 원주민, 이민자 등을 위한 고용훈련 프로그램에 예산 배정
운영방식	<p>별도의 웹사이트 개설로 모든 서비스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는 American Job Center Network에 속한 Career One Stop이라는 웹사이트와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 https://www.careeronestop.org/
세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aster Recovery: 미국 전역의 홍수 및 기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개인 및 사업체를 위한 회복지원, 실업보험, 복구 사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 GetMyFuture: 16세에서 24세의 처음 직업을 갖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제공.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조언과 이후 진학에 관한 정보도 포함 - Credentials Center: 자격증 취득 후 직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제공. 자신에게 맞는 수업 또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my Skills my Future: 새로운 직종을 탐색하고 해당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음. 자신의 이전 직종과 비슷한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직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Competency Model Clearinghouse: 산업체의 특정 기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교육기관에 전달, 특정 산업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직종 및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Worker ReEmployment: 고용, 훈련, 금전적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 Veterans: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 제공, 퇴역 후 받을 수 있는 고용, 훈련, 금전적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자료: 서울특별시. (2015). “새로운 인생비전을 창조합니다. – 50+국내·외 사례연구”. 53.

American Job Center. careeronestop. (<https://www.careeronestop.org/>). 2017.11.12

2) 독일 - Perspective 50+

독일은 2002년에 고용촉진을 위한 Job-AQTV법을 제정하고 2003년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인 하르츠(Hartz)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안은 노동시장 유연화 및 구직자 취업노력 촉진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독일의 중장년 인력에 대한 고용촉진방안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연방고용청(Bundes Arbeitsagentur für Arbeit)은 실업 방지를 위해 노조와

기업체의 협조를 통한 기업체 내의 고용알선 추진체를 구성하고, 근로 상담 지도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전직·해고 대상자가 구직이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에서 운영되는 고용업체들이 고용알선활동을 통해 기업체들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고용희망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
- 구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과 기업체 내의 견습훈련 강화로 장기적인 노동시장 적응력과 생산성을 높임

Perspective 50+는 독일 연방노동사회부가 2005년부터 시작한 정부주도의 고용촉진프로그램으로 지역의 50세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연방노동사회부와 연방차원의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문회사가 공동으로 참가해 전문적 상담을 실시하는 등 연령대에 맞는 개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산학연의 삼자 협력이 Perspective 50+의 중요한 특징이다.

[표 4-4] Perspective 50+ 운영현황

구 분	내 용
운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시작하여 2015년까지 3차 프로그램 진행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과 지역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시스템화 - 기업, 연합회, 회의소, 지역기관 간 정책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지역적 파트너십 구축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차원의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전략이사회가 실행전략 개발 - 고용거버넌스가 지역별 계획수립 및 실행. 이 고용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노조, 정당, 교회, 직능단체, 사회단체로 구성 - 이론적 근거를 지원하는 Duisburg-Essen 대학교 연구소 참가 -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연방정책에 반영
6개의 통합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선발 방법 - 상담과 훈련 - 재정 마련 - 위탁근로자 일자리 제공 - 창업지원 상담 - 건강경영 모형 - 이외에 기업지원에 이르는 부분까지 제시
정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생애사적 특성 고려한 고용창출 모델 제시 - 학습과 고용을 연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모델 - 노동시장의 요구를 파악, 장년층이 보유한 지식, 기술, 경험을 재구성 - 재고용 및 창업에 이르는 과정을 지역적 특성에 맞춰 선택적 추진 지원

자료: 서울특별시. (2015). “새로운 인생비전을 창조합니다. – 50+국내·외 사례연구”. 46.

3) 영국

영국은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기조 하에 적극적 고령화(Active Ageing)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적극적 고령화란 노동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평생훈련과 지식습득의 기회를 가지며,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령에 제한 받지 않고 오랜 기간 노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장년층 직접적인 고용지원정책은 전 국민 대상의 고용지원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로 영국 내각의 부처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노동연금부의 주요 업무는 고용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Job centre Plus관리, 연금제도 운영, 장애인관련 지원, 아동관련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간접적인 지원정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직접지원정책: 취업을 알선하고 훈련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용과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 영역으로 New Deal 50+, Work Programme, 50+Works 등이 있다.
- 간접지원정책: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환경들을 관리 조성하는 영역으로 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기업의 인식변화, 장년층의 건강과 교육, 복지기반의 통합적 지원 분야까지 포함되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Age Positive 가 있다.

(1) New Deal 50+

New Deal 50+는 직접적인 고용지원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정책은 ‘복지에서 근로로(Welfare to Work)’라는 구호 아래 영국의 노동당정부가 도입했던 대표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기본목표는 당시 실업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복지수급 상태에서 벗어나 취업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청년실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이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New Deal 50+으로 장년층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New Deal 50+는 구직자수당(Job Seeker's Allowance), 소득지원수당 (Income Support),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로 구성되며, 능력상실 급여(Incapacity Benefits)를 6개월 이상 받고 있는 5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받게 되는 혜택과 서비스 전달체계는 [표 4-5]와 같다.

[표 4-5] New Deal 50+ 참여자 혜택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 분	내 용
참여자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상담사 배정 - 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다양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을 위한 개인별 실행계획(action plans)을 세워줌 - 이력서와 취업지원서 등의 작성에 도움 -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주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이들에게 Employment Credit 제공 (full time 취업 주당 £60, part time 주당 £40 지급) - 2003년 이후 Working Tax Credit 제도로 대체(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수당 (Training grant) 지원 -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데 사용 - 전체 수당 £1,500 가운데 £1,200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기술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활용, 나머지 £300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위해 사용가능
서비스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 - 노동연금부와 연계 - 고용 지원 직접 서비스를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기관 -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실업자에게 지원을 제공

자료: 서울특별시 (2016). 해외통신원 영국 원고 (2~3).

(2) Age Positive

Age Positive는 간접적인 지원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2001년 시작된 장년층 고용의 이점을 홍보하는 정부주도 캠페인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평등규칙(The Employment Equality Regulations)을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앞장서서 장년층 고용에 관한 문화적 변화를 주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고령 노동자의 채용과 근로, 그리고 은퇴에 있어 유연한 접근법이 주는 이점을 홍보함으로써 고용주와 직원들 모두의 인식과 실천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많은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고용이 제공하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정부의 시행지침에 부합하는 사례들(Age Positive Champion)을 선정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개인과 기업, 학술기관, 그리고 다양한 사회단체 등이 포함되었다. 이 사례에 선정된 이들은 고용연금부와의 파트너십 관계 안에서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Age Positive는 초기에는 고용주와 직접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정부운영 기업정보 제공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 내용은 정년폐지 상황에서 고용관리, 교육, 훈련, 근로조건, 안전과 건강 등이 주를 이룬다.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Age Positive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6] Age Positive의 내용

구 분	내 용
주 관	노동연금부(DWP: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발 행	2013. 04. 15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및 고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 - 통계정보
세부 내용	* 고용주를 위한 Toolkit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노동자의 유지, 재교육 및 모집 - 법률적 요구사항 및 유연근로제도 - 기타 관심분야 <p>* 고령 근로자에 관한 기타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근로자 고용: 채용, 성과, 승계관리, 기술 유지 및 이전, 젊은 세대 근로자 채용과 퇴직에 관한 고용주의 질문에 대한 조언과 다양한 분야와 규모의 고용주가 실험하고 적용한 우수사례 솔루션을 제공 - 고용주 사례연구: 30개가 넘는 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 규모의 고용주가 어떻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령화된 인력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실제사례 제공 - 고령 근로자를 위한 도움과 지원: 50세 이후까지 일하기를 원하거나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 특히, 재취업이나 고용연장을 원하는 고령자, 고령차 채용으로 혜택을 받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 영국 정부(DWP-노동연금부). Age Positive.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age-positive>). 2017.11.12

4) 일본

일본 정부는 단카이 세대라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따른 사회적 파급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연장 정책과 퇴직인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정년폐지’ 나 ‘정년연장’ , ‘계속고용’ 중 하나를 선택해 장년층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 불균형에 대비하여 연금제도를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참여 강화정책으로 ‘세대를 관통하는 일과 생활의 조화’ 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생애현역사회(Age-free Society)’ 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직업생활 설계와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연계한 시니어워크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고용확보 조치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차원의 프로그램에 더해서 자원봉사 등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1) 실버인재센터

실버인재센터는 고연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단체를 육성하는 자체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실버인재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고 법적으로 인정한 고령층 일자리기관이다. 실버인재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현역에서 은퇴한 후에도 경험과 능력을 살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실버인재센터는 기초지자체인 시정촌 단위에 설치되고, 공익사단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퇴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단기적, 임시적 취업 제공, 자원봉사를 비롯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에 기여한다. 주요 사업은 시니어 워크 프로그램사업(SP사업)과 기업체안방식사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표 4-7] 실버인재센터의 주요 사업

구 분	내 용
시니어 워크 프로그램사업 (SP사업)	- 시니어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의욕과 능력에 따른 노동을 통해 복지의 수혜자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용과 취업의 기회를 지원
기업체안방식사업	- 지역사회의 교육, 양육, 간병, 환경 분야의 수요에 대응하여 센터와 지방단체가 공동으로 기획, 제안한 사업을 후생노동성이 채택하고 실버인재센터가 운영

자료: 서울특별시. (2015). “새로운 인생비전을 창조합니다. – 50+국내·외 사례연구”. 55

(2) 공익재단법인 도쿄일자리재단

공익재단법인 도쿄일자리재단은 도쿄도민의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도쿄일자리재단의 시작은 1970년대부터 도쿄도내에서 설립된 ‘고령자사업단’(현재 실버인재센터에 해당)이고, 이후 도쿄 내 각 지역의 고령자를 상대로 한 고용지도 및 지원사업을 실시해온 것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도쿄일자리센터는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카운슬링 세미나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 즉, 자신의 적성과 응모서류(이력서·직무 경력서)의 작성 등 취업활동의 자세한 흐름을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카운슬러 개별상담을 통해 필요한 세미나와 그룹 미팅 등을 소개하여 취업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4-8] 도쿄일자리재단의 사업 및 대상

대상	사업
고령자, 장애인 여성, 청년	- 취업상담 - 능력개발 세미나 - 개별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주	- 인재확보 및 육성 지원 - 고용환경 정비 지원

자료: 서울특별시 (2016). 해외통신원 일본 원고(5).

2.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각국의 50+ 세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자리 지원정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개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담이 실시되고, 이후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직업 훈련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기관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은 일자리 정책 및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일자리 정책 및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연계되어 있고 경계가 모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으나 이 조사의 목적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분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50+를 위한 상담은 재취업이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분야로 제한되고 있지는 않고, 건강, 생활, 가족, 심리, 재무 등 가정생활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의 분야까지 다양하다. 특히, 건강 유지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는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주제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은퇴한 50+ 세대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그 외의 교육 프로그램은 50+에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은 재취업이나 일자리를 얻기 위한 직업적 트레이닝만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나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1) 미국 -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시니어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프로그램인 Job Center에서는 커리어 개발을 위한 상담, 교육 훈련기회 소개 등 고용관련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ob Center를 관리하는 고용훈련청은 주정부, 민간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등에 시니어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SCSEP)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SCSEP는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의거한 고용훈련프로그램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이 어려운 55세 이상의 저소득층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재취업으로 연결하면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조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부로부

터 지원을 받으며 직업훈련뿐 아니라 여가활동, 건강보조, 정기 신체검사, 개인상담 및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4-9] SCSEP(시니어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 분	내 용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Council on Aging(NCOA)에서 전국 27개 지부 관리. - NCOA는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 기관으로 노인과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을 대변해왔음 - SCSEP 위탁운영 비영리기관은 10% 이상의 매칭기금을 마련해야만 하며 일자리센터, 민간센터, 교육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프로그램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ividual Employment Plan” (개인고용계획)수립, 오리엔테이션, 지역사회 서비스 배정, 지역사회서비스 배정에 적합한 훈련제공, 개인고용계획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훈련제공, 신체검사, 지역 “American Job Centers”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SEP에서 배운 기술로 보육교사, 고객서비스 담당자, 보조교사, 컴퓨터 기술자, 건물유지 보수식, 의료종사자 등으로 일하게 된다.
프로그램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평균 20시간을 일하며 연방, 주, 지역의 기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을 지급받음 - 수혜자는 지정된 비영리 및 공공기관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자료: 고용노동부. (2013). “OECD국가의 장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사례연구”. 182~184

2) 독일 - 시민대학

일자리 지원과 직결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독일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은 50+ 세대만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전 연령층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시민대학은 재정의 약 60% 정도를 시에서 공적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가장 공적인 성인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각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대학을 설립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독일의 시민대학 중에서도 뛰어난 시민대학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큰 시민대학이다. 뛰어난 시민대학은 어떤 특정 이념이나 학력도 요구하지 않는

순수개방형 교육기관으로 대학이나 연합회, 단체 등 기타 교육기관과의 연계 하에 교육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 150개의 지역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4-10] 뮌헨 시민대학 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조 직	- 경영본부, 위원회, 홍보부, 서비스 본부, 프로그램 편성부 등
인 력	- 약 230명 상근 - 총장, 학장, 사무직원은 공무원 - 강사들의 공식직함은 대학강사
위 치	- 뮌헨 시내 100여곳 (5개 권역에 분산)
강 좌	- 외부 초빙 강사로 운영 - 14,000개 연간 20만 명 참여 - 자연과학, 인문과학, 언어 프로그램, 직업교육, 보상교육, 건강교육
운 영	- 상담 과정 운영
특 징	- 개방성: 저렴한 수업료 - 특정 계층 구별 없는 프로그램 운영 - 접근성: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 - 통합성: 외국인, 이민자,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참여

자료: 서울특별시. (2015). “새로운 인생비전을 창조합니다. – 50+국내·외 사례연구” 61.
<https://www.mvhs.de/>

3) 영국 - Ageing Well

영국도 독일과 유사하게 지역 교육기관(지역대학, 시민대학)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장년층의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민간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장년층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Ageing Well 프로그램이다.

Ageing Well 프로그램은 2010부터 2012년까지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장년층에 필요한 맞춤형 지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정부협회와 중앙부처의 파트너쉽을 통해 진행되며 영국 전역에 100개 지역이 참여했다.

영국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행동전략의 개발 지원, 공공영역 워크숍,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Ageing Well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 이전에 시행되었던 여러 관련 정책과 이니셔티브들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고려하였고, 특히 고용연금부 주도의 Link Age Plus 프로그램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주도의 ‘고령인구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젝트(Partnership for Older People Projects)’ 프로그램의 원칙과 교훈들이 반영되었다.

[표 4-11] Ageing Well 프로그램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운영기간	- 2010년 7월 ~ 2012년 3월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리더십 증진 - 노령화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 촉진 - 노인참여 - 서비스 전달 시범 홍보

자료: 영국 정부(DWP-노동연금부). Research and Analysi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eparing-for-an-ageing-society-evaluating-the-ageing-well-programme-parts-1-and-2-rr807>). 2017.11.12

4) 일본 - 시니어클럽

일본의 50+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고령자 정책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일본의 고령사회정책의 주요 내용은 퇴직 후의 다양한 취업 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직업능력개발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참여 강화정책으로 ‘세대를 관통하는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참여활동(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면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50+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시니어클럽이다. 시니어클럽은 시니어의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고 건강증진과 독립적인 생활의 향유를 목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니어클럽의 주요한 활동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동이며 자원봉사와 여가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령자의 자주적 조직이며 대표적인 노인 조직이다. 시니어클럽의 활동 목적은 “친구 만들기를 통하여 삶의 보람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즐거운 활동을 한다”이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연금·보험 같은 어렵지만 노년기에 필요한 주제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약 올바로 먹는 방법같이 생활밀착형 지식을 나누기도 한다. 또한 홀로 사는 이웃이나 몸이 아픈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우정활동’, 지역 내 위험한 장소를 점검해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예방하는 활동도 한다.

[표 4-12] 시니어클럽 운영

구 분	내 용
설 립	1946년 지역별 설립
현 황	2016년 기준 전국 11만개 클럽 / 670만명 회원
운 영 비	노인복지법 근거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공공보조금 자체 회비
프로그램	스포츠, 건강, 학습, 자원봉사, 상부상조 등

자료: 최일선. (2016). “일본의 시니어 정책 및 활동의 주요 흐름”. 〈평생학습포럼 자료집〉.

제2절 각국 민간기업 및 단체의 50+지원 사업 및 활동

1. 일자리 프로그램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 정책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단체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사회적 기업 지원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생산적 경제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생애전환의 관점에서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직업을 찾고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1) 미국

미국 정부는 직장 내 정년제를 폐지(1986년)하고 연금수혜 연령을 높이는 등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은퇴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연방국가라는 정치시스템의 특성과 개인주의 문화 등 미국사회의 특성,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보유층(80% 에 가까운 높은 자가 주택 보유, 60%에 달하는 직·간접적 주식운용 비율)이라는 요인이 작용하여 미국의 노년정책, 특히 50+ 세대에 대한 정책은 정부와 자체가 아닌 민간 즉, 시민사회 영역이 주도하고 있다. 50+ 세대를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영역의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미국 최대의 비영리조직인 미국은퇴자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와 NPO 조직인 앙코르닷오알지(Encore.org: 이하 앙코르닷으로 부름)를 들 수 있다.

(1) AARP의 Back to work 50+

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미국은퇴자협회)는 미국의 50세 이상 은퇴자들과 예비 은퇴자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으로서, 비영리 조직이고 당파를 초월한 회원제 조직이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로비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AARP는 50세 이상 시니어들의 지역사회 내 자발적이고 활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많은 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AARP는 베이비붐 세대 중산층(middle class)의 경제적 안정에 중점을 두는 활동과 함께 2013년부터 ‘새로 얻은 삶(Life Reimagined)’ 캠페인을 전개하며 제2의 인생 설계와 준비를 통한 삶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고령화가 단순히 돌봄이 대상이 되는 노년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과 사회를 위해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삶을 전개하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AARP 재단은 2012년 50+ 세대가 다시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Back To Work 50+’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2013년에 콜로라도 덴버 지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시험적인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2014년부터는 전미 커뮤니티 칼리지 연합회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 AACC)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Back to Work 50+ 사업은 구직자를 각 지역에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하여 구체적인 직업 기회에 연결시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4-13] AARP의 주요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구 분	내 용
SCSEP	<p>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에서 관리 - 지역 비영리 기관 및 공공기관에 자격을 갖춘 구직자를 매칭 - 교육 기관을 통해 지원 서비스 및 기술 교육 가능
Back to Work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서비스 제공업체와 파트너쉽을 맺고 50+ 구직자와 고용주사이를 연결 - 50+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커뮤니티 컬리지와 인력투자위원회를 지원 - WESI(Women's Economic Stability Initiative): 실업상태이거나 고용이 불 안정한 여성에게 정규직 취업에 필요한 자신감, 기술, 기회를 찾고, 빈곤에서 벗어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모델
Work for yourself at 50+	<p>개인 자영업자의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5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션탐색: 자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탐색 - 포커스 찾기: 관심분야와 경험분야에서 아이디어 찾기 - 계획 세우기: 성공을 위한 고려사항, 전략, 준비단계에 대한 현실적 개요 - 문젯거리 피하기: 대표적인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 - 지원 찾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정보 <p>SBA(Small Business Association), AEO(Association for Enterprise Opportunity)에서 자금관리 및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실시</p>
Experience Corps	<p>50세 이상의 숙련된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돋는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고교 졸업률이 낮다는 점에 주목 - 2,000명의 숙련된 자원봉사자가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활약 - 3가지의 지도 모델로 운영 - 개인지도 / 소그룹 / 읽기-쓰기 지원(자원봉사자가 교실 안에서 교사를 도와 지도)

자료: AARP. AARP Foundation. (<https://www.aarp.org/aarp-foundation/about-us/>).
2017.11.12

(2) Encore.org의 Encore career

‘앙코르 커리어 (Encore Career)’란 성인이 된 후 처음 가진 커리어에 오랜 시간 종사한 후 인생의 후반기에 개인적으로 좀 더 의미 있고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면서 선택하는 새로운 직업을 지칭한다. 이 표현은 50대 장년기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Encore.org’의 설립자 겸 대표인 마크 프리드만 (Marc Freedman)이 자신의 책(Encore: Finding Work That Matters in the Second Half of Life, 2007)에서 베이비부머들의 고령화와 새로운 인생 설계 양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최초로 사용하였고, 이후에 50대 이후의 삶의 단계를 표현하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앙코르 커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앙코르닷(Encore.org)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삶과 노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앙코르닷은 개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사회참여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한 아이디어를 촉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표 4-14] Encore.org 연혁 및 주요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시빅벤처스(Civic Ventures) 설립 - 2012년 Encore.org 이름 변경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tion to Generation: 일종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은퇴한 50+ 세대가 어린 이와 청소년의 독서활동을 도와주는 자원봉사활동 - Encore Fellowship: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전문가를 사회적 목적의 단체와 연결. 6개월-12개월 동안 유급으로 업무를 수행. - Encore Conference: 개인과 사회운동 단체의 리더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과 학습을 통해 더 많은 지역·부문·기관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행동을 도모 - Encore Network: 크거나 작거나 신생이거나 오랜 전통이거나 서로 다른 분야의 단체들과 리더들을 회원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연결하여 아이디어를 활용. 서울 50+재단도 회원 - The Encore Prize: 50+ 세대의 재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성과를 심사하여 \$100,000 상금과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

구 분	내 용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RP Experience Corps: 저소득층 학교 학생들의 읽기·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은퇴자가 교사로 참여 - Catch-a-Fire: 숙련된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를 비영리 기관과 연결 - Jumpstart: 저소득층의 미취학 아동 지원을 위해 대학생이나 지역봉사단을 모집하고 교육시키는 조기교육 단체 ▶ 삶의 전환을 지원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RP Life Remained: 삶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방법 탐색. 일, 건강, 웰빙, 인간관계 등 정보제공 - Coming of Age: 50+세대가 미래를 탐색하는 것을 돋고 지역사회에서 유급·무급의 기회를 통해 교류하고 기여하는 것을 지원. - The Transition Network: 새로운 관계, 자원, 기회를 찾아 성장하거나 공헌하고자 하는 50+ 여성을 위한 포괄적인 커뮤니티를 창출하는 비영리 단체 ▶ 사회부문 직업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선사업 연대기: 자선사업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 리더, 기금 모금인들을 위한 인쇄 및 온라인 뉴스출처 - Opportunity Knock: 비영리 단체를 위한 취업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 Retirement Jobs: 50+ 세대를 위한 취업정보 사이트(자원봉사 포함)

자료: encore.org. (<https://encore.org>). 2017.11.27

(3) SCORE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미국의 민간부문 활동 특이점은 전문직 종사자나 퇴직자를 위한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SCORE이다.

SCORE는 기업가와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중소기업청(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지원과 10,000여명의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비즈니스 멘토링과 무료 워크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 전역에 걸쳐 300여개의 SCORE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SCORE의 숙련된 비즈니스 멘토는 비즈니스 계획, 시작, 관리, 성장의 모든 방면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조언을 제공한다.

SCORE 멘토의 자격은 실제 비즈니스 경험이다. 멘토들은 오늘날 많은 창업

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도전과 결단을 경험한 퇴직 또는 현직 기업가, 기업 임원 및 관리자들이다.

[표 4-15] SCORE 운영 및 조직현황

구 분	내 용
설 립	1964년 미연방 중소기업청(SBA) 산하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의 성공한 은퇴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가 - 창업 및 중소기업에 경영 컨설팅 제공 - 시니어 지식 및 기능전수 사업 - 온라인 경영자문 제공 - 지역 사무실 방문 상담 제공
조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운영비용: 정부지원 - 본부 소속 15인 제외 모든 지부·지사 자원봉사자 자율운영 - 300여개 분야의 10,000 이상의 자원봉사자 활동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문의 신뢰성 확보 - 자문의 접근성 제고 - 자율적 운영체제 구축 - 신속한 온라인 경영자문 제공

자료: 서울특별시. (2015). “새로운 인생비전을 창조합니다. – 50+국내·외 사례연구”. 82.

2) 독일 - Gründer 50+

앞서 소개한 미국은 민간단체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장년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독일은 정부와 지자체의 프로그램이 많고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의 장이 다양하지 않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에서 Gründer 50+ 독특한 사례이다. Gründer 50+는 2012년 랄프 상게(Ralf Sange)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랄프 상게가 사회참여 활동으로 시작한 창업 코칭에 대한 50세대의 호응과 수요가 높은 점에 주목해 회사를 설립하였다. Gründer 50+는 50+ 세대의 창업과정을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Gründer 50+는 사회적 기업으로, 중장년이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와 컨설팅 지원을 하여 독일이 당면한 인구 증가

와 이에 동반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운영하는 재단이다. 구체적으로는 50+세대의 임파워먼트를 촉진하여 관계 당사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로 구성된 그룹이 그들의 기업 활동 등 경력에 기반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Gründer 50+의 컨설턴트들은 노인이 자신의 기업가적 잠재력을 자각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노년층의 사회 공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돋는다. Gründer 50+의 컨설팅 분야는 창업 컨설팅, 아이디어 개발, 코칭, 부족한 재정 자원의 건설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징적인 것은 모든 활동이 노년층의 필요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Gründer 50+의 활동은 노년층의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년 세대의 사회 공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었고 주정부의 재정지출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Gründer 50+가 운영하는 워크숍 참가자의 약 절반은 실직자이거나 복지수급자이다.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총 비용의 약 70-80%는 공적 지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세미나 참석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Gründer 50+의 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21년까지 32 개 지역에 75 개 프랜차이즈 파트너 계약
- 2021년까지 워크숍 참석자 19,800 명
- 2021년까지 5,940 개의 소기업 설립

[표 4-16] Gründer 50+ 운영현황

구 분	내 용
비 전	50+ 세대의 경험을 창업과 소셜 비즈니스로 실현되는 사회 만들기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기획 - 실제 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 코칭 가이드
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학습 과정 - 코스 1: 아이디어 개발 - 코스 2: 비즈니스 모델 탐색 - 코스 3: 비즈니스 모델 구현 ◆ 단계별 코칭 과정 <p>기초정보공유→오리엔테이션 워크숍→집중 워크숍→창업코칭→심화세미나</p>
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 Frankfurt (본부) - 동부: Berlin, Brandenburg, Leipzig, Sachsen - 서부: Köln, Bonn, Rhein-Sieg-Kreis, Münstereifel Leverkusen, Düsseldorf, Bergisches Land, Umland - 남부: Heilbronn, Stuttgart, Ludwigsburg, Pforzheim, München - 북부: Kiel, Ostholstein

자료: 서울특별시. (2015). “새로운 인생비전을 창조합니다. – 50+국내·외 사례연구”. 59.
(<http://www.gruender50plus.de/>). 2017.11.1.

3) 영국 - Eastside Primetimers와 Reach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실행이 강조되는 영국사회의 전통에 따라 중장년 50+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발하다. 영국정부는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돋기 위해 민간부문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단체로는 Eastside Prime timers(이스트사이드 프라임 타이머스), Reach(리치), TAEN(태인)이 있다. 이 중 TAEN은 3절 ‘영국의 50+관련 유사기관 벤치마킹’의 ‘3-2. 전통적인 일자리 지원기관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1) Eastside Primetimers

Eastside Primetimers는 기존의 Primetimers가 Eastside Consulting과 합병하면서 변경된 이름이다. 지분의 50%는 재단이 소유하고 50%는 핵심 매니저가 소유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기존의 Primetimers는 50세 이후부터 60대까지를 주요 타깃으로 2002년에 브렌트 토마스(Brent Thomas)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주요 활동은 사회변화를 만들어내는 역량강화를 모토로 퇴직한 전문 인력을 그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과 같은 공익단체 연결하는 일이다. 또한 제3섹터와 관련한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력 매칭을 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기관의 문제를 이해하고 조직진단 및 관리, 경영혁신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인적자원, 재정, 마케팅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4-17] Eastside Primetimers 지원 서비스 현황

구 분	내 용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여 명의 전문 인력 POOL - 공공기업, 사기업, 사회부문(social sector)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 기술,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
고 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부문: 자선 단체, 사회적 기업, 주택제공업체, 영세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umbrella body)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Investment: 투자준비 (금융지원 서비스) 투자준비 지원금, 투자 제안서, 사업기획, 재무 모델링, 결과 모델링, 거래구조, 홍보문 쓰기 및 준비, 실사지원 등 - Contract Readiness: 공공 서비스 입찰 및 계약 준비 공공부문 위원회의 언어와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입찰계획과 의사결정 프로세스, 서비스 모델 설계, 파트너 탐색, 텍스트 초안 작성 및 편집과 검토, 입찰 코칭 팀 - Social Impact: 영향력 평가 변화를 위한 이론 개발, 측정의 우선순위, 사회적 영향력 측정 및 보고 체계 설계 및 실행, 금융 정보 및 재무기술 활용, 변화 관리를 위한 효과적 data 사용법 등 - 인수합병: 합병과 파트너쉽 파트너 검색, Facilitation(조력), 합병촉진 가이드, 통합 - 거버넌스와 채용 - 역량 구축강화 - 조직진단도구(ODT) 제공, 비즈니스 코치 및 멘토 네트워크

자료: Eastside Primetimers. (<https://ep-uk.org>). 2017.11.17

(2) Reach

자원봉사 단체인 Reach는 일반 자원자원봉사자와 달리 전문성을 보유한 퇴직자와 현직종사자 참여하고 있다. Reach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단체이며 운영비는 기업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Reach는 영국 전역에 걸친 10,000여 개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고 약 6,000여명의 숙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Reach의 주요 활동으로는 금융, 관리, IT, 전략, 홍보 및 마케팅 분야 퇴직자를 그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공익단체와 연결하거나 연계 및 매칭해주고 있다. 특히, Trustee라고 불리는 전문성을 지닌 이사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앞서 설명한 Eastside Primestimers 와 차별화 된다. Reach의 운영 성과로는 영국 전역에서 올바른 경영마인드와 전문적·기술적·사업적 지식을 갖춘 숙련된 자원봉사자를 찾을 수 있게 되어 비영리단체의 자원이 확대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은 개인적 기술과 요구에 맞는 도전 적이고 가치 있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표 4-18] REACH 의 2016 사업현황과 대표 서비스

구 분	내 용
2016 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선단체 지원: 600여개 - 자원봉사자에 의한 기술이전 효과: 13M 파운드(약 188억) - 숙련된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3,074 (2014년의 2배) - 자원봉사자 배치: 934건 (Trustee 배치 450건)
Trustee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ching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된 자원봉사자 정보 검색을 통한 trustee 채용 기회제공 - 협력사 웹사이트에 필요한 수행 역할 게시됨 - 연간 매출 1M 파운드 미만 무료 제공 - 연간 매출 1M 파운드 이상인 경우 150 파운드+VAT 등록비 * Matching Plus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된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외부 취업 광고활용 - 최대 1천 파운드의 광고효과 - 400 파운드 + VAT 등록비 * Premium Service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식 채용, 헤드헌팅, 임원급 채용- 후보자 심층 심사- 팀 내 전담 계정 관리자과 채용 프로세스 지원- 최대 1천 파운드의 광고효과- 550 파운드 + VAT

자료: REACH. (<https://reachvolunteering.org.uk>). 2017.11.17

4) 일본 - NPO 법인 심포니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피해 복구에 NPO 등 시민단체의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두드러져 NPO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을 법인화하기 위한 특정 비영리활동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에 밀착한 활동을 사업화하는 추진체제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라고도 불리는데 지역 커뮤니티를 기점으로 주민들이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잠자고 있던 노동력, 원자재, 노하우,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역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고, 바로 비즈니스로 성립시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주인공은 프리터(‘free arbeiter’의 줄임말)나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라 불리는 젊은이, 베이비붐 세대인 퇴직 고령자, 아이를 키우는 주부나 장애인 등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 참여 기회도 만들어준다.

지역사회, 학교, 기업, NPO 등은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협동조합, 사회참여활동, 평생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NPO법인 심포니로서 공익사업추진 기구이다.

[표 4-19] NPO 법인 심포니 운영현황 및 주요사업

구 분	내 용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 상근 12명 / 비상근 16명
설립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지진재해 자원봉사'로 출발 - 1996년 'NPO 심포니' 발족 - 1999년 법인자격 취득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사회적 기업가 양성 사업 - 취업 지원 사업 - NPO 지원 사업 (법인 설립, 운영지원 등)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설립, 운영지원: 자원봉사자의 활용, 지역자원의 활용 - 법인설립 요건과 서류작성, 이사회, 총회 운영 지원 및 실시 - 법무, 세무, 회계 등 경영관련 전문 상담원 배치 - 리더쉽 양성, 경영, 운영 등 각종 강좌와 세미나 개최 - 재무관리, 각종 수속신청, 운영기금 모금, 사업보고서 <p>이벤트 지원: 이벤트 기획·제작·운영보고서 작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 전시회, 강연회, 각종 기기 지원 <p>강사, 컨설팅 파견 지원: 워크숍,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p>

자료: 김수원, 한애리, 이소정. (2012). <퇴직전문인력의 사회공헌일자리 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137. (<http://npos.cc/>) 2017.11.17

2.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참여활동(자원봉사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기도 한다. 상담과 교육의 내용은 생애 전환기의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가족, 건강, 재정, 여가 등 웰빙(well-being) 개념에 이르기까지 50+ 중장년의 만족스러운 생활의 영위를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50+ 세대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일자리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운영 기관은 전국

또는 연합으로 활동하지만 대부분 지역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단위로 프로그램이 자체 실행되고 있다

1) 미국 - 앙코르닷(Encore.org)의 Encore U

앞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설명한 바와 같이 앙코르닷(Encore.org)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삶과 노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하며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앙코르닷이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주도하는 대표적이 사업이 Encore Fellowship 이라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Higher Education 프로그램으로 일명 Encore U 라고 불린다.

미국 전역의 40여개의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작된 Encore U는 인생후기에 앙코르 커리어를 위해 학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Encore U는 중장년 학습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넘어 더 넓은 세상에서 변화를 이뤄내는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들이 그들의 재능을 이해, 개발, 활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Encore U는 2년 및 4년제의 공립과 사립교육기관에서 제공된다.

[표 4-20] Encore U 참여대학

구 분	내 용
참여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AZ) / -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Grand Rapids Community College (Grand Rapids, MI)- Harold Washington College (Chicago, IL)-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Howard University Medical College (Washington, D.C.)-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NY)- Portland State University (Portland, OR)- Rio Salado Community College (Tempe, AZ)- Stanford University (Palo Alto, CA)- Tulane University (New Orleans, LA)University of Connecticut (Hartford, CT)-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MO)

자료: Encore.org. About Encore U. (<https://encore.org/encoreu/about/>). 2017.11.1

위 대학들 중 University of Washington(UW)은 캠퍼스 안팎에서 앙코르 기회를 개발하고 UW 교수진과 교직원이 직업을 전환 하도록 장려하였다. 이 대학은 모든 구성 요소에 Encore U 창설을 지원한 최초의 4년제 대학이기도 하다.

Encore U의 유명한 사례는 UW에서 36년간 교수로 인류학 교수로 재직했던 James Green이다. 그는 대학에서 미국의 죽음과 다른 민족의 죽음에 대한 관습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 은퇴를 맞이하여 이전까지 해오던 일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였다. 그는 UW와 연계된 시애틀의 Harborview Medical Center에서 훈련을 받고 병원에서 환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Washington University의 Brwon School of Social Work는 사회사업 분야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킨 독창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마사지 치료사로서 20여 년 동안 의사, 침술사, 카이로 프랙티 의사 및 치료사와 함께 일했던 Swentzell은 팔과 손에 무리가 와 더 이상 마사지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Washington University에서 호스피스 사회사업에 초점을 둔 사회사업 석사학위를 수료하고 센터에서 호스피스 사회 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2) 독일 - 이니셔티브 50+ 연맹(Bundesverband Initiative 50plus e.V.)

이니셔티브 50+ 연맹은 2011년 설립된 독일 50+세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국연합회로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50세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정책적 협의와 제안활동을 하며 고령사회, 50세대와 연관된 각종 포럼을 개최하고 참여한다. 최근 2017년 10월에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책무로서, 발생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인구통계

기금을 신설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니셔티브 50+연맹(Bundesverband Initiative 50Plus eV)은 제품과 서비스를 검토하고 소비자 권장사항을 제시하기도 한다. 소비자 권장사항을 통해 50+세대 고객에게 우수한 제품과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청기와 틀니와 같은 건강관련 정보에서부터 거주, 여행, 직장, 재정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표 4-21] 이니셔티브 50+ 연맹 비전 및 연합회

구 분	내 용
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독일 50세대의 이해 대변 - 사회적 책임 다하기
가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세대의 연대와 사회적 책임 완수 -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 방지 - 세대 통합적 이해 증진
목 표	노년의 상 제시, 50세대의 자존감 강화 및 이해 대변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5명 - 홍보대사 39명 - 파트너사 66개 (기업 및 기관)
연합회	<p>◆ 총 16개주 연합회 구성</p> <p>Baden-Württemberg (바덴-뷔템부르크) Bayern (바이에른) Berlin (베를린) Brandenburg (브란덴부르크) Bremen (브레멘) Hamburg (함부르크) Hessen (헤센) Mecklenburg-Vorpommer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Niedersachsen (니더작센) Nordrhein-Westfal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Rheinland-Pfalz (라인란트-팔츠) Saarland (자아란트) Sachsen (작센) Sachsen-Anhalt (작센-안할트) Schleswig-Holstein (슐레스비히-홀스탈) Thüringen (튀링겐)</p>

자료: 서울특별시. (2015). “새로운 인생비전을 창조합니다. – 50+국내·외 사례연구”. 60. (<http://www.bvi50plus.de/>). 2017.11.1

3) 영국 - Age UK

영국의 민간부문에서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조직은 Age UK와 U3A이다. Age UK가 상담과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U3A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U3A는 3절 ‘영국의 50+관련 유사기관 벤치마킹’의 ‘3-4. 노인교육기관’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Age UK는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여 여러 정책을 실시하는 영국 최대의 비영리 단체이며, 잉글랜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Age Wales, Age Scotland, Age NI (Northern Ireland)와 네트워크를 이루어 연맹의 형식으로 운영되며 전국 및 지역차원에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22] Age UK 운영 및 제공 주요 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0년에 노인복지위원회 탄생 - Aged, Age Concern 으로 이름을 바꾸며 활동 - 2010년 4월 Aged UK로 공식 활동 시작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000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 기부와 자선 - 자선상점: 선물, 가정용품 등을 기부받기도 하고 판매도 함
주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무료 전화 상담 노인과 가족, 요양사 및 전문 간병인들을 위한 조언 - 노인의 자립 생활 지원 가정생활, 운동 수업, IT 교육, 교통편의 제공 등 - 친구 되어주기(befreinding)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대화를 하거나 연극관람 같은 활동을 함께 하거나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걸어 대화를 함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문제와 법적 문제 - 간병 - 건강 및 웰빙 - 일과 학습

자료: Age UK. (<https://www.ageuk.org.uk/>). 2017.11.12

4) 일본 -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은 릿쿄 대학(立教 大學)이 단카이 세대(團塊世代)를 중심으로 한 장년층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2008년 4월에 개교하였다. 문부과학성에서 인가하는 정식 대학은 아니지만 수료자에게는 문부과학성이 정한 학교교육법 105 조의 규정에 의한 ‘이수 증명서’가 교부된다.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은 수강생 자격을 50세 이상으로 제한한 평생학습기관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표적 모델로 일반 평생학습센터와 달리 중장년층의 인생후반 설계에 특화된 체계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양교육, 지역현장 탐방연구, 세미나 등 다방면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4-23]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과정

구 분	내 용
컨 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배우기 - 재도전 하기 - 다른 세대가 함께 공부하기
수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과 1년 - 본과 수료 후 전공자로 진학 가능(1년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징 사회의 교양 과목군 <p>동서고금의 지혜를 배우며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교양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디자인과 비즈니스 과목군 <p>공공성 회복을 위한 NPO/NGO 활동,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실천적 강의. 인생 후반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새로운 삶의 창조</p>
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컨드 스테이지 설계 과목군 - 50세대의 다시 배우기와 재도전을 지원 - 인간관계와 일상 생활의 관점에서 삶의 방식과 모습을 돌아보고 그 동안의 생활 태도나 가치관을 바꿔 진정한 주체적 시민으로 거듭 나는 데 필요한 지식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너버스 강의 ‘학문의 세계’ ▶ 세미나 수료 논문 - 8개 영역 중 한 가지 선택 - 수강생 각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 각자가 연구하고 싶은 테마 설정 -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연구 발표와 토의를 거쳐 - 기말 수료 논문 작성

자료: 릿쿄 세컨드스테이지. curriculum.
(<http://www.rikkyo.ac.jp/academics/lifelong/secondstage/curriculum/>). 2017.11.1

제3절 영국의 50+관련 기관

1. 영국의 50+정책 및 사업 개관

1) 영국 정부의 고령사회 대책의 기본 방향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학적 변화는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생산인구의 감소이다. 생산가능 인구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지칭하는데 이들의 감소는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고용연금부(DWP: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영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도전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은퇴한 연금 수급자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일하고 있는 개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은퇴 이후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도전 앞에서 영국정부는 50세 이상의 고령인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들 인구 층에서 일하는 인구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은퇴 전후에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개인적인 저축예금의 사용에 의존하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에 의해 공적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 연장 및 50+ 세대의 고용 촉진을 위해 2010년에는 평등법(Equality Act)을 제정하면서 기존에 65세로 정해져 있던 법정 퇴직연령(default retirement

age)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10월 1일부로 퇴직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더 이상 고용인들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 구직자가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기업들이 연령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영국 정부의 50+관련 노동시장정책은 지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온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변화하고 있다. 즉, 영국정부는 지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도입과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뉴딜(New Deal) 정책이 있었다. 뉴딜정책은 ‘복지에서 근로로(welfare to work)’라는 구호 아래 영국의 노동당정부가 도입했던 대표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이 정책의 기본목표는 당시 실업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복지수급 상태에서 벗어나 취업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국정부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영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4년에는 50대와 60대 고령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행계획(action plan)으로서 ‘풀리 워킹 라이브스 (Fuller Working Lives)’ 가 도입되었다. 영국정부는 인생의 노년기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에 가져다주는 이점에 주목하였다. 즉, 개인에게는 은퇴 후 더 나은 삶의 질을, 기업에게는 전문기술과 경험의 유지를 통한 성과향상을,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는 노동공급의 증가와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고령인구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에이지 파지티브(Age Positive) 캠페인과 ‘다양한 연령의 고용을 위한 시행지침(Code of Practice on Age Diversity in Employment)’, ‘고용평등(연령) 규칙(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근로에 기반한 성

인학습 (WBLA: Work-based Learning for Adults)' 프로그램, 그리고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에 대한 강조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민간부문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강화해가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정책들로, '익스텐딩 워킹 라이프 섹터 이니셔티브(Extending Working Life Sector Initiative)' 와 '50 플러스 워크스(50 Plus Works)' 등을 꼽을 수 있다.

2) 지방정부, 사기업과 시민단체의 참여

영국의 중앙정부는 점차 증가하는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독려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들의 사회문화적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고려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사기업들과 시민단체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사회의 대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자치정부와 지방정부들은 50+세대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위해 일련의 교육훈련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도입·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의 고령화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고령 인구층의 필요를 다루고자 하였으며,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련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들의 서비스 제공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복잡성은 특정 서비스가 과잉 생산되거나 중복되어 생산 및 전달되는 등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더해,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영국 지방정부의 50+관련 이니셔티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고령 노동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이고, 둘째는 고령세대의 웰빙, 즉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전자

와 관련하여, Experience Works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직장 내 연령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고령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의 이점을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후자와 관련하여, Link Age Plus 파일럿 프로그램은 고령인구를 위한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내에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이후 ‘에이징 웰(Ageing Well)’ 프로그램 시행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민간단체들은 자영업에 대한 창업 지원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또한 동시에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교육 기회의 확대는 취업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습득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노년층간의 교류의 장을 넓히고 사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욱 더 적극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전통적인 일자리 지원기관 사례: TAEN

독립적인 자선단체인 태인(TAEN: The Age and Employment Network)은 고용상의 연령차별 폐지와 장년층의 고용연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5월 이후에는 자선단체인 Shaw Trust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연령 및 고용이슈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컨설팅 프로젝트 기획 운영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장년층 구직자를 위한 직업 훈련 제공 및 경력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haw Trust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2010년에 도입된 50+ Works는 고령 노동자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여타 구직자들과는 다른 종류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들에게 특정한 접근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들의 우수한 실천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장으로서 설계되었다. 50+ Works는 고령의 구직자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들의 재취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와 사례들의 원천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50+ Works에서는 50 세 이상의 구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연령 그룹에 대한 재취업 지원의 성공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준비 과정이나 취업성공의 여러 우수한 사례와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의 전문적인 현장 업무 경험이나 그들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아이디어, 팁, 사례연구, 효과적인 실천에 관한 지침,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TAEN은 50세 이상의 개인들이 취업, 자립, 주도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밝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정보의 원천이다. 또한 나이와 일자리에 대한 전문지식의 중심으로 이 사이트에는 현대의 채용시장에 대한 정보와 고령 구직자가 부딪히는 장애에 관한 정보와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최상의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고령 구직자를 위한 안내서’ (A Guide for Older Job seekers)로 제공되고 있다.

이 안내서의 구성과 그 내용은 TAEN의 웹사이트에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여러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24] 고령구직자를 위한 안내서 항목

구분	내 용
1. Introduction	현재의 사회 양상과 함께 TAEN과 50+Works의 운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2. The Modern Job Market	최근의 채용시장에 대한 동향과 특성을 설명하고 취업을 성공하는 첫 단계로 최근의 변화하고 있는 채용의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3. Methods of Finding a Job in Today's Job Market	오늘날의 채용 시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 하는지를 아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구직 활동에 관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조언한다. 구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취업 지원 단체, 인맥, 직접접근의 방법을 소개하고 실행 과정

구분	내 용
4. Identifying Your Transferable Skills	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5. The Application Process	직장을 그만둔 후 다시 취업을 하고 싶다면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직업능력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자신의 능력이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필요하면 인터넷을 통해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검색하라고 한다. 찾고 있는 직업,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개발해야하는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에 기술을 매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 Self-Employment	이 장에서는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채용 시험 및 구직 활동 등호외 등 모든 신청 절차를 다루고 있다. 이력서 작성 시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굳이 적지 말아야 할 사항까지 꼼꼼하게 설명하고 면접 시 바람직한 태도도 알려준다. 구직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구직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네트워킹에도 도움이 되고 그룹 모임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서로가 자신감을 구축하고 성공할 결심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한다.
7. Training and Qualifications	많은 사람들이 취미와 관심사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소규모라도 창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8. Identifying and Overcoming Barriers	직업을 얻기 위한 기술과 능력이 없을 경우 지원하려는 새로운 직장과 관련 있는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 능력을 보완하라고 충고한다.
9. Age and the Law	50세 이상 구직자들의 설문조사에서 취업 시 부딪히는 자신감 부족, 최근의 변화하는 채용 형태에 부적응, 기술부족, 부양가족 등의 장벽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소개한다.
10. Financial Matters	채용, 교육, 부당 해고, 퇴직 등의 분야에서 연령차별 금지법이 적용됨을 알려주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
11. Appendix Case Study	연금수령, 세금공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수당 등에 관한 혜택과 같은 재정적 정보를 제공한다.
12. Web site Reference	현대 채용 시장에서의 분야별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자료: Shaw Trust. A Guide for older jobseekers. (<https://www.shaw-trust.org.uk/ShawTrustMediaLibraries/ShawTrust/ShawTrust/Documents/Taen%20Resources/50-Works-Older-Jobseekers-Guide-Web-Version.pdf>). 2017.10.18.

3. 일자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사례: NESTA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는 영국의 민간 자선 단체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혁신 재단이다. 영국의 단체이지만 전 세계의 국가 정부, 다국적 기업들과 더불어 지역사회 단체와 지역 활동가와 같은 풀뿌리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도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글로벌하게 활동 역량을 확산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도전에 대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인류의 발전, 번영과 행복을 만들어 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기회와 도전 과제를 포착하여 영향력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유망한 아이디어가 현실 세계에서 발전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다듬어서 사회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주요 활동 분야는 보건, 교육, 정부혁신, 창조적 경제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혁신 정책 등이며 이 중 특히 보건과 정부혁신 분야에서 50+ 고령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프로그램

NESTA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50+ 프로그램 중에는 ‘고령사회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Ageing Well Challenge Prize)’와 ’ 고령화 혁신 프로그램 현황 지도(Living map of Ageing Innovators)’가 있다.

(1) 고령사회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Ageing Well Challenge Prize)

고령사회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고령층의 시간과 자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층의

사회 고립을 줄이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모를 통해 25개의 준결승 진출팀을 개회식에 초정하고 이후 2개월 동안 각 팀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평가 과정을 거쳐 총 5개 결승 진출팀을 선발하고 각 1만 유료(약 1,300만원)의 프로젝트 준비 및 시범 운영 자금이 지원되지만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20개 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하고 있다. 이 대회 과정에서 개발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통해 여려 후원 단체 및 협력 단체의 지지를 얻는 성과도 있다.

최종 우승 사례의 하나인 ‘나나의 카페(NANA’s cafe)’의 경우 지역 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여성 노인층이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이후 몇 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안타깝게도 NANA’s cafe는 현재 건물 임대 문제로 문을 닫았으나 혁신적인 사업의 개념을 영향력을 지니고 실행 가능한 모델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고령화 혁신 프로그램 현황 지도(Living map of Ageing Innovators)

고령화 혁신 프로그램 현황 지도는 NESTA Health Lab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세계적으로 흥미로운 고령화 혁신 프로젝트 사례들을 모아둔 플랫폼이다. 현재 초기 단계지만 고령화 혁신 프로젝트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맵핑하는 작업을 통해 혁신 사례를 표면화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고령화 혁신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현재 100개 이상의 사례들이 업데이트 되어 있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또다시 개발하는 시간 낭비를 줄이고, 기존의 것을 활용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NESTA의 운영자금은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조성되고

있다. NESTA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종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NESTA가 책임지고 있다.

NESTA는 차기 공공서비스 개혁에는 더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하고 국가의 회복력 증대를 위해 국가와 국민 간 결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대중이 주도하는 공공서비스’라는 가치를 걸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영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오래된 문화의 하나이고,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봉사활동, 자선기부, 투표 및 기타 탄원활동, 각종 협의회 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 참여 방식을 통해 이미 시민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지만, NESTA는 이 같은 중장년층의 사회 활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 기금

NESTA는 여타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시간과 역량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돋기 위한 목적의 기금으로 인생2막 기금(Second Half Fund), 자원봉사활동 창출 기금(Give More Get More Fund),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증진 기금(Join In Staay In Fund)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기금은 모두 사회 활동 혁신 기금 센터(Center for Social Action Innovation Fund)와 같은 NESTA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조성된다.

(1) 인생2막 기금(Second Half Fund)

은퇴 후에 주어진 긴 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한 혜택이 있다는 전제아래 인생2막 기금은 인생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장년층의 시간과 역량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돋는 각종 혁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보다는 검증 받은 아이디

어의 개발 및 성장에 주로 지원되고 있다. 인생2막 기금이 지원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4-25] 인생2막 기금 지원 사례

프로그램명	내 용
Dance to Health	노인들이 춤추는 활동을 통해 다리에 힘을 기르게 함 낙상 사고를 줄여 사고 감소 및 비용축면에서 효과적
Buddy Hub (친구 제공 시스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높은 노인층 지원을 위해 개발 노인 1명과 같은 지역의 노인 3명 연결
Fare Share (식량 나눔터)	버려질 위기의 잉여 식량을 각종 자선 단체와 기역 기관에 배분, 식량 지원과 함께 환경에도 이바지
Spice Time Credit (자원봉사활동 시간쿠폰제)	‘Time Credit’이라는 시간통화 개념을 개발한 사회적 기업 획득한 시간을 일종의 쿠폰처럼 사용. 봉사활동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현장으로 동원하는 데 효과
St. Jones Ambulance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목적 지역 주민들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기술과 훈련을 제공
VIY (Volunteer It Yourself)	14-24세 청년층을 지원 지역 내 건물 보수 현장에 투입, 실질적 건축기술 전수 건축관련 사업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멘토활동

자료: NESTA. 서울50+ 국제포럼 간담회 자료집. 2017.9.27.

(2) 자원봉사활동 창출 기금(Give More Get More Fund)

영국에는 중장년층의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주고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NESTA는 집중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잠재적 가능성을 파악하고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인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자신의 시간과 역량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퇴직자 혹은 예비 퇴직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알선하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3)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증진 기금(Join In Stay In Fund)

NESTA는 50세 이상 중장년층 자원봉사 활동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비용 증가 없이, 특정 행사에 참가한 50대 이상 봉사자들이 추후에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NESTA는 고령사회에서 고령 노인의 age-well 과 well-being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Shared Lives Plus 는 그 중 하나이다. Shared Lives Plus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위한 새로운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기치로 결고 1992년부터 시작된 활동으로 영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12,000명의 간병인이 활동하고 있다.

Shared Lives Plus는 장기적인 유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을 사명으로 설정하고, 개인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장려하여 공적인 비용을 사용하는 국민 건강 관리 서비스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요양 시스템의 옵션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공한다.

Shared Lives Plus에는 전국에 걸쳐 수천 명의 간병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의 인정을 받아 서비스 확대 및 사명과 필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자금으로 140만 파운드를 수여 받았다. 향후 NHS를 포함한 지역 및 국가 의료 제공자의 시스템에 Shared Lives Plus 모델을 추가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ared Lives Plus는 가정과 가족생활을 공유하는 혁신적인 형태의 사회 복지 방식으로 공동생활 보호자(Shared Lives Careers)가 가정과 가정 생활을 돌보는 데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성인과 함께 생활한다. Shared Lives 제도는 훈련받고 인정된 공동생활 보호자(Shared Lives Careers)를 개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해준다. Shared Lives Plus가 추구하는 바는 일상적인 가족의 삶이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기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적이고 존중받는 시민이 되기 위한 것이다.

Shared Lives Plus는 공동생활보호자와 회원들을 위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일상적인 쟁점, 우수사례, 규정, 도구, 자원,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회원제 단체이다. 아이디어 가속화(Accelerating Ideas)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개발을 지원하고 노인 및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Shared Lives Plus는 현재 Shared Lives 분야를 영국에서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야심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다른 국가에서도 Shared Lives Plus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Shared Lives Plus 모델의 확장은 지역 사회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영국 전역에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연관될 것이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공동생활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해야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 자선 단체 및 사회적 기업과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Shared Lives Plus의 예산 중 약 70 %를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약 30 %는 외부 독립 기관이 지원하고 있다. 향후 예산이 감소하고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줄어들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원제도는 사회 복지 예산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4. 노인교육기관: U3A

1) U3A의 등장

영국의 역사학자 Peter Laslett(1989)은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수명이 길어진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은퇴 후 역할을 상실한다는 기준의 인생론과 다르게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질병 등으로 연명하는 시기 이전에 성찰과 자기 발견의 제3기 인생(The third age)이 있다는 제3기 인생론(The Third age)을 주장하였다.

제3기 인생대학(University the Third Age: U3A)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요 선진국의 많은 노인들은 점차 수명이 길어지는 동시에 건강과 영양 상태도 좋아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일정한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된다. 자연히 이들은 긴 여가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한다. 또한 이들은 계속해서 지적으로 도전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바람은 연금 등 경제 안정과 여력을 갖게 되면서 가능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노인들은 노년기 교육에 눈을 돌리게 된다. 한편 이들의 이런 교육에 대한 욕구는, 노인들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에 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던 정책 입안자의 의도와 부합되면서 노인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U3A는 1973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968년에 프랑스에서는 대학이 지역 사회에 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의해 1973년 프랑스의 Toulouse 대학은 지역사회 퇴직 노인들을 한 노년학 강의를 개설하였다. 이것이 U3A의 시작이다.

2) U3A의 최근 동향 - 프랑스식 U3A 모델과 영국식 U3A 모델

프랑스의 U3A가 1981년 영국 캠브리지에 상륙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영국의 U3A는 프랑스에서처럼 노인교육을 대학이 주도하기보다는 노인 스스로 교사가 되고 학생도 된다는 자조(self-help) 방식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즉 대학이 주도하던 프랑스의 U3A는 영국으로 건너오면서 노인 학습자들이 주축이 되어 스스로 운영해가는 방식의 노인교육기관으로 바뀐다.

영국의 U3A는 호주나 뉴질랜드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한 U3A는 영국을 거쳐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U3A가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는 프랑스식 모델을 따르고 어느 나라는 영국식 모델을 따르게 된다. 즉 세계로 퍼져나간 U3A는 크게 두 갈래- 대학 주도의 프랑스식 U3A와 자조(self-help) 그룹 중심의 영국식 U3A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친 U3A는 더 이상 프랑스 모델 혹은 영국 모델이라고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는 혼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프랑스의 U3A 중에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조그룹이 나타나게 되었고, 반면 영국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대학이 무너지면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대학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U3A 중에는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운영되는 U3A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대학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아탑 위치에서 벗어나 좀 더 지역 사회 주민과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학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퇴직 후 생존기술, 컴퓨터 기술, 건강과 관련된 기술-등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공개 강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주제, 예를 들면 지역 사회 역사, 고고학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개설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 침체기를 겪으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대학에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에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자연히 프랑스처럼 노인 교육을 대학이 주도하고 있던 나라의 경우 이런 재정 어려움은 바로 노인교육의 위기로 연결되기도 한다. 반면 노인교육을 대학이 아닌 노인이 스스로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 영국 U3A는 이런 경제 침체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영국 모델의 U3A 방식이 노인으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3) 영국의 U3A

영국의 U3A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서 더 이상 전일제 고용에 속하지 않는 노년층 인구들의 학습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국 단위의 학습 조직이다. 대부분의 멤버들이 50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름은 ‘대학’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대학은 아니며 노년층 인구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관심사를 나누기 위한 연결망이다. 따라서 시험이나 과제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규적인 수업과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자신들의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보유한 기술/지식을 나눈다. 따라서 여

기서는 어떠한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U3A의 접근성이다. U3A는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가정, 임대 사무실, 지역 도서관, 교회, 커뮤니티 센터 등을 주로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해당 지역의 그룹이 모아지면 그 그룹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형적인 형태의 U3A 그룹은 250여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작은 그룹은 12명이며 가장 큰 그룹은 2000여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의 U3A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1) U3A는 모든 연령대의 멤버들에게 오픈되어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멤버들은 평생교육의 가치를 증진하고 U3A에 가입한 것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U3A는 멤버들에 의한, 멤버들을 위한 단체이다. 따라서 멤버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과 활동들을 포함한다. 어떠한 학위나 자격을 수여하지 않으며, 고용의 촉진이 가장 큰 동기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 학습자(Learner)와 선생(Teacher)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멤버들은 누구나 학습자가 될 수 있고 선생이 될 수 있다.

(3) U3A 각각의 모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다만 전체를 후원하는 단체인 Third Age Trust의 멤버로서 해당 단체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따라서 각각의 U3A는 멤버들의 등록비를 수입으로 하며 비용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U3A 운동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서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U3A의 운영을 위한 U3A의 주요 수입원은 멤버들의 회원비와 본 네트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Third Age Matters (TAM)에서의 지원금이다. 그리고 컨퍼런스나 섬머 스쿨과 같은 개별적인 행사에서는 좀 더 낮은 수준의 비용을 걷어서 비용으로 충당한다. 전체적인 수익은 재무관련 직원들 채용, 그리고 전

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사무국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또한 지역 U3A의 특정한 활동,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지역 U3A의 활동 지원의 경우, 기존의 U3A의 교육 활동 지원, 새로운 U3A 창설시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U3A는 영국의 전역에 걸쳐 8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U3A에 참가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회원 가입을 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U3A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영국 지도에서 자신의 지역 U3A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메뉴화 되어 있고 지역 U3A를 찾아 클릭하면 새로운 창으로 링크되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실제적 운영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에게 축구로 친숙한 맨체스터의 U3A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6] South Manchester U3A 운영사례

구 분	내 용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협동조합에 중점을 둔 협력적인 학습 조직. - 회원 간의 친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교육적이고 창조적이며 즐거움이 있는 활동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회비	- 1년에 £15(약 2,3000원)
월간회의	- 매월 첫 번째 화요일 / - 정기 회의를 열고 연사를 초청하고 다과를 준비한다.
활동참가 조건	- U3A 회원 가입 필수
활동비	- 최소한의 경비
활동장소	- Group 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활동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개로 400명의 회원이 활동 - 그룹의 활동 리더가 홈페이지에 활동 개요를 소개
Group List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glo Saxon English: 영어구사 방법 연구 - Armchair Players: 독서클럽 - Art Appreciation: 예술감상 - Craft Group: 퀼트, 쥬얼리, 유리 페인팅 등 - Lunch club: 새로운 음식점 탐방 - French Group, Italian Group: 언어학습 활동 - Story Telling: 스토리텔링 기술 개발 - Welsh Language: 웨일즈어 지식향상

자료: U3A. South Manchester U3A.
(<https://u3asites.org.uk/south-manchester/home>). 2017. 10.18

제4절 일본의 50+관련 기관

1. 일본의 50+정책 및 사업 개관

1) 고령사회 대책의 기본 방향

일본의 50+ 정책 및 사업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한다. 이 법에 따라 총리를 의장으로 하며 관계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고령사회대책대강」의 방안을 작성하며, 고령사회대책에 필요한 관계 행정 기관 업무 조정 및 고령사회대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따라 고령사회대책의 중장기에 걸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침인 고령사회대책대강을 작성한다. 1996년 7월에 최초로 작성된 고령사회대책대강은 2001년 12월 28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년 9월7일에 고령사회대책회의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고령사회대책대강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고령사회대책대강에 따르면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기초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본개념을 설정하였다.

- 노인을 바라보는 의식 개혁
- 노후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 노인의 의욕과 능력의 활용
- 지역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지역 사회의 실현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의 조성
- 청년기에서부터 ‘인생 90 년 시대’를 대비하는 세대 순환의 실현

고령사회대책대강에 따라 ‘일억 총 활약 사회’ 을 지향하며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보장’ 등의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계

획의 수립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하기위해 ‘일억 총 활약 국민회의’가 개최되었다.

2016년 6월 2일에는 ‘일본 일억 총 활약 플랜’이 책정되어 가족의 간호를 위해 퇴직하는 것을 없앤다는 의미의 ‘개호(이하에서는 ‘요양’) 이직 제로’를 위한 노력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요양 이직 제로’를 위해 요양 대비 태세 정비뿐만 아니라 요양 업무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요양 인력의 처우 개선, 다양한 인재의 확보·육성,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 부담 경감을 주축으로 25만 명의 요양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요양의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동시에, 건강 수명의 연장과 요양 부담의 경감, 장애인·난치병 환자·암 환자 등 의 활동 지원과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에 매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2016년 9월에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가 개최되어 초과 근무 상한 규제 등 장시간 노동의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등에 의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노인 취업 촉진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에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이 공포되었다. 이 계획의 주제 중 하나인 ‘고령자의 취업 촉진 ‘은 65세 이후의 고용 연장이나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미래에 계속 고용 등을 진행하기 위한 환경 정비와 다양한 기술·경험이 있는 시니어 층이 하나의 기업에 머물지 않고 폭넓게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 등이 포함되었다.

2) 일자리 사업과 NPO, 사회적 기업의 참여

고령자가 자신의 직업능력을 발휘하거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NPO는 고령자의 취업과 사회참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현재 일본은 복지, 환경 등의 과제에 대응하고 21세기 사회발전을 위한 도구로 NPO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공’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산관학민플랫폼’인데, 이것은 시민, 행정, 기업, 대

학 등이 연계하여, NPO와 대학을 축으로 다분야, 다양성, 광역성, 총합성이라 는 큰 틀 안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및 무대로서 플랫폼을 형성 하여,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회시스템의 변혁을 꾀하고 있다. 즉, 고령 사회, 마을 만들기 등의 문제에 있어, 행정/기업/시민의 협동 거버넌스의 원칙 하에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NPO를 중간지원 조직의 축으로 하여 보다 넓은 영역과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연계와 고용을 만들어 내는 NPO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에는 일본 수도권에서만 10개 지역, 35개 대학이 연계하여 인재양성 및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NPO에서 일하는 고령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많고, 비교적 고학력으로 사회문화적 활동에도 힘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활비와 같은 외부적인 목적이 아닌,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싶다’, ‘보람이 있다’는 것이 주된 참가 이유로 나타났다. 이들은 금전적인 보상은 적지만 시간에 속박당하지 않고 일자리에 대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NPO가 고령자의 고용과 사회참가를 확대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 및 인턴과정과 같은 서로 알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버인재센터는 일본 특유의 고령자 관련기구로, 고령자가 고용관계와는 다른 형태로 직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의 ‘자주·자립·공동(共働)·공조(共助)’를 목적으로 하며, 고령자의 취업을 통해 사회참가를 유도하여, 고령자에게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경미한’ 취업기회를 알선해 왔다. 실버인재센터가 전국적으로 전개된 것이 1980년부터이며, 3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실버인재센터에서 일하는 고령자들은 대부분, 청소, 잡초 뽑기, 건물이나 시설관리 등이 가장 많고, 이러한 일들은 ‘건강을 위해’ 또는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라는 요구를 가진 고령자들이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실버인재센터는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가 자주독립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호부조

와 공동에 의해 지역에 자기의 경험과 기능, 지식을 환원하여, 고령자가 사회의 기능적 담당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버인재센터는 취업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취업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생활지원이나 가사보조 등의 사업을 하면서,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지역커뮤니티의 재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실버인재센터가 긴 시간 동안 활동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공적인 성격에 기반을 두면서 사업을 전개해 왔기 때문이다.

2. 전통적인 일자리 지원기관 사례: 도쿄일자리재단과 실버인재센터

1) 도쿄일자리재단

공익재단법인 도쿄일자리재단(公益財團法人東京しごと財團)은 도쿄 도민의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도쿄일자리재단의 시작은 1970년대부터 도쿄도 내에 설립된 ‘고령자사업단’(현재 실버인재센터에 해당)이 도쿄 내 각 지역의 고령자를 상대로 한 고용지도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해온 것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1981년부터 도쿄 내 시정촌(지역행정 기초단위)의 실버인재센터의 업무뿐만 아니라, 도쿄 고령자취업상담소와 고령자취업센터를 관리·운영해 오다가 2004년부터 재단법인 도쿄도 심신장애인직능개발센터와 통합하여 지금의 공익재단법인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장애인, 여성, 청소년 층 등 다양한 구직자 층의 취업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도쿄일자리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고령자를 위한 실버인재센터의 사업부터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고령자, 청년층 등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능력개발의 세미나 등을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2016년부터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재확보 및 육성과 고용환경정비의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 중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도쿄 내 실버인재센터의 사업과 도쿄일자리센터를 통한 고용지원 서비스이다. 먼저, 전자와 관련해서 도쿄일자리재단은 ‘도쿄실버인재센터연합’의 지정을 받아 도쿄 내 58개소 실버인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버인재센터 사업과 관련한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회원의 정보를 집약하여 ‘인재정보뱅크’ 시스템을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의 자격과 경험 등 정보를 도쿄 내 실버인재센터연합의 업무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실버인재센터의 취업개척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하여 기업 등이 발주할 때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지·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의 확충, 실버인재센터의 회원을 위한 강습 및 임직원을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쿄일자리재단은 도쿄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쿄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일자리 센터는 도쿄도민의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구직자와 기업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시설이다. 청년층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의 적성과 상황을 바탕으로 한 취업상담, 각종 세미나,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아주 세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쿄일자리센터는 ‘청년(34세 이하)’, ‘미들(30-54세)’, ‘시니어(55세 이상)’로 세대를 분류하여 고용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먼저 미들(30세~54 세)을 대상으로는 민간회사에 의한 직업상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지원 어드バイ저를 배치해 이들에 의한 담당제 직업상담 및 구직 활동 지원 세미나, 성명서, 기술과 경력 설계 등의 업무 능력에 관한 강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자에 맞는 직업 소개, 개별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취직면접 등 종합적이고 세세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들애프터 경력체인지지원’으로, 45세부터 54세까지의 도교일자리센터 이용자 중 지금까지의 경력이 다음 취업에 직접 결합되기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취업 방향을 확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에 이르게하기 위해, 채용 코디네이터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캐리어 구축 세미나와 직종 이해 프로그램의 수강과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고용취업지원 사업으로 공공직업안정소에 시니어 코너를 병설하여 고령자 취업상담 및 재취업지원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챌린지 65’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도교도내 중소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직장체험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업 및 중견 기업에서 근무했던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중소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중소기업 서포트 인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도교도 내 다른 고령자 지원프로그램 (액티브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공공직업안정소와 도교일자리센터의 차이로는 공공직업안정소가 직업소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하기까지의 각 개인에 대한 상담 등 세세하게 보살피는 것 까지는 쉽게 다루지 못하는데 반해, 도교일자리 센터는 자신의 적성과 응모서류 (이력서·직무 경력서)의 작성 등 취업활동의 자세한 흐름을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카운셀러가 개별상담을 통해 필요한 세미나와 그룹 미팅 등을 소개해주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갖추게 해주는 지원을 함으로써 대응하게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도교일자리센터는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카운셀링이나 세미나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 실버인재센터

실버인재센터는 취업·연금 분야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실버인재센터는 1975년 도교도에서 시작된 고령자 취로 지원조직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어 후생노동성의 지원과 1986년에 관련 법령의 제정으로 사단법인으로 법제화되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제공하는 일자는 주로 임시적 단기적 업무이고, 근로시간은 한 달에 10일, 일주일에 20시간을 넘지 않으며, 계약형태는 실버인재센터가 일을 위임받아 고령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버인재센터는 전국적으로 1,314개소가(2015년 현재) 운영 중인데, 가입회원 수 721,000명에 사업계약금이 3,085억 원으로 1인당 연간 43만 엔(한화 470만 원)의 수입을 내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를 통해서 제공되는 일자는 고령자들에게는 일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기간의 가벼운 일자리이다. 실버인재센터는 개인, 회사,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을 의뢰받아 회원들에게 할당한다. 일자의 종류는 [표 4-1]과 같다.

[표 4-27] 실버인재센터에서 수행하는 일의 종류

분야	일의 내용
사무 분야	컴퓨터 입력, 일반사무, 봇글씨, 명함 쓰기, 사무접수 등
일반작업 분야	빌딩 청소, 제초, 상품정리, 포장점검, 포스터 부착 등
서비스 분야	가사 돋기, 육아 서비스, 집 청소, 간단한 시중 등
외교·절중 분야	수도·가스 검침, 전단지 배포, 각종 판매, 수금·배달 등
전문기술 분야	컴퓨터교실 강사, 학습교실 강사, 가정교사, 번역·통역, 경리사무 등
관리 분야	빌딩·아파트 관리, 주차장 관리, 자전거 정리 등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창호지 바르기, 목공, 도장, 정원수 손질, 옷 수선 등

자료: 도쿄도실버인재센터연합. (<http://www.tokyosilver.jp/>) 2016.09.11.

[표 4-28] 실버인재센터에서 수행하는 일의 가격표 일부분

분야	내용	요금	단위	비고
일반 사무	사무실 접수 안내 업무 등	₩900~	1시간 기준	일반사무
컴퓨터 입력	데이터 입력·회계 전표 입력 등	₩1,100~	1시간 기준	컴퓨터 입력
청소 업무	건물·아파트 공유부 등	₩3,000~	1회 기준	청소
주차장 등의 접수·관리	주차장·자전거 보관소 등의 관리·정비	₩1,000~	1시간 기준	주차장 등 관리, 정리
건물 관리	건물·아파트 등의 접수·관리	₩1,000~	1시간 기준	빌딩, 아파트 관리

자료: 도쿄 치요다구 실버인재센터. (<http://www.chiyoda-sc.or.jp>). 2016.09.11.

이러한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버인재센터의 사업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낮은 임금의 문제이다. 당초 이 사업은 회원들의 돈벌이가 아닌 사회공헌과 삶의 보람 차원에서 시작했고, 노동의 대가는 급여가 아닌 ‘분배금’ 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으나 위법은 아닌 상황이다. 또한 작업 중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2012년부터 실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이 보험이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부터 법 개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상한이 40시간이 되면 그에 따른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일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도 과제이다. 수요자는 과연되어오는 고령자가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서 일에 비해 싸지 않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불만이 있고, 공급자는 낮은 급여와 더불어 일자리 날짜의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근본적으로는 농사나 캐어 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고령자를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요구라는 현실과 ‘고령자의 삶의 보람’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운영방식 간의 괴리도 해결해야하는 과제이다.

3. 일자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사례: 고령자협동조합

1) 고령자협동조합(이하 ‘고령자생협’)

고령자생협은 노동자협동조합의 하나의 형태로서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과제를 고령자들이 조합원으로서 수혜자이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참여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한 형태이다. 고령자생협은 ‘거동할 수 있는 한 일한다’, ‘건강한 고령자가 더 건강하게’를 공통의 목표로 일·복지·보람의 3 가지를 활동의 기둥으로 삼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험 제도의 시작을 계기로 노동자협동조합과 함께 지역복지사업소를 만들어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지역 복지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의 연설 대회와 장례연구회, 건강 증진과 취미의 교류 등 고령자 자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노인 동료와 다른 세대와의 교류·연대를 통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전국 고령자의 조직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생협은 지역사회의 거점이 되는 지역복지 사업소를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생협에서 수행하는 4대사업은 아래와 같이 복지, 취업, 삶의 보람·문화 활동, 생활·요양상담이다.

(1) 복지

노인 요양은 가족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의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고령자생협이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민간 사업자와 함께 하는 요양보험 관련 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요양 지원, 방문 간호, 주간 요양 서비스, 그룹 흄, 소규모 다기능 형 재택 요양 복지 용구 판매·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 보험 서비스만으로는 24 시간 365 일 계속 생활을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령자생협은 긴급 속박의 요구에 대응하고 이어지는 요양까지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 복지 사업소 만들기에 임하고 있다. 요양 외에도 택배

급식으로 식사 만들기와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택에 기거하는 노인들의 외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취업

고령자생협은 요양 복지에 관련된 노인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택배 급식과 복지 이송도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최근에는 지자체의 공공 시설을 지정관리자로서 위탁 관리하거나 요양 예방 등의 공공 서비스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은퇴 한 노인이다. 고령자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생협이 일자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활 지원 서비스로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집안 청소나 잔디 깍기, 정원 정리 선정 작업, 홈 리모델링 등

요양 보험 이외의 병원 동행이나 간병, 가족이 할 수 없는 간호 등

민간 사업자의 위탁으로 주차장이나 아파트 관리

지방 자치 단체의 위탁으로 요양 예방 서비스 및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업무 또는 노인 복지 센터 등 운영을 통해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다.

(3) 삶의 보람문화 활동

삶의 보람문화 활동은 다양하다. ‘100세 학원’이나 ‘뇌 살리기 학원’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평생 배우고 계속 동료를 만들어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노인의 다양한 활동을 고령자생협에서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컴퓨터, 댄스, 요리, 합창 코러스, 노래방, 그림 편지, 낚시, 도예, 바둑·장기, 등산, 사적 산책, 걷자 회, 여행 등 개인의 요구에서 시작하고 동료를 초대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에서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카가와 고령자생협의 ‘엘더 캣츠’는 연극을 하는 모임

으로 연 1~2회 극장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도쿄 고령자생협 활동에서 시작된 합창단 ‘프로이데’는 노래 서클로서 매년 12월 공연을 목표로 초봄부터 수업에 전념한다. 또한 리폼 & 패션 활동은 전국의 고령자생협에 확산되었다.

특별한 활동으로 인생의 여행 강좌가 있다. 인간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사실을 수용하게 된다. 이 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남은 삶을 빛내는 일과 관련된다. 사회적으로는 장례 형식이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장례식을 하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도쿄 내에서는 3~4명 중 한 사람이 장례식을 하지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직장(直葬)’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종교에 얹매이지 않고 그 사람만의 장례 형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묘지의 사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납골당과 공동 무덤의 이용이나 바다와 산에 유골을 뿌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자신 만의 작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고령자생협은 엔딩노트를 쓰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배우는 강좌가 고령자생협에 확산되고 있다.

(4) 생활·요양상담

고령자생협에서 운영하는 지역복지사업소에서는 요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 이외에도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안에 관한 상담도 가능하고, 삶의 보람과 경제적 사정으로 일을 하고 싶은 노인에게 일자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은 어디에 물어 보면 좋은 것인지에 답하고 기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요양 상담원·기초 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강좌는 건강을 유지하며 배우고 대중장수사회로 불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좌이다.

2) 오사카고령자생협 사례

오사카고령자생협 팜플렛의 소개문에 따르면 ‘오사카고령자생협은 세대나 장애에 관계없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풍요롭고 활력 있게 사는 마을을 모두의

힘을 모아서 만들고, 모두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 ‘일’ ‘삶의 보람’을 사업의 기둥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생협 범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생협은 조합원 하나하나가 협력하여 복지사업, 삶의 보람 만들기, 일자리 등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안심 지원 사업인 ‘구조대’도 그 사업 중 하나로서 생활의 어려움을 조합원이 서로 돋는 공조 조직이다. 오사카고령자생협은 오사카부내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출자금은 1구좌 1,000엔 이상이다. 출자금은 고령자생협의 활동을 지탱하는 중요한 운영자금이 된다. 조합원에게는 소식지를 년 10회 발송한다.

(1) 주요 사업

오사카고령자생협의 가장 우선적인 사업은 복지 사업이다. 고령자들이 지금 까지 살아온 장소에서 자신다운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지역 만들기와 그것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고용관계, 즉 ‘고용하고 고용된다’ 관계에 구애되지 않고 조합원들이 자립하여 일하는 방식과 조합원의 경영 참가에 의해 일자리를 만드는 ‘워커즈코프(노동자협동조합)’가 기본적인 이념이고 ‘호츠토 스테이션(‘휴~하고 쉬는 정거장’이라는 의미)’이 그 거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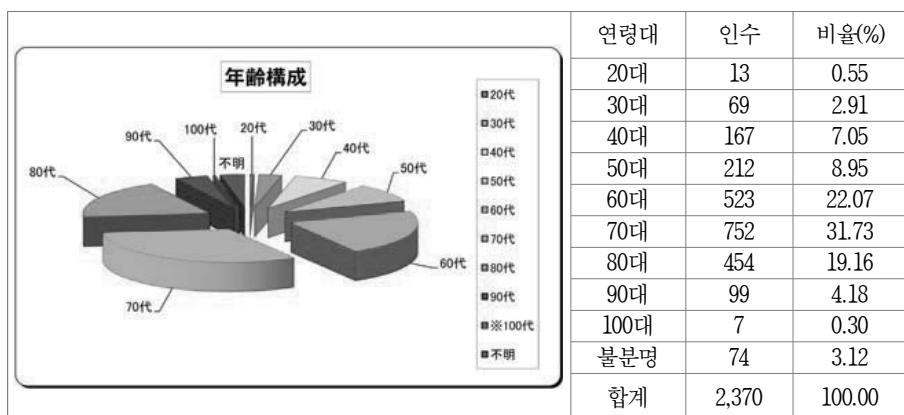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령자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일자리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하게 살기위한 일자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통하여 고령자들이 지원받는 존재로부터 지원하는 존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사카고령자생협은 조합원들에게 ‘지역에는 당신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다.

삶의 보람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다. 새로운 ‘삶의 보람’ 만들기를 목표로 취미와 특기를 살린 자주적 활동을 하고 있다. 조합원 세 명이 모이면 새로운 서클의 등록이 가능하다.

(2) 운영 현황

조합원의 연령 구성을 보면 60대와 70대가 가장 많아서 53.8%이고, 그 다음으로는 80대가 19.16%이므로 이들을 모두 합하면 약 73%를 차지한다. 한편 40대와 50대도 각각 7.05%와 8.95%이다. 100세 이상의 조합원도 7명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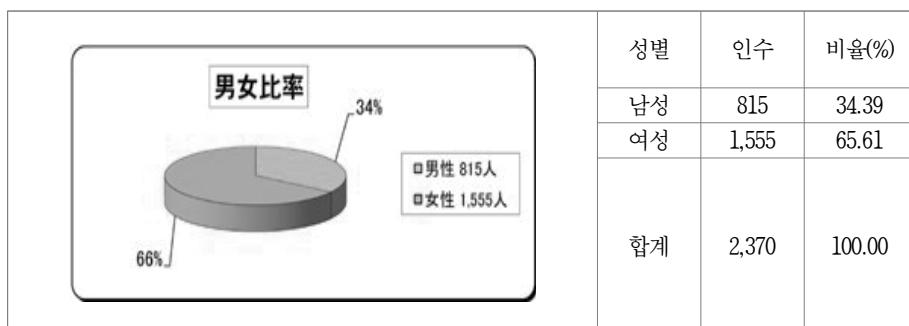
[그림 4-1] 오사카 고령자생협 조합원의 연령 구성



자료: 오사카고령자생활협동조합. (<http://o-kskk.jp/>) 2017.11.08

조합원의 성별구성을 보면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65.61% 대 34.39%로 여성이 두 배 정도로 많다.

[그림 4-2] 오사카 고령자생협 조합원의 남녀비율



자료: 오사카고령자생활협동조합. (<http://o-kskk.jp/>). 2017.11.08

조합원의 성격을 구분해보면 일반조합원이 가장 많아서 58.65%이고 다음으로 이용자 조합원이 24.81%, 노동자 조합원이 16.54%이다. 그러나 출자금 비율로는 노동자 조합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83.82%에 이른다. 즉 노동자 조합원이 인원수에 있어서는 소수이나 실질적으로는 참여와 이용에 있어서는 가장 활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3] 오사카 고령자생협 조합원의 종별 구성



자료: 오사카고령자생활협동조합. (<http://o-kskk.jp/>). 2017.11.08

4. 노인교육기관: 고령자대학과 오사카고령자대학

1) 일본의 고령자교육

일본의 고령자교육은 1965~1970년에 문부성이 전국의 시정촌에 대하여 고령자 학급의 개설 보조를 시작하고 1973년에는 고령자 교실의 보조를 시행한 데서 시작됐다. 1971년에는 정부의 사회교육심의회 답신에서 고령자의 학습 지원을 사회교육의 기둥으로 한다고 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나미노학원(효고현 카코가와시; 1969년 개설)등의 선구적인 고령자 대학이 개설되지만 아직 그것들은 일부 지역에서의 사업이었다. 1981년의 중앙교육심의

회 답신에서는 국가의 생애교육과 생애학습의 방향이 제시되고 그 가운데 고령자의 학습과 사회참여의 화충 방안이 제기된다.

1989년에는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장수학원개설보조가 시작되어 전국에 20여개소에 장수학원이 개설된다. 그곳에서는 권역 내 시정촌의 고령자 교육의 기회를 조정하는 형태로 실천이 진행되어 갔다. 그러나 1990년대의 행·재정개혁과 장기불황에 의해 이 사업의 수는 크게 줄고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대규모 고령자교육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1세기에 이르러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고령자대학 등 대규모 고령자교육의 기회 제공은 종종 관련 재단, 지정 관리자, NPO 등에 위탁되고 있다.

2) 일본의 고령자대학

일본의 고령자대학으로는 효고현 이나미노학원이 유명하다. 그 운영 모체는 초기에는 효고현 고령자 삶의 보람 창조 협회라고 불렸지만 2009년도부터 효고현 삶의 보람 창조 협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또한 시니어 칼리지나 생애교육 센터 등을 총괄하는, 더 큰 운영 단체가 되었다. 이나미노학원은 4년제의 고령자 대학으로 원예·건강·문화·도예 등의 코스와 대학원 및 고령자 방송대학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의 대표적인 것은 밝은 장수사회추진기구 계열의 고령자대학이다. 이 조직은 후생노동성의 골드 플랜에 따라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개설되고, 그 대부분이 대규모인 고령자대학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은 앞의 효고현 삶의 보람 창조 협회도 현재는 이 추진 기구의 일부이다.

복지행정 계열의 고령자 교육의 장(場)의 사례로서 유명한 것은 오오사카부 고령자대학이다. 이곳은 1979년부터 오오사카 부(大阪府) 건강복지부의 고령자 건강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005년에는 1,500명 이상의 수강자가 부내(府內) 3개소에서 학습 활동을 해 왔다. 이 고령자대학의 운영에

서 중요한 점은 추첨에 의한 1회 한도의 수강이기 때문에 강좌 중 인간관계의 재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강좌의 스태프는 클럽 활동이나 클래스 행사, 그리고 동창회 활동 등을 통해 인간관계 재구축의 구조를 만들어 왔다. 동창회 활동에서는 수료 후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 활동에 참가하는 층과 수료 후 계속하여 교류 활동을 한 후에 지역 활동으로 향하는 층으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은 수료 후의 교류 활동이나 클럽 활동만이 활발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이 고령자대학은 오오사카 부의 재정상의 이유로 2009년 3월에 활동정지 되었다가, 동창회 활동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고령자대학 운영 주체인 NPO를 만들어 2009년에 오사카부고령자대학을 재개교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고령자 대학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대학에도 많은 고령자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대학은 시정촌의 사회교육행정 또는 공민관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종래에는 강연을 중심으로 하는 강좌 위주였으나, 점차 수강자가 지역의 실정을 조사하여 그것을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를 만드는 일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3) 오사카고령자대학교

NPO법인 오사카부고령자대학교는 앞서 언급한 오사카부고령자대학의 활동 정지에 직면하여 이 고령자대학의 동창회 활동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NPO를 만들어 행정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고령자대학을 운영하여 2009년 4월에 개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기 있는 강좌(역사 등)는 증설하고 인기 없는 강좌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방식이 변화하였다. 수강자격으로는 오사카부 밖에 살거나 60세 이하여도 수강이 가능하고 기존 수강자의 재수강도 가능하다. 현재는 고령자 스스로가 운영하는 2,500명이 넘는 규모의 고령자대학이 되었다.

(1) 운영방침

오사카고령자대학의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오사카고령자대학(이하 ‘고대’)는 민간에서 시작한 자원 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평생 학습 기관입니다. 따라서 고대에 직원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수강생의 수강료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2. 2017년 9월 14일자로 오사카 시장으로부터 ‘인정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인정 NPO 법인)로 인정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로부터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더욱 노력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학습 기관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3. 고대는 ① 학습 ② 동료 만들기 ③ 건강 만들기를 3개의 기둥으로 하고 거기에 더하여 사회에 보답하는 것을 행동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에 보급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고대는 내년 재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을 초대하여 축하를 하고 스포츠 교류회, 고대축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 할 예정입니다. 사전 행사로 LIFE WITH MUSIC IN ATC 행사를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5. 인정 NPO 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 모금 활동이 중요합니다. 기부금은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이사가 중심이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간사이(關西)시니어대학교 교류회, 도쿄, 중부와의 교류를 통해 널리 ‘고대의 방식’을 확대 보급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임무는 많고, 고령자대학 그룹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7. 선구적인 교과과정의 개발, 강사진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토대를 단단히 하면서 구민·부민칼리지를 지원하고 모집위원회·BSC·홍보·사업·정보관리·동창회 등 각 조직이 자기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오사카고령자대학교. (<https://osaka-koudai.or.jp/>). 2017.11.08.

(2) 수업 운영

수업의 운영은 오사카고령자대학의 2명의 클라스디렉터(CD)가 주도하고 클라스 위원장이나 반장, 그 클라스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오전 중에는 강의가 있고, 오후에는 클라스 미팅이 있다. 클라스 위원장이나 반장은 첫 수업의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하고 소풍, 스포츠 교류회, 고대축제, 수학여행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기획·실행한다.

오후의 클래스 미팅에서는 오전 중 수업의 감상이나 의견을 확인하고 클래스 내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생생한 의견을 듣고 좋은 클래스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다른 문화센터에는 없는 고대의 독특한 것이다. 오후 3시30분 이후에는 자유롭게 참가하는 그룹활동이 있다. 수강생 10인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그룹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2017년에는 1학기 말 기준으로 30개의 그룹이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수강료와 수강자격 등

2017년 현재 1년 간 수강료는 52,000엔이고 교재비, 교외학습비, 실습재료비 등은 별도이다. 강좌는 4월에 개강하여 다음 년도 3월까지 1년간이고 하계휴가 및 연말연시 휴가기간에는 휴강하여 학습일수는 연간 42일이다. 실버어드바이저 양성과정과 실천연구부의 오후 시간은 연습이나 공동학습 시간으로 운영된다. 강좌 개최 장소는 오사카시교육회관 별관이고 전공과목에 따라서는 강좌의 장소가 오사카부사회복지회관 교실 등 세 곳에서 운영된다.

수강자격에는 거주지와 연령 등에 있어서 거의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다. 다만 수강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도일과목을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수강할 수 없고, 실천연구부를 수강하려면 몇 가지 선행 강좌를 수강한 자격이 확인되어야 한다.

〈수강자격 안내문〉

- ① 2018년 4월 ~ 2019년 3월까지의 전 기간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수강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강 시 자신의 몸 상태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② 거주지와 연령은 묻지 않습니다.
- ③ 원칙적으로 본과는 동일 과목을 다음 해에 계속 수강할 수 없습니다(과목명 변경 과목은 계속 수강 가능). 단, 실천연구부 및 실버어드바이저 (SA) 양성 강좌는 계속 수강 가능합니다.
- ④ 실천연구부는 원칙적으로 오사카부고령자대학교, 오사카부 노인대학, 오사카부 SA 양성 강좌, 오사카부 액티브 시니어 강좌, 오사카 구민 대학, 오사카 부민 대학을 수료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⑤ SA 양성 강좌는 사회 활동에 의욕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 ⑥ IT·컴퓨터 초급·전공과(Office·Web·그래픽의 각 코스) 수강 희망자는 간단한 자체 테스트를 치러야 합니다.

자료: 오사카고령자대학교. (<https://osaka-koudai.or.jp/>). 201711.08.

오사카 고령자대학교의 프로그램은 요일에 따라 과목이 배분되어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본과 수업은 주로 오전에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미팅, 실천과 자주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32~5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수업은 월 3~4회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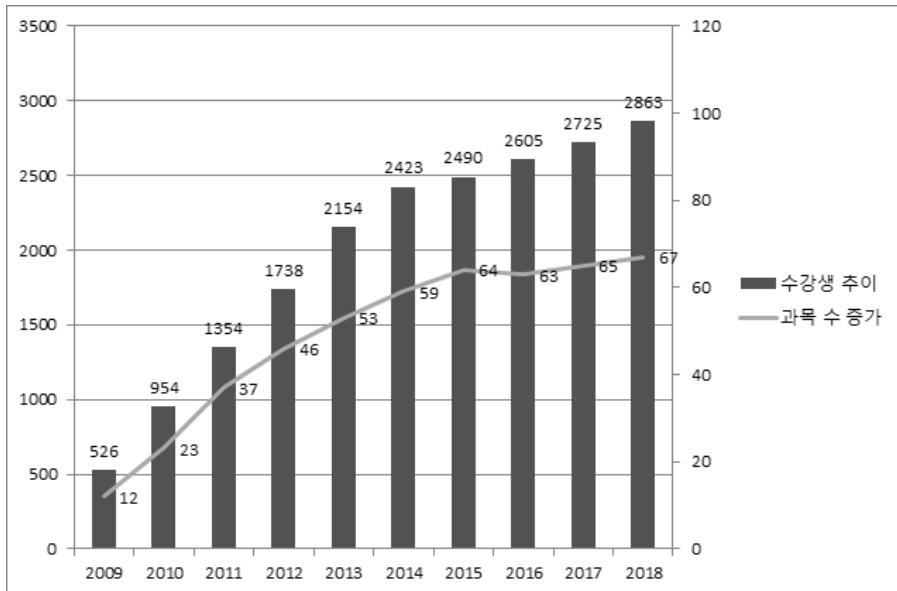
[표 4-29] 오사카 고령자대학교 프로그램

요일	과목명	일일 시간표	모집인원 등
월요일	역사에 이름을 빛낸 선배들의 삶을 배우는 과목, 기초영어회화, 고전음악을 즐기는 과목 등 15 과목	등교 09:30	
화요일	기초영어회화, 처음으로 한글을 즐기는 과목, 기초에서부터 배우는 미술 등 14 과목	수업 10:00~12:00 본과 클래스 13:00~15:00	과목에 따라 32명 ~ 50명
수요일	역사학 중세과, 역사학 근세과, 현대 사회를 생각하는 과목, 오사카 사적 탐방 등 12 과목	미팅 실천과 자주활동 15:00~15:30	월 3~4회 수업 입학식 4월10일
목요일	일본의 기원과 문화를 배우는 과목, 세계사로부터 배우는 과목, 카메라 예술과목 등 13 과목	휴식	수료식 3월18일
금요일	역사학 근현대과, 일본의 수도 탐방과목, 건강 장수를 즐기며 배우는 과목, 양조(釀造)를 즐기며 배우는 과목 등 13과목	클래스 활동(선택) 15:30~17:00	

자료: 오사카고령자대학교. (<https://osaka-koudai.or.jp/>). 201711.08.

2009년 재개교 이후 수강생과 과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 일본에는 고령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사카고령자대학의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령자 중에서도 경제적인 여유와 학력이 있는 고령자 층이 증가하게 되면서 비용이 들더라고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 수강생 수, 과목 수 변화 추이(모집요강)



자료: 오사카고령자대학교. (<https://osaka-koudai.or.jp/>). 2017.11.08.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1. 장년 및 노년 세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50+정책 범위 확대

미국의 50+ 지원 정책에는 장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령자 정책이 그 대상으로 장년층의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으며, 장년층의 욕구까지 충족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50+ 지원 정책도 ‘적극적 고령화(Active Ageing)’라는 방향의 전반적인 고령자 정책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본의 50+ 정책 및 사업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작성하는 고령사회 대책의 중장기에 걸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침인 ‘고령사회대책대장’에

따른 종합적인 고령자 대책의 차원에서 50+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50+ 세대는 은퇴로의 이행기 세대이고 노인(또는 은퇴자) 세대 또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양 세대 간의 구별과 경계가 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양 세대를 아우르는 큰 그림의 정책 속에서 50+ 세대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노년기를 포함한 성인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50+ 세대를 위한 정책을 배치해야하고, 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체제를 제안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50+ 재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민관산학 협력의 거버넌스 활성화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인 Perspective 50+는 산학연 3자 협력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전략을 담당하는 전략이사회는 연방차원에서 운영하고 지역별 고용 거버넌스가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고용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는 자치단체, 학교, 기업, 노조, 정당, 교회,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이다.

영국도 독일과 유사하게 지역 교육기관(지역대학, 시민대학)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장년층의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민간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장년층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Ageing Well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0부터 2012년까지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영국 전역의 100여개 지역이 참여했다.

일본의 도쿄일자리재단은 공익재단법인으로서 도쿄일자리대단과 실버인재센터를 운영하여 고령자의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카운슬링이나 세미나를 체계

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도쿄일자리재단은 ‘도쿄실버인재센터연합’의 지정을 받아 도쿄 내 58개소 실버인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도쿄도로부터 도쿄일자리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50+ 정책도 공공과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협력을 통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특히,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의 개별기업, 상공인 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서울시의 해당 부서 간 연계와 협력이 선결 요건이다.

3.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

일본의 고령자협동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에 서비스를 주고받는 노동자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 고령화와 지역의 과제를 당사자가 협동조합의 수혜자이자 노동자로 참여하는 모델이다. 고령자협동조합은 지역복지사업소를 만들어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행정의 역할이란 고령자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노동자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의 고령자협동조합의 사례에서는 지자체가 요양 예방 서비스 및 지역 포괄 센터의 업무 또는 노인복지센터의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고령자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NESTA가 운영하는 Shared Lives Plus는 가정과 가족생활을 공유하는 혁신적인 형태의 사회 복지 방식으로 공동생활 보호자(Shared Lives Careers)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성인이 함께 생활하며 장기적인 유대를 창출하고, 개인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을 장려하여 공적인 비용을 사용하는 국민 건강 관리 서비스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Shared Lives Plus 프로그램은 모든 선진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노인 요양의 문제를 지자체의 경비지원과 자원봉사를 결합하여 해결방안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훈련되고 인정된 공동 생활 보호자(Shared Lives Careers)를 개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하여 가정과 가족생활을 공유하는 혁신적인 형태의 사회복지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협동조합에서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와 노동자 간 관계는 영국의 Shared Lives의 공동생활 보호자와 ‘도움이 필요한 성인’ 간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고령자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더욱 진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직접지원 받기 보다는 업무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활동을 지자체가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부문에 대한 지원의 맥락에서 지역의 노인복지, 아동 교육, 중고교생 활동에 대한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행정 수요를 감축하고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원이 요구된다.

4. 주민의 자율적 학습 활동 모델 지원

영국의 U3A는 프랑스의 U3A 모델, 즉 교수자 확보 등 운영에 있어서는 대학에 의존하고 재정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노인교육 모델과는 달리 학습자 스스로 운영하고, 회비와 모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며, 강당은 주중의 교회와 같은 지역사회의 유휴 시설을 활용하고, 교수자까지도 학습자 중에서 자원한 자 중 선발하여 운영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영국의 U3A는 학구적인 경향이 강한 프랑스의 U3A에 비하여 학습자의 관심과 지역의 관심에 맞는 교육과정을 학습자들이 참여하여 개발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중년층에게도 가입을 개방하여 세대간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오사카고령자대학교는 학습자와 동문회가 자율적으로 NPO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즉 일본의 노인교육기관과 고령자대학은 전통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나, 오사카부의 예외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학습자와 동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과목의 선택에 있어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고령자대학으로는 포괄하지 못했던 고학력 중산층의 노인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영국의 U3A와 마찬가지로 중년층에도 가입자격을 개방하여 수강생의 나이 조건이 없고 중년층에게도 가입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사카고령자대학은 지자체의 지원 중단으로 불가피하게 동문회의 지원과 학습자가 지불하는 고가의 수강료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노인교육의 저변 확대와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지자체가 노인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자율적인 노인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야한다. 특히 현재의 복지관과 같은 노인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이고 반복적인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학력의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 다양한 평생교육의 요구를 갖고 있지만 이를 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혜로운 학교’와 같은 모델을 주민 스스로 설립 운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은퇴 전문가와 50+ 창업자의 매칭 지원

독일의 Gründer 50+는 중장년이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와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인구 증가와 이에 동반하는 사회

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운영하는 재단이다. 이 재단의 프로그램은 50+ 세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 그룹이 자신들의 기업 활동 등 경력에 기반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컨설팅 분야는 창업 컨설팅, 아이디어 개발, 코칭, 부족한 재원 확보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의 SCORE는 기업가와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중소기업청(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지원과 10,000여명의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비즈니스 멘토링과 무료 워크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CORE의 비즈니스 멘토는 비즈니스 계획, 시작, 관리, 성장의 모든 방면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조언을 제공한다. 멘토들은 오늘날 많은 창업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도전과 결단을 경험한 퇴직 또는 현직 기업가, 기업 임원 및 관리자들이다.

영국의 자원봉사 단체인 Reach는 일반 자원자원봉사자와 달리 전문성을 보유한 퇴직자와 현직종사자 참여하고 있다. Reach는 영국 전역에 걸친 10,000여 개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고 약 6,000여명의 숙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Reach의 주요 활동으로는 금융, 관리, IT, 전략, 홍보 및 마케팅 분야 퇴직자를 그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공익단체와 연결하거나 연계 및 매칭해주고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의 전문화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중요하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숙련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자원봉사자들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50+ 세대 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매칭하는 사업을 50+ 재단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 포천시 총무국. (2016). 〈포천시 인생 이모작 학교 운영 계획(안)〉.
- 경기도. (2016). 2017년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계획.
- 고용노동부. (2013). 〈OECD국가의 장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사례연구〉.
- 고용노동부. (2015). 〈장년 적합 직무 운영 안내서〉.
- 고용노동부. (2016).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전략연구〉.
- 고용노동부. (2016). 2017 직접일자리사업 통합 공고(2016.12.30).
- 고용노동부. (2017). 2017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1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 관계부처 합동. (2012).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2013~2017)〉.
- 관계부처 합동. (2014). ‘장년고용 종합대책’ 발표 (2014.9.24.).
- 관계부처 합동. (2016). ‘2017 일자리사업 개편 주요내용’ (2016.8.31.).
- 관계부처 합동. (2016). ‘장년고용서비스강화방안’ (2016.10.19.).
- 관계부처 합동. (2016). 2017 일자리사업 개편 주요내용(2016.8.31.).
- 관계부처 합동. (2017).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17).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지시설지원단. (2017).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신설〉.
- 교육부. (2013).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 계획〉.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2).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 사업’ 발표 (2012.5.14.).
- 김수원·한애라·이소정. (2012).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공헌일자리 활용 활성화 방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201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과. (2017). 〈인생이모작지원사업 운영 계획〉.
- 대구시. (2017). 〈2017년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계획〉.
- 대전광역시. (2017).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역서〉 (2017.7.3.).

- 대한민국 정부. (2010). 〈새로마지플랜 2015: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 대한민국 정부. (2015). 〈브릿지플랜 2020: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대한민국 정부. (2015).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
- 머니앤팔류. (2010). 〈Money Week〉. 2010년 2월. 제115호.
- 보건복지부. (2009). 〈새로마지플랜 2010: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 보건복지부. (2014).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2017). 〈2017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
- 부산광역시 다복동추진단. (2017).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 설명자료〉.
- 부산광역시. (2016). 〈베이비부머 생애재설계 지원 종합계획〉.
- 부천시 노인장애인과. (2015).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 (2015.5.20.).
- 서울시 50+재단. (2016). 〈50+정책 동향리포트〉. 01호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2011~2015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5년 성과 및 향후 과제〉.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중부캠퍼스. (2017). 〈2017년 2학기 교육과정 안내 프로그램 북〉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 〈서울50+ 국제포럼2017〉 자료집.
-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단 (2015). 〈새로운 인생비전을 창조합니다.
– 50+국내·외 사례연구〉.
- 서울특별시. (2012). 〈서울시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14).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14). 〈민선6기(2014~2018)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서울특별시. (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 서울특별시. (2014).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 서울특별시. (2014).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서울특별시. (2015). 〈2015 주요 업무계획〉.
- 서울특별시. (2015). 〈2030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 서울특별시. (2016). 〈2016 주요 업무계획〉.
- 서울특별시. (2017). 〈2017 주요 업무계획〉.
-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계획 평가〉.
-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2015). 〈제2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안(2016~2020)〉.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2017). 〈50+해외동향리포트2017〉.
- 서울특별시의회. (2016). 〈서울시 50+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적 평가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 방안 연구〉.
- 손유미·김찬훈. (2010).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 수원시. (2016). 〈시니어는 짐이 아니라 힘〉. 수원인문도시 대축제 평생학습포럼 자료집.
- 신미식. (2005). “U3A(University of the Third Age)가 한국 노인교육에 주는 시사점”. 〈평생교육학연구〉. 11(3): 127-149.
- 일본 내각부. (2012). 〈고령사회대책대강〉
- 일본 내각부. (2017). 〈평생29년판고령사회백서〉
- 임지훈. (2017). “일본의 서비스 로봇 시장 육성 전략 및 산업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2015).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노후 복지를 위한 종합대책수립〉.
- 전라북도. ‘2017년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2017.1.1.시행.
- 정부부처 합동.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 계획(2016~2020)’.
- 정부부처 합동. ‘제1차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기본계획(2017~2019)’.
- 조선주정가원·김난주·손정민. (2013). 〈OECD국가의 장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중소기업청. (2017). 〈2017년도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계획〉.
- 중소기업청. (2017). 〈2017년도 창업지원사업〉.
- 중앙경제. (2015). 〈HR Insight〉. 2015년 7월. 제722호.
- 창업진흥원. (2016). 〈201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 충청남도. (2017).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포스코 경영연구원. (2017). “지능형 로봇활용, 어디까지 왔나?”. 〈POSRI 이슈리포트〉.

2017. 5. 11.

- 한국노동연구원. (2014). 〈한국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 행정안전부. (2016). 〈2017년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2016.12.31.기준)〉.
- 행정안전부. (2017). 〈2017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 허문구·이상립·정윤선·김은정·이소영·박형진. (2014). 〈지역의 인구경쟁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Laslett, P. (1989).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wab, K.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역). 서울: 새로운 현재.

■ 홈페이지

- 경기평생학습포털 길(<http://gil.gg.go.kr/>)
- 고용노동부(<http://www.molit.go.kr/>)
- 고용노동부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molab_suda/221069639161)
- 고용복지플러스센터(<http://www.workplus.go.kr/>)
- 교육부(<http://www.moe.go.kr/>)
- 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http://kess.kedi.re.kr/>)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
-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 국민연금공단 지사 (노후준비지원센터)
(http://www.nps.or.kr/js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 국민연금노후준비서비스-내연금(<http://csa.nps.or.kr/main.do>)
-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

노사발전재단(<https://www.nosa.or.kr/>)
노사발전재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https://www.nosa.or.kr/portal/nosa/majorBiz/senJob>)
노인인력개발원일자리성장지원센터(<http://kordi.go.kr/growup/main.do#>)
노후행복설계센터(<http://www.100-plan.or.kr/>)
대전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http://daejeon.damoa.dile.or.kr>)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http://www.daejeonsenior.or.kr>)
대한상공회의소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https://4060job.korchaamhrd.net/>)
대한은퇴자협회(<http://www.karpkr.org/>)
도쿄 치요다구 실버인재센터(<http://www.chiyoda-sc.or.jp>)
도쿄도실버인재센터연합(<http://www.tokyosilver.jp/>)
도쿄일자리재단(<http://www.shigotozaidan.or.jp/>)
리서치앤드컨설팅(<http://www.krnc.co.kr>)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http://www.rikkyo.ac.jp/academics/lifelong/secondstage/>)
뮌헨시민대학(<https://www.mvhs.de/>)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부산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http://ble.or.kr>)
부산사회적경제홈페이지(<http://www.bse.or.kr/main/main.php>)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http://www.gr1960.com/>)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정보-기관통계(www.ble.or.kr)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http://twohappylife.bucheon.go.kr>)
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http://edu.ssis.or.kr>)
사회연대은행(<http://www.bss.or.kr>)
상상우리(<http://www.sangsangwoori.com/>)

-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gbjahwal.or.kr)
- 서울사회적경제포털(sehub.net)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seoul.kr/kr/sbst00h2>)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 서울시50+재단(<http://50plus.or.kr/>)
- 서울시50+포털(<http://50plus.seoul.go.kr>)
-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http://lib.sen.go.kr/>)
-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http://everlearning.sen.go.kr>)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http://www.saswc.org/>)
- 서울시어르신훈련센터(<http://www.goldenjob.or.kr/>)
- 서울시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15445077.net)
- 서울창업허브(<http://seoulstartuphub.com/>)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http://newstart.sen.go.kr>)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http://smile.seoul.kr/서울-평생교육-통계-2016>)
- 서울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http://le.or.kr/main.do>)
-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sup/main.do>)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ias.or.kr)
- 신나는조합(<http://joyfulunion.or.kr/>)
- 아름다운서당(<http://www.beautifulseodang.org/>)
- 여성새로일하기센터(<https://saeil.mogef.go.kr>)
- 여성인력개발센터-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http://www.vocation.or.kr>)
- 영국 정부(<https://www.gov.uk/>)
- 오사카 노인취업촉진센터
(http://www.pref.osaka.lg.jp/koyotaisaku/senior_center/index.html)

오사카고령자대학교(<https://osaka-koudai.or.jp/>)
오사카고령자생활협동조합(<http://o-kskk.jp/>)
울산광역시 내일설계지원센터(<http://www.usnoinjob.org/main.html>)
울산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http://www.uill.or.kr>)
워크넷(www.work.go.kr)
유한킴벌리(www.yuhan-kimberly.co.kr/Society/Senior)
이니셔티브 50+ 연맹(<http://www.bundesverband-initiative-50plus.de/>)
인지어스(<http://www.ingeus.kr>)
인천 남구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tong_namgu/220996958220)
전국경제인연합회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http://www.fki-rejob.or.kr/html/main/index.aspx>)
제이엠커리어(<http://jmcareer.co.kr>)
제주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http://damoa.jeju.kr>)
제주도(<https://www.jeju.go.kr/news/jeunews/card/card.htm?act=view&seq=1037737>)
중소기업청,중소기업통계-신설법인동향(<http://www.smba.go.kr>)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창업진흥원(<http://www.kised.or.kr/>)
충남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http://damoa.chungnam.net>)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KOSIS(<http://kosis.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0세누리시니어사회활동포털(www.100senuri.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https://www.saenuri.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https://kordi.go.kr>)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http://www.kaswcs.or.kr>)
한국무역협회일자리지원센터(<http://www.jobtogether.net>)
한국사회복지관협회(<http://kaswc.or.kr/>)

- 한국시니어클럽협회(<http://www.silverpower.or.kr/>)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http://www.kfvc.or.kr/contents/main/>)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http://www.jahwal.or.kr/>)
- 한국평생설계지원협회(life-design.or.kr)
-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경력단절여성 및 베이비부머과정 입학 안내
(<http://www.kopo.ac.kr/content.do?menu=8420>)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http://www.kmooc.kr>)
- 함께일하는재단(<http://hamkke.org/job>)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 희망제작소(<http://www.makehope.org/>)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 AARP(<https://www.aarp.org/>)
- Age UK (<https://www.ageuk.org.uk/>)
- CJ 푸드빌(www.cjfoodville.co.kr)
- Eastside Primetimers (<https://ep-uk.org>)
- Encore.org 홈페이지(<https://encore.org/encoreu/about/>)
- Grunder50+(<http://www.gruender50plus.de/>)
- KDB시니어브리지(<http://www.seniorbridge.or.kr>)
- K-스타트업(창업넷)-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http://www.k-startup.go.kr/main.do>)
- NESTA (<https://www.nesta.org.uk>)
- NPO 법인 심포니 홈페이지 (<http://npos.cc/>)
- REACH 홈페이지 (<https://reachvolunteering.org.uk>)
- SCORE (<https://www.score.org/>)
- Shaw Trust (<https://www.shaw-trust.org.uk>)

SK 서울캠퍼스(<http://sktincubator.com/center/bravorestart/>)

South Manchester U3A (<https://u3asites.org.uk/south-manchester/home>)

U3A (<https://www.u3a.org.uk>)

서울시50플러스 2017-028

국내·외 정부 및民間의 50+정책·사업 실태연구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이경희
편집인 양안나
연구자 강소랑 정혜운 송창용 최일선 유선치 임승연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代)
ISBN 979-11-963036-1-7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www.50plus.or.kr

